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김윤영(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정소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이정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박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화 되어감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러 이주배경 집단 중 가장 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결핍과 문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결과를 산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비(非)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으며 왕따의 대상이고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집단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문제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집단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부터 저소득층까지 다양하고, 부모의 출신국도 다양하며, 부모의 가정환경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삶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단순히 ‘다문화’ 라고 하는 범주로 묶어서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고정관념화 하고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수년간의 자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가정 자녀와의 비교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성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족 및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네 가지 영역의 세부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양적 패널종단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양적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층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조사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다문화담당 시·도공무원 및 장학사,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조사, FGI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법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지니는 문제들이 모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가 ‘다문화’ 라는 집단의 특성이 아닌, ‘계층’ 의 문제임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다문화가족’ 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지원들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불편함과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다문화’ 에 대한 분리가 아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다문화가족, 패널종단연구, 고정관념, 사회통합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다음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자료 수집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2차년도 종단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011년도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2차년도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이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2011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1년간의 발달변화 분석
- 패널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를 설계 및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의 기틀 마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분석 및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교사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효율적이고 요구에 적합한 정책대안 도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항선정의 근거 파악 및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된 최신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함.

○ 전문가 자문

2012년도의 신규문항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 현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최종 도출된 정책대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학계,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양적조사(패널설문조사)

2011년도에 구축된 패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1,632쌍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교사 총 300명을 대상으로 CAPI를 활용하여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적조사(심층면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을 분석하고,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교교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어머니 등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요구부합성 등에 대하여 FGI와 개방형 설문을 실시함.

○ 콜로키움

객관적인 정책분석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등의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함.

○ 정책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업무 담당자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의 국내 다문화 지원 정책 방향을 도출함.

3. 주요결과

○ 패널종단연구: 양적조사

- 다문화패널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고,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도가 자녀의 발달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외국출신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 영역, 문화적응 영역에서의 발달은 대체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가정의 소득수준별,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발달 수준 간 차이가 나타남.

○ 패널종단연구: 질적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아닌 부모나라 말을 이중언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
-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함.

○ 정책요구분석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모두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반면, 공무원들과 현장전문가, 교사 등 관계자들은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는 경향이 높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지원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며, 유사사업의 중복공급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정책 집행부의 일원화가 요구됨. 현 지원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문제가 있긴 하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함.

○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정책 분석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구체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방향 및 지원 내용 모색 및 전달체계 확립 등 법령의 구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 추진체계별 조율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해 정책사업의 지속성여부 판단 및 지원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4. 정책제언

○ 분리가 아닌 통합

- 다문화에 대한 구분 짓기로 인한 불필요한 정체성 혼란 야기를 방지, 사회통합 저해 및 역차별 논란 감소를 위해 일반청소년들과의 통합 속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방식 전환 필요.

○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 정책예산 및 사업 중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지원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 재정비 및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통한 정책수립방식, 전달체계, 지원정책의 내용 재구조화 필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배경과 의의 ...	3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5
3) 2012년도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6
2. 연구내용	7
1) 2010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7
2) 2011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8
3) 2012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9
3. 연구방법	13
1) 문헌연구	13
2) 전문가 자문	14
3) 양적조사(패널설문조사)	14
4) 질적조사(심층면접)	14
5) 콜로키움	15
6) 정책협의회	15
7) 연구성과 발표회	16
II. 패널조사방법	17
1. 패널 설계 및 구축	19
1) 본 연구의 조사설계	19
2) 2012년도 2차 조사의 설계	24
2. 실사준비	27
1) 설문지 개발	27

2) 조사준비	36
3) 조사원 선발	43
4) 조사원 교육	45
3. 실사진행	47
1) 실사원칙	47
2) 실사절차	47
3) 조사추진일정	48
4. 패널관리	49
1) 패널관리의 원칙	50
2) 1차년도 본조사 이후 패널관리방법	50
3) 2차년도 실사 과정에서의 패널관리 방안	54
5. 패널유지 현황	60
1) 패널유지율	60
2) 이탈 패널 분석	61
6. 향후 패널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70
1) 패널가구의 관리	70
2) 조사원관리	72
Ⅲ. 패널종단연구결과 I : 설문연구	75
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77
1) 조사대상자의 구성	77
2) 조사대상 아동의 배경 특성	78
3) 가정환경의 배경특성	88
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분석	96
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배경변인 비교	96
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	99

3)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비교	102
4)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비교	108
3.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111
1) 가정의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111
2)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 및 관여수준에 따른 차이	131
3)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	147
4)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	148
4. 거주지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182
5. 1,2차년도 비교분석	190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90
2)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 1, 2차년도 비교	194
3)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 1, 2차년도 비교	213
4) 가정의 소득수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 1, 2차년도 비교	229
5)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244
IV. 패널종단연구결과II : 질적조사	259
1. 질적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61
2. 질적조사의 방법	262
1) 질적조사의 대상자	262
2) 질적조사 수행절차	265
3. 질적조사의 내용	267

4. 질적조사의 결과	268
1) 한국인 정체성	269
2) 이중정체성	271
3) 이중언어의 부담감	275
4) 다문화 기준의 불분명	278
5)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고마움	279
6) 다문화가족 지원의 당연함	280
7) 구별짓기에 대한 불편함	282
8) 지원프로그램의 부적합성	286
9)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290
5. 소결	291
V.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분석	293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95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296
1) FGI(Focus Group Interview)	297
2) 개방형 설문조사	299
3) 구조화된 설문조사	300
3. 요구분석의 결과	301
1) FGI결과	301
2)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309
3) 구조화된 설문조사 결과	323
4. 소결	342

VI.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법 및 정책 분석	345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347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47
2) 다문화가족지원법	349
3) 청소년복지지원법	352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352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358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358
2) 중앙행정기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370
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381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387
3. 소결	393
VII. 결론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397
1. 연구결과 요약	399
1) 패널 설문조사 연구결과	399
2) 질적조사 연구결과	400
3) 요구조사 연구결과	401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정책분석 결과	402
5) 본 연구의 의의	402
2. 정책제언	403
1) 다문화가족 청소년 정책의 기본전제와 방향	403
2) 다문화가족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407
참고문헌	419
부 록	427

표 목 차

〈표 II-1〉 전국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수와 지역별 구성 비(2011년 기준)	21
〈표 II-2〉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	22
〈표 II-3〉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청소년	31
〈표 II-4〉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학부모	33
〈표 II-5〉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교사	35
〈표 II-6〉 외국인 어머니 설문지 언어별 사용 비율	37
〈표 II-7〉 외국인 어머니 출신국가별 설문지 사용 언어	38
〈표 II-8〉 조사원 간담회 내용 및 2012년도 연구 반영사항	39
〈표 II-9〉 2012년도 조사원 교육일정	46
〈표 II-10〉 조사원 교육 내용	46
〈표 II-11〉 1차년도 전화관리조사 결과	53
〈표 II-12〉 홈페이지의 메뉴와 내용	55
〈표 II-13〉 2차년도 패널 이탈 사유	61
〈표 II-14〉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62
〈표 II-15〉 지역별 탈락사유	63
〈표 II-16〉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	64
〈표 II-17〉 어머니 출신국가별 탈락사유	65
〈표 II-18〉 소득분위별 패널 이탈 현황	66
〈표 II-19〉 소득분위별 탈락사유	66
〈표 II-20〉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	67
〈표 II-21〉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탈락사유	67
〈표 II-22〉 어머니 교육수준별 패널 이탈 현황	68
〈표 II-23〉 어머니 교육수준별 탈락사유	68

〈표 Ⅲ-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시도별	78
〈표 Ⅲ-2〉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지역규모별	79
〈표 Ⅲ-3〉 학생의 성별분포	80
〈표 Ⅲ-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평균	81
〈표 Ⅲ-5〉 학생의 키와 몸무게 분포	82
〈표 Ⅲ-6〉 외국출신 부모 비율	83
〈표 Ⅲ-7〉 학교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 출신인지 알렸는지 여부	84
〈표 Ⅲ-8〉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고 나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달라진 점	85
〈표 Ⅲ-9〉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린 것에 대한 생각	86
〈표 Ⅲ-10〉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87
〈표 Ⅲ-11〉 향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릴 것인지 여부	88
〈표 Ⅲ-12〉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89
〈표 Ⅲ-13〉 부모 교육수준	90
〈표 Ⅲ-14〉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	91
〈표 Ⅲ-15〉 현재 결혼의 초혼 여부	91
〈표 Ⅲ-16〉 가정형편	92
〈표 Ⅲ-17〉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93
〈표 Ⅲ-18〉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94
〈표 Ⅲ-19〉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	95
〈표 Ⅲ-20〉 소득수준 분위	95
〈표 Ⅲ-21〉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아버지 교육수준 비교	97
〈표 Ⅲ-22〉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어머니 교육수준 비교	98
〈표 Ⅲ-23〉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소득수준 비교	99
〈표 Ⅲ-2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전체집단)	100
〈표 Ⅲ-2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하)	102
〈표 Ⅲ-2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중)	104

〈표 III-2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상)	106
〈표 III-28〉 다문화패널 집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109
〈표 III-29〉 일반패널 집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110
〈표 III-3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11
〈표 III-3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12
〈표 III-3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14
〈표 III-3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15
〈표 III-3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16
〈표 III-3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17
〈표 III-3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19
〈표 III-3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20
〈표 III-38〉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21
〈표 III-39〉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22
〈표 III-40〉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24
〈표 III-41〉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25
〈표 III-42〉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26
〈표 III-43〉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27
〈표 III-44〉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29
〈표 III-45〉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30
〈표 III-46〉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31
〈표 III-47〉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32
〈표 III-48〉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34

〈표 III-49〉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35
〈표 III-50〉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36
〈표 III-51〉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37
〈표 III-52〉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39
〈표 III-53〉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40
〈표 III-54〉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41
〈표 III-55〉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42
〈표 III-56〉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44
〈표 III-57〉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45
〈표 III-58〉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 및 관여와 자녀 발달의 관계	147
〈표 III-59〉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응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	148
〈표 III-60〉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49
〈표 III-61〉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50
〈표 III-62〉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51
〈표 III-63〉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53
〈표 III-64〉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54
〈표 III-65〉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55
〈표 III-66〉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56

〈표 III-67〉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58
〈표 III-68〉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59
〈표 III-69〉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60
〈표 III-70〉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62
〈표 III-71〉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63
〈표 III-72〉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165
〈표 III-73〉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65
〈표 III-74〉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67
〈표 III-75〉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68
〈표 III-76〉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70
〈표 III-77〉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71
〈표 III-78〉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72
〈표 III-79〉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73

〈표 III-80〉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및 성취동기의 차이	175
〈표 III-8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76
〈표 III-82〉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77
〈표 III-83〉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78
〈표 III-84〉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문화적 가치와 자녀 발달수준의 관계	180
〈표 III-85〉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과 자녀 발달수준의 관계	181
〈표 III-86〉 지역규모별 가정환경	183
〈표 III-87〉 지역규모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184
〈표 III-88〉 지역규모별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185
〈표 III-89〉 지역규모별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186
〈표 III-90〉 지역규모별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188
〈표 III-91〉 1차년도와 2차년도 가정환경 비교	190
〈표 III-92〉 1차년도와 2차년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비교	191
〈표 III-93〉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적응 비교	192
〈표 III-94〉 1차년도와 2차년도 심리사회적응 비교	193
〈표 III-95〉 1차년도와 2차년도 문화적응 비교	194
〈표 III-96〉 어머니출신국가별 가정환경	195
〈표 III-97〉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비교	198
〈표 III-98〉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교적응 비교	201
〈표 III-99〉 어머니 출신국가별 심리사회적응 비교	206
〈표 III-100〉 어머니 출신국가별 문화적응 비교	209

〈표 Ⅲ-101〉 어머니 교육수준별 가정환경	213
〈표 Ⅲ-102〉 어머니 교육수준별 학업성취 비교	216
〈표 Ⅲ-103〉 어머니 교육수준별 학교적응 비교	219
〈표 Ⅲ-104〉 어머니 교육수준별 심리사회적응	223
〈표 Ⅲ-105〉 어머니 교육수준별 문화적응	226
〈표 Ⅲ-106〉 소득분위별 가정환경	229
〈표 Ⅲ-107〉 소득분위별 학업성취	232
〈표 Ⅲ-108〉 소득분위별 학교적응	234
〈표 Ⅲ-109〉 소득분위별 심리사회적응	239
〈표 Ⅲ-110〉 소득분위별 문화적응	242
〈표 Ⅲ-111〉 지역규모별 가정환경	245
〈표 Ⅲ-112〉 지역규모별 학업성취	247
〈표 Ⅲ-113〉 지역규모별 학교적응	249
〈표 Ⅲ-114〉 지역규모별 심리사회적응	253
〈표 Ⅲ-115〉 지역규모별 문화적응	256
〈표 Ⅳ-1〉 질적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분포 및 표집 수	263
〈표 Ⅳ-2〉 질적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분포 및 표집 수	264
〈표 Ⅳ-3〉 질적조사 내용	267
〈표 Ⅴ-1〉 요구조사의 조사대상, 방법 및 내용의 요약	296
〈표 Ⅴ-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FGI 대상자	297
〈표 Ⅴ-3〉 교사 FGI 대상자	298
〈표 Ⅴ-4〉 FGI 주요 내용	299
〈표 Ⅴ-5〉 개방형 설문조사 대상자	300
〈표 Ⅴ-6〉 개방형 설문조사 내용	300
〈표 Ⅴ-7〉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내용	302
〈표 Ⅴ-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지원 내용	304

〈표 V-9〉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305
〈표 V-10〉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반응	307
〈표 V-11〉 시도청, 교육청, 다문화가족관련 센터에서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310
〈표 V-12〉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313
〈표 V-1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	315
〈표 V-1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예산에 대한 의견	317
〈표 V-1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예산을 위한 향후 개선 및 발전방안	321
〈표 V-16〉 다문화가족대상 지원 경험: 청소년	324
〈표 V-17〉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324
〈표 V-18〉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해에 여러 번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325
〈표 V-19〉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시된 지원 내용	325
〈표 V-20〉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받은 지원 내용	326
〈표 V-21〉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의 느낌	327
〈표 V-22〉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	327
〈표 V-23〉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328
〈표 V-24〉 희망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329
〈표 V-25〉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329
〈표 V-26〉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330
〈표 V-27〉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331
〈표 V-28〉 한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332
〈표 V-29〉 중복지원 제시 내용: 어머니	332
〈표 V-30〉 중복지원 받은 내용: 어머니	333
〈표 V-31〉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의 느낌	333
〈표 V-32〉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	334
〈표 V-33〉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334

〈표 V-34〉 바람직한 지원방식	335
〈표 V-35〉 소득수준에 따른 희망하는지원	336
〈표 V-36〉 지원 프로그램의 적합성	337
〈표 V-37〉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337
〈표 V-38〉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337
〈표 V-3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338
〈표 V-40〉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교사	339
〈표 V-41〉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339
〈표 V-4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희망 지원의 방향	340
〈표 VI-1〉 다문화가족 관련 법 비교	355
〈표 VI-2〉 2012년 외국인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359
〈표 VI-3〉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362
〈표 VI-4〉 2012년 청소년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367
〈표 VI-5〉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370
〈표 VI-6〉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외국인정책	371
〈표 VI-7〉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청소년정책	372
〈표 VI-8〉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영역별 사업 수	373
〈표 VI-9〉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사업	374
〈표 VI-10〉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376
〈표 VI-11〉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외국인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377
〈표 VI-12〉 중앙행정기관 다문화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377
〈표 VI-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별 사업 수	382

〈표 VI-14〉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자체사업	383
〈표 VI-15〉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385
〈표 VI-16〉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자체 외국인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386
〈표 VI-17〉 이중언어교육 관련 유사·중복 사업	387
〈표 VI-18〉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의 예	390

그림 목 차

[그림 Ⅰ-1] 본 연구의 최종 분석틀	6
[그림 Ⅰ-2] 연차별 연구내용 요약	10
[그림 Ⅰ-3] 2012년도 연구의 개요	13
[그림 Ⅱ-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모형 ..	20
[그림 Ⅱ-2] 표본대체 절차	23
[그림 Ⅱ-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차년도 조사 설계	26
[그림 Ⅱ-4] 외국인 학부모 질문지 번역 과정	28
[그림 Ⅱ-5] 2차년도 설문지 개발과정	29
[그림 Ⅱ-6] 다문화종단연구 리플릿	41
[그림 Ⅱ-7] 조사원증 샘플	42
[그림 Ⅱ-8] 조사 문의 안내 명함	42
[그림 Ⅱ-9] 조사원 지침서 및 조사원 수첩(패널관리노트)	43
[그림 Ⅱ-10] 실사진행절차	48
[그림 Ⅱ-11] 조사추진일정	49
[그림 Ⅱ-12] 가구 및 가구원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52
[그림 Ⅱ-13] 다문화종단연구 홈페이지	54
[그림 Ⅱ-14] 전년도 조사결과 요약 리플렛	56
[그림 Ⅱ-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문	57
[그림 Ⅱ-16] 탈락가구 대상 설득 편지	58
[그림 Ⅱ-17] 패널관리 과정	59
[그림 Ⅱ-18] 2차년도 패널 유지현황	60
[그림 Ⅲ-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시도별	79
[그림 Ⅲ-2]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지역규모별	79
[그림 Ⅲ-3] 학생의 성별분포	80

[그림 Ⅲ-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평균	81
[그림 Ⅲ-5] 다문화가족 5학년 학생의 키 분포	82
[그림 Ⅲ-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몸무게 분포	83
[그림 Ⅲ-7] 외국출신 부모	84
[그림 Ⅲ-8] 학교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렸는지 여부	84
[그림 Ⅲ-9]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고 난 후 달라진 점	85
[그림 Ⅲ-10]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린 것에 대한 생각	86
[그림 Ⅲ-11]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지 않은 이유	87
[그림 Ⅲ-12]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릴 것인지 여부	88
[그림 Ⅲ-13]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어머니	89
[그림 Ⅲ-14]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아버지	89
[그림 Ⅲ-15] 부모교육수준	90
[그림 Ⅲ-16]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	91
[그림 Ⅲ-17] 현재 결혼의 초혼 여부	92
[그림 Ⅲ-18] 가정형편	92
[그림 Ⅲ-19]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93
[그림 Ⅲ-20]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 수준	94
[그림 Ⅲ-21]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	95
[그림 Ⅲ-22] 소득수준 분위	96
[그림 Ⅲ-2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아버지 교육수준	97
[그림 Ⅲ-2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어머니 교육수준	98
[그림 Ⅲ-2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소득수준	99
[그림 Ⅲ-2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	100
[그림 Ⅲ-2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의 차이	101
[그림 Ⅲ-2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적응 차이	101
[그림 Ⅲ-2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키 차이(전체)	101

[그림 III-3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차이(전체)	101
[그림 III-3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하)	103
[그림 III-3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하)	103
[그림 III-3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하)	103
[그림 III-3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 (소득수준: 하)	104
[그림 III-3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차이 (소득수준: 하)	104
[그림 III-3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중)	105
[그림 III-3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중)	105
[그림 III-3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중)	105
[그림 III-3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소득수준: 중)	106
[그림 III-4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몸무게 차이(소득수준: 중)	106
[그림 III-4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상)	107
[그림 III-4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상)	107
[그림 III-4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차이 (소득수준: 상)	107
[그림 III-4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소득수준: 상)	108
[그림 III-4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몸무게 차이(소득수준: 상)	108
[그림 III-46]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12
[그림 III-4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13

[그림 III-4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113
[그림 III-49]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14
[그림 III-5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14
[그림 III-5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15
[그림 III-5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16
[그림 III-53]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17
[그림 III-5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18
[그림 III-5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18
[그림 III-5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19
[그림 III-5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19
[그림 III-58]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20
[그림 III-59]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21
[그림 III-60]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22
[그림 III-61]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23
[그림 III-62]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23
[그림 III-63]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24

[그림 III-64]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24
[그림 III-65]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25
[그림 III-66]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26
[그림 III-67]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27
[그림 III-6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28
[그림 III-69]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28
[그림 III-70]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29
[그림 III-7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29
[그림 III-72]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30
[그림 III-73]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31
[그림 III-74]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32
[그림 III-75]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33
[그림 III-76]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33
[그림 III-77]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34
[그림 III-78]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34

[그림 III-79]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35
[그림 III-80]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36
[그림 III-81]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37
[그림 III-82]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38
[그림 III-83]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38
[그림 III-84]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39
[그림 III-85]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39
[그림 III-86]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40
[그림 III-87]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41
[그림 III-88]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42
[그림 III-89]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43
[그림 III-90]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43
[그림 III-91]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44
[그림 III-92]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44

[그림 Ⅲ-93]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45
[그림 Ⅲ-94]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46
[그림 Ⅲ-95]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49
[그림 Ⅲ-96]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50
[그림 Ⅲ-97]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51
[그림 Ⅲ-98]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52
[그림 Ⅲ-99]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52
[그림 Ⅲ-100]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53
[그림 Ⅲ-1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53
[그림 Ⅲ-102]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54
[그림 Ⅲ-103]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55
[그림 Ⅲ-104]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156
[그림 Ⅲ-105]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57
[그림 Ⅲ-106]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57

[그림 III-107]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58
[그림 III-108]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58
[그림 III-109]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59
[그림 III-110]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60
[그림 III-111]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61
[그림 III-112]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62
[그림 III-113]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63
[그림 III-114]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64
[그림 III-115]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64
[그림 III-116]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 성적만족, 성취동기	165
[그림 III-117]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66
[그림 III-118]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66
[그림 III-119]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67
[그림 III-120]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68

[그림 III-121]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69
[그림 III-122]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69
[그림 III-123]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70
[그림 III-124]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71
[그림 III-125]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71
[그림 III-126]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72
[그림 III-127]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73
[그림 III-128]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74
[그림 III-129]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74
[그림 III-130]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75
[그림 III-13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176
[그림 III-132]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176
[그림 III-133]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77
[그림 III-134]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78

[그림 III-135]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79
[그림 III-136]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79
[그림 III-137]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차이	183
[그림 III-138]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184
[그림 III-139]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수준	185
[그림 III-140] 지역규모별 아동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86
[그림 III-141] 지역규모별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187
[그림 III-142] 지역규모별 아동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187
[그림 III-143]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188
[그림 III-144] 지역규모별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189
[그림 III-145] 1차년도와 2차년도 가정환경 비교	190
[그림 III-146]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비교	191
[그림 III-147]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적응수준 비교	192
[그림 III-148] 1차년도와 2차년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비교	192
[그림 III-149] 1차년도와 2차년도 심리사회적응 비교	193
[그림 III-150] 1차년도와 2차년도 문화적응 비교	194
[그림 III-151]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196
[그림 III-152]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196
[그림 III-153]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197
[그림 III-154]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199
[그림 III-155]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199
[그림 III-156]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200
[그림 III-157]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202
[그림 III-158]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202
[그림 III-159]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203

[그림 III-160]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204
[그림 III-161]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204
[그림 III-162]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05
[그림 III-163]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207
[그림 III-164]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207
[그림 III-165]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208
[그림 III-166]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209
[그림 III-167]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210
[그림 III-168]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211
[그림 III-169]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212
[그림 III-170]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214
[그림 III-171]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215
[그림 III-172]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215
[그림 III-173]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217
[그림 III-174]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217
[그림 III-175]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218
[그림 III-176]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220
[그림 III-177]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220
[그림 III-178]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221
[그림 III-179]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221
[그림 III-180]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222
[그림 III-181]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222
[그림 III-182]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224
[그림 III-183]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224
[그림 III-184]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225
[그림 III-185]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225

[그림 III-186]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 227
[그림 III-187]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 227
[그림 III-188]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 228
[그림 III-189]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 230
[그림 III-190]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 230
[그림 III-191]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 231
[그림 III-192]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 232
[그림 III-193]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 233
[그림 III-194]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 234
[그림 III-195]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 235
[그림 III-196]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 236
[그림 III-197]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 236
[그림 III-198]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 237
[그림 III-199]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 237
[그림 III-200]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238
[그림 III-201]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 239
[그림 III-202]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 240
[그림 III-203]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 240
[그림 III-204]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 241
[그림 III-205]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 242
[그림 III-206]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 243
[그림 III-207]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 243
[그림 III-208]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 245
[그림 III-209]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 246
[그림 III-210]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 246
[그림 III-211]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 247

[그림 Ⅲ-212]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248
[그림 Ⅲ-213]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248
[그림 Ⅲ-214]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250
[그림 Ⅲ-215]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250
[그림 Ⅲ-216]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251
[그림 Ⅲ-217]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251
[그림 Ⅲ-218]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252
[그림 Ⅲ-219]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52
[그림 Ⅲ-220]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254
[그림 Ⅲ-221]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254
[그림 Ⅲ-222]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255
[그림 Ⅲ-223]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255
[그림 Ⅲ-224]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257
[그림 Ⅲ-225]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257
[그림 Ⅲ-226]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258
[그림 Ⅳ-1] 면접원의 주요 역할과 절차	266
[그림 Ⅵ-1] 중앙행정기관 다문화청소년 대상 관련 정책의 예산 증감	378
[그림 Ⅵ-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내용	380
[그림 Ⅵ-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청소년 대상 관련 정책의 예산 증감	386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의 배경과 의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변해왔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의 입국과 그로 인한 다문화 현상일 것이다. 행정안전부(2012)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기준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40만 9,577명으로 이는 2011년 120만 6,500명 대비 11.4%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한국국적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업투자자 등이 1,117,481명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고,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 인한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²⁾ 등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292,096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주민 자녀는 138,583명으로 2011년 대비 11.5%(17,429명)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104,694명(62.1%), 만 7세~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이 40,235명(23.9%)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령 집단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에 대한 정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향후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보다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한국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반면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어 부당한 차별의

1) 1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2) 행정안전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를 이주민자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인부모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 또는 한쪽의 사별로 인하여 현재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도 이주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상이 되고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이미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된 이유 중 첫째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연구물들이다. 초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결핍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언어가 부족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학교 내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점차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둘째는 정부 지원정책의 시각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소외된 집단, 일반 가족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몇몇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그 효용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원의 2011년도 과제였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부모의 출신국, 부모 중 어느 쪽이 외국인인지의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가족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녀의 적응수준도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그것도 부정적인 특징을 지닌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할만하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개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p. 4). 둘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이 아니었다면 더욱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로 다문화가족 전체를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양계민 외, 2011, p. 4).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부족한 측면과 유리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역량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한다는 목적 하에 시작되었다. 물론 기존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부분이 횡단적인 방법으로 단편적인 몇 가지 변인들만을 단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이 발달과정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문제인지를 알아내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패널로 구성하여 장기간 종단추적을 함으로써 이들의 발달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일반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의 객관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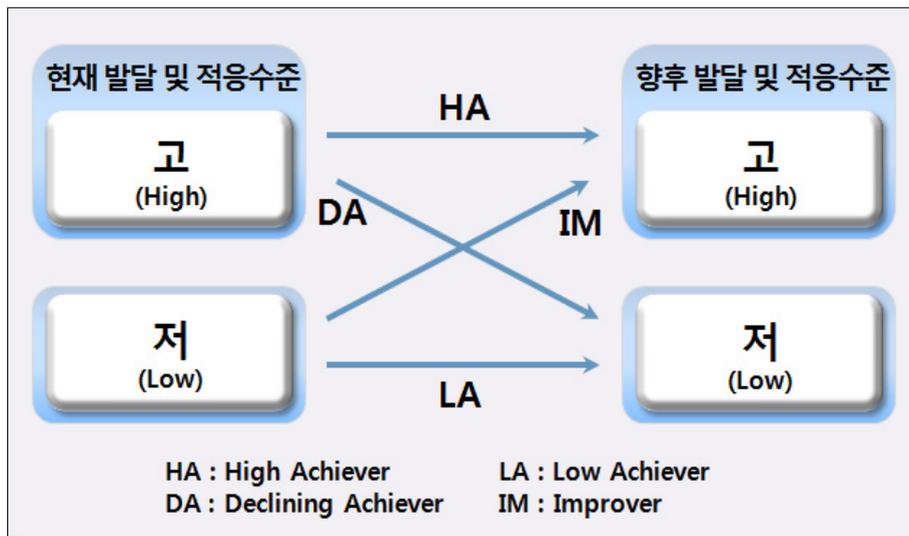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까지 3년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로, 2012년에는 2011년도에 구축한 패널을 근거로 2차년도 종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연구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도별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연구 초기단계에 이미 정해진 것으로, 2012년도 연구의 최종목적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 “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자료를 수집한다.
-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양계민, 김승경, 2010, p. 5)”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패널을 추적하고 발달과정의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발달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각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장기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초기 조사당시 발달 및 적응수준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 및 적응 수준을 청소년기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라고 보고, 이러한 발달 및 적응 수준의 장기적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자료가 축적되어 분석을 실시한다면 수년 뒤 결과를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발달 및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High Achiever), 초기에는 높았으나 점점 낮아진 집단(Declining Achiever), 반대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수준이 낮은 집단(Low Achiever)과 초기에는 낮았으나 점점 높아진 집단(Improver)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것이다.



[그림 1-1] 본 연구의 최종 분석틀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자료가 축적될 경우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분석하고, 주류집단 청소년들과의 발달격차가 발견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그들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2년도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2012년도는 2011년도에 이어 2차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도의 목적은 연구 전체의 목적을 지향하나, 2차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1년간의 변화양상을 살피고,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의 차이를 2011년도 보다 더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질적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내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과정과 성과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해냄으로써 2011년도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도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2차년도 설문조사 통해 취약계층 및 중산층 청소년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2011년도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1년간의 발달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패널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를 설계 및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의 기틀을 마련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및 관련법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요구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도출한다.

2. 연구내용

1) 2010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2010년도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해로, 2010년도 연구에서는 크게 1)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 비교 분석, 3)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계, 4)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예비조사 설문지 개발 및 실시, 5) 2011 본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 타당화 연구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양계민, 김승경, 2010).

첫째로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생태학적 맥락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구축할 설문문항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 비교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외 패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로 전국의 다문화가족 출신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모집단 중 경기지역과 경남지역의 총 1,188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학생 500명과 학부모 500명을 쌍으로 추출하였고, 해당 청소년의 학교교사 총 200명을 선정하여 패널조사를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양계민, 김승경, 2010, p. ii), 각 대상별 설문영역 및 문항을 개발하여 2011년도 본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설문문항 선정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본조사를 위한 타당화 방법으로 PAPI(설문지 활용)와 CAPI(컴퓨터 활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조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컴퓨터로 하는 CAPI 방식과 PAPI 사이에 결과적 차이는 없으나 CAPI방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근거로 2011년도 조사방식을 CAPI로 결정하였다.

2) 2011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2011년도는 패널조사를 실시한 첫 해로, 1)2010년도 도출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CAPI system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전국 16개 시도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1,63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쌍(pair)으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그 외 교사 300명 대상의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3)패널조사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활하고 연속성 있는 패널관리를 도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이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족 또는 특정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학교 성적, 이중문화수용 및 다양한 이중문화경험, 자존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 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학생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양계민 외, 2011, p. iii).

둘째,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배경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어머니의 학교행사 및

활동참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차별인식 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1, p.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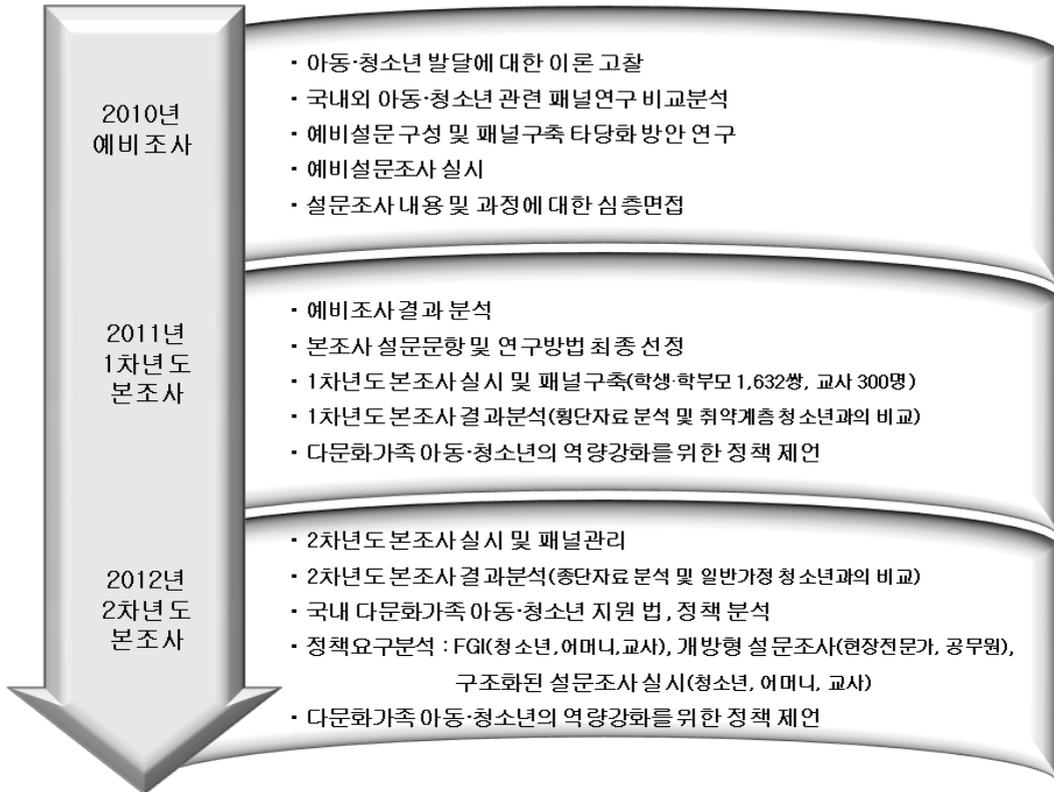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학생일지라도 개인이 속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발달의 양태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이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라는 한 가지 차원의 분류를 가지고 이들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iii).

3) 2012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2012년도의 연구는 2011년도 구축된 패널을 기반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행하였다.

- 2011년도 구축한 설문내용과 더불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문항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포함
- 2011년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1년간의 변화를 종단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관한 객관적 현황 제시
- 향후 종단질적패널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예비 질적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부모, 학교교사, 시도청 공무원, 교육청공무원, 다문화관련기관 현장전문가 대상 FGI, 개방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관련 법안 비교 분석

- 국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및 방안 연구
- 2013년도 3차 중단패널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및 패널관리방안 마련



[그림 1-2] 연차별 연구내용 요약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의 개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로,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학생과 학부모 1,632쌍, 그리고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양적연구와 학생과 학부모 20쌍을 심층면담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

족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중앙행정기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관련자 및 대상자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부분의 결과를 도출한 후 관련 부처 공무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들의 사회적 소외계층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특성 및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여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종정책제언에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관련 법을 함께 분석하여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양적연구(패널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1년도 구축한 패널(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1,632쌍)과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도 조사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정도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중단연구 자료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2년도 조사에서는 일반 아동·청소년패널연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3) 질적연구(심층면접)

질적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심도 깊은 심리적 경험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2012년도에 새로이 구성된 부분으로 2011년도에 구축된 패널 중 특정한 집단을 질적패널로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종단추적을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관련자 및 수요자인 공무원, 현장전문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그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요구부합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바람직한 방향, 현재 다문화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느낌 및 요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국내 다문화 관련 법,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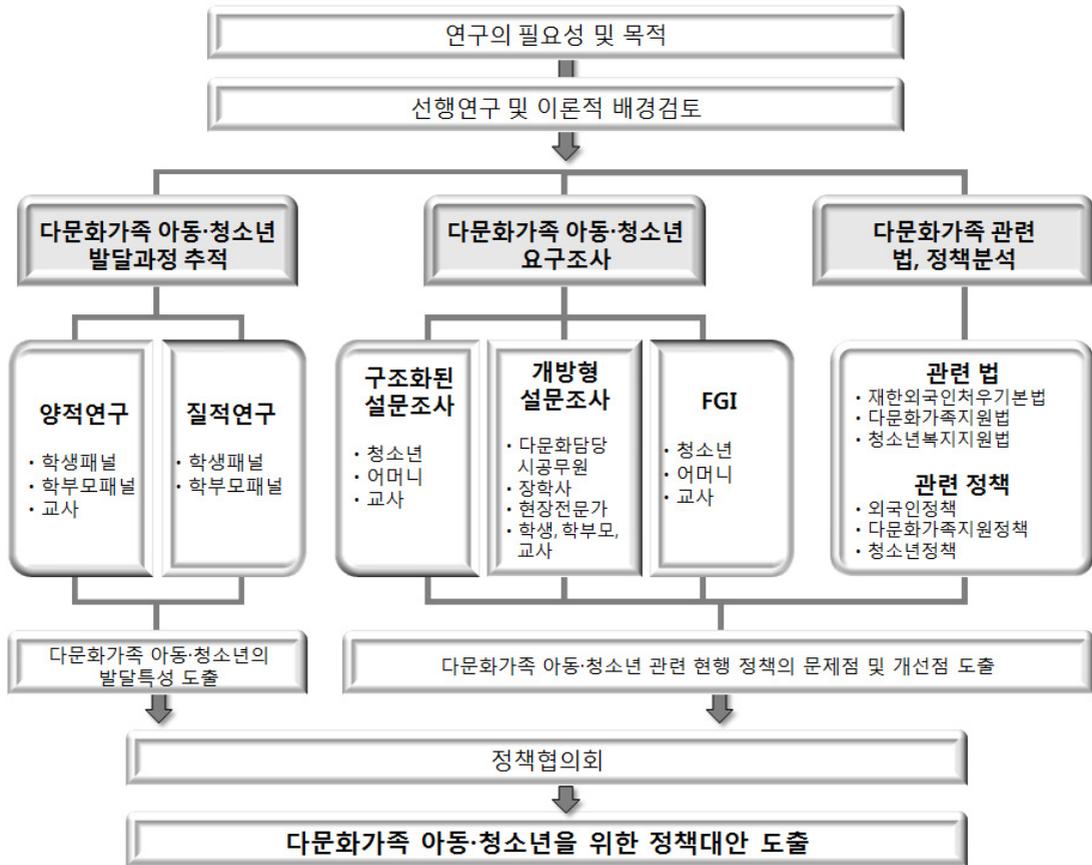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법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법령을 분석하여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올해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청소년정책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예산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5) 다문화정책 수요자의 요구분석

현재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부모,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등을 대상으로 현재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요구, 필요성 등을 설문조사와 FGI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대상에 맞는 보다 적합한 기준을 명확히 선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대안 도출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6) 정책대안 도출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의 현 상황에 맞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I-3] 2012년도 연구의 개요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문헌선정의 근거를 파악하였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된 최신 주요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장 및 정책에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2012년도의 신규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 현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최종 도출된 정책대안의 타당성 검토 등 각 단계에서 학계,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3) 양적조사(패널설문조사)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구축된 패널 1,632쌍(2011년 전국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현재 5학년 학생과 그 어머니)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교사 총 300명을 대상으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여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2년 12월 말에 전화로 패널들과 접촉하여 가구 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패널 참여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1월 초에는 연하장과 선물을 준비하여 전체 패널가구에 발송하였다. 가구변동사항 확인 결과, 2차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1,632명, 어머니 1,632명, 교사 300명 등 총 3,564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503명의 청소년과 1,485명의 어머니, 306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4) 질적조사(심층면접)

질적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달과정의 사회적 심리적 경험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양적조사로 파악하지 못하는 보다 심층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교교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어머니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자 및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요구부합성 등에 대하여 FGI와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5) 콜로키움

콜로키움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연계하여 객관적인 정책분석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월부터 한 달에 1회씩 총 3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는데, 1차는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책의 의미, 유형, 정책형성 및 결정방법, 정책집행의 의미와 수단,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2차는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을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1차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차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사업이 한 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부처 사업이기에 다부처 사업 평가를 위한 방향과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	발표자	개최일
1회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	임동진 박사(한국행정연구원)	4월 24일(화)
2회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	윤수재 박사(한국행정연구원)	5월 11일(금)
3회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	이환성 박사(한국행정연구원)	6월 8일(금)

6)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업무 담당자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다문화 지원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제언을 위한 정책 협의를 실시하였다. 자문은 주로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인 것에 비해 정책협의회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실질적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연구성과 발표회

연구성과 발표회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을 모시고 2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 II 장

패널조사방법

1. 패널 설계 및 구축
2. 실사준비
3. 실사진행
4. 패널관리
5. 패널유지 현황
6. 향후 패널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제 II 장³⁾ 패널조사방법

1. 패널 설계 및 구축

1) 본 연구의 조사설계

본 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10년에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종단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2010년 구축한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본조사를 준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2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2011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된 자료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쳐서 조사된 자료로 년도별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어머니)를 모집단으로 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대상을 국제결혼가정자녀로 한정지은 이유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추적조사 및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설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4학년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지경 외, 2010, 양계민 외 2011, p. 113재인용)에 근거하여 2011년도에 4학년이었던 청소년들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따라서 2012년도 현재 조사대상자들은 5학년이었다.

3) 2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2010년 (예비)	○						
2011년 (1차)	wave1						
2012년 (2차)		wave2					
2013년 (3차)			wave3				
2014년 (4차)				wave4			
2015년 (5차)					wave5		
2016년 (6차)						wave6	
2017년 (7차)							wave7

[그림 II-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모형(양계민 외, 2011, p. 8)

(1)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① 모집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국내 다문화가족의 모든 아동·청소년이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년간 추적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추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재학 중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이다. 2011년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전국 4,452명이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본 조사에서 최종년도까지 유지를 목표로 하는 1,600명은 전체의 35.9%였다.

② 표본추출 단위 및 표본추출틀

본 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중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로 정의하였고, 표본추출틀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초등학교별 4학년 다문화가족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18).

표 II-1 전국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수와 지역별 구성 비(2011년 기준) 빈도(%)

지 역	모집단				
	학교수	지역별 비율(%)	학생수	지역별 비율(%)	학교당 평균 학생수
서울	264	10.4	510	11.5	1.93
인천	119	4.7	228	5.1	1.92
경기	514	20.3	1,006	22.6	1.96
부산	114	4.5	185	4.2	1.62
울산	39	1.5	59	1.3	1.51
경남	226	8.9	351	7.9	1.55
대구	80	3.2	107	2.4	1.34
경북	173	6.8	281	6.3	1.62
광주	75	3.0	110	2.5	1.47
전북	175	6.9	318	7.1	1.82
전남	228	9.0	475	10.7	2.08
대전	49	1.9	64	1.4	1.31
충북	118	4.7	196	4.4	1.66
충남	175	6.9	279	6.3	1.59
강원	150	5.9	234	5.3	1.56
제주	38	1.5	49	1.1	1.29
합계	2,537	100	4,452	100	1.75

양계민 외(2011, p. 118)

③ 표본크기

2012년도의 경우 2011년도 구축한 1,632쌍의 국제결혼가정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중 300명을 무선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 1,632명, 그들의 어머니 1,632명, 교사 300명 등 총 3,564명이었다.

④ 모집단 층화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에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 층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경우,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모집단 층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어진 정보인 시도별 분포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층화하고, 조사 종료 후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19).

⑤ 표본의 배분

2011년도 표본의 배분방식은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특정 시도에 적은 표본이 배정될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약 1.8명이고, 조사 현장에서 강력 거절 등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총 1,600명 정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1,000개 학교를 배분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19). 2011년도 패널 구축시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2 시/도별 표본 배분 결과

빈도(%)

지 역	모집단					표본배분			
	학교수	지역별 비율(%)	학생수	지역별 비율(%)	학교당 평균 학생수	학교수	지역별 비율(%)	학생수	지역별 비율(%)
서울	264	10.4	510	11.5	1.93	100	10.0	173	10.8
인천	119	4.7	228	5.1	1.92	47	4.7	79	4.9
경기	514	20.3	1,006	22.6	1.96	196	19.6	362	22.6
부산	114	4.5	185	4.2	1.62	56	5.6	85	5.3
울산	39	1.5	59	1.3	1.51	21	2.1	28	1.8
경남	226	8.9	351	7.9	1.55	86	8.6	125	7.8
대구	80	3.2	107	2.4	1.34	31	3.1	38	2.4
경북	173	6.8	281	6.3	1.62	66	6.6	97	6.1
광주	75	3.0	110	2.5	1.47	29	2.9	39	2.4
전북	175	6.9	318	7.1	1.82	67	6.7	108	6.8
전남	228	9.0	475	10.7	2.08	87	8.7	163	10.2
대전	49	1.9	64	1.4	1.31	19	1.9	24	1.5
충북	118	4.7	196	4.4	1.66	45	4.5	67	4.2
충남	175	6.9	279	6.3	1.59	79	7.9	113	7.1
강원	150	5.9	234	5.3	1.56	57	5.7	83	5.2
제주	38	1.5	49	1.1	1.29	14	1.4	16	1.0
합계	2,537	100	4,452	100	1.75	1,000	100	1,600	100

양계민 외(2011, 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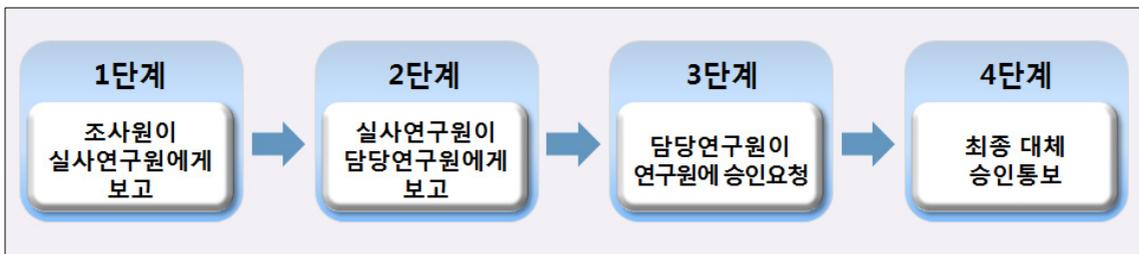
⑥ 표본추출

표본추출의 방법은 2011년도 연구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표본학교 추출은 초등학교 표본을 추출한 이후 초등학교 4학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은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속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사는 배분된 1,000개의 학교에서 300명을 조사하기 위해 한 학교당 한명, 즉, 300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21)” .

⑦ 표본대체

학교나 학생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표본을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본원의 연구책임자에게 표본대체 승인요청을 하여 최종 대체 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표본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사원에 의한 임의대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II-2] 표본대체 절차(양계민 외, 2011, p. 121)

(2) 추적의 원칙(follow-up rule)

종단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이므로 모집단 특성의 변화를 어떻게 연구에 반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모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상이한 추적원칙이

필요하며, 적절한 모집단의 정의와 추적원칙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포함오차를 발생시켜서 추적할 필요가 없는 비표본 구성원을 추적하는 과대포함(over-coverage)문제 또는 새로 포함시켜야 하는 새로운 가구원을 조사하지 않는 과소포함(under-coverage)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최효미 외, 2012).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를 패널로 구성되었지만,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패널의 원표본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으로 정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현재 동거하고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혼이나 가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어머니가 가구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어머니를 조사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이다.

(3)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의 방안은 2011년도 보고서에 이미 다음과 같이 기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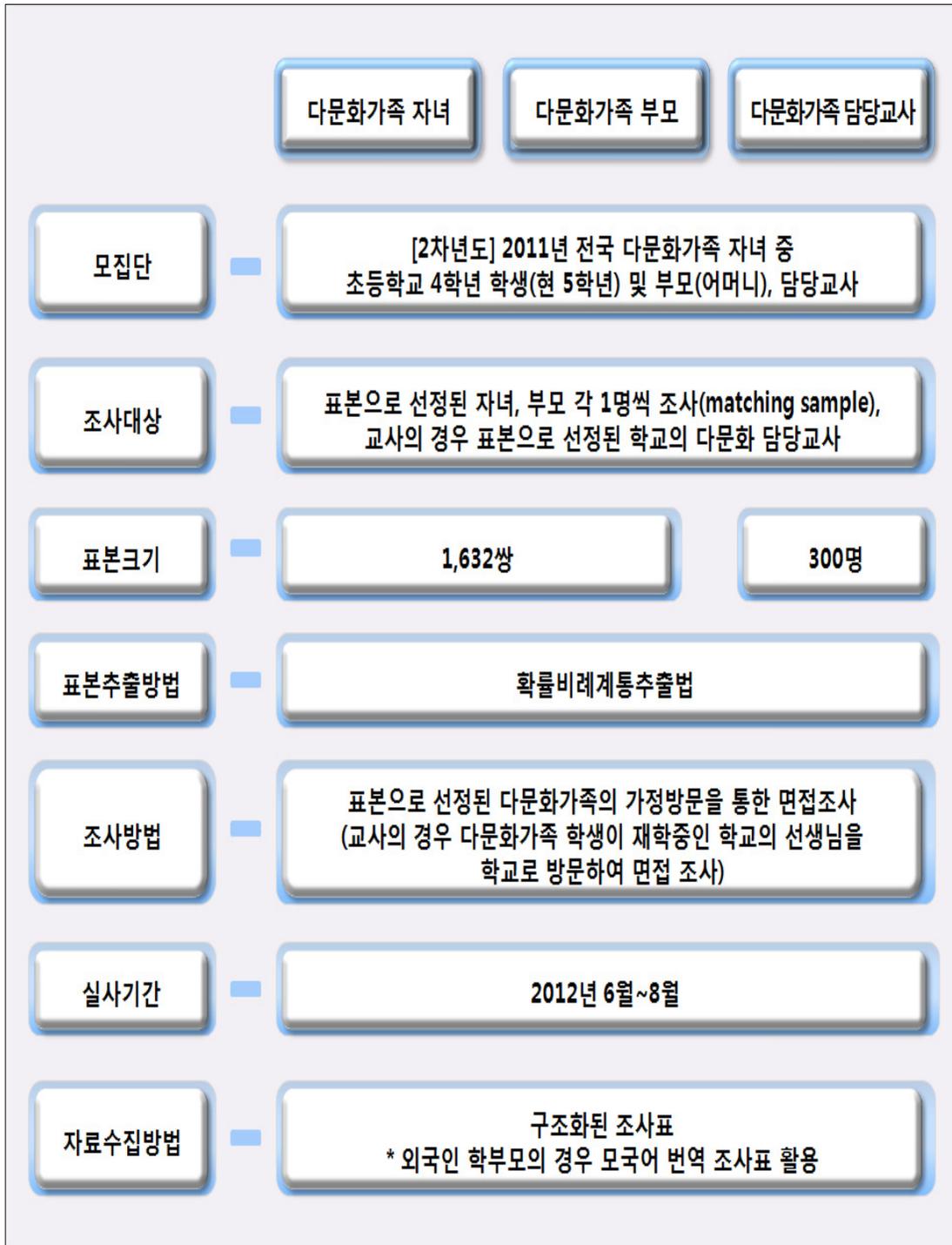
“조사준비단계에서는 패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조사원들이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숙지하게 하고, Hot-line을 운영하여 중앙실사팀과 연구팀이 실사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즉각 파악하고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디팅, 검증단계에서는 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처리단계에서는 데이터클리닝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사업체 간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계민 외, 2011, p. 124).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패널관리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2) 2012년도 2차 조사의 설계

2012년도는 본 연구의 2차 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종단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2012년도는

[그림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구축한 1,632쌍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차 종단추적조사를 하였다. 2011년도에는 학교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섭외한 것과 달리 2012년도에는 이미 구축된 패널을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교사대상 조사만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도 6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CAPI 시스템을 활용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어머니설문지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한국어를 제외한 총 9개국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외국어 설문지는 2011년도에 이미 총 9개국 언어로 번역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추가 번역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9개국어로 충분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가 언어로의 번역은 수행하지 않고 새로운 문항에 대한 번역작업과 작년도 설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외에는 2011년도 조사설계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그림 II-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차년도 조사 설계

2. 실사준비

1) 설문지 개발

(1) 1차 본조사 설문지 개발과정

1차 본조사 설문지는 2010년부터 개발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보고서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절차만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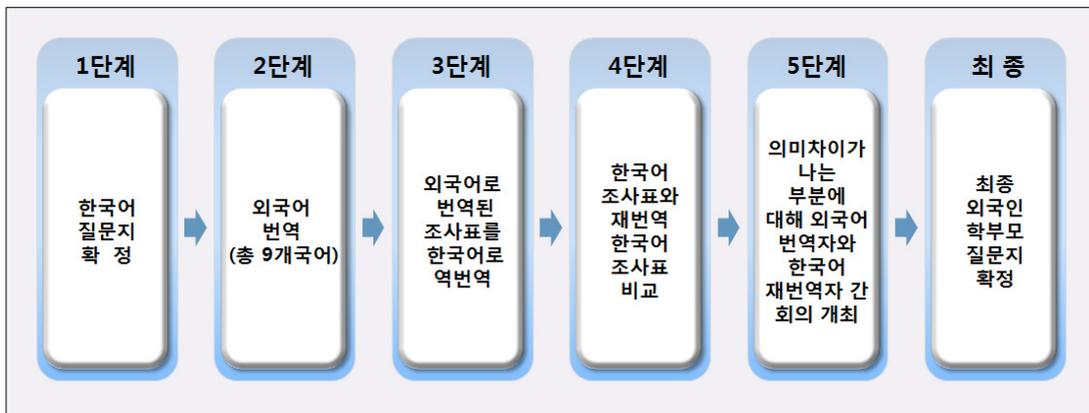
- 1단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검토
- 2단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타당성 검토
- 3단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1차 문항 선정
- 4단계: 예비조사 실시(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5단계: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설문지 수정
- 6단계: 본조사 설문지 확정

(2) 2차 본조사 설문지 개발과정

2차 본조사 설문지는 2011년도의 설문내용 대부분을 추적조사하고, 2011년 당시 첫 패널조사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과 설계상 2012년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추가 문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설문의 경우 연구자가 1차로 설문을 작성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교사 대상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설문문항 개발에 활용하였다. 2차 본조사 설문지를 1차로 구성한 뒤 꺾림 연구팀과 본 연구원의 연구팀이 회의를 통해 문항을 검토하고 어휘와 표현, 제시방식, 문항로직 등을 수정하였다. 설문지를 확정된 후에는 새로운 척도 및 문항에 대해서 번역작업을 거쳤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문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질문지는 2011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베트남어, 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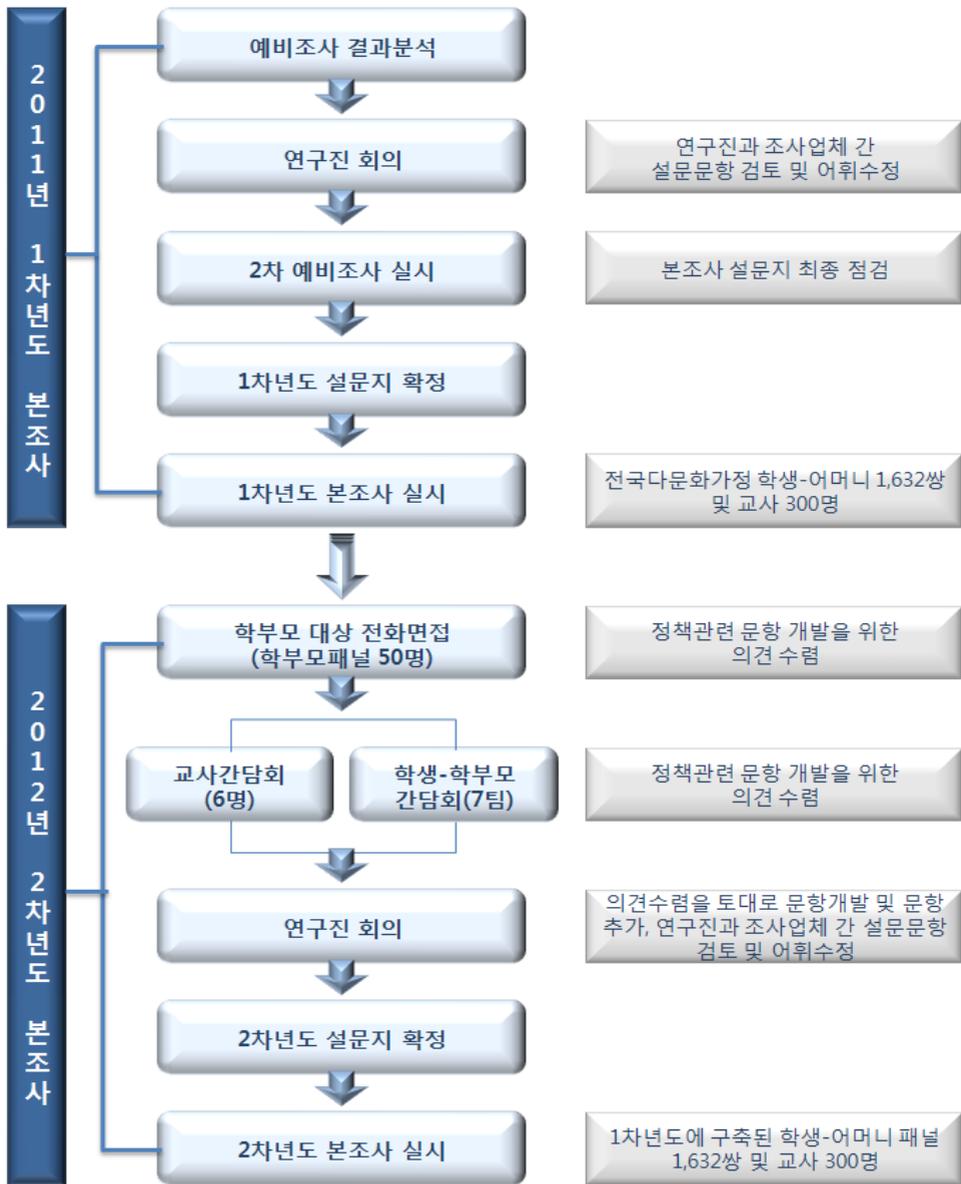
러시아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등 총 9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인 언어번역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외국어 설문지를 이용하는 정도, 한국어 설문내용 이해 정도, 한국어수준, 외국어 번역이 필요성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한국어로 질문하고 질문 받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된 분들이고, 한국어에 비교적 익숙한 관계로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기 번역된 9개 국어 외에 추가 번역을 필요로 하는 어머니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2012년도에는 기존의 9개 국어 외의 추가적으로 번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림 II-4] 외국인 학부모 질문지 번역 과정(양계민 외, 2011, p. 117)

(3) 2차 본조사 설문지 구성의 원칙

2011년도 조사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정도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중단연구 자료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2년도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중단연구 자료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패널연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일반가정의 청소년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12년도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림 II-5] 2차년도 설문지 개발과정

첫째, 1차년도에 포함하였던 문항 중 시간 흐름과 관계없는 문항(예, 6세 이전까지의 주 양육자 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단, 교사의 경우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매년 변경되고, 다문화가족 학생이 속한 학교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문항을

매 년 조사하기로 하였다.

둘째, 특히 2012년 올해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정책수혜 대상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문문항의 결과는 현장심층면접 내용과 함께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할 수 있는 질문은 조사원이 패널들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2차년도 이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2010년에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문항에 응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1년도 1차년도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활용하였던 우울, 불안, 과잉행동, 사회적 위축 등 문제행동에 관한 척도들을 제외하고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 조사에서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4) 설문문항의 구성

① 청소년용 설문지

2012년도에 아동·청소년 영역에 포함된 요인은 크게 배경변인과 다문화적 특성(언어능력, 이중문화 경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신체, 사회정서, 행동, 인지)요인, 환경요인(친구, 부모, 학교생활,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중 배경변인과 언어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은 연구진이 자체로 제작한 문항이었고, 부모관련 요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 역시 배경변인에 가까운 특성이기에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정책에 대한 요구 및 태도에 대한 내용도 학부모, 청소년, 학교교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다(양계민, 김승경,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척도에 대한 설명은 이미 2010년과 2011년도 보고서에 기술한 바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다시 한 번 기술하였다.

표 II-3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청소년

영역	2011년	2012년	출처	
배경변인 (가구원부)	· 성별 · 출생년도 · 가족구성원 현황 · 부모의 출신국	(좌동) 가구구성원에 대한 기본정보 재확인	· 연구진 작성	
다문화 적 특성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연구진 작성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연구진 작성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연구진 작성
		· 한국어 실력	· 한국어 실력	· 연구진 작성
		· 사용가능한 외국어	· 사용가능한 외국어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 연구진 작성
	-	·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 연구진 작성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 국적에 대한 인식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 여부	·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 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 방문경험여부	·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 방문경험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 연구진 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홍진주(2004)
		· 국가정체성	· 국가정체성	· 성한기(2001)
		· 이중문화수용태도	· 이중문화수용태도	· 노총래·홍진주(2006)
	-	· 다문화수용성(*)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 지원의 중복 여부(*) - 지원내용(*) - 지원에 대한 태도(*) - 지원의 적정성(*)	· 연구진 작성
			· 선호하는 지원방식(*)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공개여부(*)	· 연구진 작성
			· 향후 지원요구내용(*)	· 연구진 작성

표 II-3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청소년(계속)

영역	2011년	2012년	출처	
개인 특성	신체	· 건강상태	· 건강상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신체만족도	· 신체만족도	한상분(1992)
	사회·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박난숙·오경자(1992)
		· 자아탄력성	· 자아탄력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 사회적 위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인지	· 학교성적	· 학교성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성취동기	· 성취동기	김의철·박영신(1999)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 학습습관(*)	연구진 작성
		· 장래 희망 직업	· 장래 희망 직업	연구진 작성
· 희망 학력수준	· 희망 학력수준	연구진 작성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가족의 지지	한미현(1996)
		· 부모에 대한 생각	· 부모에 대한 생각	연구진 작성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1)
	친구	· 친한 친구 수	· 친한 친구 수	연구진 작성
		· 친구의 지지	· 친구의 지지	한미현(1996)
		· 교우관계(적응)	· 교우관계(적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이혜경·김혜원(2001)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 학습활동(적응)	· 학습활동(적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교사의 지지	·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
		· 교사와의 관계(적응)	· 교사와의 관계(적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연구진 작성	
· 방과후프로그램 참여현황		-	연구진 작성	
지역 사회 지지망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연구진 작성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2012년 신규 추가 문항

② 학부모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부모특성, 가족특성, 양육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특성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이나 결혼 전 국적,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등 어머니의 배경변인과, 어머니의 배우자 특성 그리고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등이 있었다. 어머니와 배우자에 대한 배경변인의 경우 특별한 이론적 근거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포함시켰다기 보다는 향후 분석을 위해 기초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의 경우는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이며, 각 문항의 측정도구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양계민 외, 2011). 마지막에 제시된 정책에 대한 요구 및 태도에 대한 내용은 학부모, 청소년, 학교교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다.

표 II-4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학부모

영역	2011년	2012년	최종출처	
배경변인	공동 (가구원부) · 연령, 결혼 전 국적,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종교, 학력 수준, 한국 입국 전 직업, 현재 직업	(좌동) 가구구성원에 대한 기본정보 재확인	· 연구진 작성	
	배우자 변인 (가구원부) · 배우자 최종학력, 직업, 국적, 연령	(좌동) 가구구성원에 대한 기본정보 재확인	· 연구진 작성	
	개인배경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 연구진 작성
		· 초혼여부	· 초혼여부	· 연구진 작성
· 한국어 공부 경험		· 한국어 공부 경험	· 연구진 작성	
· 한국어 수준		· 한국어 수준	· 연구진 작성	
개인 및 환경 특성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Rosenberg(1968)
		· 전반적 건강	· 전반적 건강	· 연구진 작성
		· 심리적신체적 건강	· 심리적신체적 건강	· 황정규(1977)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일상생활 스트레스	· 김정희(1987)
		· 문화적응스트레스	· 문화적응스트레스	· 이소래(1997)
		· 한국 내 문화적응 상태	· 한국 내 문화적응 상태	· 연구진 작성
		· -	·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	· Singelis, Triandis, & Bhawuk, Gelfand(2009)
· -	· 문화적응 유형	· Barry(2001)		

표 II-4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학부모(계속)

영역	2011년	2012년	최종출처			
가족특성	· 동거가족 수와 대상	· 동거가족 수와 대상	· 연구진 작성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 연구진 작성			
	· 월평균 소득수준	· 월평균 소득수준	· 연구진 작성			
	· 주요 소득원	· 주요 소득원	· 연구진 작성			
	· 설문대상 자녀의 친자 여부	-	· 연구진 작성			
	· 설문대상 자녀의 아버지 동일성여부	-	· 연구진 작성			
	학교교육 관련특성	·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기관	-	· 연구진 작성		
		· 5-7세 경 주양육자	-	· 연구진 작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연구진 작성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장래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 자녀의 장래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 연구진 작성		
		·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도	·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연구진 작성			
개인 및 환경특성	학교관련 특성	·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 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 자녀의 학교 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 연구진 작성		
		·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 연구진 작성		
		·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 연구진 작성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 연구진 작성		
		· 학교에서의 대우	· 학교에서의 대우	· 연구진 작성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 연구진 작성		
	양육관련 특성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 연구진 작성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가 배우기 바라는 언어	· 자녀가 배우기 바라는 언어	· 연구진 작성		
		· 부모효능감	· 부모효능감	· 신숙재(1997)		
		·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 이경숙 등(2008)		
		다문화적 특성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내용(*) · 지원에 대한 태도(*) · 지원의 적정성(*) · 지원 내용의 요구 부합성 · 바라는 점(*)	· 연구진 작성

* 2012년 신규 추가 문항

③ 교사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는 크게 배경변인, 학교의 정책과 학교의 환경 및 교사특성영역으로 나누었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담임교사 및 해당학교 교사가 설문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문항을 연구진이 자체로 제작하였고, 다문화수용성만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 해도 이를 척도화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에 연구진이 자체로 제작하였다(양계민 외, 2011). 정책에 대한 요구 및 태도에 대한 내용은 학부모, 청소년, 학교교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고, 마지막에 제시된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은 안상수 등(2012)의 척도로 척도의 내용 및 구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I-5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교사

영역	2011년	2012년	출처
배경변인	· 성별	· 성별	· 연구진 작성
	· 생년	· 생년	· 연구진 작성
	· 교직경력	· 교직경력	· 연구진 작성
	· 현재 다문화가족 학생을 맡고 있는지 여부	· 현재 다문화가족 학생을 맡고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 과거 다문화가족 학생 담임 경험	· 과거 다문화가족 학생 담임 경험	· 연구진 작성
학교정책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 수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 수	· 연구진 작성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유무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유무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타학교 기관연계 유무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타학교 기관연계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연계 유무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연계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 중인 학교가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 재직 중인 학교가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이나 부모대상 학교차원의 교육적 요구조사 여부	· 다문화가족 학생이나 부모대상 학교차원의 교육적 요구조사 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 학부모와 의사소통가능자 교내 배치여부	· 외국출신 학부모와 의사소통가능자 교내 배치여부	· 연구진 작성

표 II-5 설문조사의 측정영역 및 변인: 교사(계속)

영역	2011년	2012년	출처
학교환경	· 재직 학교 학생들의 평균 가정경제수준	· 재직 학교 학생들의 평균 가정경제수준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이중언어 능력 지원계획 수립여부	· 재직 학교의 이중언어 능력 지원계획 수립여부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다문화가족 자녀 담당교사 유무	· 재직 학교의 다문화가족 자녀 담당교사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유무	· 재직 학교의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 모임 정도	· 재직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 모임 정도	· 연구진 작성
교사특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주변의 태도 인식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주변의 태도 인식	· 연구진 작성
	·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주변 태도의 인식	·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주변 태도의 인식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관련 교사 직무연수 경험	· 다문화관련 교사 직무연수 경험	· 연구진 작성
	· 다문화수용성	· 다문화수용성	· 안상수 외(2012)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효과성에 대한 지각(*)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수혜자의 반응(*)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	· 연구진 작성

* 2012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

2) 조사준비

(1) 연구진 간담회

2차년도 조사 준비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2년 3월, 본원 및 조사업체 연구진 간의 연구진 간담회를 통해 1차년도에 활용된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CAPI와 Web CAPI의 사용빈도 결과에 대한 분석과 외국 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및 외국어 설문지 사용빈도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2차년도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본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CAPI와 함께 Web CAPI를 개발하여 활용한 바 있다. Web CAPI는 노트북 대비 큰 일반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자가 PC로 조사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보다 익숙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차년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패널가구들이 조사 시 개인 컴퓨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본 조사에 사용된 CAPI 특성 상 학생과 학부모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사용률은 1.9%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원 간담회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가구조사 시에는 대체로 사용률이 낮긴 하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조사 시 Web CAPI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시 사용을 위해 Web CAPI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어머니 1,564명이 사용한 설문지의 언어를 분석하여 2차년도 설문지에 활용할 언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총 1,564명의 외국인 어머니 중 절반 이상인 785명(50.2%)의 어머니가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많은 외국인 어머니들이 큰 무리 없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어(260명, 16.6%) 설문지 사용빈도가 높았고, 필리핀어(215명, 13.7%), 중국어(168명, 10.7%) 등의 순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외국인 어머니 설문지 언어별 사용 비율 빈도(%)

설문 언어	사용 어머니 수	사용비율(%)	
한국어	785	50.2	
외국어	일본어	260	16.6
	필리핀어	215	13.7
	중국어	168	10.7
	영어	62	4.0
	태국어	30	1.9
	베트남어	24	1.5
	러시아어	14	0.9
	몽골어	4	0.3
	대만어	2	0.1
전체	1,564	100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설문지 언어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캄보디아출신 어머니들은 모두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어 번역본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들이 설문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어로 추가번역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들 중 한국어 사용비율은 우즈베키스탄과 기타 국가(미주지역 등) 출신 어머니들에게서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만과 카자흐스탄 71.4%, 중국 조선족 69.7%, 인도네시아 6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어 설문지 사용비율이 34.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어머니 42.9%,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 출신 어머니 43.7%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모국언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50.2%에 달하고 있었고, 조사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출신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이 대체로 설문응답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7 외국인 어머니 출신국가별 설문지 사용 언어

출 신 국 가	1위	2위	3위
일본	한국어(50.5%)	일본어(49.5%)	-
필리핀	따갈로그어(53.3%)	한국어(34.0%)	영 어(12.7%)
중국(조선족)	한국어(69.7%)	중국어(30.3%)	-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어(56.3%)	한국어(43.7%)	-
태국	태국어(53.6%)	한국어(44.6%)	영 어(1.8%)
베트남	베트남어(57.1%)	한국어(42.9%)	-
러시아	한국어(56.3%)	러시아어(43.8%)	-
몽골	한국어(50.0%)	몽골어(50.0%)	-
대만	한국어(71.4%)	대만어(28.6%)	-
우즈베키스탄	한국어(75.0%)	러시아어(25.0%)	-
인도네시아	한국어(66.7%)	영어(33.3%)	-
카자흐스탄	한국어(71.4%)	러시아어(28.6%)	-
키르기스스탄	한국어(50.0%)	러시아어(50.0%)	-
캄보디아	한국어(100%)	-	-
말레이시아	한국어(50.0%)	영어(50.0%)	-
기타	한국어(75.0%)	영어(25.0%)	-

(2) 조사원 간담회

실사에 앞서 2011년도 패널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작년도 실사과정에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2012년도 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는 2012년 4월 1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고, 한국갤럽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고 본 연구원의 연구팀은 관찰을 하면서, 질문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사원은 전국에서 모인 총 13명이었고, 1차년도 조사 시 어려웠던 점과 관련하여 학교 컨택 시 어려웠던 점, 가구방문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등을 물어보았고,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는 문항, 조사대상자들의 태도, 2012년도 조사 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 새로운 언어 번역의 필요성, CAPI사용상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Web-CAPI의 필요성, CAPI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담회 내용과 반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8 조사원 간담회 내용 및 2012년도 연구 반영사항

영역	질문	내용	2012년도 반영
1차년도 조사 시 어려웠던 점	학교 컨택 시 어려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의 협조도가 낮았음 • 선생님들이 귀찮아하는 경향 • 왜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중 우리 학교만 선택되었는지 의문 가짐 • 다문화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서로 마르는 경우도 있음 	-
	가구 방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음 •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지 않아서 처음에 접근이 어려웠음 • 선생님의 협조 전화 시, 전화하기가 좋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도와 동일가구이므로 비교적 문제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 •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사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스스로는 협조를 잘 해 주지 않고, 남편이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많음 • 일부 어머니들이 특정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음: 아버지 직업, 가구소득, 본인의 자녀 여부 •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아 만나기가 어려움 • 외진 곳으로 밤에는 아주 어두운 곳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교육에서 가능한 밝을 때 조사를 하도록 함. • 조사원 전원에게 휴대용 손전등을 지급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왜 하는지? • 발주기관에 대한 문의는 없음 • 앞으로 몇 년 하는지? •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렛을 제작하여 연구목적과 함께 작년도 결과를 제시하기로 함

영역	질문	내용	2012년도 반영
설문조사 관련	이해 잘 못하는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의 경우, 응답하기 어려움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방과 후 학습과 관련된 문항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 문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함 뜻을 물어본 단어의 경우 CAPIS에 설명을 포함시키기로 함 방과후 학습의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는 삭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학생이 응답하는데 많이 걸리면 1~2시간 걸리는 곳도 있었음 산만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설문이 길다 보니 힘들어요', '언제 끝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하였음 그러나 다들 성의 있게 응답해 주었음 	-
올해 조사 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	학교에서 가구로 컨택 포인트가 바뀜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의 경우, 중간에서 교사의 역할이 컸음. 교사가 가구에 전화를 해서 전화 시간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경우, 학부모들의 의심이 줄어들어 컨택이 용이하였음 올해 같은 경우, 패널가구가 조사원의 연락처를 그 당시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을 듯함 작년처럼 교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연구의 경우는 가구 접촉이므로 교사를 별도로 접촉할 수 없음을 조사원들에게 고지함
번역 필요 여부	다문화가족 어머니 및 학생의 한국어 실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은 천차만별이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음: 일본, 중국 출신의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어머니의 경우 실력이 조금 떨어지나 의사소통은 됨 같은 알고 있으나 뜻은 잘 모르는 경우 있음 조사원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역본 설문지를 제시하고 조사원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함
	팸플렛 번역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에 번역 팸플렛 많이 활용되었으며, 신뢰도에 많은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도 제작
CAPI 개선사항	CAPI 사용 시, 어려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밖에서 조사 진행 시, 햇빛 때문에 화면이 반사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음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컴퓨터를 선호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PI 화면을 더 크게 수정함
	Web-CAPI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음 일부 원하는 가구도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는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나 소수 가구를 위해 운용하는 것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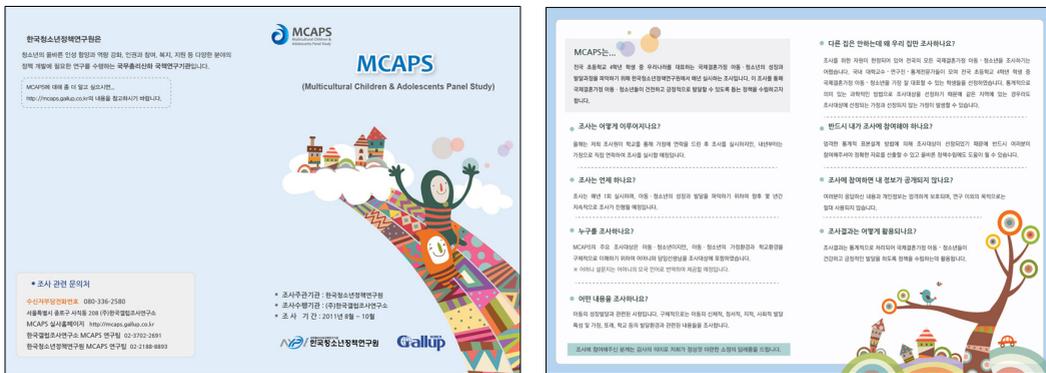
표 II-8 조사원 간담회 내용 및 2012년도 연구 반영사항 (계속)

영역	질문	내용	2012년도 반영
CAPI 개선사항	CAPI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후 기록의 특이사항이나 답례품 관련 의견 등은 꼭 입력 안 해도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로 입력하지 않도록 수정함
기타 사항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문항의 번역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역본을 다시 한 번 검토함. 다음번에는 문항 자체를 보고하도록 함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상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작하여 나누어주기로 함

(3) 준비물 제작

① 리플릿 제작

리플릿은 조사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조사개요와 응답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외국인 학부모들을 위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대만어, 중국어, 파갈로그어, 영어 등 9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II-6] 다문화중단연구 리플릿

② 조사원증 제작

조사문항 중에는 가구원 정보, 가구 소득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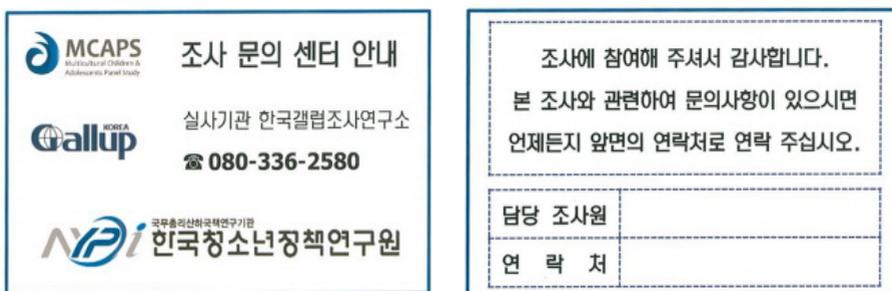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조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원증을 제작하여 조사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7] 조사원증 샘플

③ 조사 문의 안내 명함 제작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응답자가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응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연락처 변경이나 이사 등 패널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문의센터 및 담당조사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응답자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패널관리를 위하여 패널들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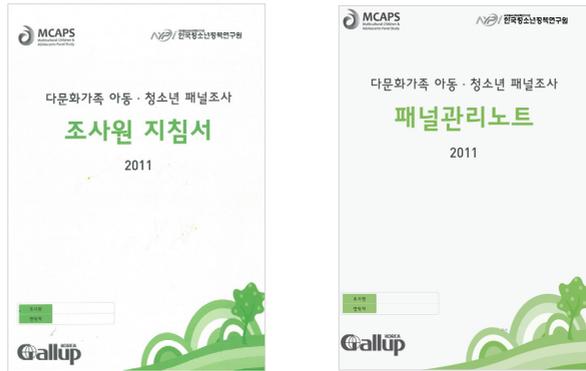


[그림 II-8] 조사 문의 안내 명함

④ 조사원 지침서 제작

조사원들이 본 패널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본 정보, 조사 준비물, 패널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 설문지 작성 및 유의사항 등 조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원 교육 시 조사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조사원 교육 시 본 조사원 지침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조사원들이 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조사문항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패널구축 구축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9] 조사원 지침서 및 조사원 수첩(패널관리노트)

⑤ 조사원 수첩(패널관리노트) 제작

패널 구축 시 조사원들에게는 제한된 패널정보만이 제공되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패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 조사원이 여러 가구의 패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가구원부에 기록되는 정보 이외에 각 패널의 특성과 같이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두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효과적인 패널관리를 위하여 조사원들에게 패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는 조사원수첩을 제작·배포하였으며, 1차년도 조사를 통해 취합된 패널기본정보를 인포시트 형태로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3) 조사원 선발

(1) 조사원 선발 원칙

본 조사는 학교를 통한 교사 면접조사와 가정을 통한 청소년 및 학부모 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충실한 실시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널조사는 타 조사들에 비해 조사원의 패널조사 경험 및 패널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원의 특성이 조사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 학교조사와 가구조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조사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2011년도에 다음과 같은 조사원 선발 원칙을 정하여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 “■ 전문조사원 중 가구 패널조사 유경험자 선발
- 조사경력 2년 이상의 고정 조사원 중 다문화 또는 아동 관련 조사 경험자 선발
- 학교 방문 관련 조사 경험자 선발
- 면접조사 평가점수 A 이상의 조사원 선발(양계민 외, 2011, p. 128)”

1차년도에 조사업체 실사팀에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사원 85명을 선발하였으며, 조사원 한 명당 평균 17가구를 담당하도록 업무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패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양계민 외, 2011, p. 128). 2012년도는 2011년도 조사에 참가하였던 85명을 전원 동일패널담당원칙에 따라 배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85명 중 4명이 조사원 업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새로운 조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작년에 담당했던 조사원이 전화로 담당했던 가구에 연락을 하고 새로운 조사원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조사원에 대한 신뢰도와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탈 조사원 4명 중 2명이 담당한 가구는 2011년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에게 이관하였고, 나머지 2명이 담당한 가구에는 유사 패널조사 경험이 있는 신규 조사원을 투입하였으며, 본조사 담당 연구원이 별도의 개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총 83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었으며, 조사원 1인당 평균 약 18가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하였다.

(2) 전담조사원 제도 운영

2012년도는 본 조사의 2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로 표본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기(최효미 외, 2012)이다. 따라서 본 종단연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저한 비표본오차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사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실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동일한 조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표본 이탈률을 감소하고 응답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ll & Willis, 2001; Zabel, 1998).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했을 때 동일한 조사원을 투입할 경우 응답률이 약 6%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ynn & Laurie, 2005; 최효미 외 2012 재인용). 따라서 각 패널들을 대상으로 최초 조사원이 최종 연구종료까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전담조사원 제도를 기획하였다. 전담조사원 제도는 조사원 1인이 패널과의 접촉, 조사를 위한 방문, 이사 등 변동현황 추적 등 1개 패널의 전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로, 전담조사원이 1개 패널의 진행현황이나 정보변동여부 등을 일괄 관리하여 에러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당 패널에 대해 전담조사원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패널과 조사원 간의 라포형성 및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담조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 해 조사 시에 조사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패널들이 불편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조사원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조사원들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조사완료 후 조사원 워크샵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연구에서 조사원의 중요성을 고지시키며, 조사에 기여를 했거나 실적이 좋거나 패널유지를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4) 조사원 교육

(1) 교육의 목적 및 일정

조사원들에게 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사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및 조사진행 과정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조사원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이 자세히 수록된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조사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사 지원체계 구축, 조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패널가구 접근방식, 현장 발생문제 대처능력, 조사완료 후 수집자료 완결성 검토, 자료의 최종 확정, 패널관리방안, CAPI 이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조사 진행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다(양계민 외, 2011, p. 129). 조사원교육은 동일한 교육자와 85명의 조사원을 총 9개 팀으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는데, 교육을 통하여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하고, 조사원별 이해도 및 현장대처수준을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표 II-9 2012년도 조사원 교육일정

지역	교육일시	참여인원	장소
서울/경기	6월 19일(화)	조사원(20명), 연구원(3명), 실사연구원(1명)	조사업체 본사
부산	6월 20일(수)	조사원(19명), 연구원(2명), 실사연구원(1명)	조사업체 지사
대구	6월 21일(목)	조사원(15명), 연구원(2명), 실사연구원(1명)	조사업체 지사
대전	6월 22일(금)	조사원(8명), 연구원(2명), 실사연구원(1명)	조사업체 지사
광주	6월 22일(금)	조사원(14명), 연구원(2명), 실사연구원(1명)	조사업체 지사
강원	6월 28일(목)	조사원(7명), 연구원(1명), 실사연구원(2명)	조사업체 지사
제주	6월 29일(금)	조사원(2명), 연구원(1명), 실사연구원(2명)	조사업체 지사

(2) 조사원 교육내용

조사원 교육은 대부분 2011년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지침서 내용을 기준으로 총 4부로 구성하였으며, 1부에는 조사개요 및 조사준비물, 패널구축 및 관리, 2부에서는 조사항목 및 설문지 설명, 3부에서는 패널관리 방안, 4부에서는 노트북 이용 및 CAPI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양계민, 2011, p. 129). 이 과정에서 CAPI에 익숙하지 않은 조사원들의 경우 추가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CAPI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I-10 조사원 교육 내용

구분	중점 교육내용	예상 소요시간
교육 안내 및 인사	- 자리 배치 및 교육준비 - 조사원 참석 확인 및 자료배포 - 교육 진행일정 소개	10분
조사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개요 - 지난 해 조사 - 조사 준비물 확인 - 가구원 인포시트 및 학교 인포시트	20분
조사항목 및 설문지 설명	- 설문지 구조 설명(설문지 변동 사항 중심) - 조사항목 설명(추가 문항 및 변동 문항 중심) - 조사 문항 간 로직 설명	40분
패널관리	- 전화관리조사 결과에 따른 패널 접촉 방안	10분
CAPI 사용법	- CAPI 개요(변동사항 중심) - CAPI 사용법(변동사항 중심) - 데이터 전송	40분

3. 실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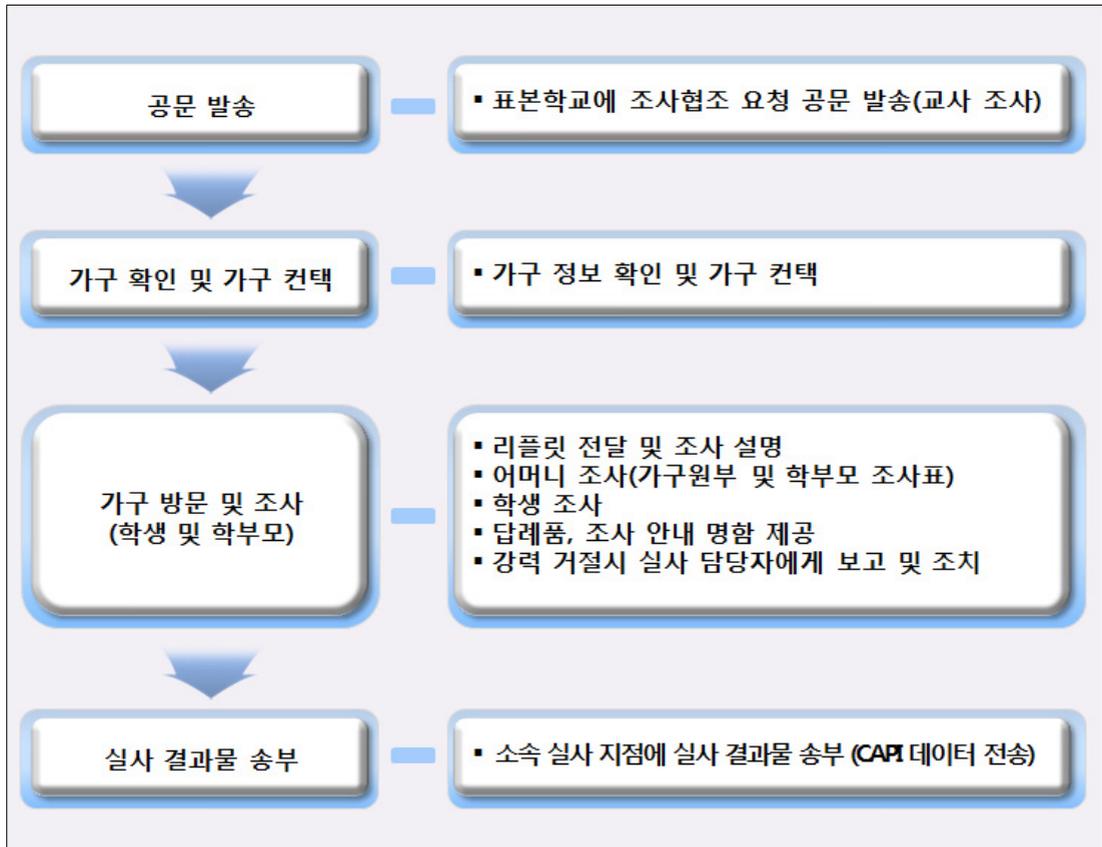
1) 실사원칙

실사에 착수하기 전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원칙을 전달하였다. 실사원칙은 2011년도 조사원칙도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교육 참석 및 조사지침서 숙지
 ■ 패널 가구의 비밀·정보 누설금지
 ■ 패널과 면담 시 정중한 태도 유지, 불필요한 언쟁 금지
 ■ 강력 응답거부자의 경우에는 실사팀 및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조치
 ■ 단정한 복장과 조사원증 필수 착용
 ■ 응답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
 ■ 부득이한 상황(예: CAPI에 대한 응답자의 강력 거부)을 제외하고 CAPI 조사 실시 등(양계민 외, 2011, p. 131)”

2) 실사절차

실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작년에 추출된 표본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교사 조사협조를 구하고, 청소년과 어머니는 가구별 접촉을 하여 개별 가구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시 본 조사의 목적과 2011년도 조사결과를 요약한 리플릿을 전달하고, 작년에 작성한 가구원부 및 학부모 설문지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청소년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되면 답례품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조사안내 명함, 해당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하고, 향후 중단연구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하였다. 2011년도 1차 조사에서 응답을 하였으나 2012년 2차 조사를 거절할 경우, 각 지역의 실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 책임자가 다시 한 번 연락을 하고, 2차 거절을 하면 꺾림 본사의 연구팀에서 다시 한 번 참여를 부탁하고, 3차에서도 거절을 할 경우 본 연구팀에서 재차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다 끝난 후 조사원이 조사자료를 실사 지점에 송부를 하면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II-10] 실사진행절차

3) 조사추진일정

1차년도 패널구축을 통해 확정된 1,632쌍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된 2차년도 조사는 다음의 추진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설문지 개발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전화조사	→																									
	설문문항 개발 관련 간담회 개최		→	→	→																						
	설문지 초안작성 및 연구진 회의				→	→																					
	설문내용 협의/확정				→	→	→																				
	외국어 번역 (역번역/번역/번역내용 비교)							→	→																		
	설문지 완성									→																	
	IT 시스템 개발							→	→	→																	
	CAPI 개발							→	→	→																	
	CAPI 테스트									→	→																
	CAPI 구축 완료										→																
실사 준비	조사원 선발, 답례품 준비, 지침서 작성 등									→	→																
실사	조사원교육									→	→																
	사전컨택										→																
	패널조사											→	→	→	→	→	→										
자료처리	Raw-Data 생산																→										
	데이터클리닝																→	→	→								
	최종데이터구축 자료분석																			→	→				→	→	

[그림 II-II] 조사추진일정

4. 패널관리

2012년도의 조사는 본 연구의 2차 조사를 수행하는 시기로 패널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가구패널에서 표본이탈이 조사 초기(2~3차)에 집중되기 때문에(최효미 외, 2012) 패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패널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중점 추진계획을 구성하였다.

1) 패널관리의 원칙

본 연구에서는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패널 구축 및 관리업무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패널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수립한 원칙과 동일하다.

- “첫째, 패널구축담당조사원이 직접 패널관리를 수행하고, 조사원 보상 및 평가시스템을 가동함과 동시에 조사원 교체 시 인수인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둘째, 담당조사원이 상시연락체계를 통해 패널을 관리하고, 이사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을 자발적으로 통보하는 가구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등의 추적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셋째, 적절한 가치의 답례품과 감사편지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패널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패널활동 유인책을 제공한다.
- 넷째, 패널가구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패널변동사항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다섯째, 차년도 사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패널이탈가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양계민 외, 2011, p. 132)”

2) 1차년도 본조사 이후 패널관리방법

패널조사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초기에 구축한 패널이 조사에서 이탈할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패널조사에서는 기 구축된 패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패널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패널관리를 위해 1차년도 실사 이후 다음과 같은 패널관리방법을 활용하였다.

(1) 조사추적의 원칙 수립

패널조사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표본탈락률이 증가하면 조사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분석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패널조사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철저한 패널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 “원칙1. 조사대상자가 이사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역을 이동할 경우에는 추적조사한다.
- 원칙2. 원표본은 조사대상가구 중 청소년으로, 어머니가 이혼, 별거, 가구원의 독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적하지 않고, 반대로 재혼 등으로 청소년의 어머니로 가구에 편입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 원칙3. 가구의 이사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친지, 이웃 등 가장 가까운 가구나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두어 응답자 관리의 부차적인 접촉방법으로 강구한다. 패널 응답가구와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이사계획이나 이사 예정시기, 취업 후 이동한 지역 등을 철저히 파악한다. 패널대상이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지 정보를 조사주관기관에 제공할 때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양계민 외, 2011, p. 133).”

(2) 080 수신자부담 전화 개설

패널가구가 성의를 가지고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차년도 실사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응답자 편의를 고려한 수신자 부담 전화인 080전화를 개설하였다(080-336-2580). 수신자 부담 전화는 패널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연구진과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수신자부담전화를 통해 패널가구는 자발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조사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응답가구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성과 기여를 인식하고, 보다 충실한 패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연구진은 응답가구가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가구정보 변동 사항 등을 취합하여 조사관리 상의 세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양계민 외, 2011, p. 133).

또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취합된 불만사항의 내용이나 횟수를 관리함으로써 패널별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패널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널관리 데이터는 이후 이탈위험가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양계민 외, 2011, p. 133).

(3)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차년도에 수집된 패널 관리를 위하여 1차년도 본조사 시 수집된 패널들의 기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구 및 가구원의 모든 변동사항 및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은 가구 및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관리상의 문제로 패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2차년도 이후 조사 시 조사원들이 인포시트로 출력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he figure consists of two screenshots from a web-bas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left screenshot shows a form for entering household information. It includes fields for household ID (0001), address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household members (4), and household head information. The right screenshot shows a table with columns for household ID, name, address, and other details. The table lists 10 households with their respective information.

[그림 II-12] 가구 및 가구원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4) 전화관리조사 실시

조사가 1년에 한번 실시되기 때문에 매 해 조사 간의 간격이 길어 패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각 해의 본조사 사이에 전화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가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가구원 및 가구원에 관한 변동사항을 가구 및 가구원 정보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의 전화관리조사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632가구 중 1,580가구를 컨택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화관리조사의 협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과의 컨택 시 1차년도 조사 시에 획득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고(예, 어머니의 직업을 통해 가능한 시간을 유추하여 컨택), 다문화가족의 특성 상 한국어에 서투르고 관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연락이 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남겨 거부반응을 줄이는 동시에 수신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구분하여 1차 컨택 시간대에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 재시도를 하도록 컨택 시간을 구조화하여 전화관리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3차 컨택 시까지 컨택에 실패한 가구의 경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재컨택하도록 하였다.

표 II-11 1차년도 전화관리조사 결과

구분	가구수	향후 대응 방안
결번	10	개학 후, 담당교사를 통해 연락처 재확인
비수신	34	2월 초(개학 후)에 재컨택(방학을 맞이하여 해외로 나간 가족이 있음을 고려)
부재 중	3	설 전에 입국 예정(1월 15일에 컨택 시도 예정)
거절	5	주요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
성공	1,580	총 1,632가구 중 1,580가구 컨택 성공

(5) 명절선물 및 감사카드 증정

전화관리조사가 종료된 후, 2012년 1월 20일에 전화관리조사에 성공한 패널을 대상으로 설 명절선물을 발송하고, 참여에 대한 감사 카드를 함께 동봉하였다. 설 명절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연락처를 파악하였고, 2012년도 연구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하였다.

3) 2차년도 실사 과정에서의 패널관리 방안

(1) 접촉가능성 증진방안

접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차년도 실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조사원들은 실사 전에 조사 대상 패널들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추가로 받아 패널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할 수 있는 차선의 경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패널들에게 전화가 편한 요일과 시간, 방문이 편한 요일과 시간 정보를 추가로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해당 정보를 차년도 조사 시 조사원들에게 제공하여 실사과정에서 가구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홈페이지운영

본 조사에서는 패널가구들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중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조사진행과정, 조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주요 메뉴로는 연구진 소개,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의 조사 개요와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등을 구성하여 패널들이 능동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양계민 외, 2011, p. 134).



[그림 II-13] 다문화중단연구 홈페이지

1차년도 조사 시부터 이미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실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용할만한 유인가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차년도 이후에 보다 다양한 메뉴를 추가로 구성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홈페이지의 콘텐츠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2 홈페이지의 메뉴와 내용

구분	메뉴	내용	세부내용	
자료제공	자료실	2011년 다문화중단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구축 및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조사결과 탑재) 	
		정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관련 자료 제공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기사, 책, 동영상 제공)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을 위한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자녀 양육관련 자료 제공 (자녀양육 관련 프로그램, 기사, 책, 동영상 제공) 청소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지원사업 정보 제공(상담, 활동, 방과후 사업 등) 청소년관련 활동, 프로그램, 책, 기사 등 정보 제공 	
	가구정보 알림	이사정보 제공	가구별 이사정보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가구 이사 및 연락처 변경 시 자발적 통보를 하는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발달 profile	개인별 조사 및 검사결과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개인별 누적 profile 제공(향후 추진 예정)

(3) 연도별 리플렛 제작 및 배부

패널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연구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중단연구에 대한 설명 리플렛과는 별도의 것으로 앞의 리플렛은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이고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은 연차별 리플렛은 2차년도 실사 시 본 연구의 목적, 기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1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패널들로 하여금 본인이 참여한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으며, 향후에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유도하고, 동시에 본 연구가 자녀들의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부모를 위해 총 9개국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파갈로그어, 러시아어, 태국어, 대만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부모님이십니다!

자녀의 학습 및 학교 생활

- 어머니의 교육 관심감
- 세계에 대한 부모의 개방성
- 어머니의 학교행사 참여도
-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의 심리적응

- 어머니의 자녀 존중감
- 어머니의 교육 관심감
- 어머니의 생활비 상대적 스트레스 등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 인성, 외국어,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정책개발연구원**입니다.

MCAPS(<http://mcaps.gallup.co.kr>)에 오시면 다양한 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언어별 번역카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MCAPS
(Multicultural Children & Adolescents Panel Study)

MCAPS
수신처 부담 전화번호 080-336-2580
서울특별시 용문로 3사동 208 (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CAPS 당사 홈페이지 <http://mcaps.gallup.co.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CAPS 연구팀 02-3702-2691

조사 관련 문헌지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기간: 2012년 9월 ~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Gallup**

인행하세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3년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2012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당서 일컫는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똑같은 한국사회의 혜택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해당부의 해당 자료를 미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조후 가정으로 전달될 것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으로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요약

1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부모로서의 2011년도 주요 조사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 청소년 총 1,027명(그 외 11명)
- 어머니는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중국(조선족), 동티모르 뒤,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의 순임

○ 조사에 참여해 준 청소년들의 특성은?

- ▶ 10명 중 9명은 '원주민(본토인, 자칭스태플러)'
- ▶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학교, 생활, 만족
- ▶ 87.9%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불의의 일을 겪었고, 응급하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10명 중 7명은 '원주민(본토인, 자칭스태플러)'
- ▶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학교, 생활, 만족
- ▶ 87.9%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불의의 일을 겪었고, 응급하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해 준 청소년들의 특성은?

- ▶ 10명 중 9명은 '원주민(본토인, 자칭스태플러)'
- ▶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학교, 생활, 만족
- ▶ 87.9%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불의의 일을 겪었고, 응급하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4] 전년도 조사결과 요약 리플렛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패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차년도 조사 시 각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주소, 연락처 및 콜센터 대표전화에 담긴 안내문을 제작하여 패널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패널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콜센터 대표 전화 : 1577-5432

시도	센터명	주 소	연락처
서울	종로구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02-764-3521
	용산구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02-792-9175
	성동구	성동구 홍익동 373-1	02-3395-9445
	광진구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3층	02-458-0666
	동대문구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223호	02-957-1073
	중랑구	중랑구 연유관동 62-2	02-435-4149
	성북구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육회관	02-953-0468
	강북구	강북구 번2동 318 강북활명 스포츠센터 3층	02-945-7381
	도봉구	도봉구 창동 303 구민회관 2층	02-990-5432
	노원구	노원구 공릉동 569-19 가운빌딩 4층	02-979-3502
	은평구	은평구 갈현동 468-2 성지빌딩 3층	02-376-3731
	서대문구	서대문구 옥기화2동 333-5	02-375-7530
	마포구	마포구 합정동 399-19	02-3142-5027
	양천구	양천구 신월5동 52-2 신월5동주민센터 3층	02-2699-6900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층	02-2606-2037
	구로구	구로구 구로3동 1129-6	02-869-0317
	금천구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거점센터	02-803-7743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1동주민센터 4층	02-846-5432
	동작구	동작구 서림2동 1136-1번지 3층	02-599-3260
	관악구	관악구 속고개길 13 1층	02-883-9383
강남구	강남구 개포동 14-2	02-3414-3346	
송파구	송파구 마천동 127-1	02-403-3844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02-473-4986	
인천	중구	중구 도원동 29-34	032-889-2594
	남구	남구 추안6동 972-1 동산빌딩 4층	032-875-1577
	연수구	연수구 철학동 527-24 4층	032-851-2740
	남동구	남동구 연수6동 1094-2	032-467-3912

[그림 II-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문

(5) 조사답례품 제공

1차년도에는 어머니에게만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나, 조사대상인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차년도 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학용품을 별도의 답례품으로 준비하여 증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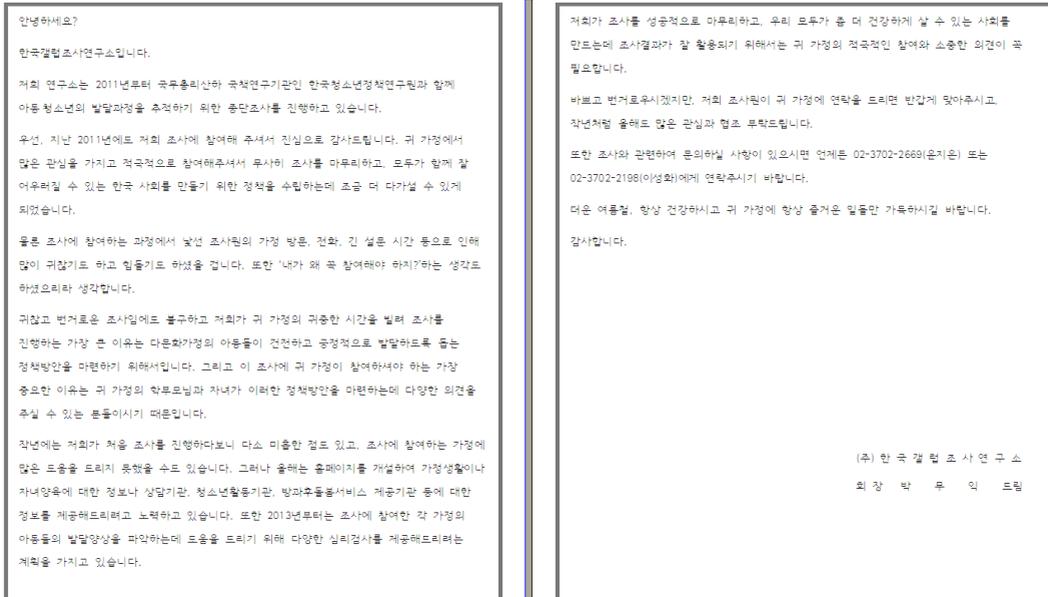
(6) 패널 이탈 예상 가구에 대한 참여 유도

이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설득하여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패널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양계민 외, 2011, p. 134). 이에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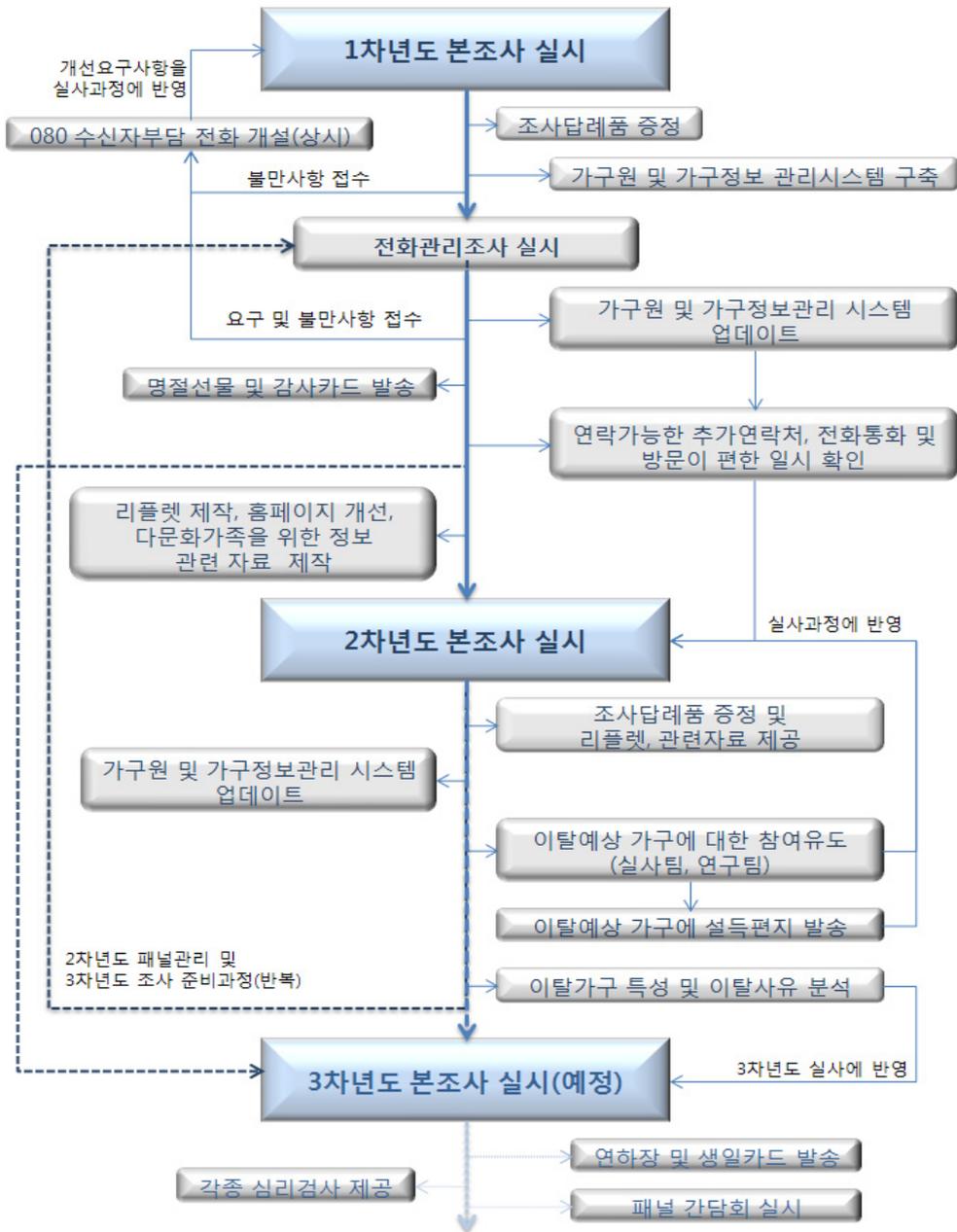
중 2차년도 조사에서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 1차적으로는 조사원이 설득하고, 2차적으로는 조사업체 연구진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본원 연구진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 패널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담당조사원들은 패널들이 불참의사를 밝힌 이유 및 조사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취합하여 간담회에서 연구진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7) 패널 이탈 예상가구에 대한 설득편지 발송

2차년도 실사 중-후반부부터 취합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연구원들과 실사담당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수차례의 참여 독려에도 탈락의사를 보이는 가정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 및 취지, 활용방안, 향후 개선노력 및 계획 등을 담은 설득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설득편지가 도착할 시점에 조사원이 패널가구에 전화를 하여 재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탈락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II-16] 탈락가구 대상 설득 편지



[그림 II-17] 패널관리 과정

5. 패널유지 현황

1) 패널유지율

2011년 1차년도 패널조사 결과 총 1,632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고, 2012년 1,491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본 조사의 패널유지율은 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패널 1,491가구 중 6가구는 어머니의 조사 참여 거절로 인해 학생만 조사되었는데, 어머니의 거절 사유는 어머니 사망 1가구, 어머니 가출 3가구, 어머니 조사 참여 거절 2가구 등으로 참여 어머니 수는 총 1,485명이었다. 유지패널 1,491가구 내에는 쌍둥이 및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2명인 가구가 12가구 있었으며, 각 가구에서 학생이 2명씩 조사된 가구는 총 12가구이고, 이에 따라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1,503명이었다.



[그림 II-18] 2차년도 패널 유지현황

2) 이탈 패널 분석

(1) 이탈 패널 사유 분석

2차년도 패널조사에서 이탈한 패널은 총 141가구였으며, 패널이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63가구(43.3%)로 가장 많았고, 둘째,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총 33가구(23.4%)였으며, 셋째,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19가구(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경우(55명, 38.1%)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8명, 5.7%)가 있었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경우에는 바쁘거나,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문화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싫거나 도움이 되지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해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13 2차년도 패널 이탈 사유 빈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33	23.4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19	13.5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바쁨		17	12.0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		10	7.1
		귀찮고 싫음		8	5.7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함		4	2.8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2.1
		의무가 아니면 하기 싫음		2	1.4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	1.4
		도움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2	1.4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1	0.7
		약속 피하여 방문·설득했으나 강력거절		1	0.7
		지난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7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음		1	0.7
		학생이 하기 싫어함		2	1.4
		소계		55	38.1

표 II-13 2차년도 패널 이탈 사유 (계속)

빈도(%)

대분류	중분류	이탈 사유		가구 수	%
		소분류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개인사정으로 거절		7	5.0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4	2.8
		남편 사망 후 거절		2	1.4
		가출했다고 함		1	0.7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7
		아버지의 반대		12	8.5
		소계		27	19.1
기타		8	5.7		
합계		141	100		

(2)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⁴⁾

지역별 이탈률을 살펴보면 경북의 이탈가구는 총 2가구(98%)로 이탈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5가구, 95.7%), 전남(8가구, 95.0%), 경남(6가구, 94.9%), 부산(4가구, 94.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가구, 80.0%)였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8가구, 81.0%), 대전(4가구, 83.3%), 서울(27가구, 85.2%), 충북(10가구, 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빈도(%)

구 분	구축 패널 가구 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역별 가구수 대비	
서울	182	27	19.1	14.8	85.2
부산	74	4	2.8	5.4	94.6
대구	42	5	3.5	11.9	88.1
인천	68	7	5.0	10.3	89.7
광주	42	8	5.7	19.0	81.0
대전	24	4	2.8	16.7	83.3
울산	31	2	1.4	6.5	93.5
경기	386	39	27.7	10.1	89.9

4) 시/도 구분 및 구축패널 가구 수는 2011년 조사 기준임.

표 II-14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계속)

빈도(%)

구 분	구축 패널 가구 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역별 가구수 대비	
강원	90	5	3.5	5.6	94.4
충북	74	10	7.1	13.5	86.5
충남	117	5	3.5	4.3	95.7
전북	108	6	4.3	5.6	94.4
전남	160	8	5.7	5.0	95.0
경북	101	2	1.4	2.0	98.0
경남	118	6	4.3	5.1	94.9
제주	15	3	2.1	20.0	80.0
합계	1,632	141	100	8.6	91.4

지역별 패널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이 되지 않아 패널이 탈락한 경우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이었고,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패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충남, 제주 등이었다. 이에 비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서울,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에서 가장 많았으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응답은 대구,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I-15 지역별 탈락사유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서울	7(25.9)	3(11.1)	10(37.0)	5(18.5)	2(7.4)	27(100)
부산	2(50.0)	1(25.0)	-	1(25.0)	-	4(100)
대구	-	1(20.0)	2(40.0)	2(40.0)	-	5(100)
인천	4(57.1)	1(14.3)	2(28.6)	-	-	7(100)
광주	3(37.5)	2(25.0)	2(25.0)	1(12.5)	-	8(100)
대전	2(50.0)	1(25.0)	1(25.0)	-	-	4(100)
울산	1(50.0)	1(50.0)	-	-	-	2(100)
경기	5(12.8)	5(12.8)	20(51.3)	4(10.3)	5(12.8)	39(100)
강원	1(20.0)	-	1(20.0)	3(60.0)	-	5(100)
충북	3(30.0)	1(10.0)	2(20.0)	4(40.0)	-	10(100)
충남	1(20.0)	2(40.0)	1(20.0)	1(20.0)	-	5(100)

표 II-15 지역별 탈락사유(계속)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전북	1(16.7)	-	5(83.3)	-	-	6(100)
전남	1(12.5)	-	4(50.0)	3(37.5)	-	8(100)
경북	-	-	2(100)	-	-	2(100)
경남	2(33.3)	-	1(16.7)	2(33.3)	1(16.7)	6(100)
제주	-	1(33.3)	1(33.3)	1(33.3)	-	3(100)
전체	33(23.4)	19(13.5)	54(38.3)	27(19.1)	8(5.7)	141(100)

$\chi^2 = 61.02$

(3) 어머니 출신국가별 이탈률

어머니 출신국가별로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중앙아시아 출신인 가정의 경우 패널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10가구, 21.3%), 그 다음으로는 한국(12가구, 17.9%), 베트남(6가구, 14.3%), 중국 조선족(38가구, 11.9%),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15가구, 11.8%)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태국출신인 가정(2가구, 3.6%)의 패널 이탈률은 가장 낮았으며, 일본(28가구, 5.3%), 필리핀(26가구, 6.5%)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낮았다.

표 II-16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

빈도(%)

구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7	12	8.5	17.9
중국(한족 등)	127	15	10.6	11.8
중국(조선족)	320	38	27.0	11.9
베트남	42	6	4.3	14.3
필리핀	402	26	18.4	6.5
일본	526	28	19.9	5.3
태국	56	2	1.4	3.6
동남아시아	14	1	0.7	7.1
중앙아시아	47	10	7.1	21.3
기타	31	3	2.1	9.7
합계	1,632	141	100	8.6

어머니 출신국가별로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의 출신국가와는 관계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의 비율이 같았고, 중국 한족 출신 어머니 가정의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유학 및 이민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되거나, 유학 및 이민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조사에 참여하기 귀찮고 싫다는 응답의 비율이 같았다. 이에 비해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들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타 국가출신 어머니들의 가정은 유학이나 이민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7 어머니 출신국가별 탈락사유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한국	4(33.3)	2(16.7)	4(33.3)	2(16.7)	-	12(100)
중국(한족 등)	2(13.3)	5(33.3)	5(33.3)	3(20.0)	-	15(100)
중국(조선족)	12(31.6)	-	14(36.8)	10(26.3)	2(5.3)	38(100)
베트남	1(16.7)	1(16.7)	1(16.7)	3(50.0)	-	6(100)
필리핀	5(19.2)	6(23.1)	9(34.6)	4(15.4)	2(7.7)	26(100)
일본	4(14.3)	2(7.1)	17(60.7)	4(14.3)	1(3.6)	28(100)
태국	-	-	1(50.0)	1(50.0)	-	2(100)
동남아시아	-	-	1(100)	-	-	1(100)
중앙아시아	5(50.0)	1(10.0)	2(20.0)	-	2(20.0)	10(100)
기타	-	2(66.7)	-	-	1(33.3)	3(100)
전체	33(23.4)	19(13.5)	54(38.3)	27(19.1)	8(5.7)	141(100)
χ^2	53.19*					

* $p < .05$

(4) 가정의 소득분위별 이탈률⁵⁾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패널이탈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 속하는 경우 이탈가구는 총 6가구이며,

5) 가정의 소득분위는 2011년 응답기준임.

이탈률은 2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4분위(16가구, 14.2%), 3분위(28가구, 10.1%), 2분위(43가구, 7.7%), 1분위(48가구,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소득분위별 패널 이탈 현황

빈도(%)

구 분	구축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분위별 가구수 대비
1분위	663	48	34.0	7.2
2분위	558	43	30.5	7.7
3분위	276	28	19.9	10.1
4분위	113	16	11.3	14.2
5분위	22	6	4.3	27.3
합계	1,632	141	100	8.6

가정의 소득분위별로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소득 2분위에 속하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득 2분위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되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소득분위별 탈락사유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1분위	8(16.7)	7(14.6)	18(37.5)	10(20.8)	5(10.4)	48(100)
2분위	13(30.2)	5(11.6)	12(27.9)	10(23.3)	3(7.0)	43(100)
3분위	7(25.0)	2(7.1)	14(50.0)	5(17.9)	-	28(100)
4분위	4(25.0)	4(25.0)	7(43.8)	1(6.3)	-	16(100)
5분위	1(16.7)	1(16.7)	3(50.0)	1(16.7)	-	6(100)
전체	33(23.4)	19(13.5)	54(38.3)	27(19.1)	8(5.7)	141(100)

$$\chi^2 = 13.87$$

(5) 어머니 직업 여부별 이탈률⁶⁾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직업을

6) 어머니의 직업여부는 2011년 응답기준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패널이탈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탈가구는 총 82가구였고 이탈률은 8.6%였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이탈가구는 59가구이고 이탈률은 8.7%였다.

표 II-20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 빈도(%)

구 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여부별 가구수 대비
직업 있음	957	82	58.2	8.6
직업 없음	675	59	41.8	8.7
합계	1,632	141	100	8.6

어머니 직업 여부별로 패널 이탈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진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다(36가구, 43.9%)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으로 참여할 수 없거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3가구(15.9%)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19가구, 3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다(18가구, 30.5%),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14가구, 23.7%)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탈락사유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직업 있음	14(17.1)	13(15.9)	36(43.9)	13(15.9)	6(7.3)	82(100)
직업 없음	19(32.2)	6(10.2)	18(30.5)	14(23.7)	2(3.4)	59(100)
전체	33(23.4)	19(13.5)	54(38.3)	27(19.1)	8(5.7)	141(100)

$\chi^2 = 7.83$

(6) 어머니 교육수준별 이탈률

어머니 교육수준별로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패널이탈률이 가장 높았으며(4가구, 16.7%), 그 다음은 중학교 졸업 이하(19가구, 11.7%), 대학교 졸업(27가구, 9.5%), 고등학교 졸업(62가구, 8.8%), 전문대 졸업(29,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어머니 교육수준별 패널 이탈 현황 빈도(%)

구 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교육수준별 가구수 대비
중졸 이하	163	19	13.5	11.7
고졸	702	62	44.0	8.8
전문대졸	459	29	20.6	6.3
대졸	284	27	19.1	9.5
대학원졸	24	4	2.8	16.7
합계	1,632	141	100	8.6

어머니 교육수준별로 이탈사유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6명, 31.6%)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2명, 50.0%)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 가정의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어머니 교육수준별 탈락사유 빈도(%)

구 분	연락안됨	유학, 이민 등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기타	전체
중졸이하	4(21.1)	3(15.8)	5(26.3)	6(31.6)	1(5.3)	19(100)
고졸	13(21.0)	7(11.3)	25(40.3)	14(22.6)	3(4.8)	62(100)
전문대졸	7(24.1)	3(10.3)	14(48.3)	4(13.8)	1(3.4)	29(100)
대졸	8(29.6)	4(14.8)	9(33.3)	3(11.1)	3(11.1)	27(100)
대학원졸	1(25.0)	2(50.0)	1(25.0)	-	-	4(100)
전체	33(23.4)	19(13.5)	54(38.3)	27(19.1)	8(5.7)	141(100)

$\chi^2 = 13.05$

(7) 패널 이탈률 분석 결과 요약

2012년도 패널이탈가구의 특성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락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연락이 안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탈락한 가구 보다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싫고 귀찮고 참여의 유인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탈락이 43.3%였다. 이러한 이유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로 생각되며 특히 패널의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탈락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싫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 는 반응,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는 이유 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조사참여의 의의와 실질적 유인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탈락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보고되는 결과로(Hausman & Wise, 1979; Fitzgerald et al., 1998; 이상호, 2005재인용) 이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고소득 가구의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 비교를 위해서는 이들의 탈락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탈락률이 높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대일, 남재량, 류근관, 2000).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실상 교육수준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에 고소득가구 대상 대처방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넷째, 어머니 보다 자녀가 싫어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녀가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과거까지는 어머니에게 답례품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자녀에게 작은 선물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데, 향후에는 자녀의 답례품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8) 향후 패널 이탈 가구 특성 분석방향

패널 이탈률이 증가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2차년도부터 발생한 이탈 패널가구의 특성 및 패널가구 특성에 따른 이탈사유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패널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실시팀에서는 2차년도 본조사 시 최종적으로 탈락한 패널의 이탈사유를 확인하고, 연구팀에서는 이탈사유를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교육수준별, 가정의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바 있으며, 차후 보다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이탈 가구의 특성분석 및 이탈사유 분석, 이탈가구와 지속적 참여가구와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패널이탈률을 최소화할 것이다.

6. 향후 패널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단연구는 향후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탈 가구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원활한 조사수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패널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관리팀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관리팀이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여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패널을 관리하고, 기존에 확보한 전담조사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적 담당을 도모하고자 한다. 패널관리의 영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담관리팀에서 두 영역으로 분리하여 관리를 할 것이다. 하나는 패널가구에 대한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패널가구를 조사하는 조사원의 관리이다. 패널가구의 관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사원의 관리이다. 따라서 패널가구관리와 더불어 조사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패널가구의 관리

우선 첫째로 패널가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이사가구 및 분가가구 특별 관리

중단연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사가구 및 분가가구 발생으로 인한 이탈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특별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전담팀을 통해 이사가구나 분가가구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연구진에게 연락처 및 주소의 변동내용을 알려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로써는 2011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특별관리를 위한 중심체계로 활용할 예정인데, 스스로 이사 및 연락처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의 이사정보 메뉴에 탑재할 경우 효과성이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정기적인 전화관리조사 실시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본조사 간의 간격이 길어 연락처 변경 및 이사 등의 사유로 패널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해의 본조사 사이에 정기적으로 전화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가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가구 및 가구원 정보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이다. 이 업무 역시 전담관리팀에서 맡아서 추진할 것이다.

(3) 연하장 및 생일카드(문자 메시지) 발송

패널들로 하여금 본 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본 조사의 패널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패널 아동의 생일에는 생일카드(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패널들이 조사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본 조사의 패널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4) 조사에 대한 심리적 관여 유발

종단적으로 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사후의 답례품이나 사회적 의의 등도 중요하나 조사 자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 관여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설명한 조사의 사회적 의의 및 유인가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에 조사 및 조사원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구의 관혼상제에 대한 조의금 등 패널가구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조사시 배우자의 사별 등 민감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심과 성의를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5) 조사결과 및 정책활용에 대한 안내

패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도 결과에 대한 소개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또는 활용되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설문결과가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앞의 탈락가구 분석에서 나타났던 고소득자 및 고학력자 탈락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도 제작하여 배부하였던 연도별 리플렛을 해마다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한다. 올해에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조사원이 조사시 배부하였으나, 조사참여의 경우는 일단 전화접촉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려할 때, 조사접촉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편으로 미리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심리적 긍정성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조사의 결과 및 올해 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감사의 글과 함께 우편으로 사전에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6) 각종 심리검사 제공

어머니들이 본 연구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각종 심리검사와 지능검사 등을 제공하고, 검사결과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각 청소년별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패널들의 성장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패널가구의 보다 장기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탈락가구의 거부이유를 분석한 결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응답한 가구들에게 유인가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사원관리

다음으로 조사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종단연구의 성패는 조사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패널유지율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1) 조사원 워크숍 개최

조사 전에 1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 사회적 기여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의 의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작년도 조사의 어려움,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좀 더 조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사 후에는 2차 워크숍을 통해 조사시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연말 파티 및 시상 등을 기획하여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사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생일카드 및 선물 발송(관혼상제 조의금)

패널가구 뿐 아니라 조사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카드 또는 작은 선물을 발송함으로써 본 조사에 대한 심리적 관여도를 증가시키고 향후 조사에 대한 참여도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전담관리팀이 상시적으로 조사원들을 접촉함으로써 관혼상제가 있을 경우 조의금을 전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이 때 제반 보상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리방안 마련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상시보고체계

패널전담관리팀의 연락처를 배부하고, 문제발생시 처리방안 및 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고, 패널전담관리팀의 역할을 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문제를 보고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에는 실사팀에서 이를 맡아서 하고 있으나 패널전담관리팀을 강화하여 본 연구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원들이 곤란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본 조사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제 III 장

패널종단연구결과 I : 설문연구

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분석
3.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4. 거주지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5. 1, 2차년도 비교 분석

제 III 장

패널중단연구 결과 1: 설문연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본원에서 수행중인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청소년 발달의 차이, 세 번째는 거주지 특성에 따른 청소년 발달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차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1년간의 변화를 차례로 분석 하였다.

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1) 조사대상자의 구성

본 다문화중단연구의 1차년도 조사에서 패널로 구축된 다문화가족은 총 1,632가구였으며, 쌍둥이가 있는 10개 가구의 아동들을 포함하여 총 1,642명의 아동과 그의 어머니 1,632명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들 중 2차년도 조사에는 총 1,491가구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가 조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올해 조사에는 작년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쌍둥이 2명이 추가되어 쌍둥이 가구가 12가구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503명이었다. 어머니는 1,491가구의 어머니 중 가출, 사망, 조사거부로 인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485명만이 패널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7) 3장의 2, 3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고 1, 4, 5절은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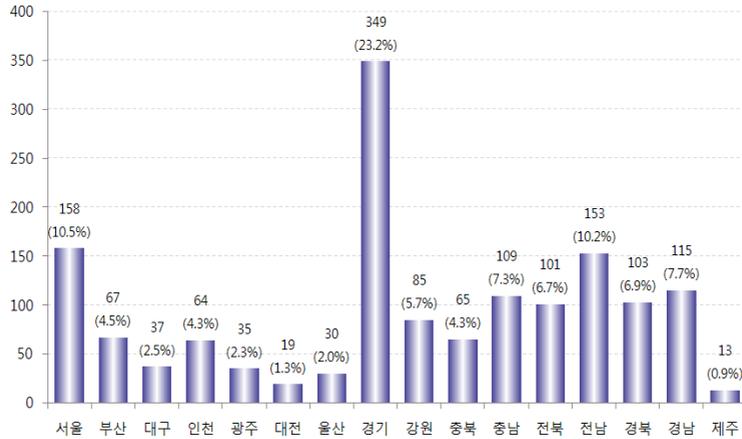
2) 조사대상 아동의 배경 특성

(1) 조사대상아동의 거주지역: 시도별, 지역규모별

본 조사에서 패널로 구축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로 구성된 가구 중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전국 16개 시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 1,491가구이며, 쌍둥이가 있는 12가구를 포함하여 총 1,503명의 아동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조사대상자가 349명(23.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158명, 10.5%), 전남(153명, 10.2%), 경남(115명, 7.7%), 충남(109명, 7.3%), 경북(103명, 6.9%), 전북(101명, 6.7%), 강원(85명, 5.7%), 부산(67명, 4.5%), 충북(65명, 4.3%), 인천(64명, 4.3%), 대구(37명, 2.5%), 광주(35명, 2.3%), 울산(30명, 2.0%), 대전(19명, 2.3%), 제주(13명,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시도별

구 분	표집빈도(%)
서울	158(10.5)
부산	67(4.5)
대구	37(2.5)
인천	64(4.3)
광주	35(2.3)
대전	19(1.3)
울산	30(2.0)
경기	349(23.2)
강원	85(5.7)
충북	65(4.3)
충남	109(7.3)
전북	101(6.7)
전남	153(10.2)
경북	103(6.9)
경남	115(7.7)
제주	13(.9)
합계	1,503(100)



[그림 Ⅲ-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시도별

조사대상아동의 거주지 분포를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683명(4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410명, 27.3%), 읍면(410명,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지역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합계
빈도(%)	410(27.3)	683(45.4)	410(27.3)	150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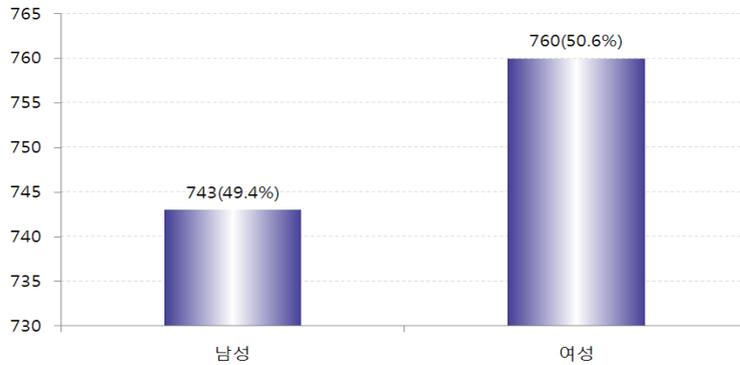
[그림 Ⅲ-2]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지역규모별

(2)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

조사대상 학생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760명(50.6%), 남학생이 743명(49.4%)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고르게 표집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3 학생의 성별 분포

	남성	여성	합계
빈도(%)	743(49.4)	760(50.6)	1,503(100)



[그림 III-3] 학생의 성별분포

(3) 아동의 신체발달: 키와 몸무게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분포를 살펴본 결과, 평균 키는 144.1cm, 평균 몸무게는 38.8kg이었다. 남학생의 평균 키는 143.7cm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 143.9cm보다는 작지만, 95% 신뢰구간인 143.7~144.1cm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가족 여학생의 평균 키는 144.5cm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키인 144.8cm에 비해 작으며, 95% 신뢰구간인 144.6~145.0cm보다 작은 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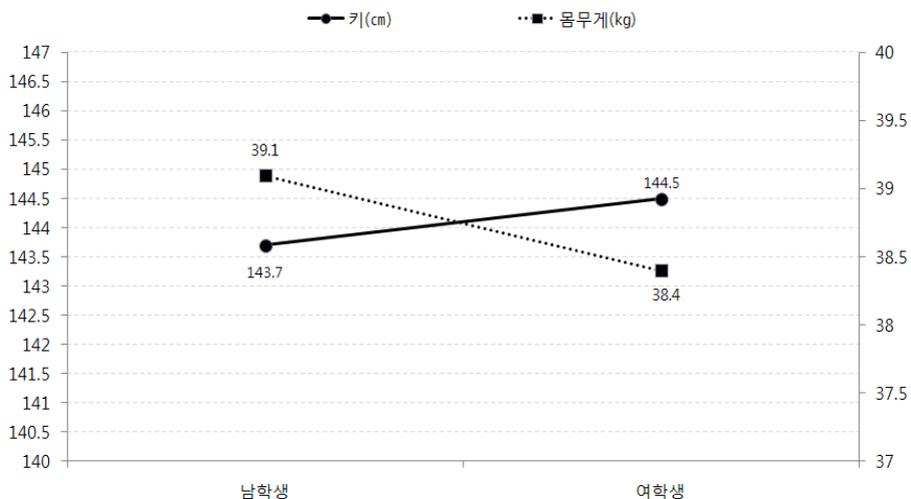
8)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키와 몸무게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2년에 발표한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2012). '11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족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39.1kg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인 40.6kg에 비해 가볍긴 하지만 95% 신뢰구간인 40.4~40.9kg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38.4kg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인 39.4kg에 비해 가벼웠으며, 95% 신뢰구간인 39.1~39.6kg보다 가벼운 쪽에 위치하였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남학생의 키와 몸무게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평균범주에 속하는 수준이며, 다문화가족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범주에 비해 키와 몸무게가 다소 작고 가벼운 편이지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III-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평균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키(cm)	남학생	120	172	143.7(7.3)
	여학생	120	166	144.5(7.4)
	전체	120	172	144.1(7.4)
몸무게(kg)	남학생	21	82	39.1(9.5)
	여학생	22	78	38.4(8.9)
	전체	21	82	38.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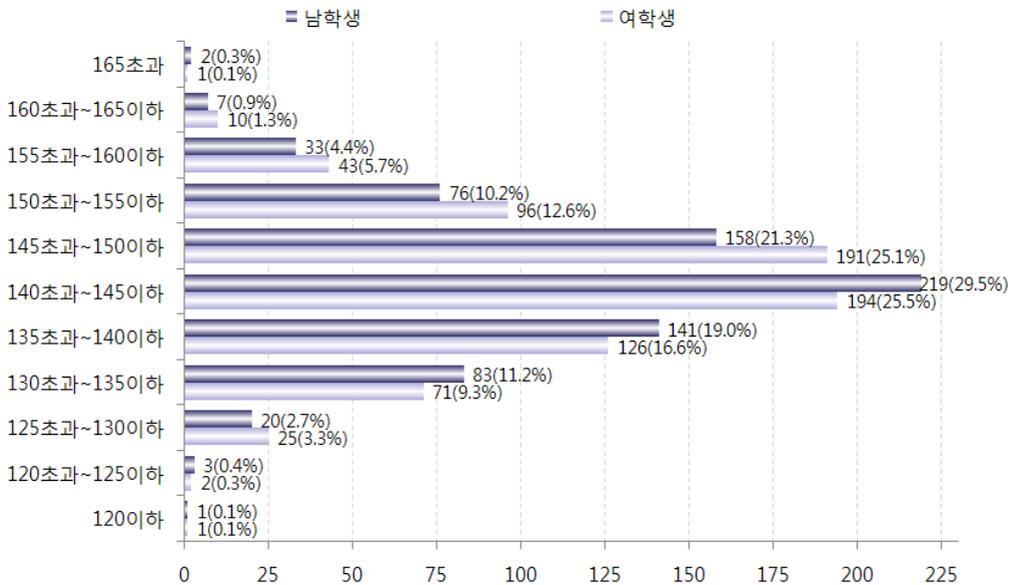


[그림 III-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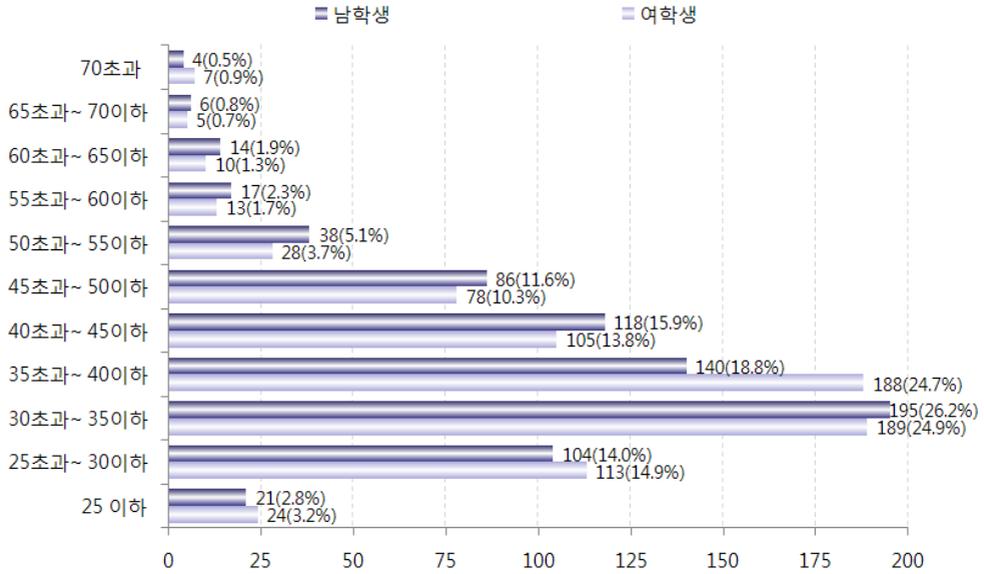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분포를 살펴보면 키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40~145cm에 해당하는 학생이 각각 219명(29.5%), 194명(25.5%)로 가장 많았다. 몸무게는 30~35kg에 해당하는 학생이 남학생(195명, 26.2%)과 여학생(189명, 24.9%)에게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학생의 키와 몸무게 분포 빈도(%)

키(cm)	남학생	여학생	전체	몸무게(kg)	남학생	여학생	전체
120이하	1(.1)	1(.1)	2(.1)	25 이하	21(2.8)	24(3.2)	45(3.0)
120초과~125이하	3(.4)	2(.3)	5(.3)	25초과~30이하	104(14.0)	113(14.9)	217(14.4)
125초과~130이하	20(2.7)	25(3.3)	45(3.0)	30초과~35이하	195(26.2)	189(24.9)	384(25.7)
130초과~135이하	83(11.2)	71(9.3)	154(10.2)	35초과~40이하	140(18.8)	188(24.7)	328(21.8)
135초과~140이하	141(19.0)	126(16.6)	267(17.8)	40초과~45이하	118(15.9)	105(13.8)	223(14.8)
140초과~145이하	219(29.5)	194(25.5)	413(27.5)	45초과~50이하	86(11.6)	78(10.3)	164(10.9)
145초과~150이하	158(21.3)	191(25.1)	349(23.2)	50초과~55이하	38(5.1)	28(3.7)	66(4.4)
150초과~155이하	76(10.2)	96(12.6)	172(11.4)	55초과~60이하	17(2.3)	13(1.7)	30(2.1)
155초과~160이하	33(4.4)	43(5.7)	76(5.1)	60초과~65이하	14(1.9)	10(1.3)	24(1.5)
160초과~165이하	7(.9)	10(1.3)	17(1.2)	65초과~70이하	6(.8)	5(.7)	11(.7)
165초과	2(.3)	1(.1)	3(.2)	70초과	4(.5)	7(.9)	11(.7)
합계	743(100)	760(100)	1,503(100)	합계	743(100)	760(100)	1,503(100)



[그림 III-5] 다문화가족 5학년 학생의 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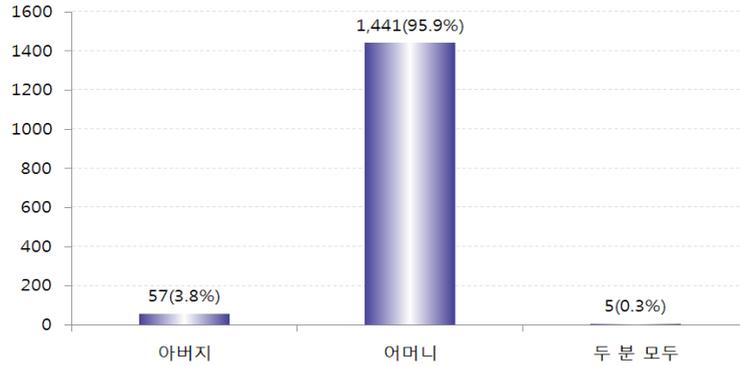
[그림 III-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몸무게 분포

(4) 외국출신 부모

조사대상 학생의 부모 중 외국출신 부모의 비율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1,441가구 (9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57가구, 3.8%),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5명, 0.3%) 등의 순이었다.

표 III-6 외국출신 부모 비율

구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합계
빈도(%)	57(3.8)	1,441(95.5)	5(.3)	1,50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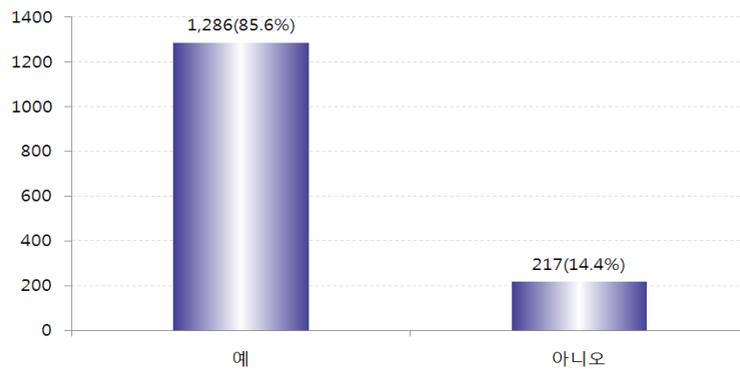
[그림 III-7] 외국출신 부모

(5) 다문화가족 출신임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학교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렸는지 알아본 결과 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5.6%에 해당하는 1,286명이었고,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217명(1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학교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렸는지 여부

	빈도(%)
예	1,286(85.6)
아니오	217(14.4)
합계	1,503(100)



[그림 III-8] 학교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렸는지 여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956명(74.3%)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299명(23.3%) 있었으나,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고 난 후에 31명(2.4%)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응답했다.

표 III-8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고 나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달라진 점

	빈도(%)
친구들과 사이가 서먹해졌다 (친구들이 전과는 다르게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31(2.4)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956(74.3)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299(23.3)
합계	1,28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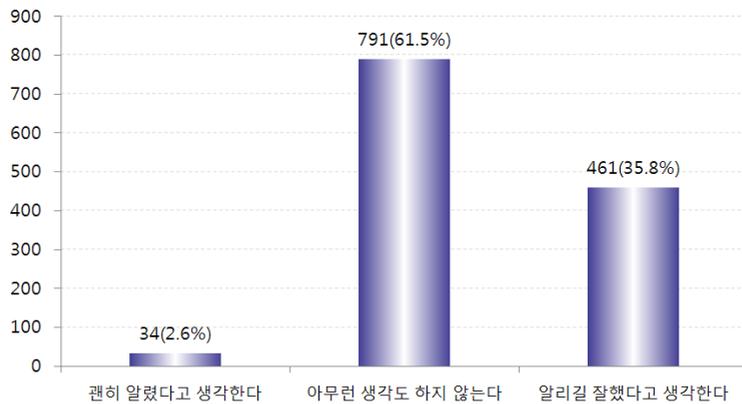


[그림 III-9]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고 난 후 달라진 점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임을 알렸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791명(61.5%)의 학생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61명(35.8%)의 학생들은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반면, 괜히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34명(2.6%) 있었다.

표 III-9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린 것에 대한 생각

	빈도(%)
괜히 알렸다고 생각한다	34(2.6)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791(61.5)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461(35.8)
합계	1,28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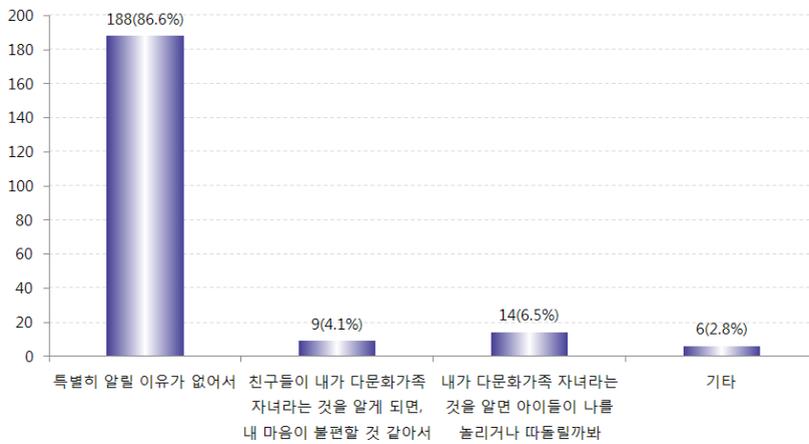


[그림 III-10]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린 것에 대한 생각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86.6%에 해당하는 188명의 학생들은 특별히 알릴 이유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따돌릴까봐 14명(6.5%), 친구들이 내가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9명(4.1%) 등 다문화가족 출신임이 알려짐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우려하는 학생들도 10.6%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외모 때문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2명(0.1%),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2명(0.1%), 귀찮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과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빈도(%)
특별히 알릴 이유가 없어서	188(86.6)
친구들이 내가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9(4.1)
내가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나를 놀리거나 따돌릴까봐	14(6.5)
기타	6(2.8)
합계	21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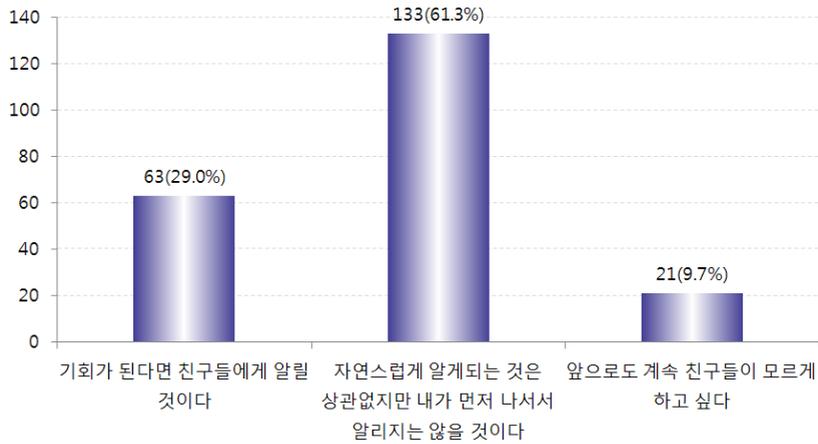


[그림 Ⅲ-11]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리지 않은 이유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향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학생이 63명(29.0%), 앞으로도 계속 친구들이 모르게 하고 싶다는 학생 21명(9.7%)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굳이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스스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친구들이 계속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향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릴 것인지 여부

	빈도(%)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63(29.0)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	133(61.3)
앞으로도 계속 친구들이 모르게 하고 싶다	21(9.7)
합계	217(100)



[그림 III-12] 다문화가족 출신임을 알릴 것인지 여부

3) 가정환경의 배경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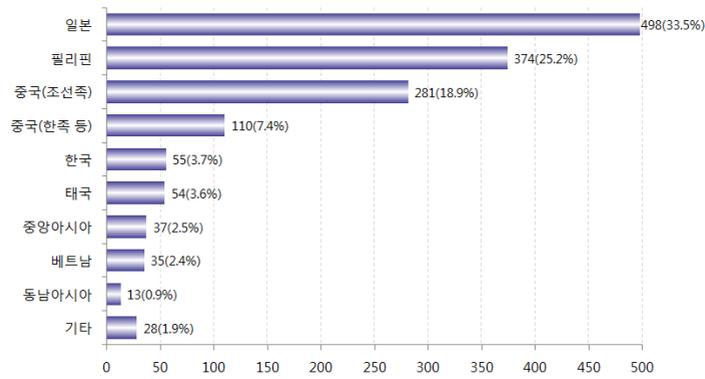
(1) 부모의 출신국 비율

가정환경의 배경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도 조사된 부모의 사례 수는 총 1,485명으로 작년의 1,502명보다 17명이 감소하였다. 이중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리핀으로 전체의 25.2%였으며 다음이 중국 조선족 출신이 18.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절대다수(91%)가 한국출신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일본으로 총 17명(1.1%)이었으며 나머지는 1%미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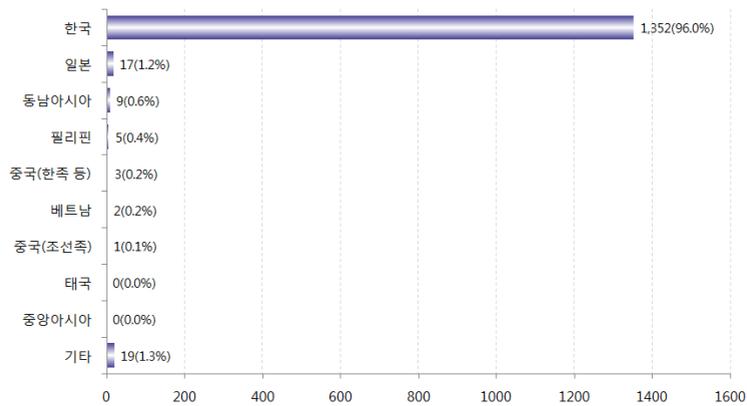
표 III-12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빈도(%)

출신국가	어머니	아버지
한국	55(3.7)	1,352(91.0)
중국(한족 등)	110(7.4)	3(.2)
중국(조선족)	281(18.9)	1(.1)
베트남	35(2.4)	2(.1)
필리핀	374(25.2)	5(.3)
일본	498(33.5)	17(1.1)
태국	54(3.6)	-
동남아시아	13(.9)	9(.6)
중앙아시아	37(.5)	-
기타	28(1.9)	19(1.3)
합계	1,485(100)	1,485(100)



[그림 III-13]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어머니



[그림 III-14] 부모의 출신국가 분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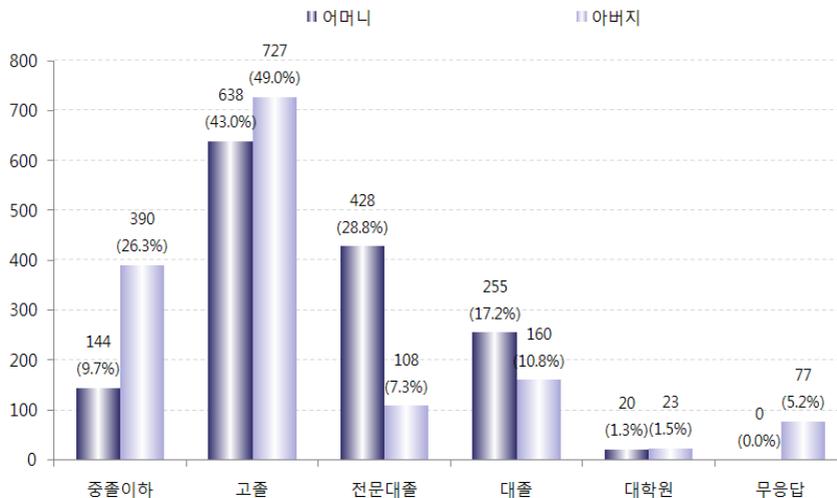
(2)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638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졸(428명, 28.8%), 대졸(255명, 17.2%), 중졸 이하(9.7%), 대학원(20명, 1.3%)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경우도 어머니와 같이 고졸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727명(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졸이하(390명, 26.3%), 대졸(160명, 10.8%), 대학원졸(23명, 1.5%)의 순이었다.

표 III-13 부모 교육수준

빈도(%)

교육수준	어머니	아버지
중졸이하	144(9.7)	390(26.3)
고졸	638(43.0)	727(49.0)
전문대졸	428(28.8)	108(7.3)
대졸	255(17.2)	160(10.8)
대학원	20(1.3)	23(1.5)
무응답	-	77(5.2)
합계	1,485(100)	1,4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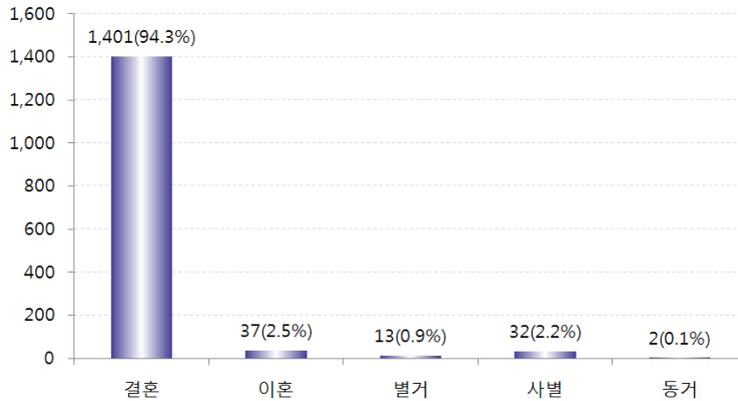
[그림 III-15] 부모교육수준

(3) 부모의 결혼관계

현재의 결혼상태는 결혼상태가 94.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혼한 가정이 2.5%, 사별이 2.2%, 별거가 0.9%, 동거가 0.1%였다.

표 III-14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

결혼상태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동거	합계
빈도(%)	1,401(94.3)	37(2.5)	13(.9)	32(2.2)	2(.1)	1,4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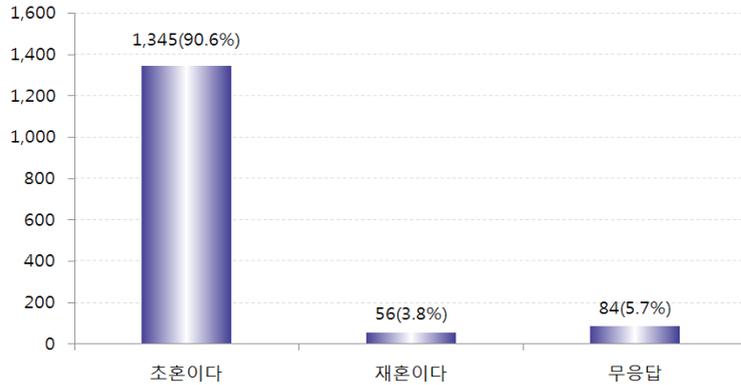


[그림 III-16]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

현재의 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6%가 초혼이라고 응답하였고, 재혼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56명(4.0%)이었다.

표 III-15 현재 결혼의 초혼 여부

초혼 여부	초혼이다	재혼이다	무응답	합계
빈도(%)	1,345(96.0)	56(4.0)	84(5.7)	1,485(100)



[그림 III-17] 현재 결혼의 초혼 여부

(4) 가정형편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어머니들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의 45.1%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588명(39.6%),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사례가 168명(11.3%)로 50% 이상이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59명(4.0%), 아주 잘산다고 응답한 사례는 1명(0.1%)으로 보통 이상 잘산다고 지각하는 사례는 5% 미만이었다.

표 III-16 가정형편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	합계
빈도(%)	168(11.3)	588(39.6)	669(45.1)	59(4.0)	1(.1)	1,4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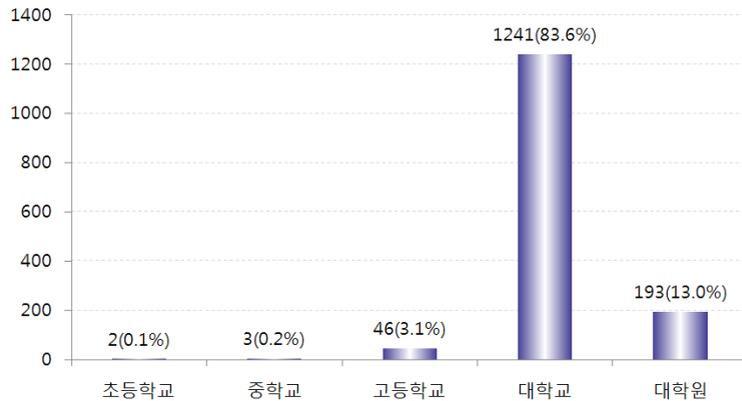
[그림 III-18] 가정형편

(5)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전체의 83.6%가 대학교까지 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대학원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례는 193명(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46명, 3.1%), 중학교(3명, 0.2%), 초등학교(2명, 0.1%)라고 응답한 사례도 극소수 존재하였다.

표 III-17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빈도(%)	2(.1)	3(.2)	46(3.1)	1241(83.6)	193(13.0)	1,485(100)



[그림 III-19]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이와 더불어 대학교 이상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간다면 어떤 수준에서 진학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전문대로 충분하다' 는 응답으로 전체의 10.2%인 152명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문대를 가야만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130명(8.8%)이었으며, 기타로 응답한 사례가 37명(2.5%)이었는데, 기타 응답은 '외국 유학'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18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빈도(%)
전문대로 충분하다	152(10.2)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811(54.6)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304(20.5)
명문대를 가야만 한다	130(8.8)
기타	37(2.5)
무응답	51(3.4)
합계	1,43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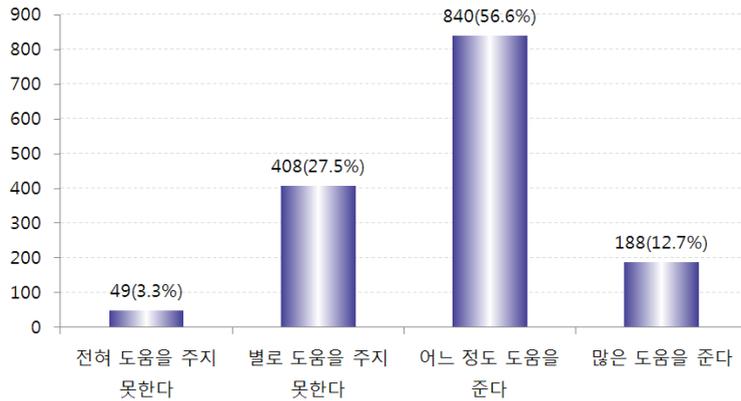
[그림 III-20]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 수준

(6) 자녀의 학교교육에 자신이 도움되는 정도

자녀의 학교교육에 부모로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56.6%인 840명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고 응답을 하였고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응답한 사례가 408명(27.5%), '많은 도움을 준다' 고 응답한 사례가 188명(12.7명),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응답한 사례가 49명(3.3%)이어서 전체의 약 70% 정도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많은 도움을 준다	합계
빈도(%)	49(3.3)	408(27.5)	840(56.6)	188(12.7)	1,4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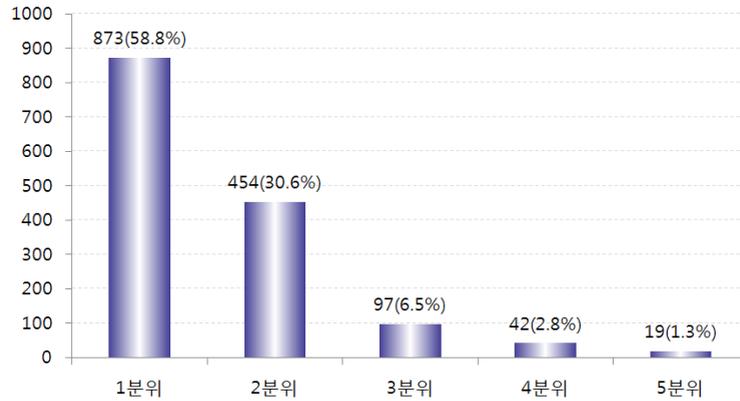
[그림 III-21]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

(7) 가정의 소득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을 2012년도 통계청 기준의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나눈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분위(30.6%), 3분위(6.5%), 4분위(2.8%), 5분위(1.3%)의 순이었다. 따라서 전국평균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소득수준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빈도(%)	873(58.8)	454(30.6)	97(6.5)	42(2.8)	19(1.3)	1,485(100)



[그림 III-22] 소득수준 분위

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의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이번 분석에서는 본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5학년 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⁹⁾. 자료 비교를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5학년 자료 중 ‘다문화가족’ 이라고 표시한 사례를 제외한 총 4,399명을 선정한 후,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적응도(학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및 거주지에 대한 인식도 등 총 8개 변인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선정된 변인은 2010년도 설문지 설계 당시 일반패널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미리 포함시켰던 문항이다.

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배경변인 비교

청소년들을 발달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이전에 각 집단의 부모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일반패널 가정과 다문화패널 가정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선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일반패널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대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 2011년도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수행하였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자료와 비교한 바 있으나, 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청소년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43.9%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을 합하면 49.2%로 나타나 거의 50% 정도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패널 가정의 경우는 아버지가 ‘고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인 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학력인 ‘중졸 이하’ 인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일반패널 가정의 경우 단지 1.8%만이 포함된 반면 다문화패널 가정의 경우는 거의 30%나 되는 비율이 포함되었다.

표 III-21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아버지 교육수준 비교 빈도(%)

구 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χ^2
중졸 이하	395(27.7)	75(1.8)	1255.77***
고졸	736(51.6)	1,584(38.1)	
전문대졸	109(7.6)	430(10.4)	
대졸	162(11.4)	1,825(43.9)	
대학원졸	23(.6)	219(5.3)	
무응답	-	20(.5)	

*** $p < .001$



[그림 III-2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의 경우도 이러한 양상은 유사하였는데, 일반패널 집단의 경우 ‘대졸’ 이상인 비율이 36.8%였던 반면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는 단지 18.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경우는 다문화패널 집단도 최종학력수준이 '중졸이하' 인 집단은 9.9%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표 III-22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어머니 교육수준 비교

빈도(%)

구 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χ^2
중졸 이하	149(9.9)	74(1.8)	476.47***
고졸	645(42.9)	2,024(48.0)	
전문대졸	431(28.7)	548(13.0)	
대졸	258(17.2)	1,448(34.4)	
대학원졸	20(1.3)	102(2.4)	
무응답	-	18(.4)	

*** $p < .001$



[그림 III-2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어머니 교육수준

다음으로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소득 1분위에 속한 집단이 다문화패널집단 56.1%, 일반패널집단 57.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문화패널의 경우는 2분위에 속한 비율이 30.0%로 일반패널의 13.0%보다 높았고, 4분위에 속한 비율은 일반패널의 11.6%에 비해 매우 낮았다(2.7%).

표 III-23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소득수준 비교

빈도(%)

구 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χ^2
1분위	896(56.1)	2,466(57.8)	357.74***
2분위	451(30.0)	571(13.0)	
3분위	95(6.3)	417(9.5)	
4분위	41(2.7)	510(11.6)	
5분위	19(1.3)	302(6.9)	
무응답	28(1.9)	133(3.0)	

*** $p < .001$



[그림 III-2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가정환경을 비교한 결과, 비록 단순히 두 가지 변인만을 살펴보았으나 다문화가족이 비(非)다문화가족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집단의 발달수준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에서 다문화패널집단보다 일반패널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

의 경우도 일반패널의 평균이 높았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패널집단의 평균이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학업관련 영역과 교사관계의 평균 역시 높았다. 그러나 학교생활 적응의 교우관계 영역과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거주지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 문항을 비교하였는데, 일반패널 집단이 다문화패널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체적 발달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키와 몸무게를 비교한 결과 일반패널 집단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달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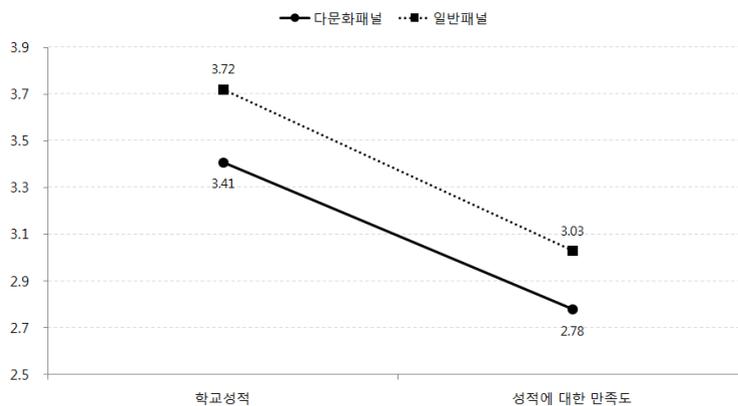
표 III-2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전체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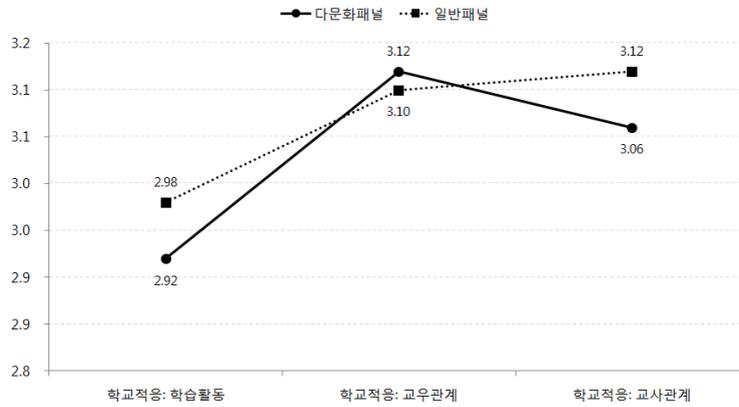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구 분	다문화패널(N=1,503)	일반패널(N=4,399)	t
학교성적	3.41(.69)	3.72(.73)	-12.85***
성적에 대한 만족도	2.78(.77)	3.03(.74)	-10.12***
학교적응: 학습활동	2.92(.49)	2.98(.53)	-3.49***
학교적응: 교우관계	3.12(.45)	3.10(.47)	1.47
학교적응: 교사관계	3.06(.61)	3.12(.66)	-2.93**
삶의 만족도	3.24(.62)	3.26(.64)	-.91
다문화수용성	2.93(.57)	2.90(.64)	1.37
거주지 인식	3.02(.49)	3.08(.53)	-3.38***
키	144.08(7.36)	147.47(7.32)	-15.46***
몸무게	38.75(9.21)	40.34(8.64)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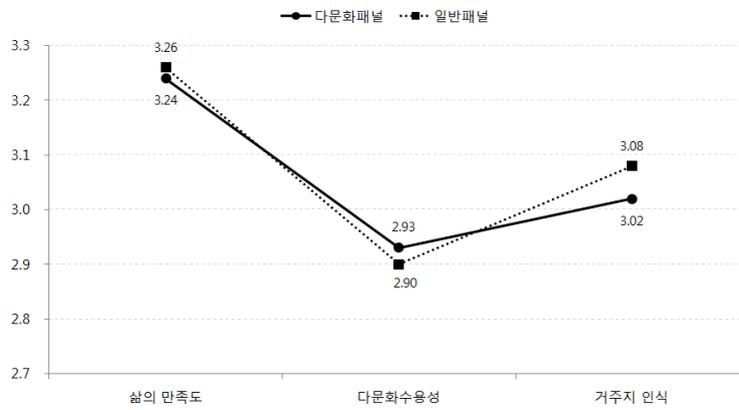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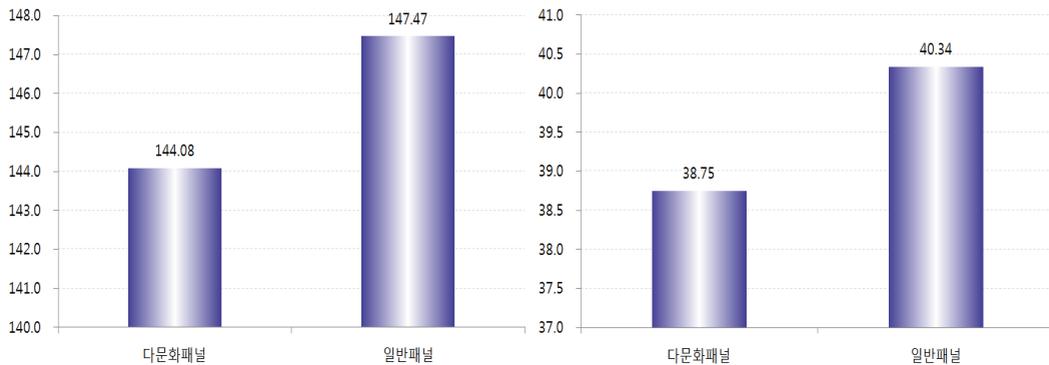
[그림 III-2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



[그림 III-2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의 차이



[그림 III-2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적응 차이



[그림 III-2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키 차이(전체)

[그림 III-3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차이(전체)

3)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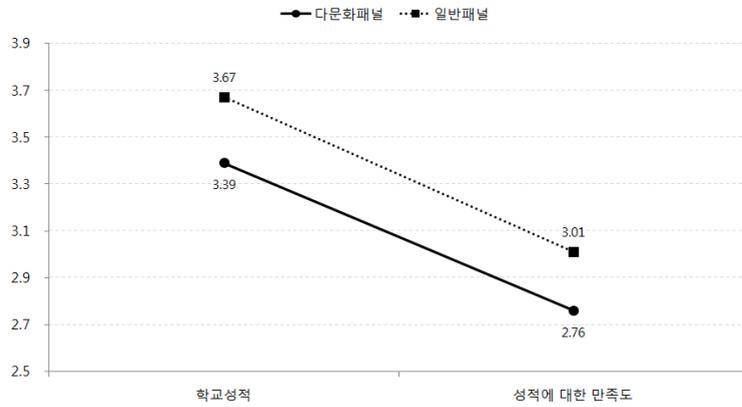
그러나 위에서 다문화집단과 비(非)다문화집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앞에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다문화집단이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을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비교 분석 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비교분석을 위하여 소득수준을 5분위로 구분하였던 것을 다시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1, 2분위는 소득수준 '하' 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3분위인 집단은 '중' , 4, 5분위인 집단은 '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의 상, 중, 하 수준에 따라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청소년의 발달 상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수준이 '하' 인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 청소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와 다문화수용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일반패널 청소년들이 다문화패널 청소년들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는 다문화패널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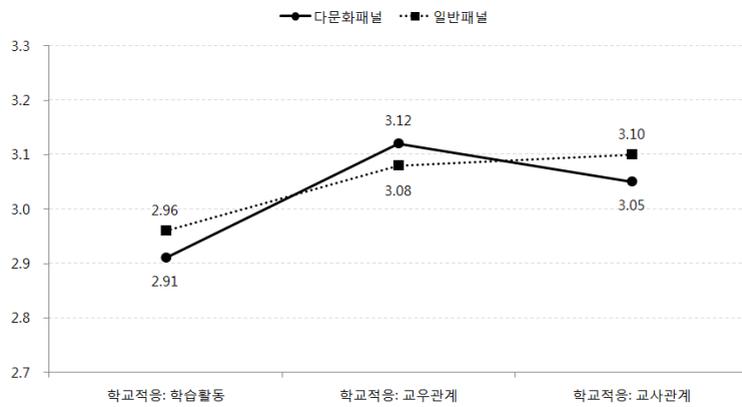
표 III-2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하) 평균(표준편차)

구 분	다문화패널(N=1,320)	일반패널(N=3,016)	t
학교성적	3.39(.68)	3.67(.74)	-12.36***
성적에 대한 만족도	2.76(.77)	3.01(.74)	-10.26***
학교적응: 학습활동	2.91(.49)	2.96(.53)	-2.80**
학교적응: 교우관계	3.12(.45)	3.08(.48)	2.09*
학교적응: 교사관계	3.05(.60)	3.10(.66)	-2.44*
삶의 만족도	3.23(.61)	3.25(.63)	-1.11
다문화수용성	2.92(.56)	2.90(.64)	.87
거주지 인식	3.01(.48)	3.07(.53)	-3.25***
키	143.99(7.41)	147.36(7.49)	-13.62***
몸무게	38.76(9.32)	40.34(8.78)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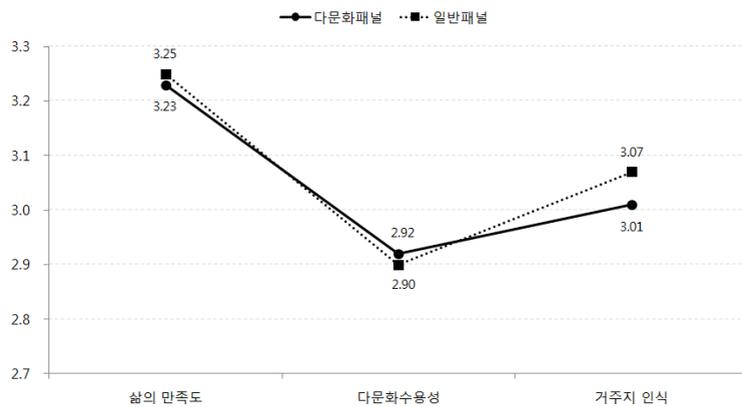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하)



[그림 III-3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하)



[그림 III-3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하)



[그림 III-3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 (소득수준: 하)



[그림 III-3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차이 (소득수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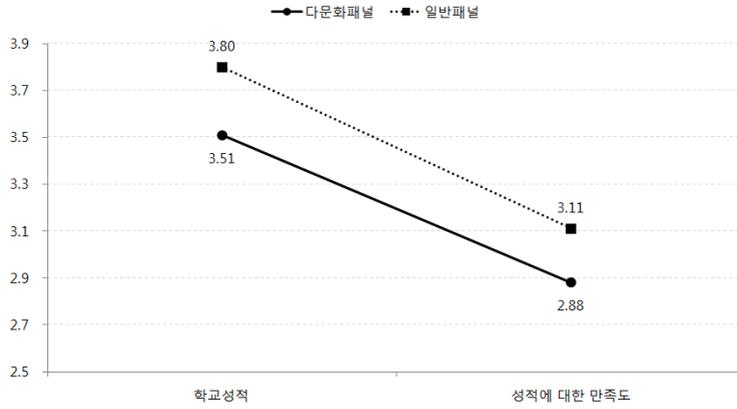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중’ 인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하’ 인 집단과 달리 학교성적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키 등 세 가지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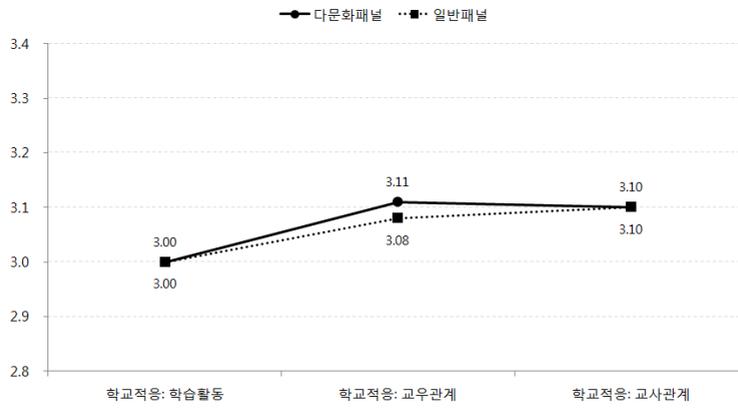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구 분	다문화(N=95)	일반(N=417)	t
학교성적	3.51(.74)	3.80(.72)	-3.44***
성적에 대한 만족도	2.88(.76)	3.11(.76)	-2.65**
학교적응: 학습활동	3.00(.47)	3.00(.53)	-.03
학교적응: 교우관계	3.11(.49)	3.08(.48)	.49
학교적응: 교사관계	3.10(.62)	3.10(.66)	-.03
삶의 만족도	3.30(.62)	3.24(.69)	.80
다문화수용성	2.97(.62)	2.91(.63)	.79
거주지 인식	3.02(.54)	3.10(.52)	-1.46
키	145.32(7.04)	147.40(7.20)	-2.56*
몸무게	39.41(7.80)	39.93(8.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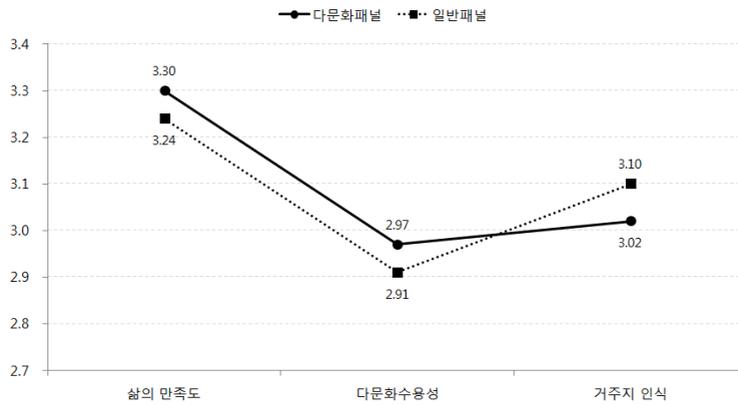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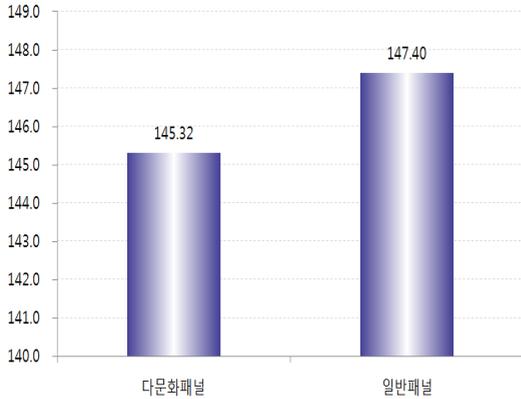
[그림 III-3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중)



[그림 III-3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중)



[그림 III-3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중)



[그림 III-3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소득수준: 중)



[그림 III-4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몸무게 차이(소득수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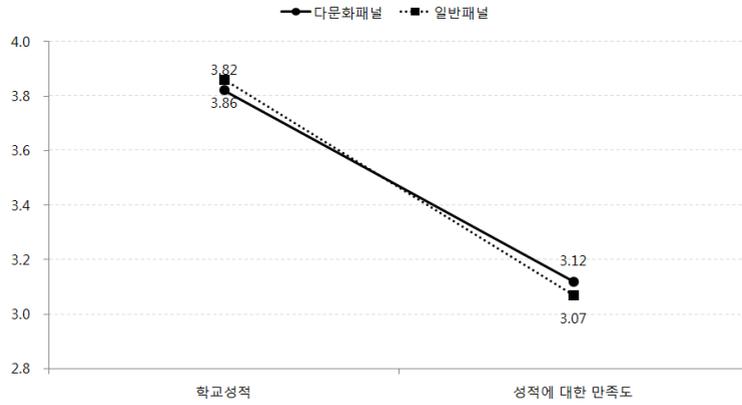
소득수준이 ‘상’ 인 집단의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양상은 소득수준이 ‘하’ , ‘중’ 인 집단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소득수준이 ‘상’ 인 집단에서는 다문화수용성 수준에서 다문화패널집단이 일반패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패널집단이 다문화패널 집단보다 키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소득수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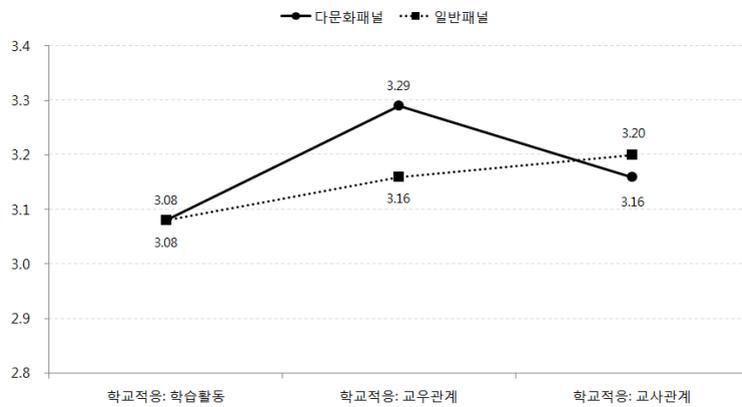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구 분	다문화(N=60)	일반(N=812)	t
학교성적	3.82(.74)	3.86(.68)	-.35
성적에 대한 만족도	3.12(.85)	3.07(.73)	.49
학교적응: 학습활동	3.08(.52)	3.08(.49)	.03
학교적응: 교우관계	3.29(.47)	3.16(.45)	2.05
학교적응: 교사관계	3.16(.66)	3.20(.65)	-.51
삶의 만족도	3.34(.64)	3.29(.61)	.63
다문화수용성	3.13(.61)	2.94(.64)	2.22*
거주지 인식	3.19(.51)	3.11(.51)	1.16
키	144.42(6.48)	147.94(6.89)	-3.84***
몸무게	38.42(9.05)	40.66(8.32)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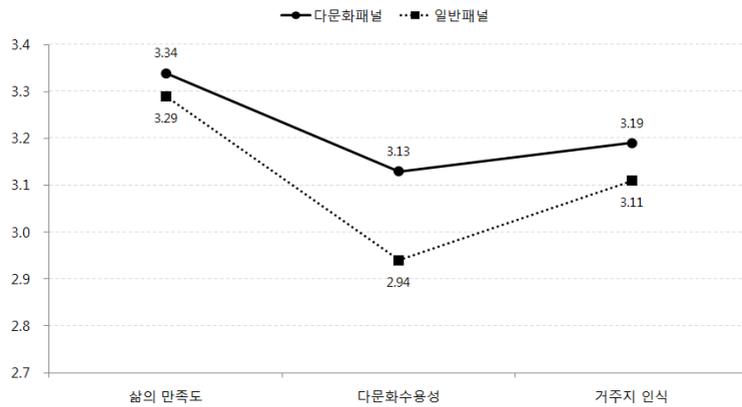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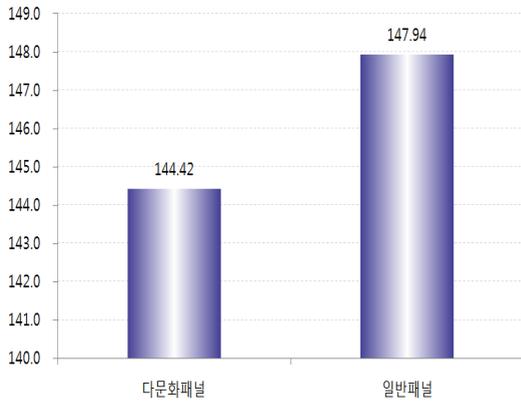
[그림 III-4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관련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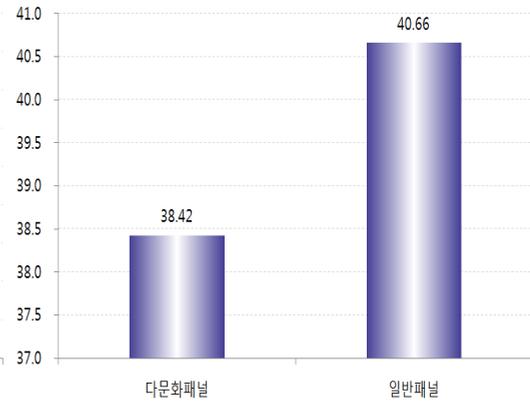
[그림 III-4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적응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상)



[그림 III-4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차이(소득수준: 상)



[그림 III-4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키 차이 (소득수준: 상)



[그림 III-4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집단의 몸무게 차이 (소득수준: 상)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패널 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패널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반패널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패널 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의 차이는 전체집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비교

다음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다문화패널 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패널과 공통으로 포함된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 세 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학교성적에 대한 배경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다음이 가정의 소득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순이었으나 일반패널집단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

의 순이었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패널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패널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중 학업관련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패널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에서는 다문화패널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고, 일반패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다문화패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의 소득수준인 반면 일반패널집단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산출되었고,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다문화패널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일반패널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패널에서는 배경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패널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패널 집단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일반패널집단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문화패널이건 일반패널이건 간에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이 일반패널에 비해 더 영향력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8 다문화패널 집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학교성적	어머니 교육수준	.095	-3.43***	.018
	가정 소득수준	.087	3.18***	.028
	아버지 교육수준	.078	2.72**	.034
성적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교육수준	.075	2.78**	.007
	가정 소득수준	.058	.14*	.010
학교적응: 학습활동	아버지 교육수준	.013	4.59***	.015
학교적응: 교우관계	아버지 교육수준	.107	4.01***	.012
학교적응: 교사관계	아버지 교육수준	.065	2.43*	.004
삶의 만족도	가정 소득수준	.055	2.07*	.003
다문화수용성	아버지 교육수준	.083	3.11**	.007
거주지 인식	-	-	-	-
키	가정 소득수준	.078	2.94**	.006
몸무게	-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III-29 일반패널 집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학교성적	아버지 교육수준	.143	6.67***	.040
	어머니 교육수준	.075	3.48***	.043
	가정 소득수준	.032	2.00*	.044
성적에 대한 만족도	아버지 교육수준	.105	6.58***	.011
학교적응: 학습활동	아버지 교육수준	.131	6.09***	.032
	어머니 교육수준	.070	3.24***	.034
학교적응: 교우관계	어머니 교육수준	.085	3.92***	.017
	아버지 교육수준	.067	3.08**	.019
학교적응: 교사관계	아버지 교육수준	.074	4.65***	.006
삶의 만족도	아버지 교육수준	.051	3.20***	.003
다문화수용성	어머니 교육수준	.060	3.76***	.004
거주지 인식	어머니 교육수준	.079	4.95***	.006
키	아버지 교육수준	.038	2.39*	.001
몸무게	-	-	-	-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비교 결과 요약

- 다문화패널 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음.
- 다문화패널 집단이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3.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가정환경특성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011년도에도 가정환경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어머니의 출신국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도에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등의 배경에 따른 차이와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여 수준에 따른 차이,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문화적응의 유형 및 수준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가정의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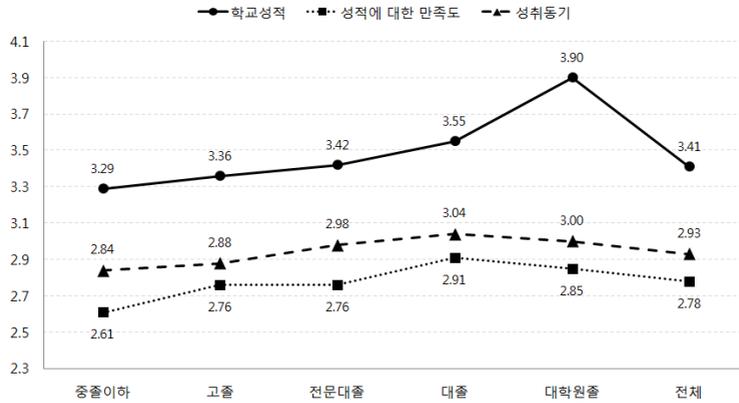
(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발달차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비교를 했을 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만족도와 성취동기의 경우 어머니가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의 평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중졸이하 (N=149)	고졸 (N=645)	전문대졸 (N=431)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N=1503)	F
학교성적		3.29(.61) _c	3.36(.69) _{bc}	3.42(.69) _{bc}	3.55(.71) _b	3.90(.74) _a	3.41(.69)	7.33***
성적만족도		2.61(.75) _b	2.76(.77) _{ab}	2.76(.77) _{ab}	2.91(.76) _a	2.85(1.04) _{ab}	2.78(.77)	3.80**
성취동기		2.84(.49) _b	2.88(.50) _{ab}	2.98(.46) _{ab}	3.04(.49) _a	3.00(.57) _{ab}	2.93(.49)	7.81***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림 III-46]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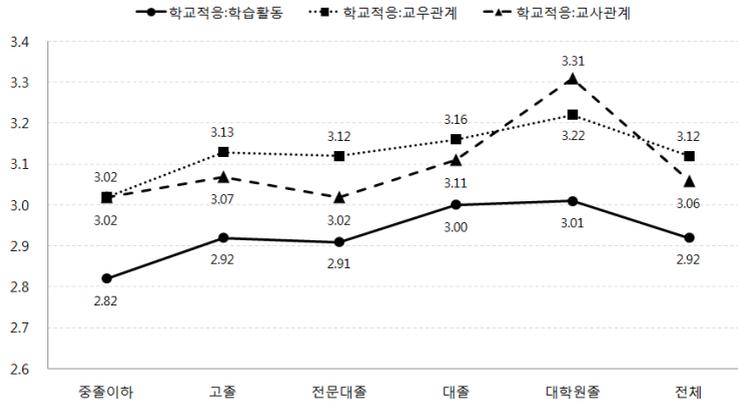
두 번째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관련 요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적응관련 요인으로는 학업,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세 영역을 살펴보았고, 친구의 지지나 교사의 지지 그리고 집단따돌림 경험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 중 학업측면과 교우관계측면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관계의 경우 어머니가 대학원졸 일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들의 교사관계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었고 F검증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값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친구지지, 교사지지 및 집단따돌림 등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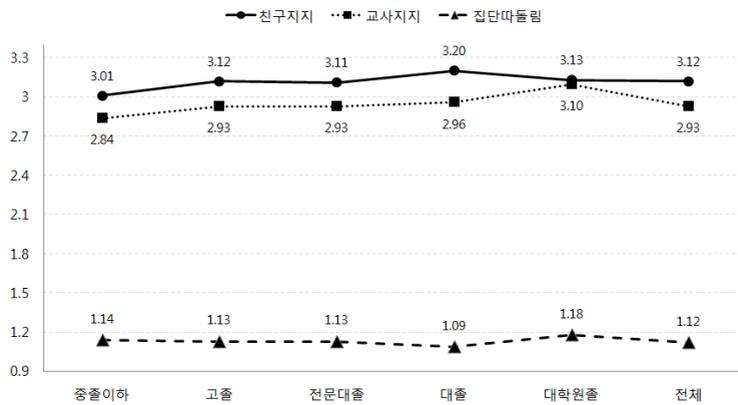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 자녀	중졸이하 (N=149)	고졸 (N=645)	전문대졸 (N=431)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N=1503)	F
학교적응:학습활동	2.82(.47) _b	2.92(.50) _{ab}	2.91(.49) _{ab}	3.00(.45) _a	3.01(.67) _a	2.92(.49)	3.61**
학교적응:교우관계	3.02(.41) _b	3.13(.45) _{ab}	3.12(.46) _{ab}	3.16(.46) _{ab}	3.22(.54) _a	3.12(.45)	2.58*
학교적응:교사관계	3.02(.58) _b	3.07(.62) _b	3.02(.59) _b	3.11(.60) _b	3.31(.79) _a	3.06(.61)	1.95
친구지지	3.01(.61)	3.12(.67)	3.11(.69)	3.20(.66)	3.13(1.05)	3.12(.67)	1.83
교사지지	2.84(.71) _b	2.93(.72) _{ab}	2.93(.68) _{ab}	2.96(.73) _{ab}	3.10(.96) _a	2.93(.71)	.93
집단따돌림	1.14(.34)	1.13(.38)	1.13(.36)	1.09(.30)	1.18(.42)	1.12(.36)	.73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4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4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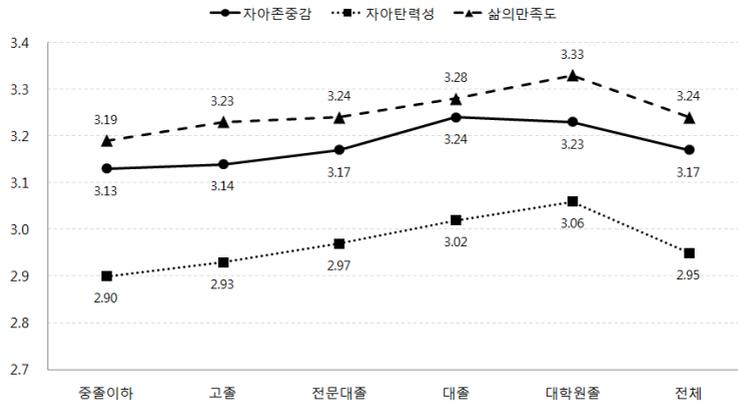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응영역의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심리사회적응영역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총 6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자아탄력성과 신체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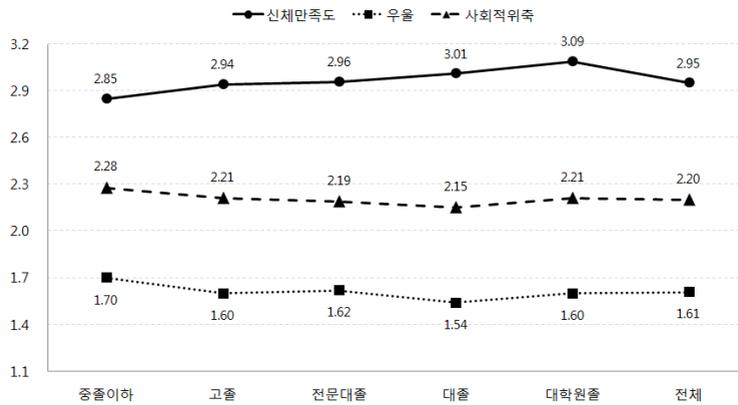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중졸이하 (N=149)	고졸 (N=645)	전문대졸 (N=431)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N=1,503)	F
자아존중감	3.13(.52)	3.14(.56)	3.17(.54)	3.24(.55)	3.23(.61)	3.17(.55)	1.66
자아탄력성	2.90(.45)	2.93(.46)	2.97(.49)	3.02(.45)	3.06(.69)	2.95(.47)	2.54*
삶의 만족도	3.19(.63)	3.23(.61)	3.24(.63)	3.28(.57)	3.33(.88)	3.24(.61)	.63
신체만족도	2.85(.52) _b	2.94(.49) _{ab}	2.96(.51) _{ab}	3.01(.52) _{ab}	3.09(.45) _a	2.95(.50)	2.79*
우울	1.70(.53)	1.60(.51)	1.62(.56)	1.54(.51)	1.60(.55)	1.61(.53)	2.30
사회적 위축	2.28(.71)	2.21(.71)	2.19(.76)	2.15(.72)	2.21(.90)	2.20(.73)	.88

*p<.05, Duncan: a)b



[그림 III-49]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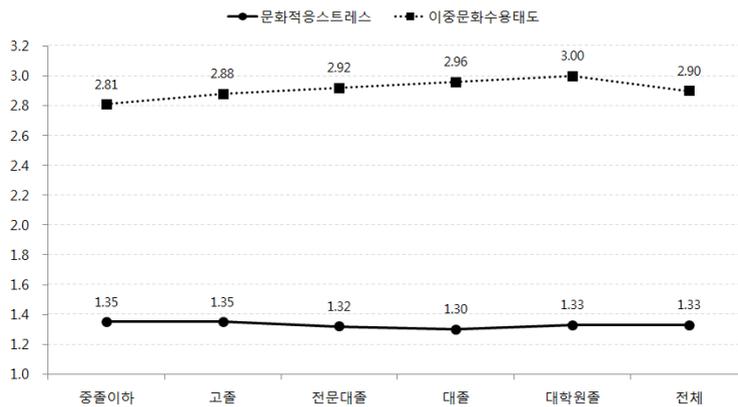
[그림 III-5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영역에서는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등의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이중문화수용태도만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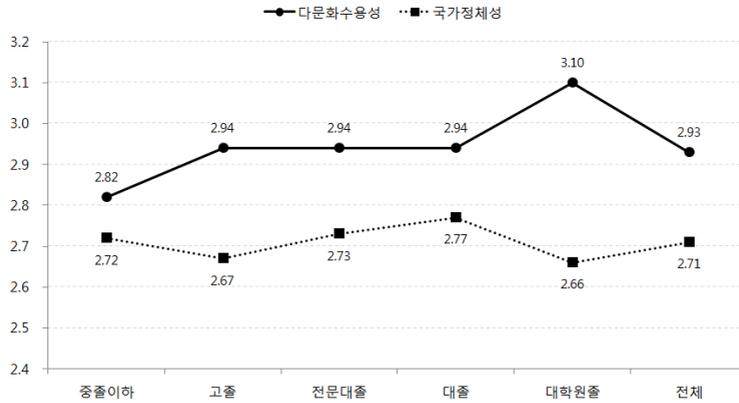
표 III-3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중졸이하 (N=149)	고졸 (N=645)	전문대졸 (N=431)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N=1,503)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5(.38)	1.35(.40)	1.32(.38)	1.30(.40)	1.33(.53)	1.33(.40)	.79
이중문화수용태도		2.81(.40) _b	2.88(.40) _{ab}	2.92(.40) _{ab}	2.96(.40) _a	3.00(.55) _a	2.90(.40)	3.91**
다문화수용성		2.82(.60) _b	2.94(.56) _{ab}	2.94(.54) _{ab}	2.94(.60) _{ab}	3.10(.79) _a	2.93(.57)	1.93
국가정체성		2.72(.62)	2.67(.65)	2.73(.64)	2.77(.65)	2.66(.73)	2.71(.65)	1.34

** $p < .01$, Duncan: a)b



[그림 III-5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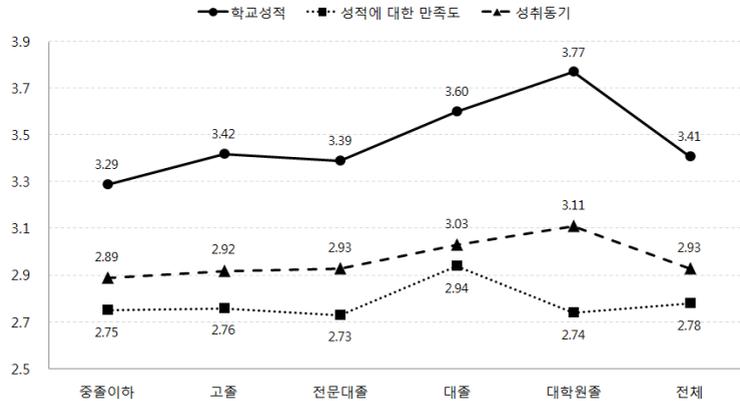
[그림 III-5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성취영역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학교성적과 성취동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자녀	중졸이하 (N=395)	고졸 (N=736)	전문대졸 (N=109)	대졸 (N=162)	대학원졸 (N=23)	전체 (N=1,425)	F
학교성적	3.29(.67) _c	3.42(.70) _{bc}	3.39(.71) _{bc}	3.60(.68) _{ab}	3.77(.66) _a	3.41(.70)	7.73***
성적만족도	2.75(.77)	2.76(.77)	2.73(.75)	2.94(.79)	2.74(.96)	2.78(.78)	2.04
성취동기	2.89(.48) _b	2.92(.49) _b	2.93(.49) _b	3.03(.51) _{ab}	3.11(.45) _a	2.93(.49)	3.34*

* $p < .05$,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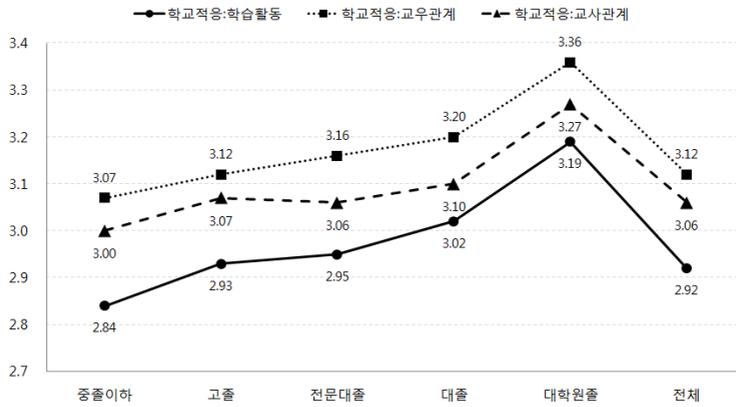
[그림 III-53]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영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업관련 적응수준과 교우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 및 교사의 지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학교생활 적응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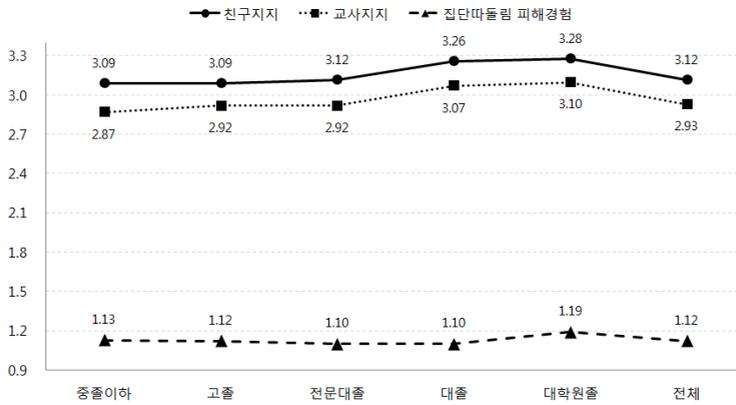
표 III-3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아버지	중졸이하 (N=395)	고졸 (N=736)	전문대졸 (N=109)	대졸 (N=162)	대학원졸 (N=23)	전체 (N=1,425)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84(.51) _c	2.93(.48) _{bc}	2.95(.47) _{bc}	3.02(.50) _b	3.19(.55) _a	2.92(.49)	6.34***
학교적응: 교우관계		3.07(.44) _b	3.12(.46) _b	3.16(.44) _b	3.20(.47) _b	3.36(.46) _a	3.12(.46)	4.54**
학교적응: 교사관계		3.00(.60) _b	3.07(.61) _{ab}	3.06(.55) _{ab}	3.10(.66) _{ab}	3.27(.61) _a	3.06(.61)	2.06
친구지지		3.09(.65)	3.09(.67)	3.12(.65)	3.26(.70)	3.28(.85)	3.12(.67)	2.69*
교사지지		2.87(.70)	2.92(.71)	2.92(.73)	3.07(.71)	3.10(.87)	2.93(.71)	2.60*
집단따돌림		1.13(.37)	1.12(.34)	1.10(.24)	1.10(.38)	1.19(.41)	1.12(.35)	.52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림 III-5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5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영역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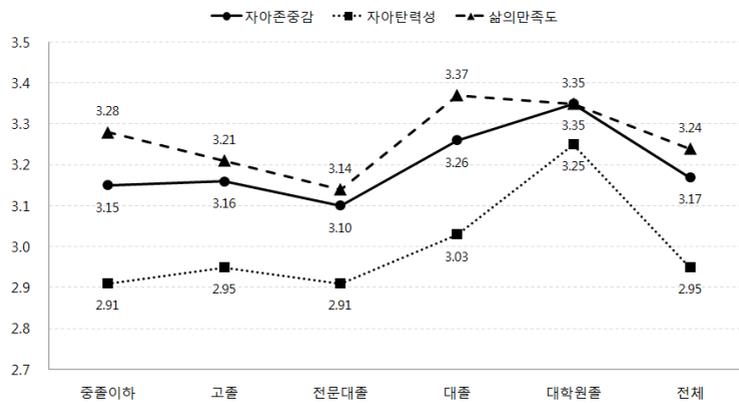
표 III-3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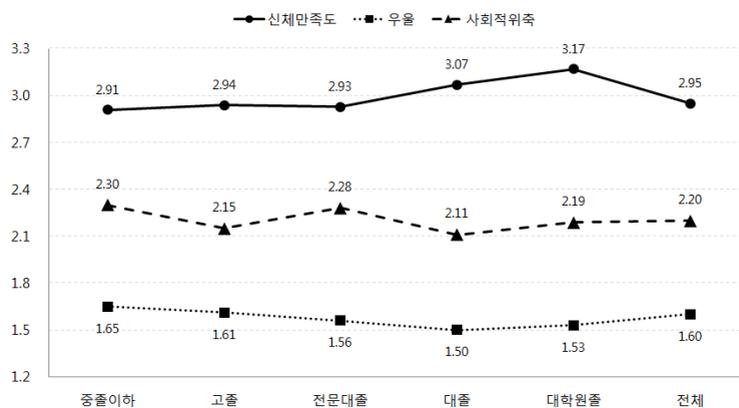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자녀	중졸이하 (N=395)	고졸 (N=736)	전문대졸 (N=109)	대졸 (N=162)	대학원졸 (N=23)	전체 (N=1,425)	F
자아존중감	3.15(.53) _b	3.16(.56) _b	3.10(.56) _b	3.26(.55) _{ab}	3.35(.42) _a	3.17(.55)	2.32
자아탄력성	2.91(.43) _b	2.95(.46) _b	2.91(.45) _b	3.03(.56) _b	3.25(.57) _a	2.95(.47)	4.36**
삶의 만족도	3.28(.56) _{ab}	3.21(.64) _{ab}	3.14(.64) _b	3.37(.57) _a	3.35(.70) _{ab}	3.24(.62)	3.50**
신체만족도	2.91(.49) _b	2.94(.51) _b	2.93(.51) _b	3.07(.50) _{ab}	3.17(.43) _a	2.95(.50)	4.15**
우울	1.65(.55)	1.61(.53)	1.56(.53)	1.50(.47)	1.53(.54)	1.60(.53)	2.60*
사회적 위축	2.30(.72)	2.15(.73)	2.28(.74)	2.11(.72)	2.19(.88)	2.20(.73)	3.53**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5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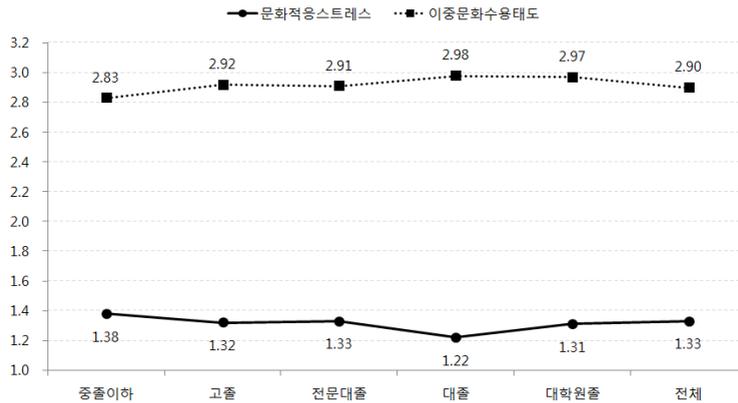
[그림 III-5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문화적응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증졸인 집단이 문화적 스트레스는 가장 높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관련 발달수준이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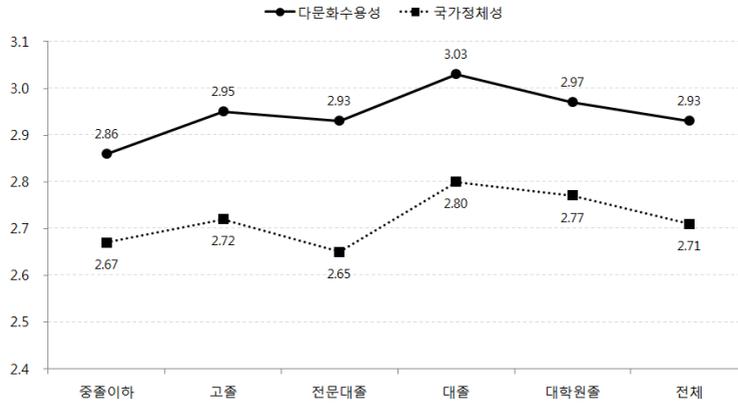
표 III-3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자녀	중졸이하 (N=395)	고졸 (N=736)	전문대졸 (N=109)	대졸 (N=162)	대학원졸 (N=23)	전체 (N=1,425)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8(.43) _a	1.32(.37) _{ab}	1.33(.37) _{ab}	1.22(.35) _b	1.31(.51) _{ab}	1.33(.39)	5.11***
이중문화수용태도	2.83(.39) _b	2.92(.40) _{ab}	2.91(.38) _{ab}	2.98(.44) _a	2.97(.34) _a	2.90(.40)	5.61***
다문화수용성	2.86(.56)	2.95(.56)	2.93(.58)	3.03(.62)	2.97(.66)	2.93(.57)	3.38**
국가정체성	2.67(.67)	2.72(.64)	2.65(.63)	2.80(.66)	2.77(.76)	2.71(.65)	1.38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58]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59]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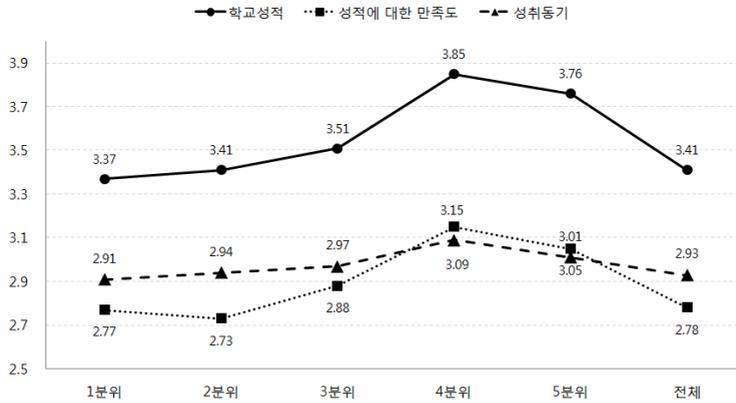
(2)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발달차이

다음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교성적과 성적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 4분위일 때까지이고 5분위가 되면 오히려 약간 떨어져서 소득수준이 4분위인 집단보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취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8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가정소득수준 자녀	1분위 (N=869)	2분위 (N=451)	3분위 (N=95)	4분위 (N=41)	5분위 (N=19)	전체 (N=1,475)	F
학교성적	3.37(.71) _c	3.41(.62) _c	3.51(.74) _{bc}	3.85(.76) _a	3.76(.72) _{ab}	3.41(.69)	6.66***
성적만족도	2.77(.79) _{bc}	2.73(.73) _c	2.88(.76) _{abc}	3.15(.91) _a	3.05(.71) _{ab}	2.78(.78)	3.85**
성취동기	2.91(.51)	2.94(.45)	2.97(.49)	3.09(.48)	3.01(.42)	2.93(.49)	1.81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림 III-60]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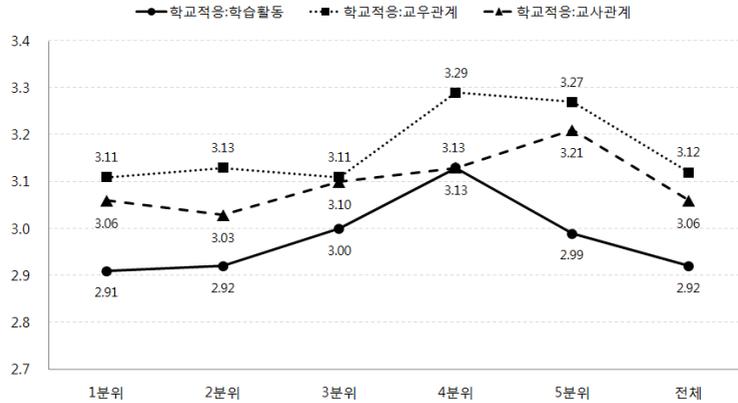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관련 학교적응과 친구의 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4분위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관련 학교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분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교우관계나 교사관계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지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친구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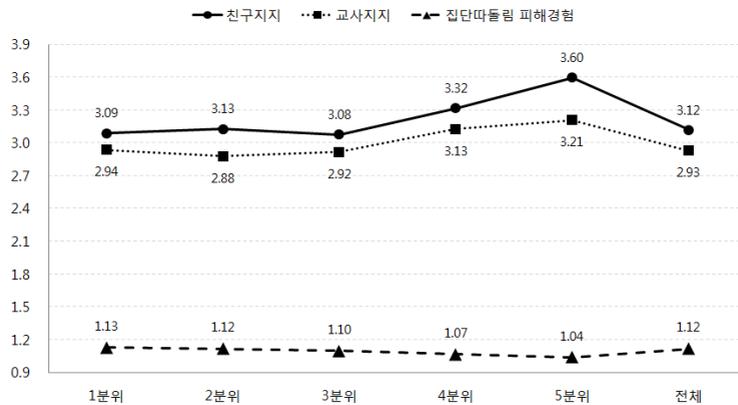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자녀	가정소득수준	1분위 (N=869)	2분위 (N=451)	3분위 (N=95)	4분위 (N=41)	5분위 (N=19)	전체 (N=1475)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1(.50) _b	2.92(.47) _b	3.00(.47) _{ab}	3.13(.53) _a	2.99(.51) _{ab}	2.92(.49)	2.64*
학교적응: 교우관계		3.11(.45)	3.13(.44)	3.11(.49)	3.29(.50)	3.27(.41)	3.12(.45)	2.35
학교적응: 교사관계		3.06(.60)	3.03(.61)	3.10(.62)	3.13(.69)	3.21(.63)	3.06(.61)	.75
친구지지		3.09(.68) _b	3.13(.64) _b	3.08(.71) _b	3.32(.77) _b	3.60(.49) _a	3.12(.67)	3.86**
교사지지		2.94(.70) _{ab}	2.88(.73) _b	2.92(.69) _b	3.13(.75) _{ab}	3.21(.64) _a	2.93(.71)	2.14
집단따돌림		1.13(.37)	1.12(.36)	1.10(.27)	1.07(.24)	1.04(.09)	1.12(.36)	.83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Ⅲ-61]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Ⅲ-62]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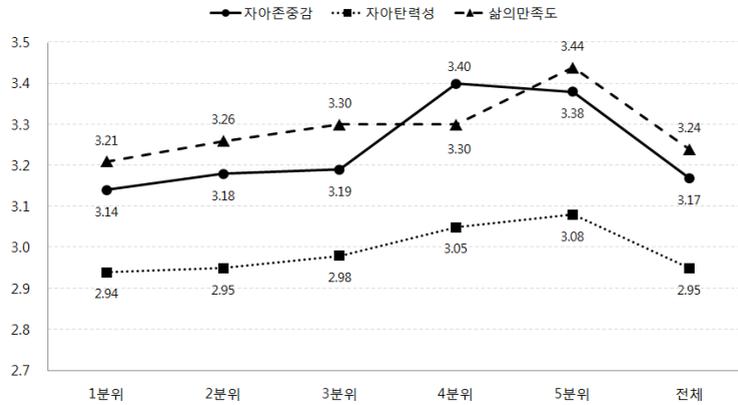
다음으로 심리사회적응 관련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변인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4분위 까지만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5분위인 집단의 경우는 4분위 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약간 낮아지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극히 높은 경우는 오히려 4분위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함을 시사하였다.

표 III-40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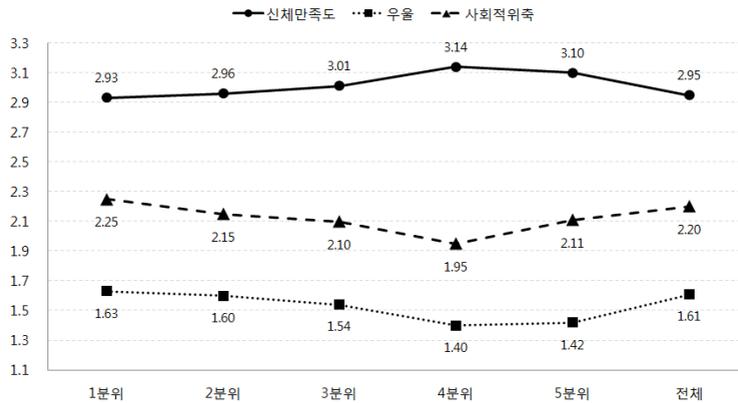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가정소득수준 자녀	1분위 (N=869)	2분위 (N=451)	3분위 (N=95)	4분위 (N=41)	5분위 (N=19)	전체 (N=1475)	F
자아존중감	3.14(.55) _c	3.18(.54) _{bc}	3.19(.52) _{bc}	3.40(.54) _a	3.38(.54) _{ab}	3.17(.55)	3.13*
자아탄력성	2.94(.48)	2.95(.43)	2.98(.52)	3.05(.56)	3.08(.45)	2.95(.47)	.95
삶의 만족도	3.21(.62)	3.26(.60)	3.30(.62)	3.30(.70)	3.44(.48)	3.24(.62)	1.29
신체만족도	2.93(.51) _b	2.96(.48) _{ab}	3.01(.53) _{ab}	3.14(.47) _a	3.10(.51) _{ab}	2.95(.50)	2.68*
우울	1.63(.53) _a	1.60(.53) _{ab}	1.54(.54) _{ab}	1.40(.44) _b	1.42(.47) _{ab}	1.61(.53)	2.98*
사회적 위축	2.25(.73)	2.15(.73)	2.10(.74)	1.95(.65)	2.11(.75)	2.20(.73)	3.14*

* $p < .05$, Duncan: a)b)c



[그림 III-63]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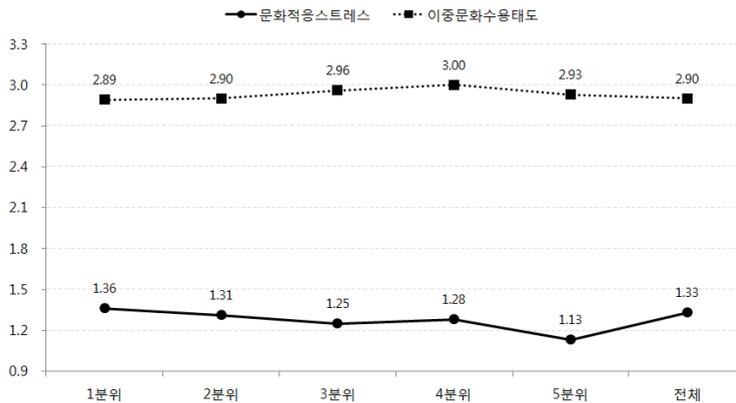
[그림 III-64]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영역에서는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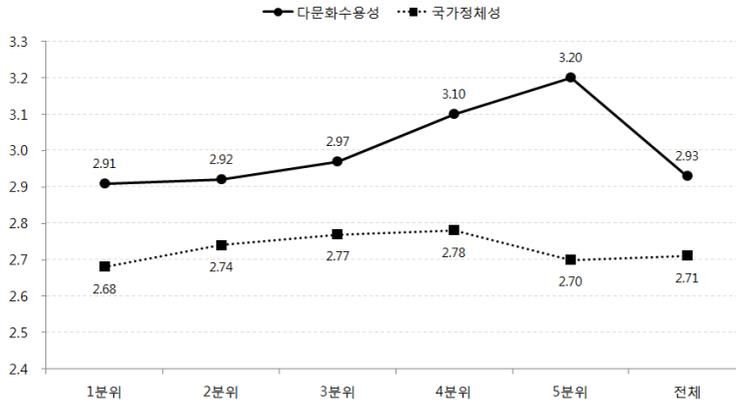
표 III-41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가정소득수준 자녀	1분위 (N=869)	2분위 (N=451)	3분위 (N=95)	4분위 (N=41)	5분위 (N=19)	전체 (N=1475)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2) _a	1.31(.36) _a	1.25(.35) _{ab}	1.28(.34) _{ab}	1.13(.13) _b	1.33(.40)	3.46**
이중문화수용태도	2.89(.42)	2.90(.37)	2.96(.38)	3.00(.47)	2.93(.31)	2.90(.40)	1.26
다문화수용성	2.91(.58) _b	2.92(.54) _b	2.97(.62) _b	3.10(.64) _{ab}	3.20(.56) _a	2.93(.57)	2.29
국가정체성	2.68(.67)	2.74(.62)	2.77(.57)	2.78(.74)	2.70(.61)	2.71(.65)	.83

**p<.01, Duncan: a)b



[그림 III-65]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66]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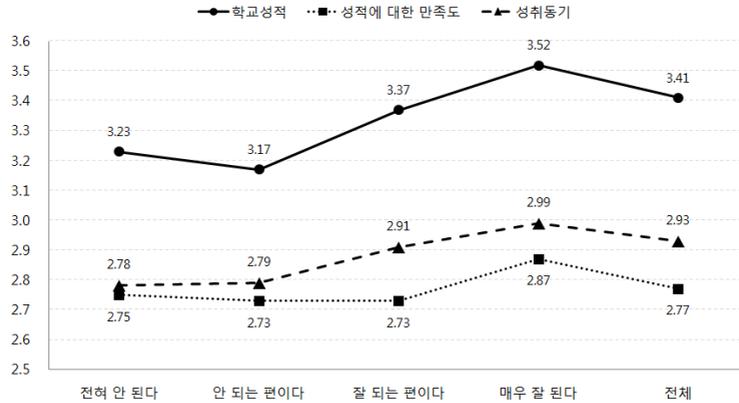
(3)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되는지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할수록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 만족도,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III-42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안 된다 (N=8)	안 되는 편 (N=89)	잘 되는 편 (N=861)	매우 잘 된다 (N=462)	전체 (N=1,420)	F
학교성적	3.23(.70)	3.17(.64)	3.37(.69)	3.52(.68)	3.41(.69)	8.52***
성적만족도	2.75(.89)	2.73(.74)	2.73(.78)	2.87(.78)	2.77(.78)	3.46*
성취동기	2.78(.57)	2.79(.51)	2.91(.50)	2.99(.45)	2.93(.49)	5.87**

* $\alpha.05$, ** $\alpha.01$, *** $\alpha.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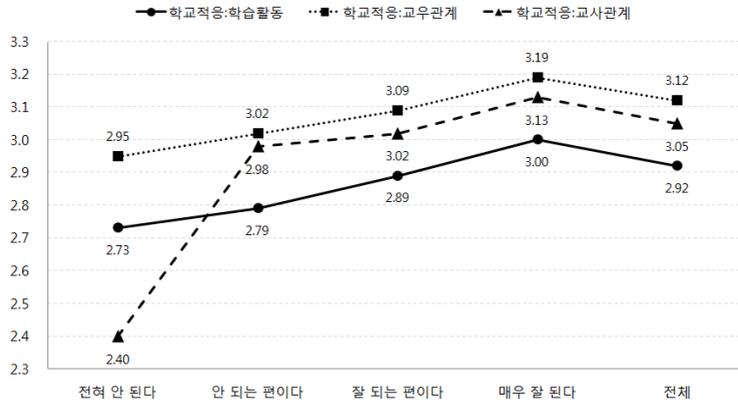
[그림 III-67]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다음으로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적응수준 역시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할수록 학교적응,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경우는 ‘안되는 편’ 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잘되는 편’ 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높았으며 ‘전혀 안된다’ 또는 ‘매우 잘된다’ 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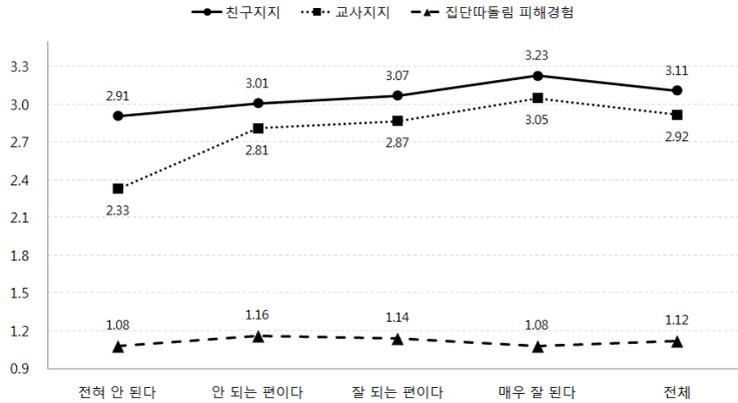
표 III-43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안 된다 (N=8)	안 되는 편 (N=89)	잘 되는 편 (N=861)	매우 잘 된다 (N=462)	전체 (N=1420)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73(.47)	2.79(.51)	2.89(.49)	3.00(.48)	2.92(.49)	7.42***
학교적응: 교우관계		2.95(.41)	3.02(.45)	3.09(.45)	3.19(.45)	3.12(.45)	7.53***
학교적응: 교사관계		2.40(.57) _b	2.98(.63) _a	3.02(.60) _a	3.13(.61) _a	3.05(.61)	7.15***
친구지지		2.91(.80)	3.01(.66)	3.07(.68)	3.23(.63)	3.11(.67)	6.91***
교사지지		2.33(.66) _b	2.81(.68) _a	2.87(.71) _a	3.05(.69) _a	2.92(.71)	8.78***
집단따돌림		1.08(.18)	1.16(.40)	1.14(.40)	1.08(.23)	1.12(.36)	3.12*

* $p < .05$, *** $p < .001$, Duncan: a>b



[그림 III-6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69]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수준의 차이 역시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했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등은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의사소통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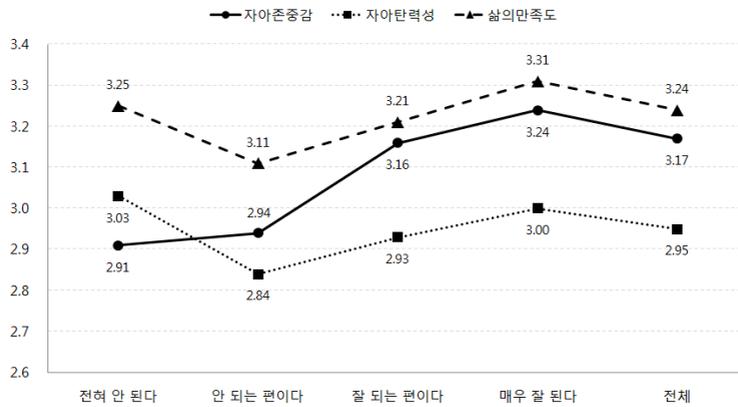
표 III-44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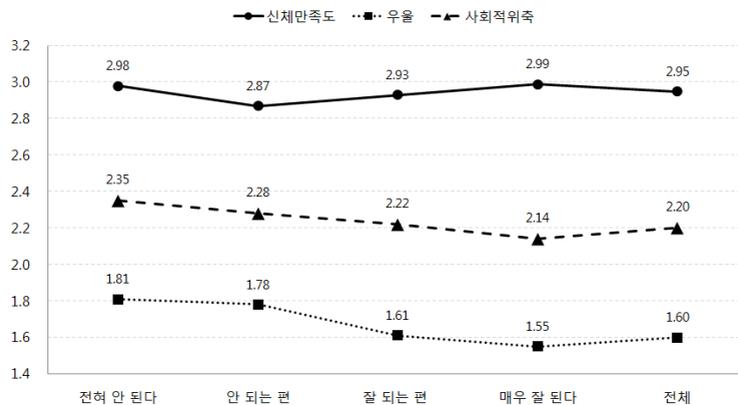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전혀 안 된다 (N=8)	안 되는 편 (N=89)	잘 되는 편 (N=861)	매우 잘 된다 (N=462)	전체 (N=1420)	F
자아존중감	2.91(.52) _b	2.94(.58) _b	3.16(.54) _{ab}	3.24(.51) _a	3.17(.54)	8.98***
자아탄력성	3.03(.38)	2.84(.51)	2.93(.46)	3.00(.47)	2.95(.47)	3.94**
삶의 만족도	3.25(.35)	3.11(.61)	3.21(.63)	3.31(.58)	3.24(.61)	4.06**
신체만족도	2.98(.35)	2.87(.49)	2.93(.51)	2.99(.49)	2.95(.50)	2.44
우울	1.81(.57)	1.78(.59)	1.61(.52)	1.55(.52)	1.60(.53)	5.26**
사회적 위축	2.35(.70)	2.28(.77)	2.22(.71)	2.14(.74)	2.20(.72)	1.86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70]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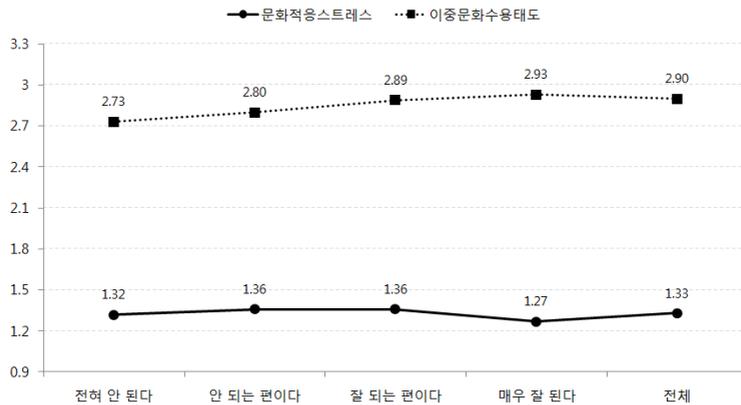
[그림 III-7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지 정도에 따라 자녀의 문화적응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 및 한국인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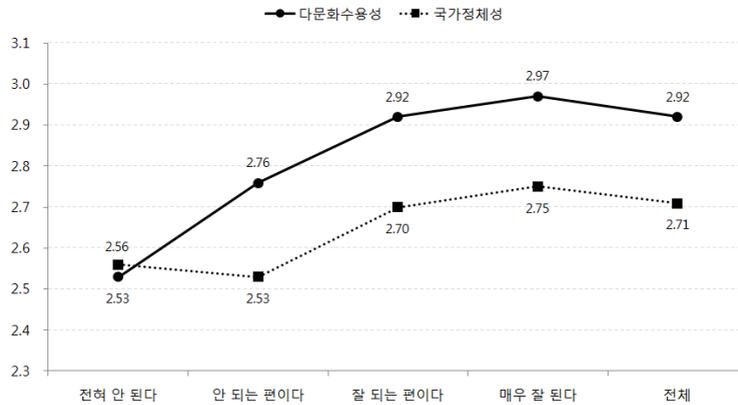
표 III-45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안 된다 (N=8)	안 되는 편이다 (N=89)	잘 되는 편이다 (N=861)	매우 잘 된다 (N=462)	전체 (N=1420)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2(.29)	1.36(.34)	1.36(.41)	1.27(.35)	1.33(.39)	6.15***
이중문화수용태도		2.73(.35)	2.80(.44)	2.89(.40)	2.93(.39)	2.90(.40)	3.42*
다문화수용성		2.53(.70) _b	2.76(.64) _{ab}	2.92(.55) _a	2.97(.58) _a	2.92(.57)	4.78**
국가정체성		2.56(.76)	2.53(.60)	2.70(.65)	2.75(.64)	2.71(.65)	3.20*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72]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73]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2)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 및 관여수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여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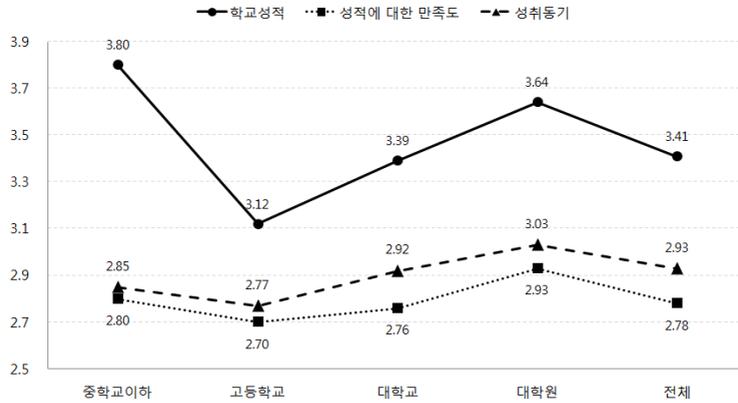
(1) 자녀의 최종학력 기대수준에 따른 차이

우선 자녀가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업관련 영역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성적은 높아지고 성취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학교 이하인 집단이 높았으며 다음이 대학교졸업 집단, 고등학교졸업 집단의 순이었다.

표 III-46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중학교이하 (N=5)	고등학교 (N=46)	대학교 (N=1231)	대학원졸 (N=193)	전체 (N=1475)	F
학교성적		3.80(.35) _a	3.12(.75) _b	3.39(.69) _{ab}	3.64(.66) _a	3.41(.69)	11.28***
성적만족도		2.80(.84)	2.70(.81)	2.76(.78)	2.93(.73)	2.78(.78)	2.83*
성취동기		2.85(.45)	2.77(.53)	2.92(.47)	3.03(.55)	2.93(.49)	4.78**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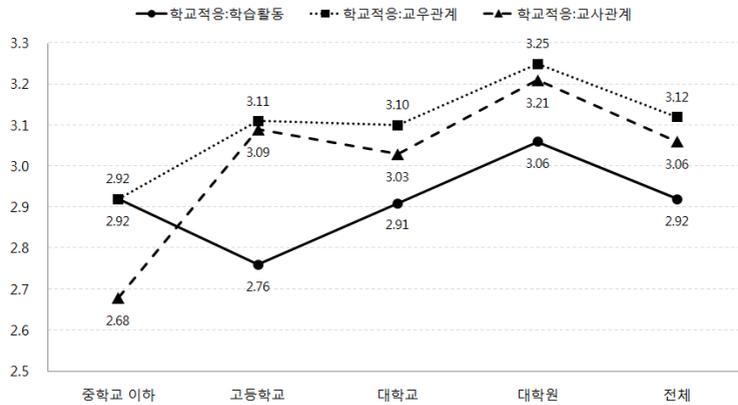
[그림 III-74]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다음으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최종학력을 기대할수록 학업관련 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따돌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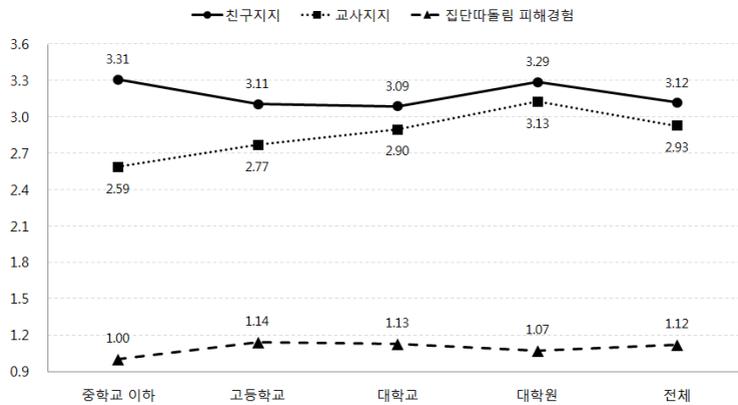
표 III-47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중학교 이하 (N=5)	고등학교 (N=46)	대학교 (N=1,231)	대학원졸 (N=193)	전체 (N=1,475)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2(.67)	2.76(.49)	2.91(.48)	3.06(.51)	2.92(.49)	7.30***
학교적응: 교우관계	2.92(.46) _b	3.11(.46) _{ab}	3.10(.45) _{ab}	3.25(.46) _a	3.12(.45)	5.84**
학교적응: 교사관계	2.68(.78) _b	3.09(.64) _{ab}	3.03(.60) _{ab}	3.21(.59) _a	3.06(.61)	5.73**
친구지지	3.31(.63)	3.11(.67)	3.09(.67)	3.29(.65)	3.12(.67)	5.30**
교사지지	2.59(.92) _b	2.77(.72) _{ab}	2.90(.71) _{ab}	3.13(.69) _a	2.93(.71)	7.02***
집단따돌림	1.00(.00)	1.14(.34)	1.13(.38)	1.07(.16)	1.12(.36)	2.10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75]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76]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영역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자아존중감의 경우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자녀가 중학교 이하까지 졸업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소수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소수의 편파 된 응답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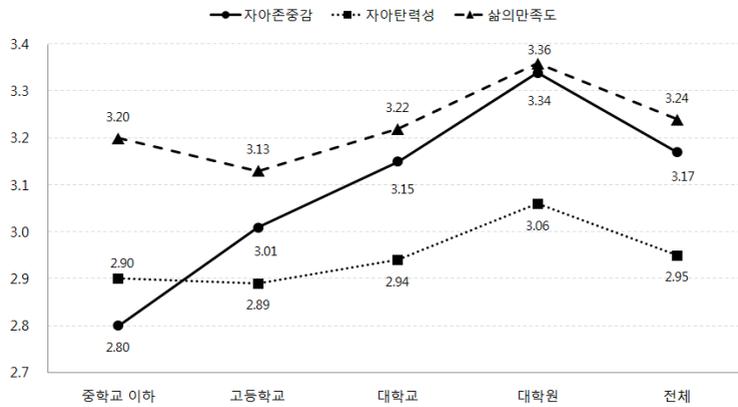
표 III-48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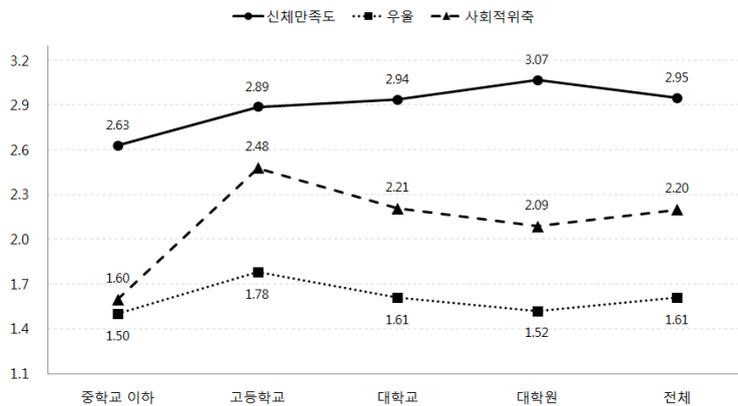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중학교 이하 (N=5)	고등학교 (N=46)	대학교 (N=1231)	대학원졸 (N=193)	전체 (N=1475)	F
자아존중감	2.80(.57) _b	3.01(.65) _{ab}	3.15(.54) _{ab}	3.34(.52) _a	3.17(.55)	9.30***
자아탄력성	2.90(.51)	2.89(.52)	2.94(.46)	3.06(.49)	2.95(.47)	4.12**
삶의 만족도	3.20(.51)	3.13(.68)	3.22(.61)	3.36(.61)	3.24(.62)	3.36*
신체만족도	2.63(.72) _b	2.89(.44) _{ab}	2.94(.50) _{ab}	3.07(.50) _a	2.95(.50)	4.64**
우울	1.50(.60)	1.78(.70)	1.61(.52)	1.52(.50)	1.61(.53)	3.31*
사회적 위축	1.60(.45) _b	2.48(.74) _a	2.21(.73) _a	2.09(.73) _a	2.20(.73)	4.90**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77]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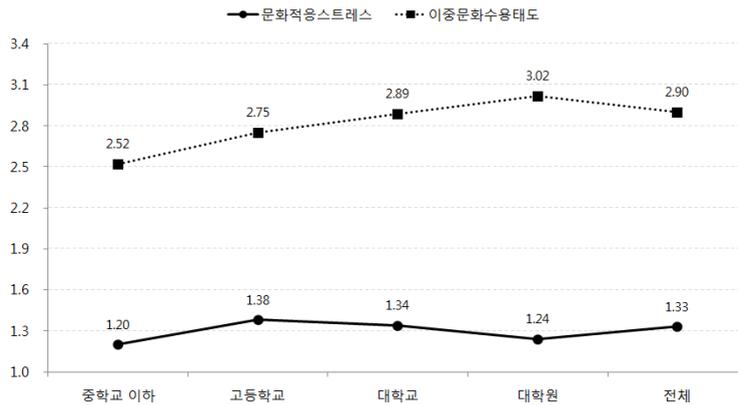
[그림 III-78]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다음으로 문화적응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역시 중학교 이하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는데 앞에서도 추론했던 바와 같이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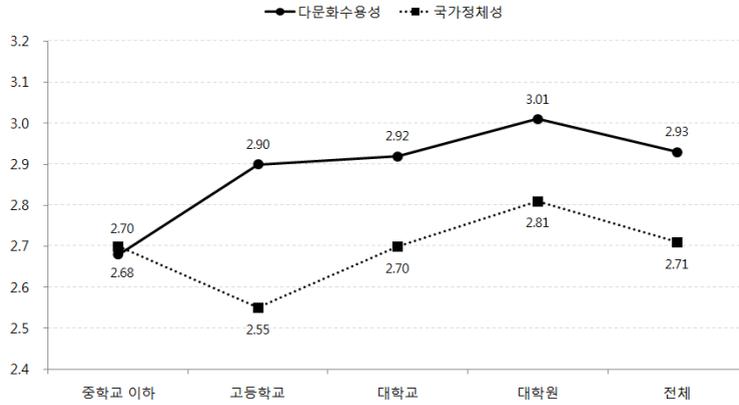
표 III-49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중학교 이하 (N=5)	고등학교 (N=46)	대학교 (N=1231)	대학원졸 (N=193)	전체 (N=1475)	F
문화적응스트레스		1.20(.16)	1.38(.35)	1.34(.40)	1.24(.34)	1.33(.40)	4.23**
이중문화수용태도		2.52(.48) _b	2.75(.42) _{ab}	2.89(.40) _a	3.02(.38) _a	2.90(.40)	9.52***
다문화수용성		2.68(.63)	2.90(.56)	2.92(.56)	3.01(.61)	2.93(.57)	1.64
국가정체성		2.70(.60)	2.55(.60)	2.70(.65)	2.81(.65)	2.71(.65)	2.61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79]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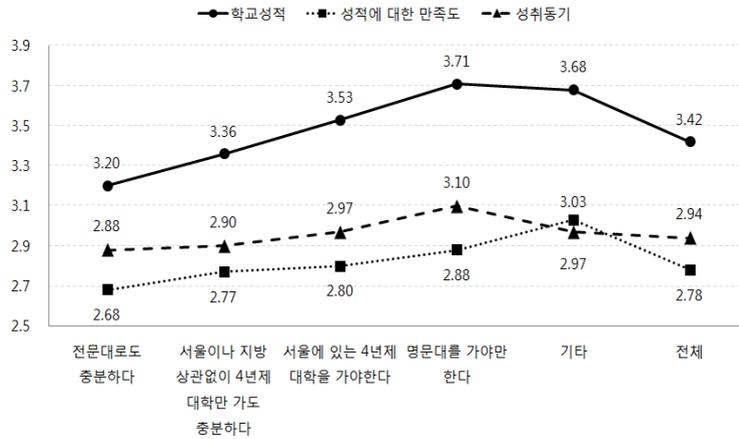
[그림 III-80] 자녀최종학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위에서는 자녀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전문대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답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에 따라 자녀의 다양한 발달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로 학업성취와 성취동기 영역을 비교해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자녀의 학교성적과 성적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에 대해 어머니가 지니는 목표 수준이 자녀들의 성취수준 및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50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문대 (N=151)	서울, 지방 4년제 대학 (N=804)	서울 4년제 대학 (N=302)	명문대 (N=130)	기타 (N=37)	전체 (N=1424)	F
학교성적		3.20(.67) _c	3.36(.69) _{bc}	3.53(.64) _{ab}	3.71(.65) _a	3.68(.75) _a	3.42(.69)	14.60***
성적만족도		2.68(.77) _b	2.77(.77) _b	2.80(.81) _b	2.88(.66) _{ab}	3.03(.83) _a	2.78(.77)	2.32
성취동기		2.88(.47) _b	2.90(.48) _b	2.97(.48) _{ab}	3.10(.50) _a	2.97(.54) _{ab}	2.94(.49)	5.51***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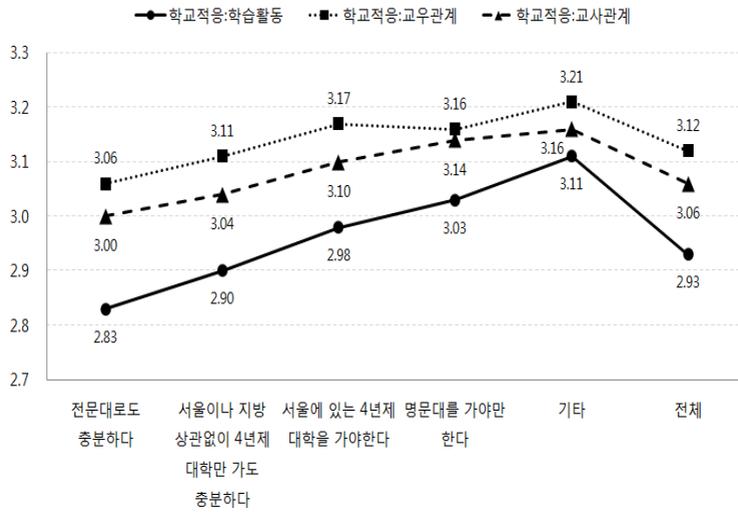
[그림 III-81]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녀 대학수준에 대한 기대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및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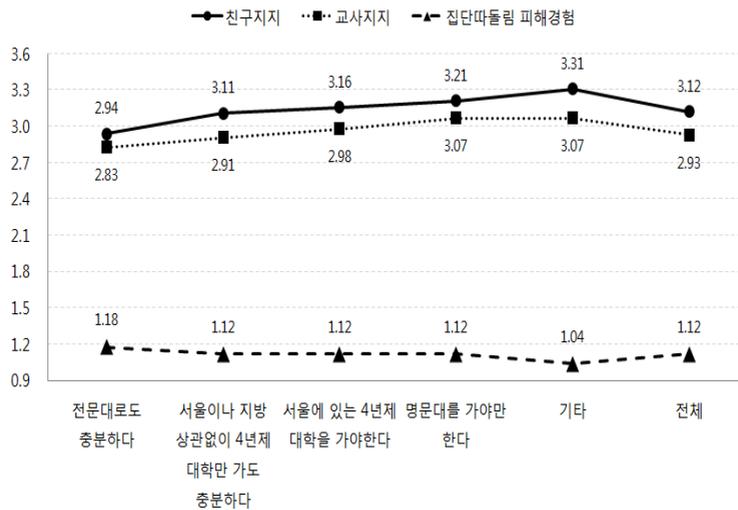
표 III-51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전문대 (N=151)	서울, 지방 4년제 대학 (N=804)	서울 4년제 대학 (N=302)	명문대 (N=130)	기타 (N=37)	전체 (N=1424)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83(.47) _c	2.90(.51) _{bc}	2.98(.44) _{ab}	3.03(.47) _{ab}	3.11(.50) _a	2.93(.49)	5.78***
학교적응:교우관계	3.06(.49) _b	3.11(.46) _{ab}	3.17(.41) _{ab}	3.16(.46) _{ab}	3.21(.47) _a	3.12(.45)	2.65*
학교적응:교사관계	3.00(.57)	3.04(.61)	3.10(.60)	3.14(.61)	3.16(.57)	3.06(.60)	1.78
친구지지	2.94(.70) _c	3.11(.66) _{bc}	3.16(.66) _{ab}	3.21(.69) _{ab}	3.31(.62) _a	3.12(.67)	4.48**
교사지지	2.83(.65) _b	2.91(.72) _{ab}	2.98(.72) _{ab}	3.07(.64) _a	3.07(.75) _a	2.93(.71)	2.85*
집단따돌림	1.18(.49) _a	1.12(.34) _{ab}	1.12(.37) _{ab}	1.12(.33) _{ab}	1.04(.11) _b	1.12(.36)	1.37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림 III-82]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83]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다음으로 심리사회적응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의 대학교에 대한 목표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수준은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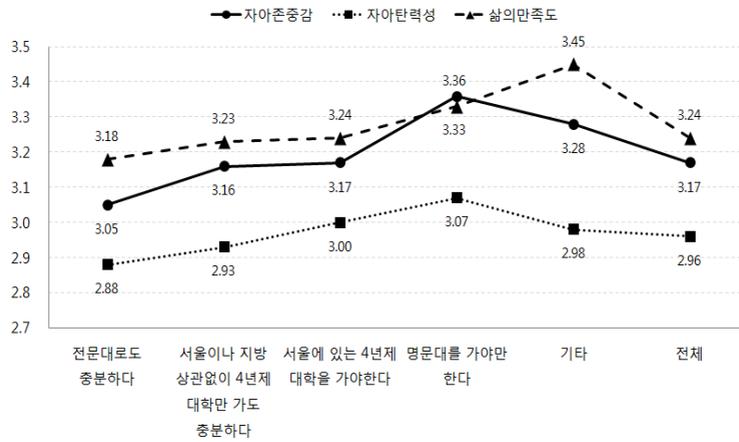
표 III-52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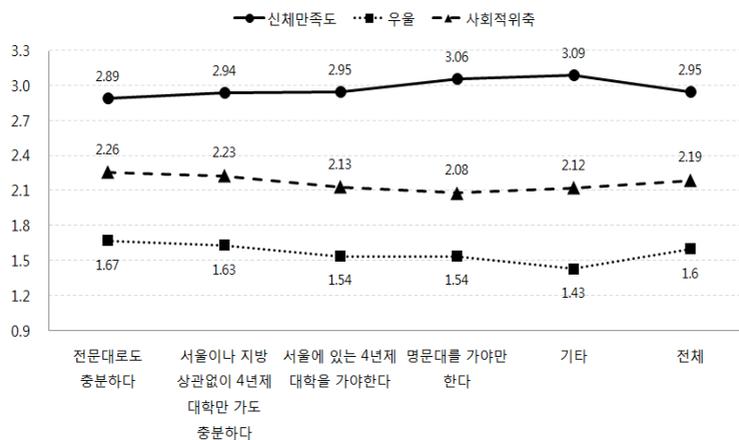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전문대 (N=151)	서울, 지방 4년제 대학 (N=804)	서울 4년제 대학 (N=302)	명문대 (N=130)	기타 (N=37)	전체 (N=1,424)	F
자아존중감	3.05(.53) _c	3.16(.53) _{bc}	3.17(.58) _{bc}	3.36(.48) _a	3.28(.56) _{ab}	3.17(.54)	6.41***
자아탄력성	2.88(.49) _b	2.93(.45) _b	3.00(.49) _{ab}	3.07(.45) _a	2.98(.54) _{ab}	2.96(.47)	4.18**
삶의 만족도	3.18(.64) _b	3.23(.60) _b	3.24(.64) _b	3.33(.63) _{ab}	3.45(.49) _a	3.24(.61)	2.17
신체만족도	2.89(.52) _c	2.94(.50) _{bc}	2.95(.50) _{bc}	3.06(.51) _{ab}	3.09(.51) _a	2.95(.50)	2.88*
우울	1.67(.53) _a	1.63(.53) _a	1.54(.52) _{ab}	1.54(.50) _{ab}	1.43(.44) _b	1.60(.52)	3.79**
사회적 위축	2.26(.73)	2.23(.72)	2.13(.75)	2.08(.72)	2.12(.71)	2.19(.73)	2.31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림 III-84]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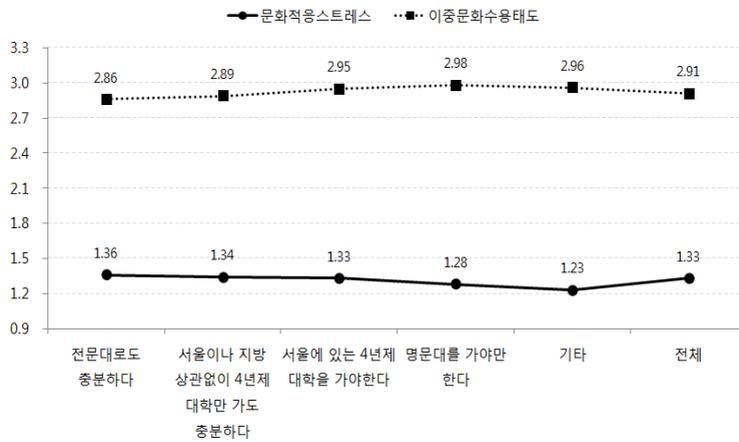
[그림 III-85]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다음으로 자녀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문화적응관련 요인에서 발달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표 III-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최종대학수준을 ‘전문대라도 충분하다’ 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명문대를 가야만 한다’ 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부모의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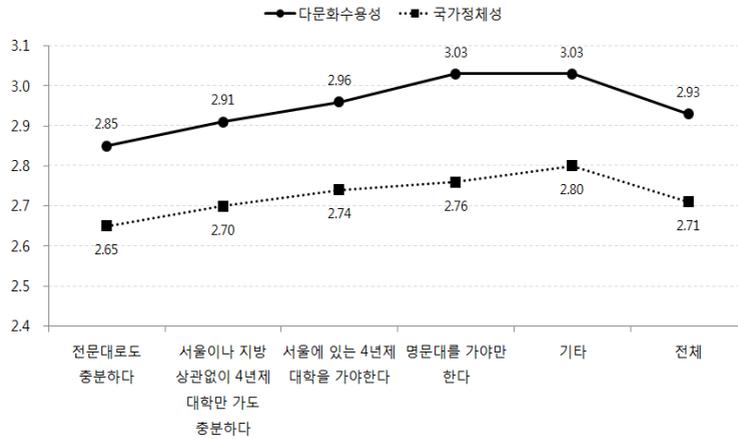
표 III-53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문대 (N=151)	서울, 지방 4년제 대학 (N=804)	서울 4년제 대학 (N=302)	명문대 (N=130)	기타 (N=37)	전체 (N=1424)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3) _a	1.34(.40) _{ab}	1.33(.38) _{ab}	1.28(.38) _{ab}	1.23(.25) _b	1.33(.40)	1.40
이중문화수용태도		2.86(.40) _b	2.89(.39) _{ab}	2.95(.41) _{ab}	2.98(.38) _a	2.96(.41) _{ab}	2.91(.40)	3.10*
다문화수용성		2.85(.57) _b	2.91(.57) _{ab}	2.96(.57) _{ab}	3.03(.56) _a	3.03(.66) _a	2.93(.57)	2.36
국가정체성		2.65(.64)	2.70(.63)	2.74(.68)	2.76(.69)	2.80(.74)	2.71(.65)	.83

* $p < .05$, Duncan: a)b



[그림 III-86]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87]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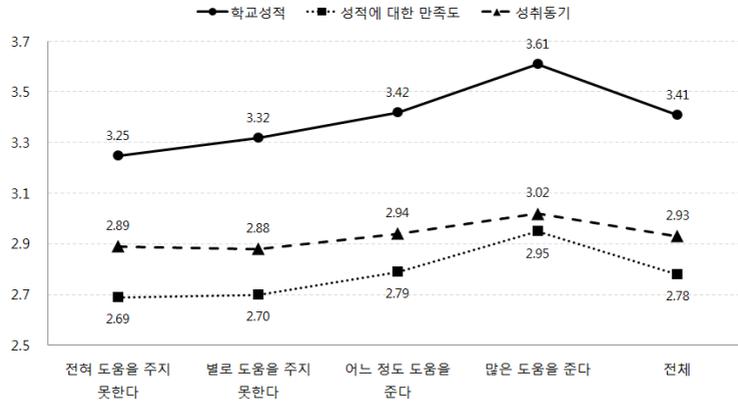
(2) 어머니의 학교교육 도움정도에 따른 차이

어머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녀의 학교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준에 따라 자녀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영역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성적과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모두 어머니 스스로 자녀의 학교교육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05)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N=834)	많은 도움을 준다 (N=187)	전체 (N=1,475)	F
학교성적	3.25(.70) _b	3.32(.64) _b	3.42(.70) _b	3.61(.72) _a	3.41(.69)	8.25***
성적만족도	2.69(.85) _b	2.70(.76) _b	2.79(.78) _{ab}	2.95(.73) _a	2.78(.78)	4.89**
성취동기	2.89(.44) _b	2.88(.50) _b	2.94(.49) _{ab}	3.02(.46) _a	2.93(.49)	3.98**

** $p < .01$, *** $p < .001$, Duncan: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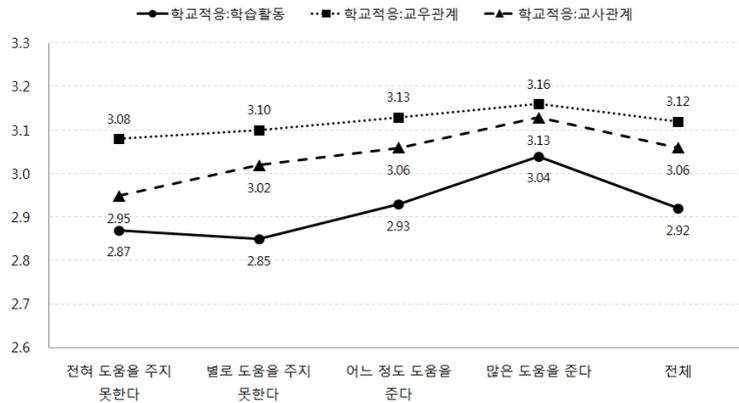
[그림 III-88]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학교교육과 더불어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학교적응의 학습활동 영역을 제외한 교우관계나 교사관계, 집단따돌림과 같이 학교 내 관계와 관련된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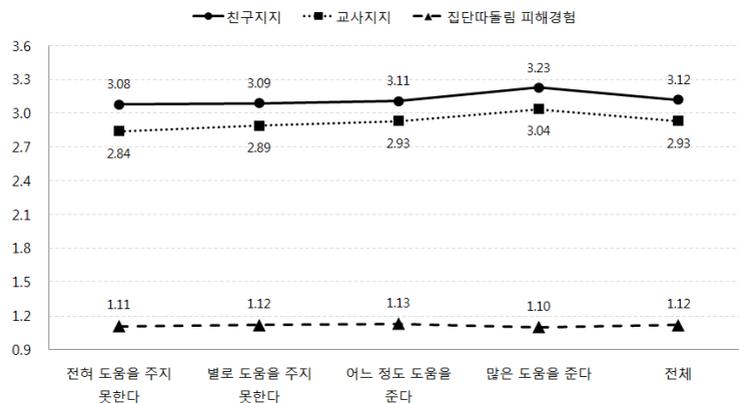
표 III-55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05)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N=834)	많은 도움을 준다 (N=187)	전체 (N=1,475)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87(.55) _b	2.85(.50) _b	2.93(.48) _{ab}	3.04(.45) _a	2.92(.49)	6.72***
학교적응: 교우관계		3.08(.41)	3.10(.42)	3.13(.47)	3.16(.45)	3.12(.45)	.90
학교적응: 교사관계		2.95(.71) _b	3.02(.59) _{ab}	3.06(.61) _{ab}	3.13(.62) _a	3.06(.61)	2.05
친구지지		3.08(.61)	3.09(.67)	3.11(.69)	3.23(.60)	3.12(.67)	2.02
교사지지		2.84(.77) _b	2.89(.68) _{ab}	2.93(.72) _{ab}	3.04(.71) _a	2.93(.71)	2.17
집단따돌림		1.11(.25)	1.12(.35)	1.13(.39)	1.10(.26)	1.12(.36)	.35

*** $p < .001$, Duncan: a)b



[그림 III-89]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90]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그러나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며 신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어머니가 자신의 도움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성은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우울은 어머니가 자신의 도움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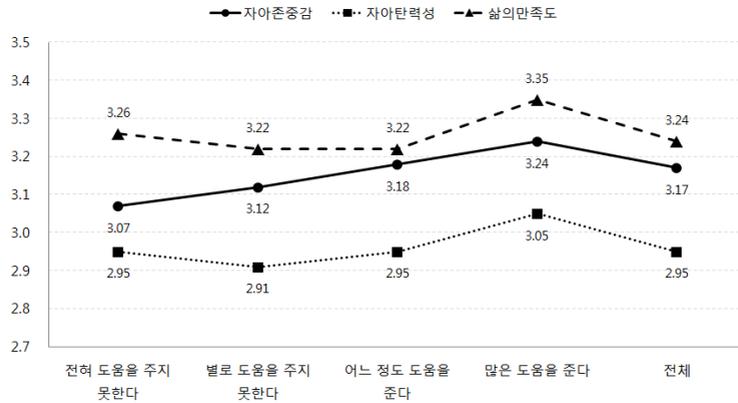
표 III-56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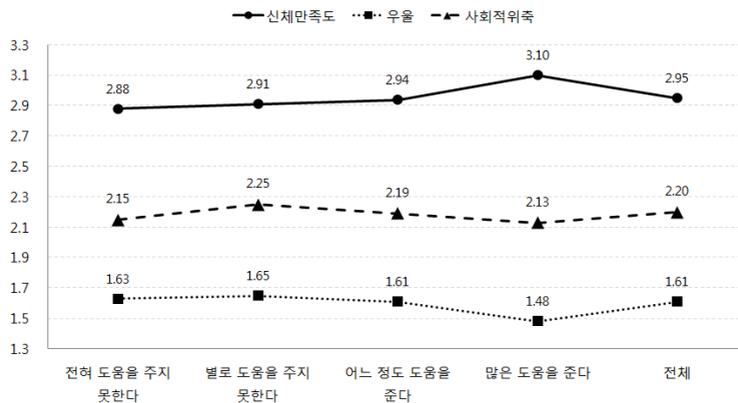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05)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N=834)	많은 도움을 준다 (N=187)	전체 (N=1475)	F
자아존중감		3.07(.52) _b	3.12(.53) _{ab}	3.18(.55) _{ab}	3.24(.56) _a	3.17(.55)	2.99*
자아탄력성		2.95(.49) _{ab}	2.91(.44) _b	2.95(.48) _{ab}	3.05(.45) _a	2.95(.47)	3.85**
삶의 만족도		3.26(.59)	3.22(.63)	3.22(.62)	3.35(.54)	3.24(.62)	2.38
신체만족도		2.88(.54) _b	2.91(.50) _b	2.94(.51) _b	3.10(.47) _a	2.95(.50)	6.85***
우울		1.63(.51) _a	1.65(.56) _a	1.61(.53) _a	1.48(.45) _b	1.61(.53)	4.79**
사회적 위축		2.15(.71)	2.25(.72)	2.19(.73)	2.13(.76)	2.20(.73)	1.25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91]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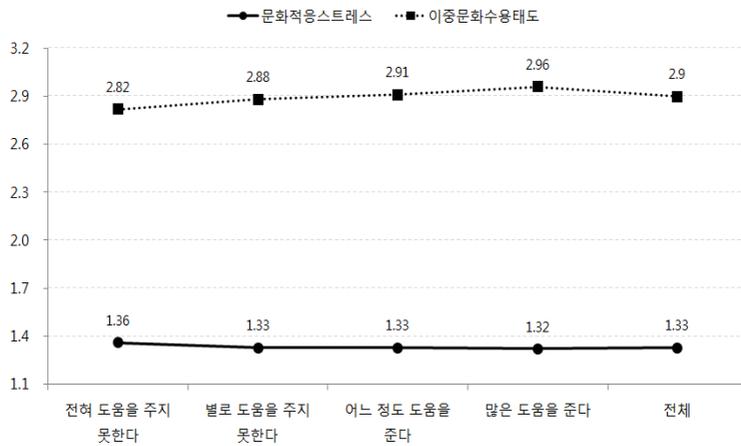


[그림 III-92]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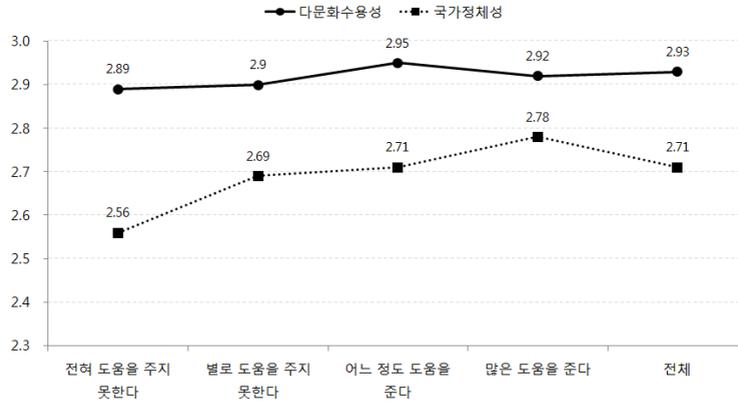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문화적응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경우 사후검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지각할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N=405)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N=834)	많은 도움을 준다 (N=187)	전체 (N=1475)	<i>F</i>
문화적응스트레스		1.36(.39)	1.33(.39)	1.33(.40)	1.32(.40)	1.33(.40)	.18
이중문화수용태도		2.82(.40) _b	2.88(.40) _{ab}	2.91(.41) _{ab}	2.96(.37) _a	2.90(.40)	2.43
다문화수용성		2.89(.62)	2.90(.55)	2.95(.57)	2.92(.61)	2.93(.57)	.73
국가정체성		2.56(.65) _b	2.69(.66) _{ab}	2.71(.65) _{ab}	2.78(.61) _a	2.71(.65)	1.75



[그림 III-93]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94]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3) 어머니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및 학교생활참여와 청소년의 발달관계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및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정도가 자녀의 발달수준과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평균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할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생활에 참여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교사와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상관관계가 산출되지 않았다.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는 변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는 증가하고 사회적 위축의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증가하고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을 할수록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한국인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를 할수록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떨어지고 이중문화수용성 정도와 한국인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 및 관여와 자녀 발달의 관계

자녀	어머니	자녀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자녀학교 참여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학교성적	.14***	.14***
	성적에 대한 만족도	.06*	.13***
	성취동기	.13***	.11***
학교적응	학교적응: 학습활동	.11***	.12***
	학교적응: 교우관계	.05*	.08**
	학교적응: 교사관계	.09**	.08**
	친구지지	.10***	.09**
	교사지지	.12***	.10***
	집단따돌림	-	-
심리사회 적응	자아존중감	.14***	.16***
	자아탄력성	.10***	.11***
	삶의 만족도	-	.08**
	신체만족도	.07**	.12***
	우울	-	-.06*
	사회적 위축	-.07**	-
문화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	-.07*
	이중문화수용태도	.10***	.13***
	다문화수용성	-	-
	국가정체성	.07**	.06*

* $p < .05$, ** $p < .01$, *** $p < .001$

3)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응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발달변인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변인은 높아지고 집단따돌림이나 우울, 위축,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역시 대부분의 긍정적 발달을 나타내는 변인과는 정적으로, 부정적 발달을 나타내는 변인과는 부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우는 부모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보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산출된 변인이 적었다.

표 III-59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응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

자녀		어머니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학교성적		.18***	.16***	-.09**	-	-.11***
	성적에 대한 만족도		.10***	.09**	-	-	-.05*
	성취동기		.17***	.13***	-	-	-.07**
학교적응	학교적응: 학습활동		.13***	.12***	-.07**	-	-.07**
	학교적응: 교우관계		.11***	.13***	-.06*	-	-
	학교적응: 교사관계		.13***	.10***	-	-	-
	친구지지		.13***	.12***	-.05*	-	-.06*
	교사지지		.13***	.11***	-	-	-
	집단따돌림		-.07*	-	-	-	-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19***	.16***	-	-	-.08**
	자아탄력성		.19***	.14***	-	-	-.05*
	삶의 만족도		.15***	.13***	-.06*	-	-.06*
	신체만족도		.16***	.15***	-	-	-
	우울		-.14***	-.13***	.08**	.11***	.15***
	사회적 위축		-.09***	-.10***	.06*	.10***	.15***
문화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11***	-.12***	.09***	.07**	.13***
	이중문화수용태도		.13***	.14***	-	-	-
	다문화수용성		-	.07**	-	-	-
	국가정체성		.07**	.06*	-	-	-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아지고 자녀의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지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자녀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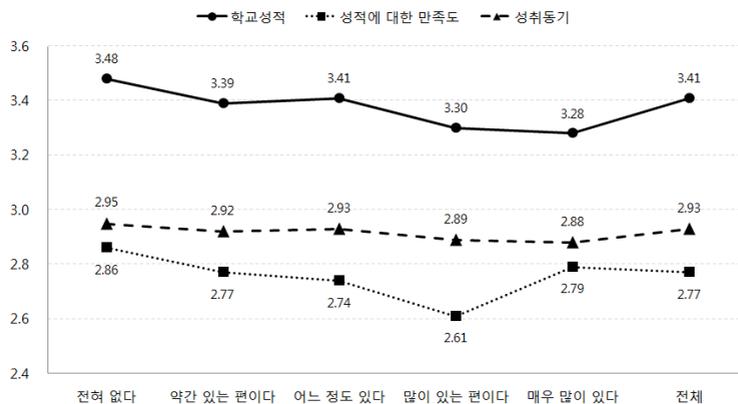
(1)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자녀의 발달수준차이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자녀들의 발달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로 어머니가 한국의 문화가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성적이나 성취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났다. 어머니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 대해 ‘많이 있는 편’ 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전혀 없다’ 고 응답한 집단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없다 (N=379)	약간 있는 편이다 (N=557)	어느 정도 있다 (N=334)	많이 있는 편이다 (N=116)	매우 많이 있다 (N=34)	전체 (N=1420)	F
학교성적		3.48(.70)	3.39(.68)	3.41(.68)	3.30(.67)	3.28(.71)	3.41(.69)	2.08
성적만족도		2.86(.79) _a	2.77(.76) _{ab}	2.74(.77) _{ab}	2.61(.77) _b	2.79(.91) _{ab}	2.77(.78)	2.63*
성취동기		2.95(.50)	2.92(.48)	2.93(.50)	2.89(.45)	2.88(.53)	2.93(.49)	.43

* $p < .05$, Duncan: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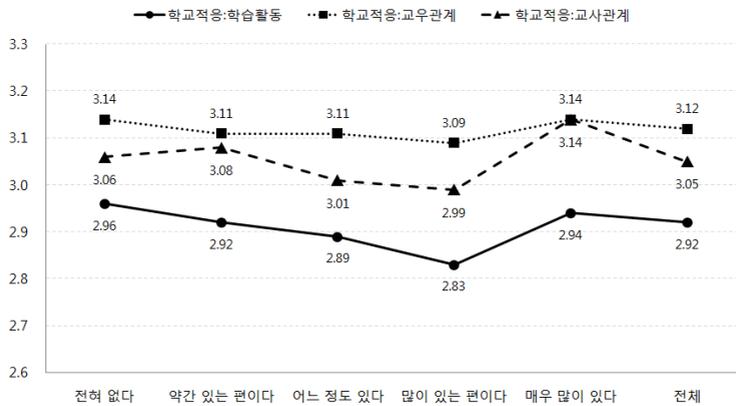
[그림 III-95]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 만족도, 성취동기

또한 학교적응 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친구지지, 집단따돌림 경험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의 지지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을 보았을 때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 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집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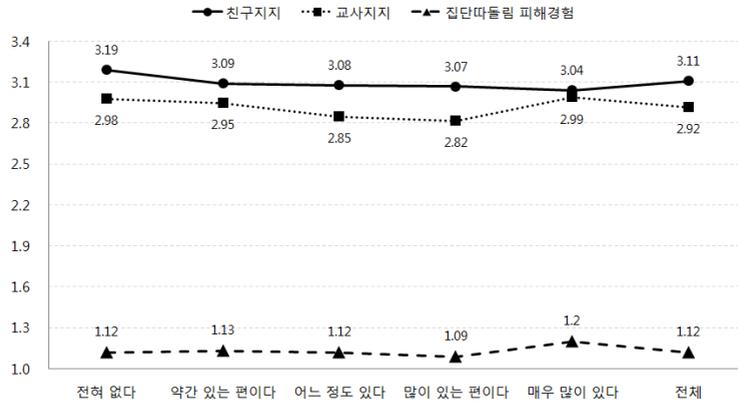
표 III-61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없다 (N=379)	약간 있는 편이다 (N=557)	어느 정도 있다 (N=334)	많이 있는 편이다 (N=116)	매우 많이 있다 (N=34)	전체 (N=1420)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6(.50)	2.92(.51)	2.89(.46)	2.83(.45)	2.94(.52)	2.92(.49)	1.74
학교적응: 교우관계	3.14(.45)	3.11(.46)	3.11(.43)	3.09(.43)	3.14(.58)	3.12(.45)	.37
학교적응: 교사관계	3.06(.63)	3.08(.61)	3.01(.58)	2.99(.61)	3.14(.63)	3.05(.61)	1.12
친구지지	3.19(.64)	3.09(.69)	3.08(.66)	3.07(.62)	3.04(.84)	3.11(.67)	1.81
교사지지	2.98(.72)	2.95(.71)	2.85(.69)	2.82(.67)	2.99(.64)	2.92(.71)	2.44*
집단따돌림	1.12(.33)	1.13(.37)	1.12(.37)	1.09(.27)	1.20(.44)	1.12(.36)	.69

* $p < .05$



[그림 III-96]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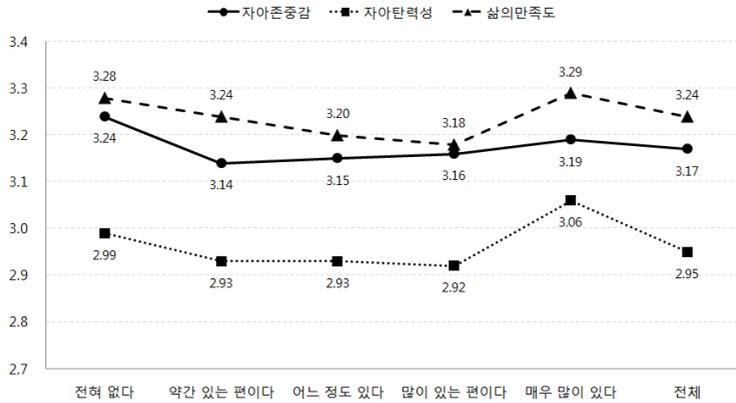
[그림 III-97] 어머니의 문화적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화적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적응을 비교해본 결과 신체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난 변인인 없었다. 신체만족도 역시 F값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으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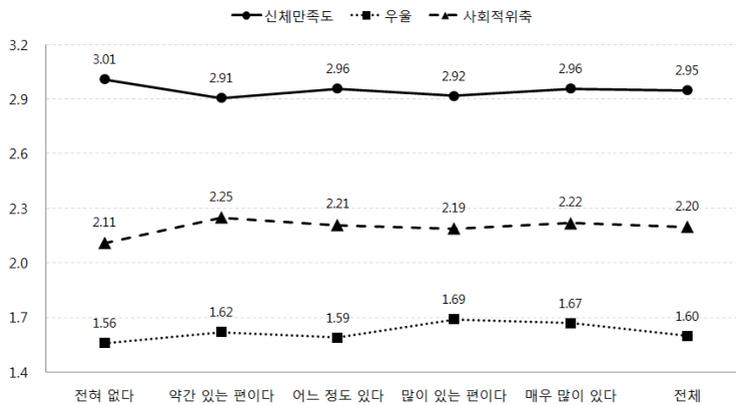
표 III-62 어머니의 문화적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전혀 없다 (N=379)	약간 있는 편이다 (N=557)	어느 정도 있다 (N=334)	많이 있는 편이다 (N=116)	매우 많이 있다 (N=34)	전체 (N=1420)	F
자아존중감	3.24(.54)	3.14(.54)	3.15(.55)	3.16(.51)	3.19(.49)	3.17(.54)	2.09
자아탄력성	2.99(.47) _{ab}	2.93(.46) _{ab}	2.93(.47) _{ab}	2.92(.43) _b	3.06(.54) _a	2.95(.47)	1.63
삶의 만족도	3.28(.60)	3.24(.62)	3.20(.63)	3.18(.56)	3.29(.67)	3.24(.61)	1.12
신체만족도	3.01(.49)	2.91(.49)	2.96(.53)	2.92(.47)	2.96(.53)	2.95(.50)	2.53*
우울	1.56(.52)	1.62(.55)	1.59(.50)	1.69(.50)	1.67(.61)	1.60(.53)	1.83
사회적 위축	2.11(.73)	2.25(.72)	2.21(.70)	2.19(.73)	2.22(.86)	2.20(.72)	2.13

*p<.05, Duncan: a)b



[그림 III-98]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그림 III-99]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 영역 역시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차이가 산출된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였는데, 모국과 문화가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느 정도 있다’ 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았으며 나머지 집단은 모두 유사하였다. 국가정체성의 경우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한국문화로 인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많이 있다’ 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한국인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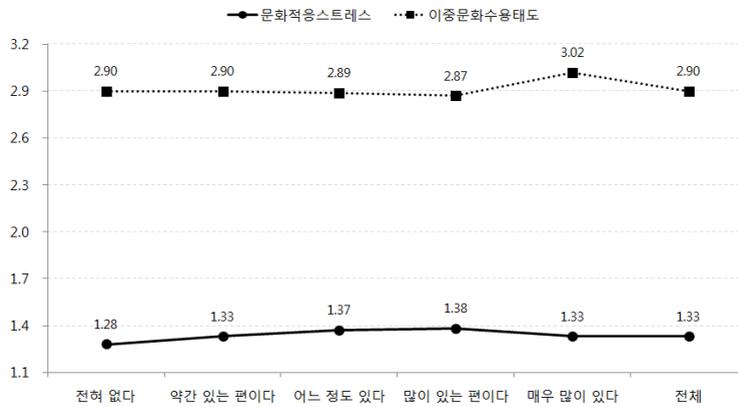
표 III-63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 정도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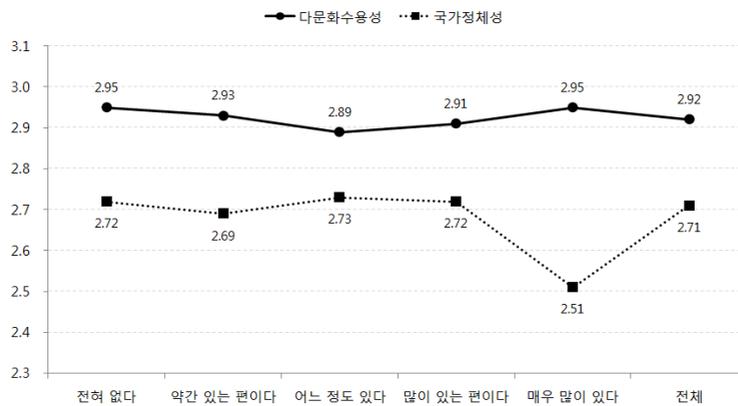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전혀 없다 (N=379)	약간 있는 편이다 (N=557)	어느 정도 있다 (N=334)	많이 있는 편이다 (N=116)	매우 많이 있다 (N=34)	전체 (N=1420)	F
문화적응스트레스		1.28(.36)	1.33(.37)	1.37(.44)	1.38(.42)	1.33(.43)	1.33(.39)	2.53*
이중문화수용태도		2.90(.40) _b	2.90(.39) _b	2.89(.40) _b	2.87(.43) _b	3.02(.34) _a	2.90(.40)	1.05
다문화수용성		2.95(.59)	2.93(.56)	2.89(.56)	2.91(.60)	2.95(.58)	2.92(.57)	.54
국가정체성		2.72(.68) _a	2.69(.66) _a	2.73(.62) _a	2.72(.56) _a	2.51(.72) _b	2.71(.65)	1.01

* $p < .05$, Duncan: a)b



[그림 III-100]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1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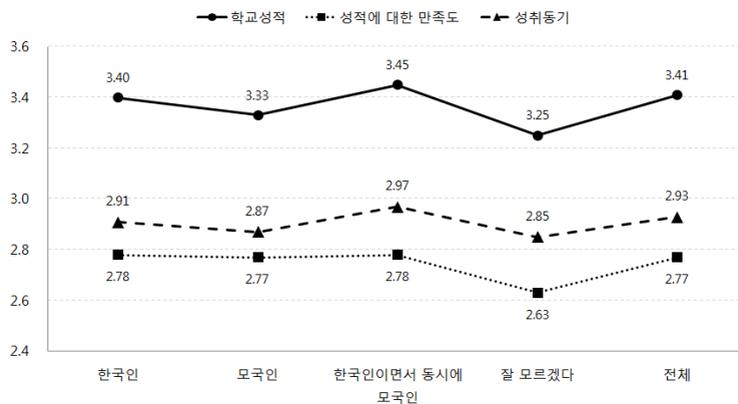
(2)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발달수준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국적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의 발달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첫 번째로 어머니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발달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교성적과 성취동기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녀의 학교성적과 성취동기가 가장 높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다음이 모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순이어서 어머니의 경우 이중국가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I-64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한국인 (N=312)	어머니 모국인 (N=329)	어머니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 (N=730)	어머니 잘 모르겠다 (N=46)	어머니 전체 (N=1,417)	F
학교성적	3.40(.74) _{ab}	3.33(.64) _{ab}	3.45(.69) _a	3.25(.62) _b	3.41(.69)	2.99*
성적만족도	2.78(.76) _{ab}	2.77(.78) _{ab}	2.78(.78) _{ab}	2.63(.90) _b	2.77(.78)	.63
성취동기	2.91(.50) _b	2.87(.51) _b	2.97(.48) _{ab}	2.85(.51) _b	2.93(.49)	3.98**

* $p < .05$, ** $p < .01$, Duncan: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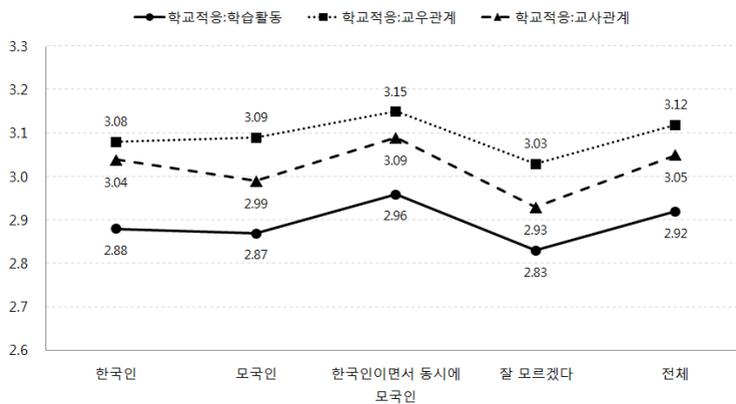
[그림 III-102]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다음으로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영역의 발달수준을 비교한 결과 학교적응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두 가지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활동과 관련된 학교적응을 보면 역시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중국적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경우 자녀의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친구지지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어머니의 이중국적정체성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사지지와 집단따돌림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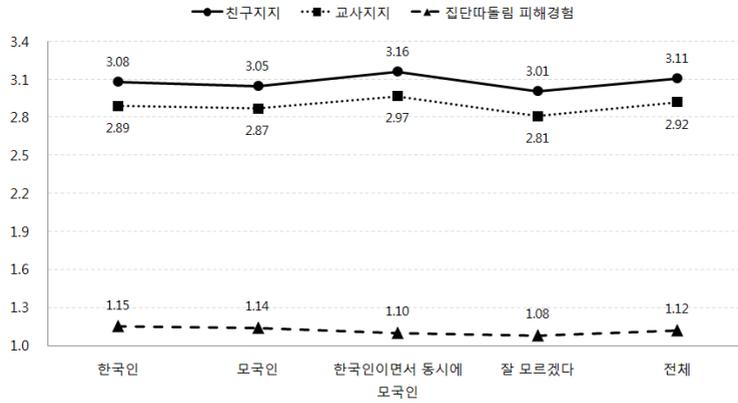
표 III-65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한국인 (N=312)	모국인 (N=329)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 (N=730)	잘 모르겠다 (N=46)	전체 (N=1,417)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88(.50) _{ab}	2.87(.45) _{ab}	2.96(.50) _a	2.83(.48) _b	2.92(.49)	4.11**
학교적응: 교우관계		3.08(.47)	3.09(.44)	3.15(.45)	3.03(.49)	3.12(.45)	2.72*
학교적응: 교사관계		3.04(.63)	2.99(.62)	3.09(.59)	2.93(.62)	3.05(.61)	2.63*
친구지지		3.08(.68)	3.05(.69)	3.16(.65)	3.01(.72)	3.11(.67)	2.98*
교사지지		2.89(.74)	2.87(.69)	2.97(.69)	2.81(.80)	2.92(.71)	2.12
집단따돌림		1.15(.37)	1.14(.41)	1.10(.33)	1.08(.15)	1.12(.36)	1.98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103]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104]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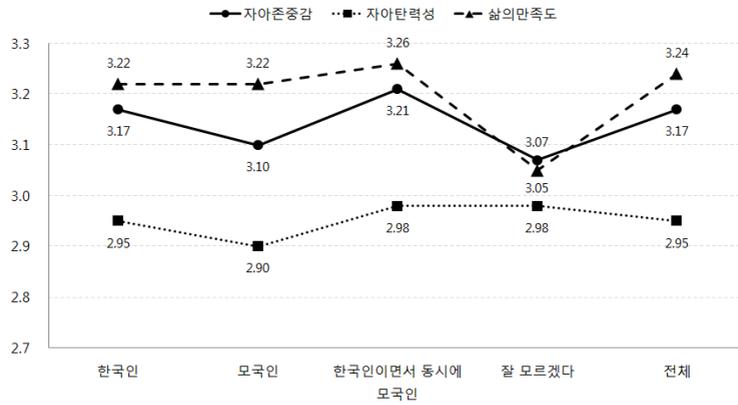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이중국가정체성을 지닌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F값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어머니가 이중국가정체성을 지닌 경우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사회적 위축의 수준은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III-66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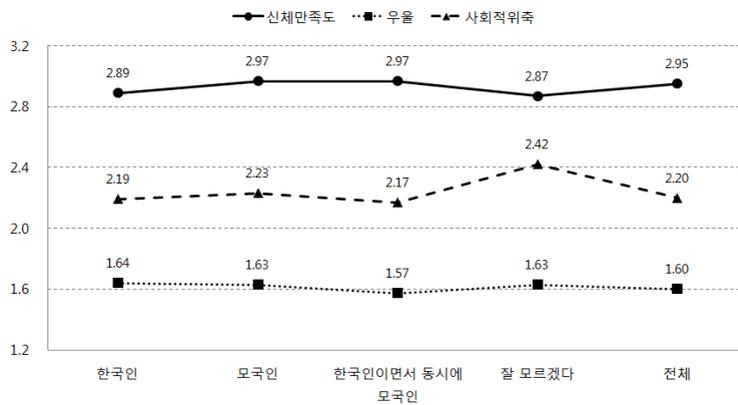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한국인 (N=312)	모국인 (N=329)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 (N=730)	잘 모르겠다 (N=46)	전체 (N=1,417)	F
자아존중감	3.17(.56) _{ab}	3.10(.57) _{ab}	3.21(.52) _a	3.07(.42) _b	3.17(.54)	3.54**
자아탄력성	2.95(.48)	2.90(.46)	2.98(.46)	2.98(.50)	2.95(.47)	2.04
삶의 만족도	3.22(.60) _a	3.22(.60) _a	3.26(.62) _a	3.05(.60) _b	3.24(.61)	2.45
신체만족도	2.89(.48)	2.97(.51)	2.97(.51)	2.87(.46)	2.95(.50)	2.45
우울	1.64(.57)	1.63(.53)	1.57(.51)	1.63(.50)	1.60(.53)	1.75
사회적 위축	2.19(.74) _b	2.23(.69) _b	2.17(.73) _b	2.42(.67) _a	2.20(.72)	1.92

**p<.01, Duncan: a)b



[그림 III-105]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그림 III-106]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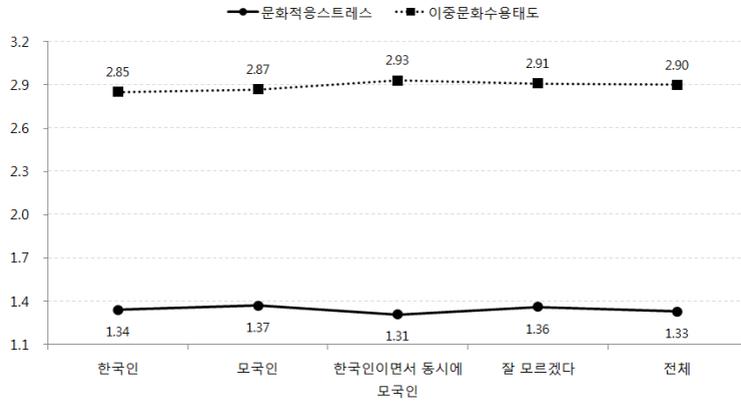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라 문화적응영역의 발달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이중문화수용태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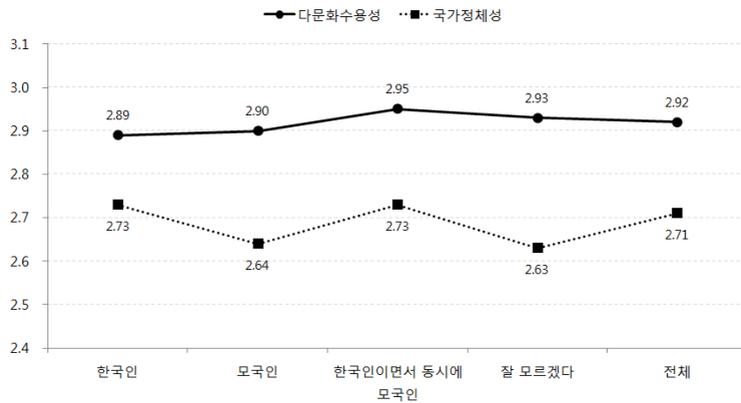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한국인 (N=312)	모국인 (N=329)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 (N=730)	잘 모르겠다 (N=46)	전체 (N=1,417)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4(.41)	1.37(.40)	1.31(.38)	1.36(.42)	1.33(.39)	2.12
이중문화수용태도		2.85(.40)	2.87(.42)	2.93(.39)	2.91(.32)	2.90(.40)	4.23**
다문화수용성		2.89(.61)	2.90(.57)	2.95(.56)	2.93(.54)	2.92(.57)	1.05
국가정체성		2.73(.67)	2.64(.61)	2.73(.66)	2.63(.60)	2.71(.65)	1.74

** $p < .01$



[그림 III-107]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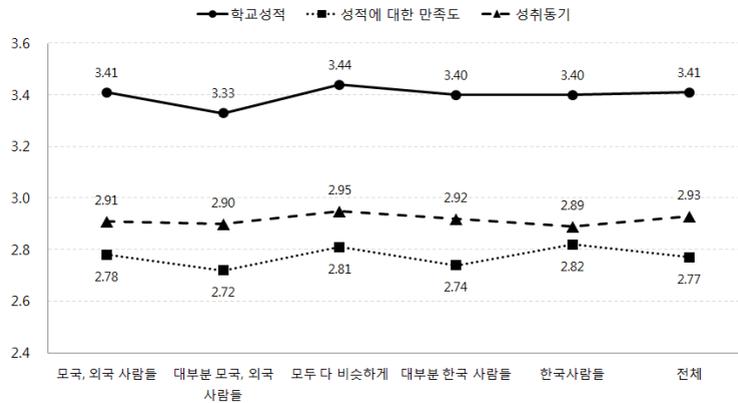
[그림 III-108]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3)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의 범주에 따른 자녀의 발달

어머니의 문화적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어머니가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에게 평소 누구와 주로 어울리는지 질문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신의 모국출신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아니면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지의 정도를 말하는데, 주로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자녀들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8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모국, 외국 사람들 (N=78)	대부분 모국 외국 사람들 (N=264)	모두 다 비슷하게 (N=627)	대부분 한국 사람들 (N=363)	한국 사람들 (N=88)	전체 (N=1,420)	F
학교성적		3.41(.61)	3.33(.73)	3.44(.69)	3.40(.68)	3.40(.67)	3.41(.69)	1.10
성적만족도		2.78(.75)	2.72(.79)	2.81(.77)	2.74(.79)	2.82(.78)	2.77(.78)	.92
성취동기		2.91(.52)	2.90(.52)	2.95(.49)	2.92(.45)	2.89(.51)	2.93(.4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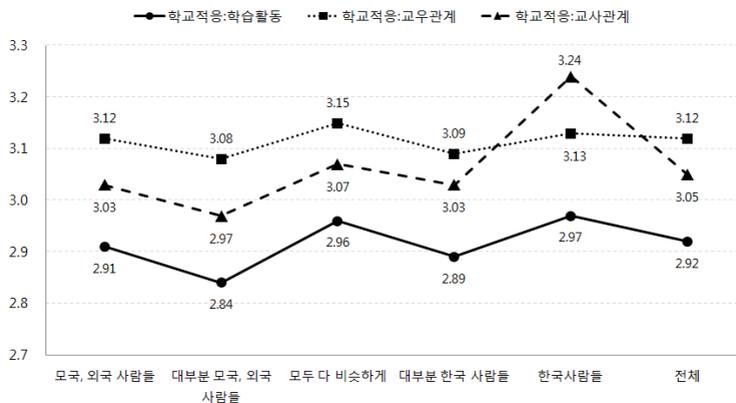
[그림 III-109]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이에 비해 학교적응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몇몇 변인들이 있었는데, 우선 학습활동 적응의 측면에서 어머니가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모국 또는 외국사람들과 어울리는 집단, 그리고 대부분 한국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집단의 순이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모국사람이나 외국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사람들과 주로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 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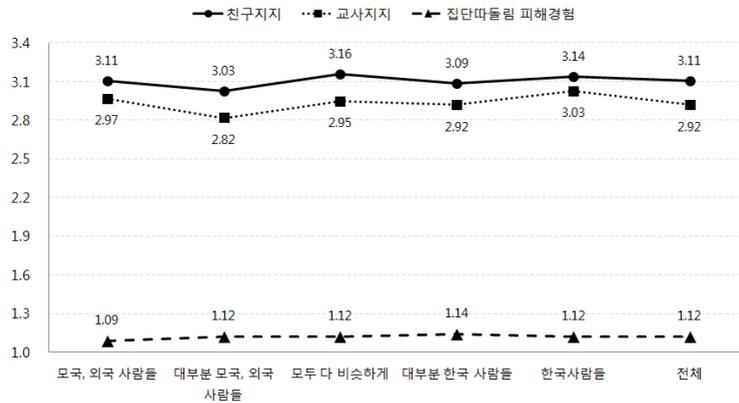
표 III-69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모국, 외국 사람들 (N=78)	대부분 모국 외국 사람들 (N=264)	모두 다 비슷하게 (N=627)	대부분 한국 사람들 (N=363)	한국사람들 (N=88)	전체 (N=1420)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1(.44) _{ab}	2.84(.51) _b	2.96(.49) _{ab}	2.89(.49) _{ab}	2.97(.46) _a	2.92(.49)	3.20*
학교적응: 교우관계		3.12(.42)	3.08(.45)	3.15(.45)	3.09(.47)	3.13(.44)	3.12(.45)	1.51
학교적응: 교사관계		3.03(.64) _b	2.97(.64) _b	3.07(.60) _b	3.03(.59) _b	3.24(.59) _a	3.05(.61)	3.47**
친구지지		3.11(.70)	3.03(.69)	3.16(.65)	3.09(.68)	3.14(.67)	3.11(.67)	2.02
교사지지		2.97(.70) _{ab}	2.82(.75) _b	2.95(.69) _{ab}	2.92(.71) _{ab}	3.03(.69) _a	2.92(.71)	2.36
집단따돌림		1.09(.24)	1.12(.31)	1.12(.37)	1.14(.38)	1.12(.33)	1.12(.36)	.35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110]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Ⅲ-Ⅲ]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다음으로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응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대부분 모국사람들 또는 외국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한국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모국 또는 외국사람들과 주로 어울린다고 응답한 집단과 한국사람과 모국사람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린다는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우울의 경우는 한국사람과 모국사람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린다는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사람과 어울리고 약간의 모국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집단과 주로 한국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고 대부분 모국 또는 외국사람들과 어울리고 약간의 한국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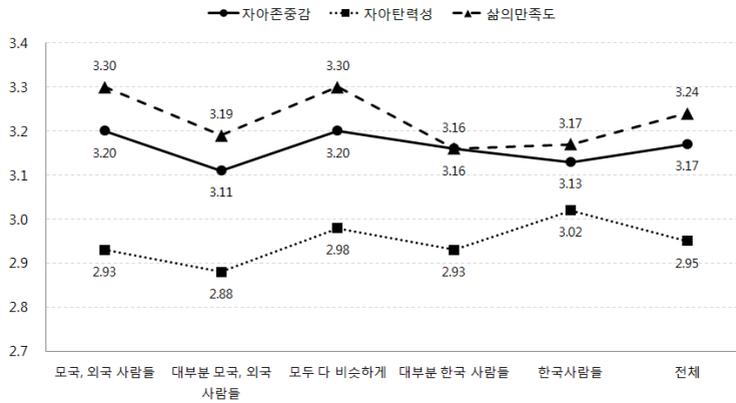
표 III-70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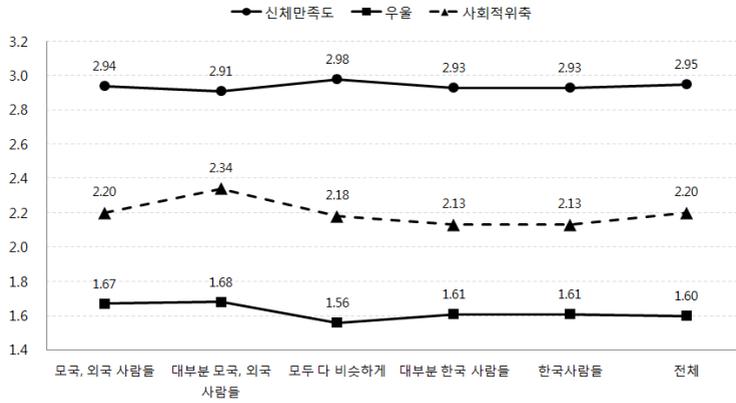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모국, 외국 사람들 (N=78)	대부분 모국 외국 사람들 (N=264)	모두 다 비슷하게 (N=627)	대부분 한국 사람들 (N=363)	한국 사람들 (N=88)	전체 (N=1420)	F
자아존중감	3.20(.48)	3.11(.65)	3.20(.54)	3.16(.53)	3.13(.59)	3.17(.54)	1.47
자아탄력성	2.93(.44) _{ab}	2.88(.51) _b	2.98(.46) _{ab}	2.93(.43) _{ab}	3.02(.55) _a	2.95(.47)	3.08*
삶의 만족도	3.30(.59)	3.19(.61)	3.30(.61)	3.16(.61)	3.17(.63)	3.24(.61)	4.07**
신체만족도	2.94(.50)	2.91(.49)	2.98(.52)	2.93(.49)	2.93(.48)	2.95(.50)	1.05
우울	1.67(.58)	1.68(.53)	1.56(.49)	1.61(.55)	1.61(.60)	1.60(.53)	2.61*
사회적 위축	2.20(.73) _{ab}	2.34(.70) _a	2.18(.73) _{ab}	2.13(.71) _b	2.13(.74) _b	2.20(.72)	3.73**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112]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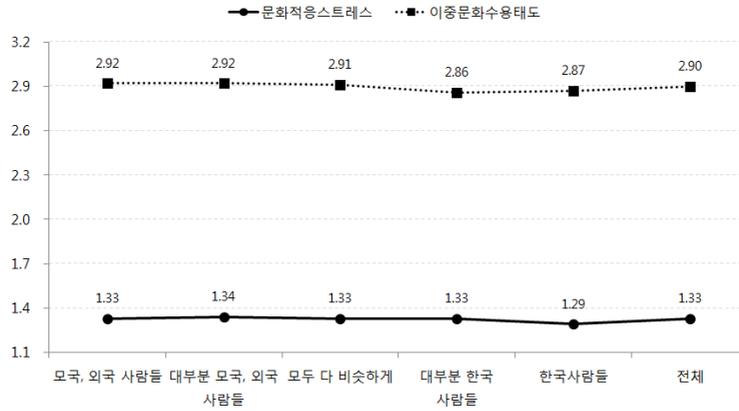


[그림 III-113]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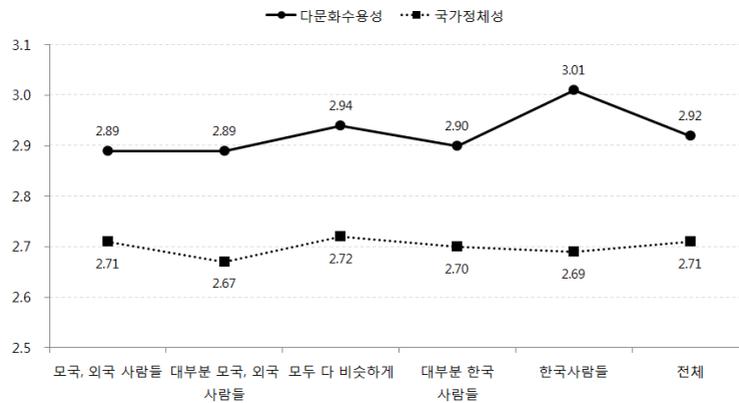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가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 자녀의 문화적응 영역의 적응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1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모국, 외국 사람들 (N=78)	대부분 모국 외국 사람들 (N=264)	모두 다 비슷하게 (N=627)	대부분 한국 사람들 (N=363)	한국 사람들 (N=88)	전체 (N=1420)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3(.38)	1.34(.39)	1.33(.40)	1.33(.39)	1.29(.37)	1.33(.39)	.23
이중문화수용태도	2.92(.47)	2.92(.39)	2.91(.40)	2.86(.38)	2.87(.44)	2.90(.40)	1.24
다문화수용성	2.89(.60)	2.89(.57)	2.94(.58)	2.90(.56)	3.01(.52)	2.92(.57)	1.16
국가정체성	2.71(.68)	2.67(.64)	2.72(.65)	2.70(.65)	2.69(.67)	2.71(.65)	.34



[그림 III-14]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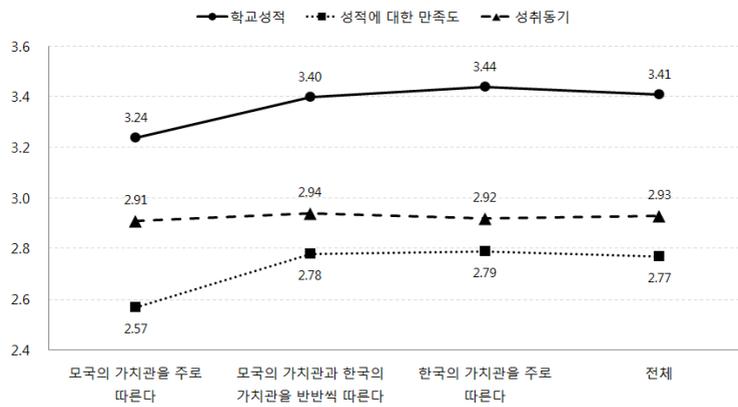
[그림 III-15] 어머니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4)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발달차이

다음으로 어머니가 평소 생활할 때 한국의 가치관과 모국의 가치관 중 어떤 것을 주로 따르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2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모국의 가치관을 주로 따른다 (N=54)	반반 (N=814)	한국의 가치관을 주로 따른다 (N=552)	전체 (N=1420)	F
학교성적		3.24(.69) _b	3.40(.68) _{ab}	3.44(.71) _a	3.41(.69)	2.25
성적만족도		2.57(.84) _b	2.78(.75) _a	2.79(.81) _a	2.77(.78)	1.93
성취동기		2.91(.52)	2.94(.48)	2.92(.49)	2.93(.4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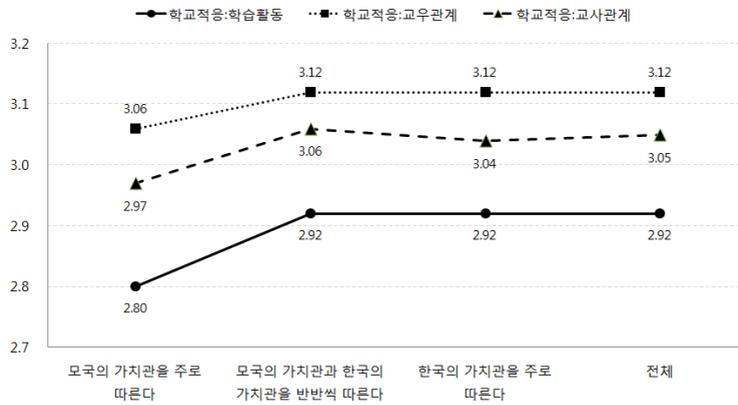


[그림 III-16]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적, 성적만족,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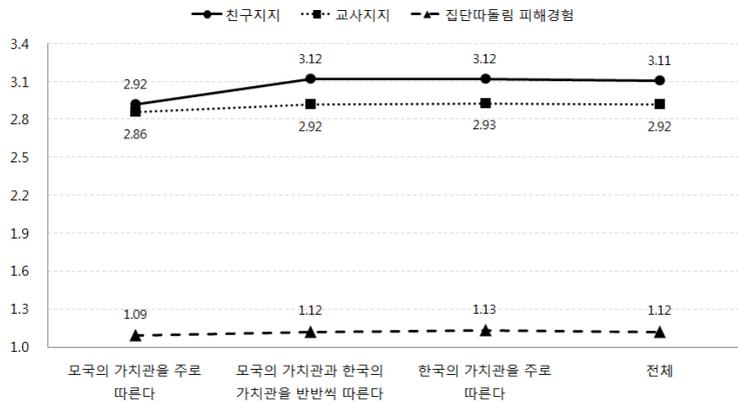
학교적응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가치관에 따른 집단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3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모국의 가치관 (N=54)	반반 (N=814)	한국의 가치관 (N=552)	전체 (N=1420)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80(.44) _b	2.92(.47) _a	2.92(.52) _a	2.92(.49)	1.68
학교적응: 교우관계		3.06(.45)	3.12(.44)	3.12(.47)	3.12(.45)	.42
학교적응: 교사관계		2.97(.53)	3.06(.60)	3.04(.63)	3.05(.61)	.57
친구지지		2.92(.69) _b	3.12(.65) _a	3.12(.69) _a	3.11(.67)	2.37
교사지지		2.86(.64)	2.92(.69)	2.93(.74)	2.92(.71)	.24
집단따돌림		1.09(.20)	1.12(.34)	1.13(.39)	1.12(.36)	.31



[그림 III-117]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그림 III-118]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자녀의 심리적응 영역도 유사하게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 위축변인 한 경우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한국의 가치관을 주로 따른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회적 위축 점수가 모국의 가치관을 주로 따르거나 한국의 가치관과 모국의 가치관을 반반씩 따른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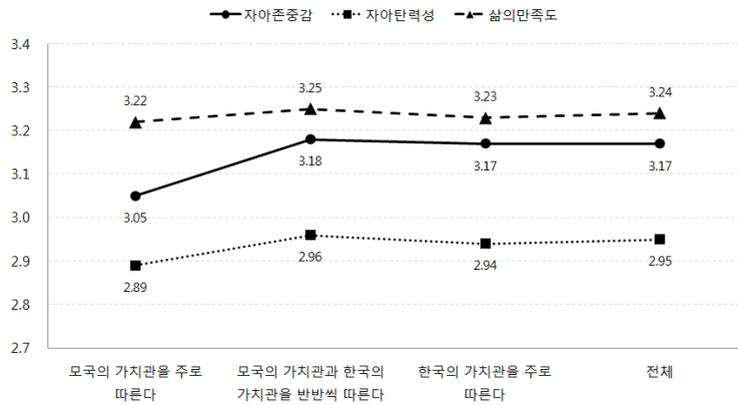
표 III-74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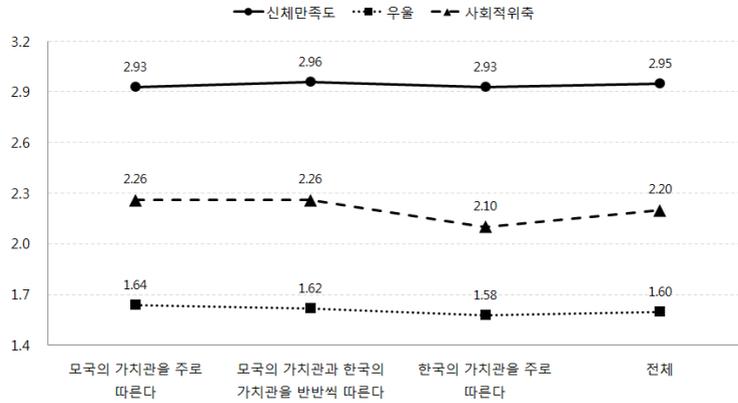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모국의 가치관 (N=54)	반반 (N=814)	한국의 가치관 (N=552)	전체 (N=1420)	F
자아존중감	3.05(.47)	3.18(.53)	3.17(.57)	3.17(.54)	1.49
자아탄력성	2.89(.44)	2.96(.46)	2.94(.48)	2.95(.47)	.54
삶의 만족도	3.22(.54)	3.25(.60)	3.23(.64)	3.24(.61)	.22
신체만족도	2.93(.54)	2.96(.49)	2.93(.51)	2.95(.50)	.70
우울	1.64(.47)	1.62(.52)	1.58(.55)	1.60(.53)	.75
사회적 위축	2.26(.67)	2.26(.73)	2.10(.71)	2.20(.72)	7.62**

** p < .01



[그림 III-119]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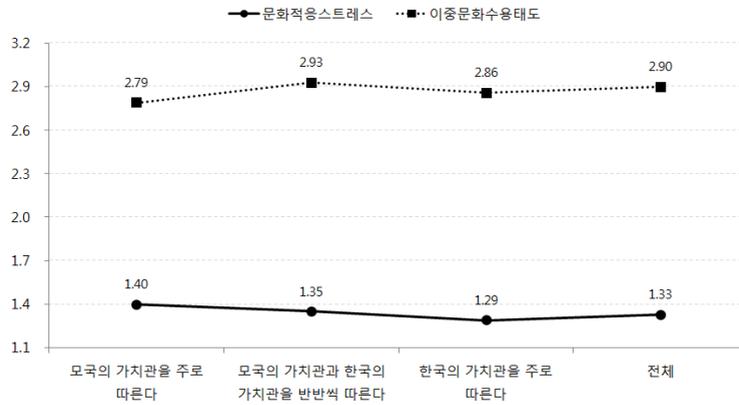
[그림 III-120]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다음으로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문화적응 영역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어머니가 한국의 가치관을 주로 따르는 경우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가 한국의 가치관과 모국의 가치관을 반반씩 따른다고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아서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됨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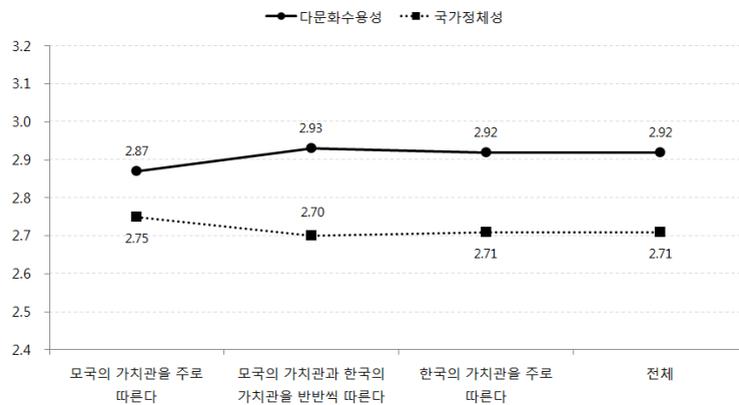
표 III-75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모국의 가치관 (N=54)	반반 (N=814)	한국의 가치관 (N=552)	전체 (N=1420)	F
문화적응스트레스		1.40(.42) _a	1.35(.41) _{ab}	1.29(.36) _b	1.33(.39)	5.33**
이중문화수용태도		2.79(.33) _b	2.93(.38) _a	2.86(.42) _{ab}	2.90(.40)	7.86***
다문화수용성		2.87(.49)	2.93(.55)	2.92(.60)	2.92(.57)	.30
국가정체성		2.75(.54)	2.70(.62)	2.71(.70)	2.71(.65)	.14

** $p < .0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121]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122] 어머니가 주로 따르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5)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발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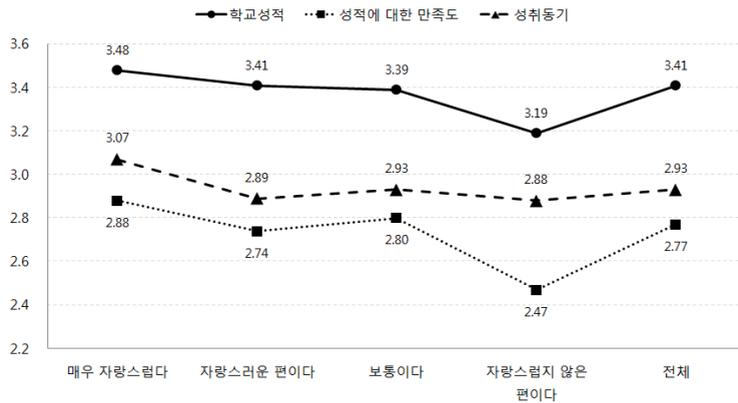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모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매우 자랑스럽다’ 또는 ‘자랑스러운 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어머니들의 응답 중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고 응답한 사례수가 7명 있었으나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 편파 될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고 다음의 네 가지 범주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의 경우는 어머니가 ‘매우 자랑스럽다’ 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매우 자랑스럽다 (N=169)	자랑스러운 편이다 (N=639)	보통이다 (N=571)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N=34)	전체 (N=1,413)	F
학교성적	3.48(.72) _a	3.41(.67) _a	3.39(.70) _a	3.19(.78) _b	3.41(.69)	1.83
성적만족도	2.88(.80) _a	2.74(.76) _a	2.80(.78) _a	2.47(.79) _b	2.77(.78)	6.19***
성취동기	3.07(.50) _a	2.89(.49) _b	2.93(.48) _b	2.88(.48) _b	2.93(.49)	3.41*

* $p < .05$, *** $p < .001$, Duncan: a)b



[그림 III-23]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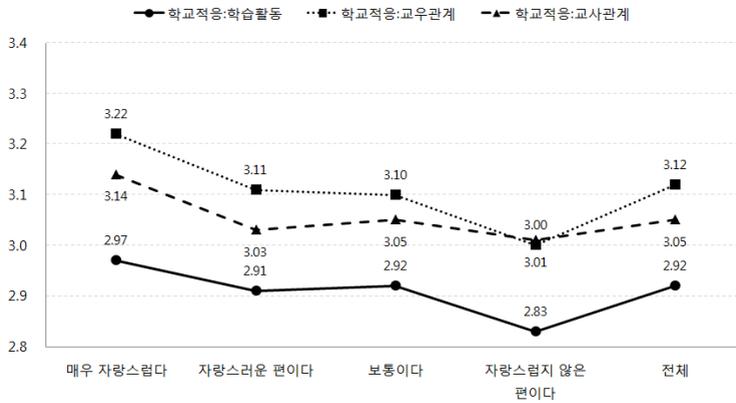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가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의 교우관계,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느낄수록 자녀의 교우관계,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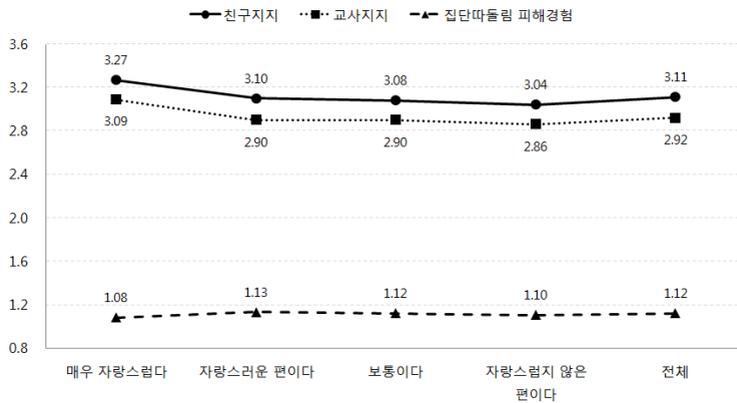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매우 자랑스럽다 (N=169)	자랑스러운 편이다 (N=639)	보통이다 (N=571)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N=34)	전체 (N=1,413)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7(.50)	2.91(.48)	2.92(.50)	2.83(.49)	2.92(.49)	1.24
학교적응: 교우관계		3.22(.48)	3.11(.44)	3.10(.45)	3.00(.47)	3.12(.45)	3.96**
학교적응: 교사관계		3.14(.62)	3.03(.60)	3.05(.62)	3.01(.52)	3.05(.61)	1.54
친구지지		3.27(.65)	3.10(.66)	3.08(.68)	3.04(.60)	3.11(.67)	3.81**
교사지지		3.09(.71)	2.90(.70)	2.90(.71)	2.86(.75)	2.92(.71)	3.52*
집단따돌림		1.08(.21)	1.13(.39)	1.12(.36)	1.10(.29)	1.12(.36)	1.05

* $p < .05$, ** $p < .01$



[그림 III-124]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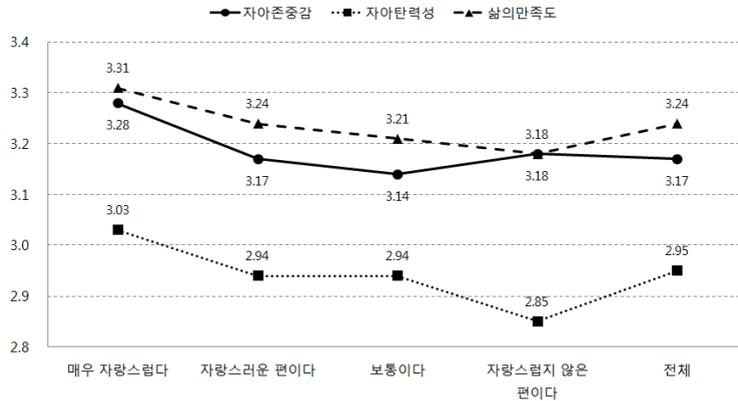
[그림 III-125]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응이 다른지 살펴보았는데, 어머니가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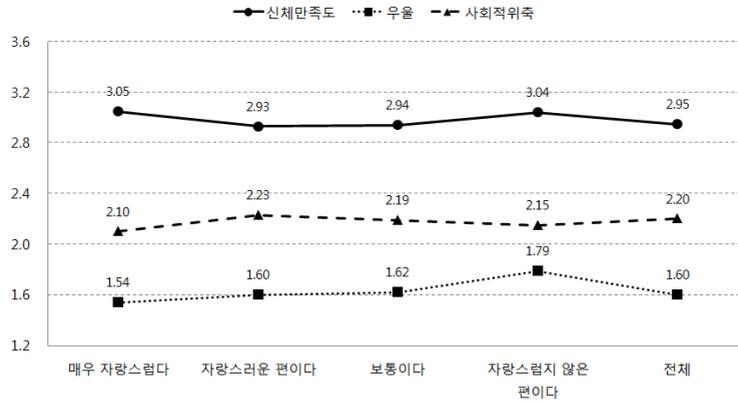
표 III-78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매우 자랑스럽다 (N=169)	자랑스러운 편이다 (N=639)	보통이다 (N=571)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N=34)	전체 (N=1,413)	F
자아존중감	3.28(.51)	3.17(.53)	3.14(.57)	3.18(.46)	3.17(.54)	2.63*
자아탄력성	3.03(.45) _a	2.94(.47) _{ab}	2.94(.47) _{ab}	2.85(.47) _b	2.95(.47)	2.34
삶의 만족도	3.31(.56)	3.24(.59)	3.21(.65)	3.18(.58)	3.24(.61)	1.16
신체만족도	3.05(.53)	2.93(.49)	2.94(.51)	3.04(.51)	2.95(.50)	3.23*
우울	1.54(.48) _b	1.60(.52) _b	1.62(.55) _b	1.79(.53) _a	1.60(.53)	2.51
사회적 위축	2.10(.71)	2.23(.71)	2.19(.74)	2.15(.74)	2.20(.72)	1.33

* $p < .05$, Duncan: a)b



[그림 III-126]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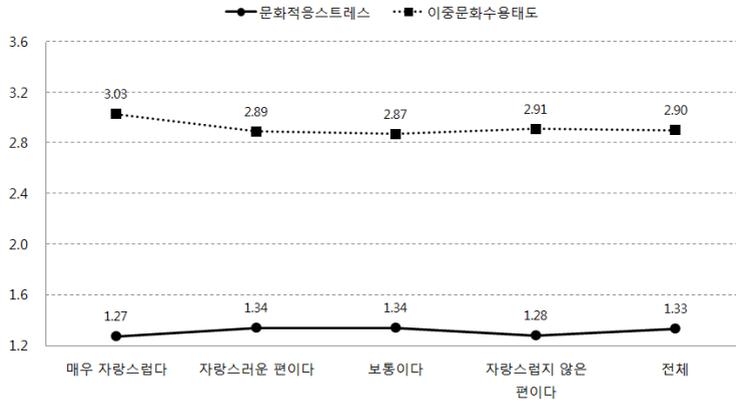
[그림 III-127]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는 것이 자녀의 문화적응에 차이를 유발하는지 비교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국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나머지 집단에 비해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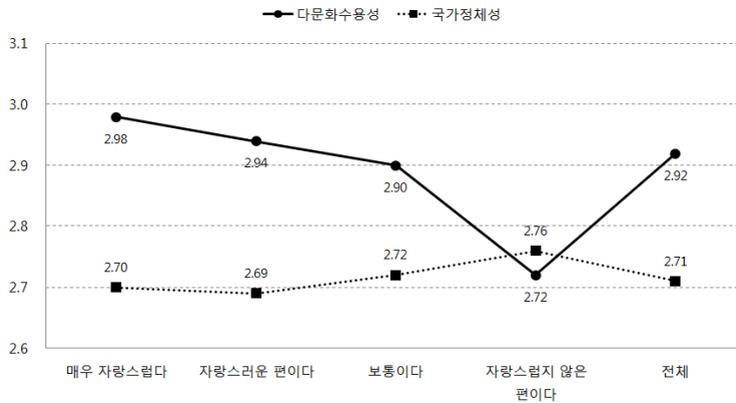
표 III-79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 어머니	매우 자랑스럽다 (N=169)	자랑스러운 편이다 (N=639)	보통이다 (N=571)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N=34)	전체 (N=1,413)	F
문화적응스트레스	1.27(.32)	1.34(.39)	1.34(.42)	1.28(.28)	1.33(.39)	1.89
이중문화수용태도	3.03(.40) _a	2.89(.40) _b	2.87(.39) _b	2.91(.45) _b	2.90(.40)	7.22***
다문화수용성	2.98(.58) _a	2.94(.58) _a	2.90(.55) _a	2.72(.57) _b	2.92(.57)	2.34
국가정체성	2.70(.70)	2.69(.63)	2.72(.66)	2.76(.70)	2.71(.65)	.32

*** α (.001, Duncan: a)b



[그림 III-128]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129]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6)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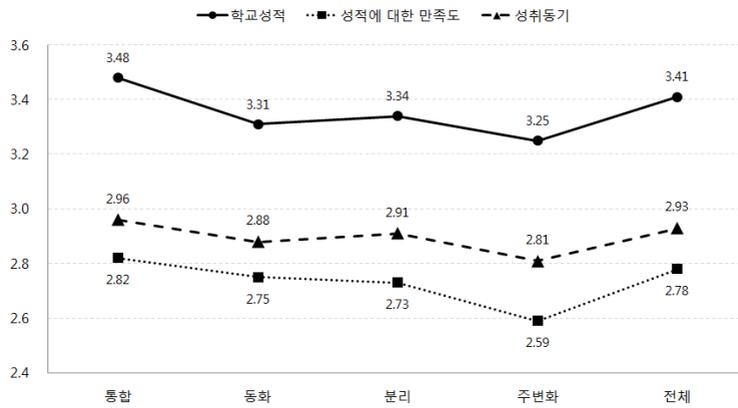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역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문화적응 유형은 각 유형을 측정하는 요인들끼리 묶고, 각 유형 네 가지 중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유형을 그 사람의 문화적응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각 유형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산출된 네 가지 값 중 통합점수가 가장 높으면 통합유형으로 동화점수가 가장 높으면 동화점수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학교성적 및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성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평균차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통합유형에 속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어머니가 주변화로 구분된 자녀의 성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80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통합 (N=626)	동화 (N=148)	분리 (N=420)	주변화 (N=27)	전체 (N=1,221)	F
학교성적		3.48(.69)	3.31(.67)	3.34(.71)	3.25(.48)	3.41(.70)	4.89**
성적만족도		2.82(.77)	2.75(.78)	2.73(.80)	2.59(.64)	2.78(.78)	1.57
성취동기		2.96(.49)	2.88(.47)	2.91(.51)	2.81(.51)	2.93(.49)	1.99

** $p < .01$



[그림 III-130]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의 학습활동 경우 어머니가 통합으로 범주화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학교적응의 교우관계 역시 통합으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친구지지의 경우 역시 통합집단의 점수와 동화집단이 가장 높았고 주변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교사지지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변화의 점수가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통합유형인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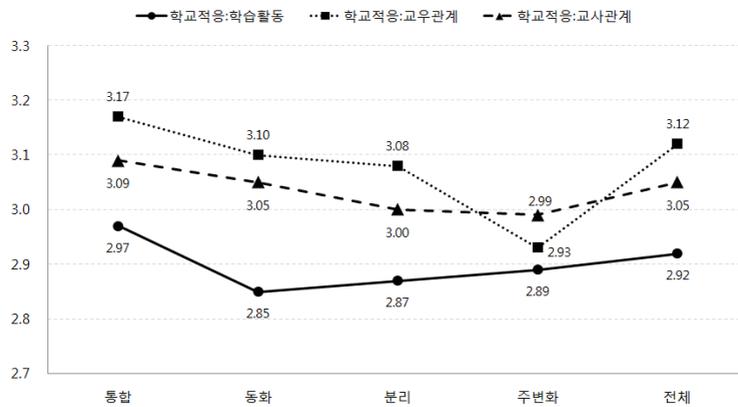
표 III-8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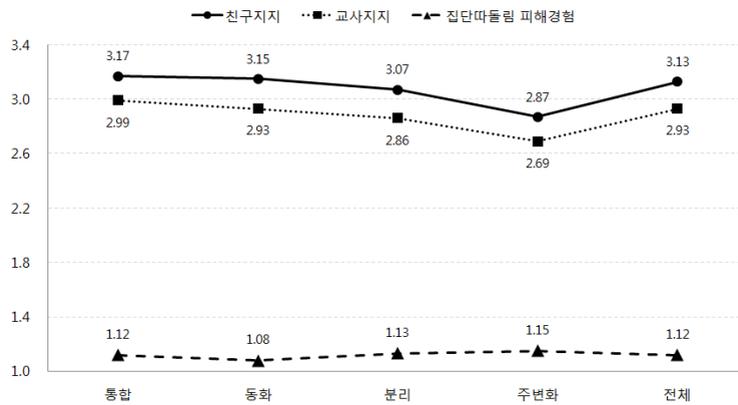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자녀	어머니	통합 (N=626)	동화 (N=148)	분리 (N=420)	주변화 (N=27)	전체 (N=1221)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7(.50)	2.85(.44)	2.87(.51)	2.89(.37)	2.92(.49)	4.00**
학교적응: 교우관계		3.17(.45) _a	3.10(.44) _a	3.08(.47) _a	2.93(.37) _b	3.12(.45)	5.17**
학교적응: 교사관계		3.09(.62)	3.05(.57)	3.00(.66)	2.99(.48)	3.05(.62)	1.71
친구지지		3.17(.68) _a	3.15(.64) _a	3.07(.68) _{ab}	2.87(.61) _b	3.13(.67)	3.17*
교사지지		2.99(.72) _a	2.93(.72) _a	2.86(.71) _{ab}	2.69(.70) _b	2.93(.72)	3.63*
집단따돌림		1.12(.36)	1.08(.22)	1.13(.36)	1.15(.43)	1.12(.34)	.90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13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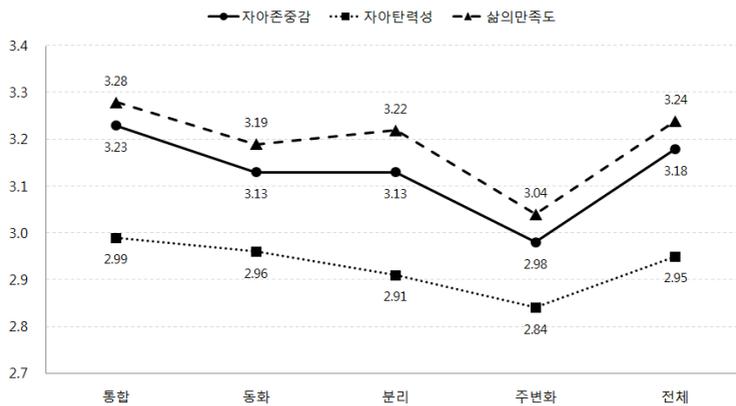
[그림 III-132]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이 통합으로 분류된 경우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등이 가장 높고 반대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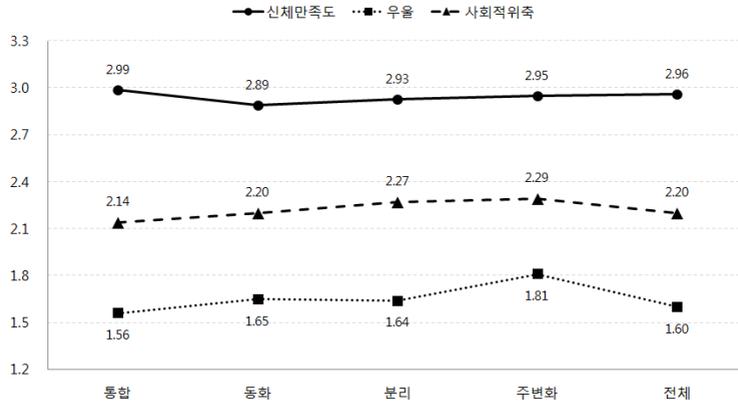
표 III-82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통합 (N=626)	동화 (N=148)	분리 (N=420)	주변화 (N=27)	전체 (N=1,221)	F
자아존중감	3.23(.53) _a	3.13(.56) _{ab}	3.13(.55) _{ab}	2.98(.46) _b	3.18(.54)	4.82**
자아탄력성	2.99(.48)	2.96(.48)	2.91(.47)	2.84(.38)	2.95(.47)	3.16*
삶의 만족도	3.28(.63) _a	3.19(.59) _{ab}	3.22(.60) _{ab}	3.04(.66) _b	3.24(.62)	2.17
신체만족도	2.99(.51)	2.89(.48)	2.93(.52)	2.95(.48)	2.96(.51)	1.92
우울	1.56(.52) _b	1.65(.55) _b	1.64(.54) _b	1.81(.53) _a	1.60(.53)	3.89**
사회적 위축	2.14(.73)	2.20(.74)	2.27(.72)	2.29(.65)	2.20(.73)	2.85*

* $p < .05$, ** $p < .01$, Duncan: a)b



[그림 III-133]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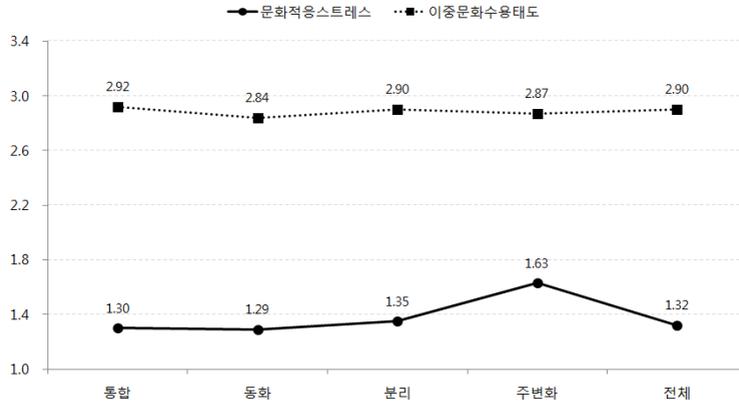
[그림 III-134]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수준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 동화, 분리집단과 비교하여 주변화집단의 평균의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한국문화와 모국문화 어떤 것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 자녀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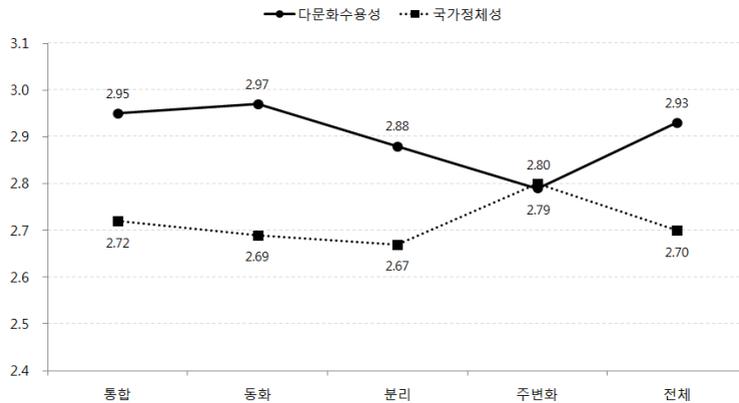
표 III-83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자녀	통합 (N=626)	동화 (N=148)	분리 (N=420)	주변화 (N=27)	전체 (N=1,221)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0(.37) _b	1.29(.35) _b	1.35(.42) _b	1.63(.51) _a	1.32(.39)	8.09***
이중문화수용태도	2.92(.40)	2.84(.42)	2.90(.39)	2.87(.37)	2.90(.40)	1.72
다문화수용성	2.95(.59)	2.97(.56)	2.88(.56)	2.79(.45)	2.93(.58)	2.00
국가정체성	2.72(.67)	2.69(.70)	2.67(.64)	2.80(.45)	2.70(.66)	.61

*** $p < .001$, Duncan: a)b



[그림 III-135]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림 III-136]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과 자녀의 발달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된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학교성적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역시 떨어지면 집단따돌림 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각된 차별감은 특히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영역의 변인들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지각된 차별감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차별감이 자녀의 문화적응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

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와 자녀의 발달이 관계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집단주의 가치는 자녀의 발달과 많은 영역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주의 가치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변인과의 상관관계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집단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성적, 학교적응,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가 높아지고 우울,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4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문화적 가치와 자녀 발달수준의 관계

자녀		어머니		향수병	집단주의	개인주의
		지각된 차별감				
학업 및 성취	학교성적	-.05*	-.10***	.07**	-	
	성적에 대한 만족도	-.06*	-.09***	-	-	
	성취동기	-	-	-	-	
학교적응	학교적응: 학습활동	-	-.07*	.07**	-	
	학교적응: 교우관계	-	-.08**	.07*	-	
	학교적응: 교사관계	-	-	.06*	-	
	친구지지	-.10***	-.10***	.10***	-	
	교사지지	-.06*	-	.10***	-	
	집단따돌림	.05*	-	-	-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07*	-	.10***	-	
	자아탄력성	-.06*	-	.09***	-	
	삶의 만족도	-.07**	-.06*	.10***	-.06*	
	신체만족도	-.07*	-	.07**	-	
	우울	.11***	.09**	-.09***	-	
	사회적 위축	.08**	.12***	-.05	-	
문화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17***	.16***	-.08**	.11***	
	이중문화수용태도	-	-	.10***	-	
	다문화수용성	-.06*	-	.07**	-	
	국가정체성	-	-	.08**	.05*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과 다양한 영역의 자녀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동화 통합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은 긍정적이고 주변화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을 사회적 위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분리의 경우는 학교적응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 등과 부적인 상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내었다.

표 III-85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과 자녀 발달수준의 관계

자녀		어머니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학업 및 성취	학교성적	-	.10***	-	-.14***	
	성적에 대한 만족도	-	.08**	-	-.11***	
	성취동기	-	.06*	-	-.09**	
학교적응	학교적응: 학습활동	-	.11***	-	-.10***	
	학교적응: 교우관계	-	.09**	-.05*	-.13***	
	학교적응: 교사관계	-	.08**	-.06*	-.07*	
	친구지지	.06*	.11***	-	-.13***	
	교사지지	.06*	.10***	-.06*	-.09***	
	집단따돌림	-	-	-	-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	.13***	-.06*	-.15***	
	자아탄력성	.06*	.09**	-.06*	-.11***	
	삶의 만족도	-	.08**	-	-.14***	
	신체만족도	-	.07*	-.05*	-.11***	
	우울	-	-.09**	-	.15***	
	사회적 위축	-.09***	-.09**	-	.09**	
문화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	-.09**	.08**	.22***	
	이중문화수용태도	-	.07**	-	-.09***	
	다문화수용성	-	.10***	-	-.10***	
	국가정체성	-	-	-	-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환경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 요약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남.
-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도가 자녀의 발달전반에 영향을 미침
- 어머니가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할수록 자녀의 학업관련 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학교생활, 심리적응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계되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임.
-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일 통합일 때 자녀의 발달에서 긍정적이고, 주변화 유형일 때 가장 부정적임.
-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 중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4. 거주지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이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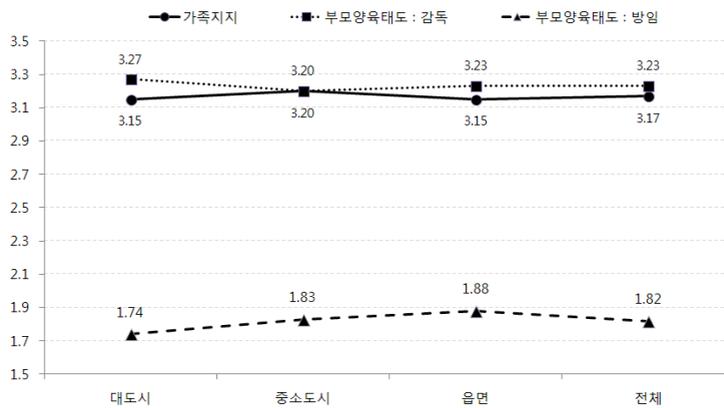
1) 가정환경

가정환경영역에 해당하는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대도시 (N=410)	중소도시 (N=683)	읍면 (N=410)	전체 (N=1503)	F
가족지지	3.15(.63)	3.20(.58)	3.15(.60)	3.17(.60)	1.25
부모양육태도 : 감독	3.27(.62)	3.20(.61)	3.23(.58)	3.23(.60)	2.08
부모양육태도 : 방임	1.74(.65) _b	1.83(.69) _a	1.88(.66) _a	1.82(.67)	4.77**

** $p < .01$, Duncan: a)b

지역규모별로 보면, 가족의 지지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읍면이 동일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차원은 대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중소도시의 순이었으며, 방임차원은 읍면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7]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차이

2) 학업성취

학업성취 영역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성적은 지역크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대도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동기는 중소도시의 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과 대도시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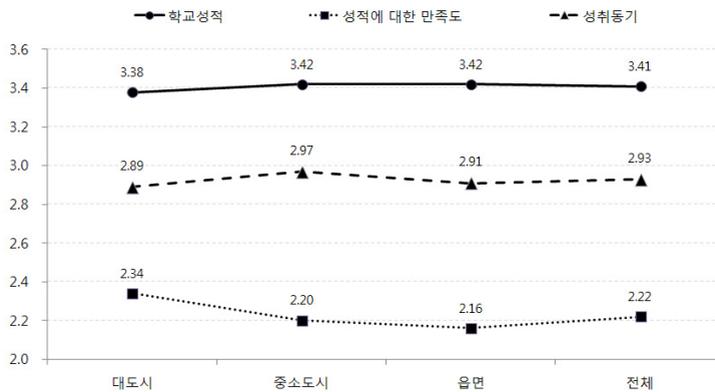
표 III-87 지역규모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구 분	대도시 (N=410)	중소도시 (N=683)	읍면 (N=410)	전체 (N=1503)	F
학교성적	3.38(.71)	3.42(.68)	3.42(.69)	3.41(.69)	.47
성적에 대한 만족도	2.34(.78) _a	2.20(.78) _b	2.16(.74) _b	2.22(.77)	6.19**
성취동기	2.89(.50) _b	2.97(.47) _a	2.91(.50) _{ab}	2.93(.49)	3.73*

* $p < .05$, ** $p < .01$, Duncan: a)b

학업성취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큰 차이는 없으나, 성적은 중소도시와 읍면이 높고 대도시가 낮은 편이며,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이었다. 성취동기는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138]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3)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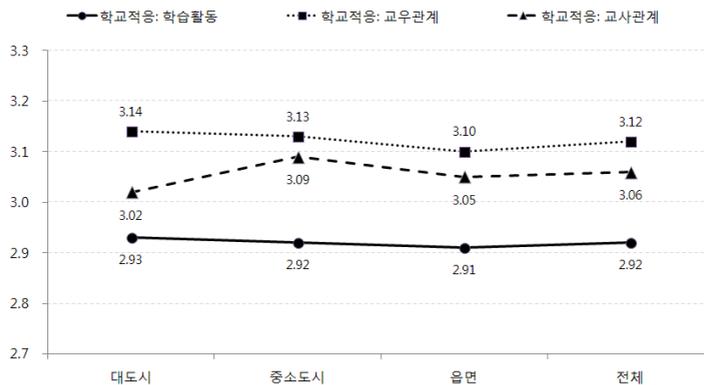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친구의 지지, 교사의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등의 변인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8 지역규모별 학교적응수준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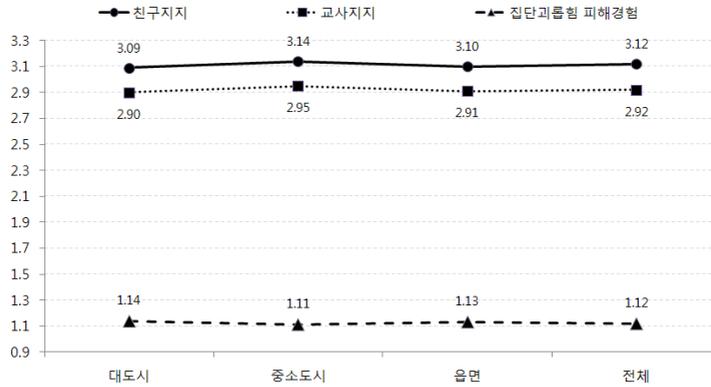
구 분	대도시 (N=410)	중소도시 (N=683)	읍면 (N=410)	전체 (N=1503)	F
학교적응: 학습활동	2.93(.50)	2.92(.49)	2.91(.49)	2.92(.49)	.26
학교적응: 교우관계	3.14(.45)	3.13(.46)	3.10(.45)	3.12(.45)	.83
학교적응: 교사관계	3.02(.57)	3.09(.61)	3.05(.63)	3.06(.61)	1.53
친구지지	3.09(.67)	3.14(.67)	3.10(.68)	3.12(.67)	1.00
교사지지	2.90(.70)	2.95(.71)	2.91(.72)	2.92(.71)	.8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4(.38)	1.11(.33)	1.13(.39)	1.12(.36)	.68

학교적응을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이었고, 교사관계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이었으나,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III-139]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수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이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대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 중소도시의 순이었으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모두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III-140] 지역규모별 아동의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4) 심리사회적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관련 변인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 역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대도시 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중소도시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읍면지역, 대도시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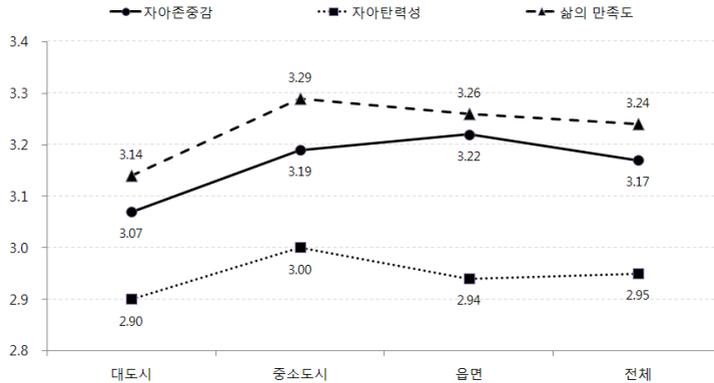
표 III-89 지역규모별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구분	대도시 (N=410)	중소도시 (N=683)	읍면 (N=410)	전체 (N=1503)	F
자아존중감	3.07(.59) _b	3.19(.52) _a	3.22(.55) _a	3.17(.55)	9.67***
자아탄력성	2.90(.49) _b	3.00(.46) _a	2.94(.47) _{ab}	2.95(.47)	6.12**
삶의 만족도	3.14(.65) _b	3.29(.59) _a	3.26(.61) _a	3.24(.61)	8.13***
신체만족도	2.87(.54) _b	3.00(.49) _a	2.95(.48) _a	2.95(.50)	8.06***
우울	1.59(.51)	1.61(.53)	1.62(.54)	1.60(.53)	.34
사회적 위축	2.15(.71)	2.21(.73)	2.23(.76)	2.20(.73)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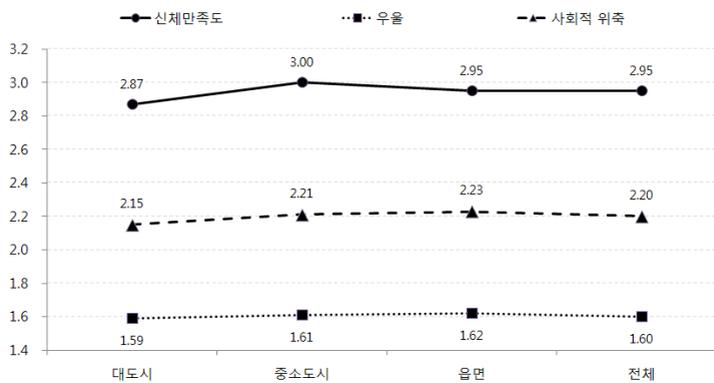
** $p < .01$, *** $p < .001$, Duncan: a)b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아존중감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 대도시는 그 다음이었다.



[그림 III-141] 지역규모별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중 신체만족도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III-142] 지역규모별 아동의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5) 문화적응

문화적응 영역 중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었는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대도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국가정체성은 중소도시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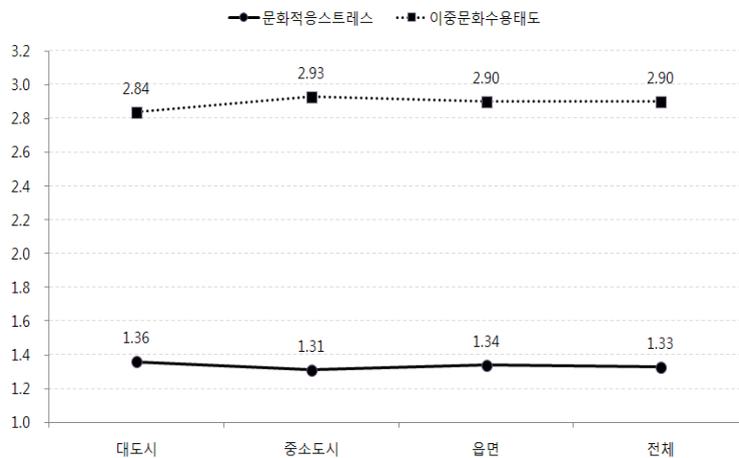
표 III-90 지역규모별 문화적응수준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구분	대도시 (N=410)	중소도시 (N=683)	읍면 (N=410)	전체 (N=1503)	F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4)	1.31(.38)	1.34(.38)	1.33(.40)	2.91
이중문화수용태도	2.84(.44) _b	2.93(.38) _a	2.90(.40) _a	2.90(.40)	6.36**
다문화수용성	2.92(.56)	2.92(.58)	2.96(.57)	2.93(.57)	.49
국가정체성	2.66(.65) _b	2.76(.64) _a	2.69(.65) _{ab}	2.71(.65)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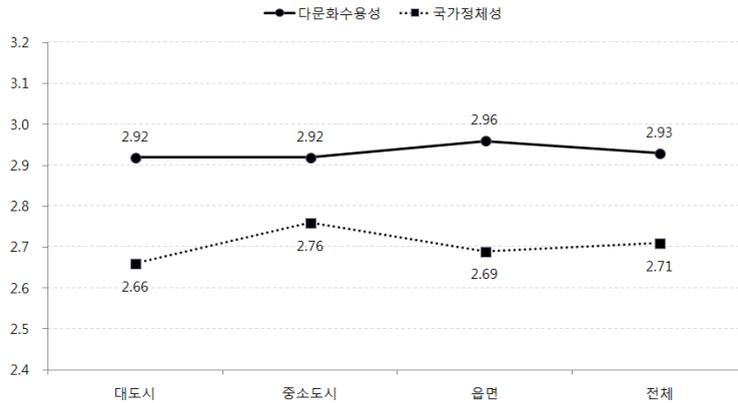
* $p < .05$, ** $p < .01$, Duncan: a)b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높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중문화스트레스는 대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 중소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I-143]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높지만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국가정체성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I-144] 지역규모별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지역규모별 특성차이 요약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정환경영역 중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성취영역 중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동기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성취동기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대도시가 가장 낮았음.
- 학교적응영역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심리사회적응영역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자이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대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이탄력성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음.
- 문화적응영역에서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음.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국가정체성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음.

5. 1,2차년도 비교분석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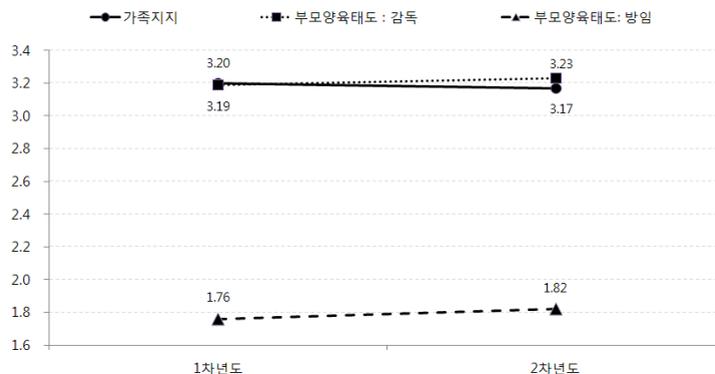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지지, 부모양육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지지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 양육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과 방임은 모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91 1차년도와 2차년도 가정환경 비교

평균 (표준편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t
가족지지	3.20(.57)	3.17(.60)	1.35
부모양육태도: 감독	3.19(.65)	3.23(.60)	-2.29*
부모양육태도: 방임	1.76(.61)	1.82(.67)	-2.67**

* $p < .05$, ** $p < .01$



[그림 III-145] 1차년도와 2차년도 가정환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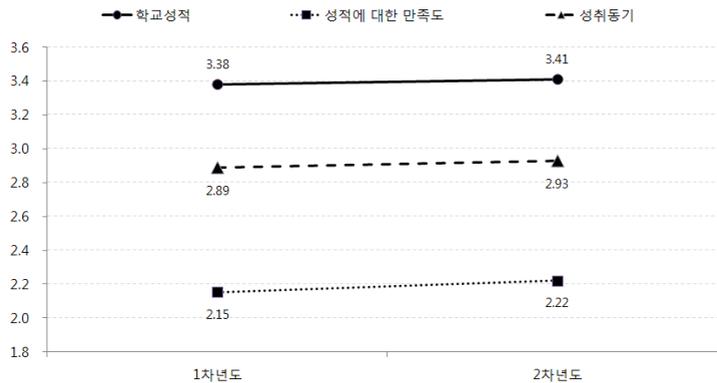
(2) 학업성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학교성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동기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92 1차년도와 2차년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비교 평균 (표준편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t
학교성적	3.38(.69)	3.41(.69)	-1.66
성적에 대한 만족도	2.15(.72)	2.22(.77)	-3.40**
성취동기	2.89(.53)	2.93(.49)	-2.75**

** $p < .01$



[그림 III-146]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비교

(3)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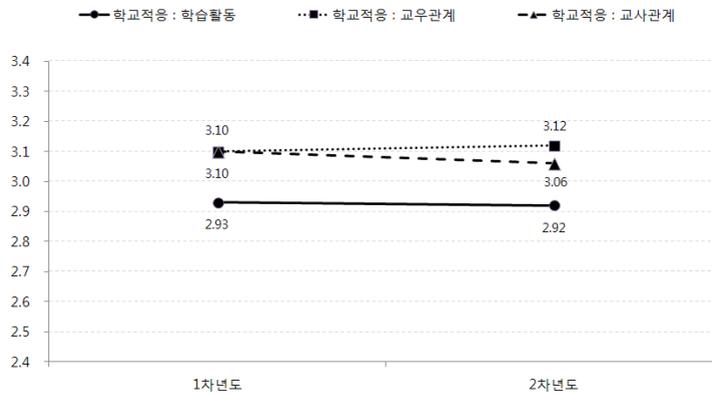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더 받고 있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받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표 III-93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적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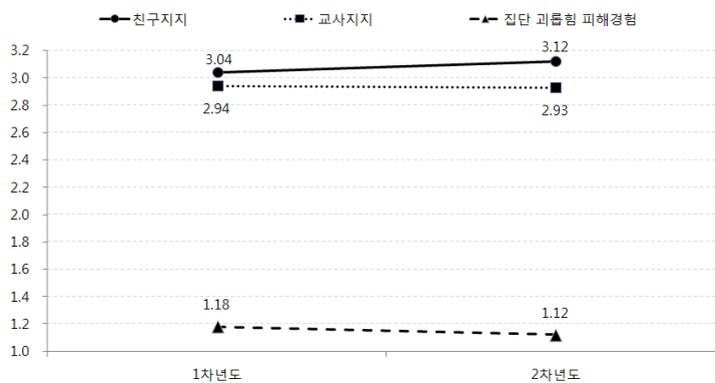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학교적응: 학습활동	2.93(.50)	2.92(.49)	.34
학교적응: 교우관계	3.10(.48)	3.12(.45)	-1.94
학교적응: 교사관계	3.10(.62)	3.06(.61)	2.08*
친구지지	3.04(.72)	3.12(.67)	-4.22***
교사지지	2.94(.71)	2.93(.71)	.57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8(.41)	1.12(.36)	5.05***

* $p < .05$, *** $p < .001$



[그림 III-147] 1차년도와 2차년도 학교적응수준 비교



[그림 III-148] 1차년도와 2차년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비교

(4) 심리사회적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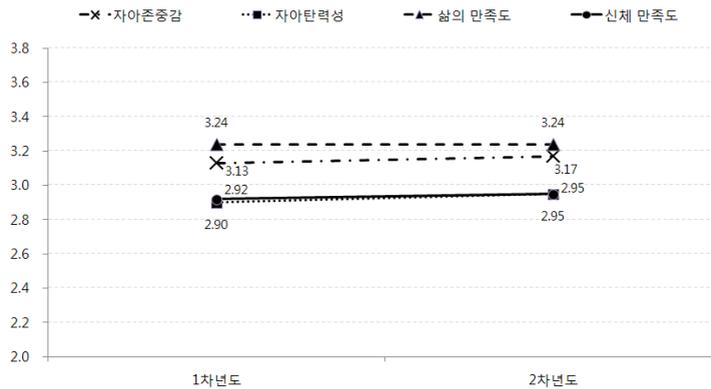
표 III-94

1차년도와 2차년도 심리사회적응 비교

평균 (표준편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t
자아존중감	3.13(.55)	3.17(.55)	-2.38*
자아탄력성	2.90(.48)	2.95(.47)	-3.85***
삶의 만족도	3.24(.60)	3.24(.61)	-.09
신체만족도	2.92(.50)	2.95(.50)	-2.00*

* $p < .05$, *** $p < .001$



[그림 III-149] 1차년도와 2차년도 심리사회적응 비교

(5)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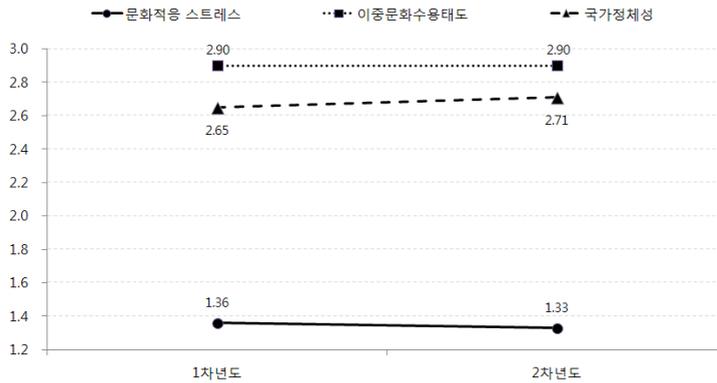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응영역에서의 발달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95 1차년도와 2차년도 문화적응 비교

평균 (표준편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t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1)	1.33(.40)	2.04*
이중문화수용태도	2.90(.41)	2.90(.40)	-.33
국가정체성	2.65(.67)	2.71(.65)	-3.33**

* $p < .05$, ** $p < .01$



[그림 III-150] 1차년도와 2차년도 문화적응 비교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 비교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의 영역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부모양육 태도 중 감독차원과 방임차원 모두 상승하였으며, 성취동기, 교사관계 적응,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 국가정체성 등의 변인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 가정환경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영역에서의 변화가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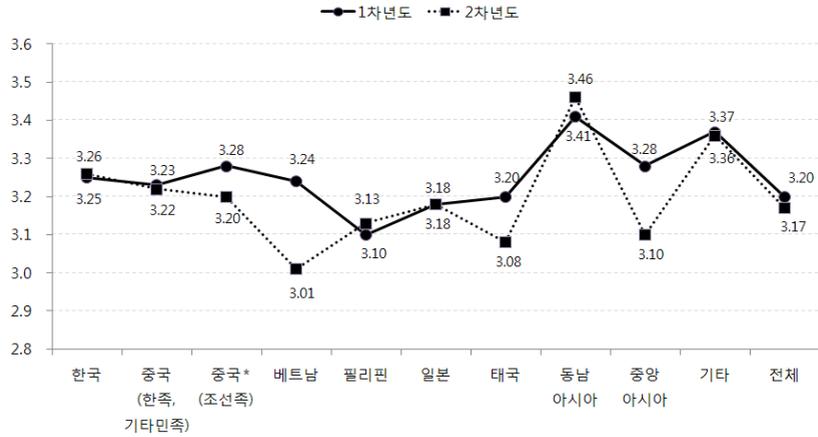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영역에서의 변화는 대체로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중국(조선족) 출신인 경우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잘 감독해주는지에 대해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96 어머니출신국가별 가정환경

구 분		가족지지		부모양육태도: 감독		부모양육태도: 방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한국 (N=57)	평균(표준편차)	3.25(.58)	3.26(.58)	3.40(.66)	3.41(.56)	1.79(.73)	1.82(.77)
	<i>t</i>	-.10		-.06		-.25	
중국(한족 등) (N=112)	평균(표준편차)	3.23(.52)	3.22(.58)	3.26(.68)	3.32(.60)	1.68(.62)	1.80(.73)
	<i>t</i>	.18		-.91		-1.57	
중국(조선족) (N=286)	평균(표준편차)	3.28(.58)	3.20(.60)	3.23(.64)	3.26(.60)	1.74(.64)	1.78(.68)
	<i>t</i>	2.10*		-.69		-.94	
베트남 (N=36)	평균(표준편차)	3.24(.59)	3.01(.75)	3.21(.85)	3.17(.67)	1.79(.66)	1.95(.73)
	<i>t</i>	2.00		.41		-.95	
필리핀 (N=377)	평균(표준편차)	3.10(.57)	3.13(.60)	3.05(.64)	3.17(.62)	1.86(.61)	1.91(.69)
	<i>t</i>	-1.02		-3.07**		-1.22	
일본 (N=501)	평균(표준편차)	3.18(.58)	3.18(.59)	3.19(.64)	3.24(.58)	1.71(.56)	1.76(.63)
	<i>t</i>	.08		-1.53		-1.77	
태국 (N=54)	평균(표준편차)	3.20(.54)	3.08(.61)	3.23(.61)	3.10(.64)	1.95(.60)	1.87(.65)
	<i>t</i>	1.19		1.09		.61	
동남아시아 (N=10)	평균(표준편차)	3.41(.49)	3.46(.62)	3.43(.50)	3.40(.52)	1.44(.36)	1.62(.51)
	<i>t</i>	-.17		.17		-1.25	
중앙아시아 (N=40)	평균(표준편차)	3.28(.44)	3.10(.61)	3.33(.60)	3.16(.61)	1.72(.54)	1.89(.65)
	<i>t</i>	1.78		1.49		-1.55	
기타 (N=28)	평균(표준편차)	3.37(.52)	3.36(.47)	3.36(.63)	3.21(.61)	1.76(.73)	1.58(.60)
	<i>t</i>	.09		1.42		1.11	
전체	평균(표준편차)	3.20(.57)	3.17(.60)	3.19(.65)	3.23(.60)	1.76(.61)	1.82(.67)
	<i>t</i>	1.35		-2.29*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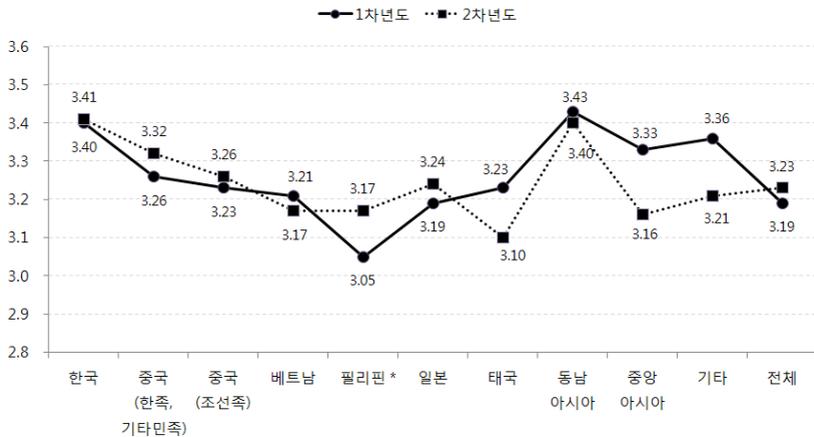
* α .05, ** α .01

가족의 지지는 1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가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2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 중국, 베트남, 태국, 중앙아시아 출신 가족 어머니의 자녀들은 가족의 지지를 1차년도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년도에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이 가족의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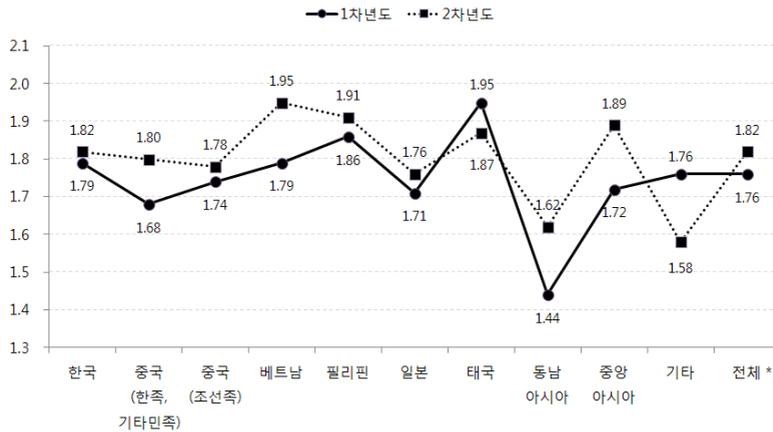
[그림 III-151]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잘 관리 감독해준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해 1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점수가 가장 높고,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었다. 반면 2차년도에는 한국어머니의 자녀들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태국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및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해 점수가 낮아졌고,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감독 점수는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림 III-152]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영역은 1차년도에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높고,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방임이 가장 높고, 기타국가 출신의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태국과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임 점수가 1차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방임 점수의 편차는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53]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2)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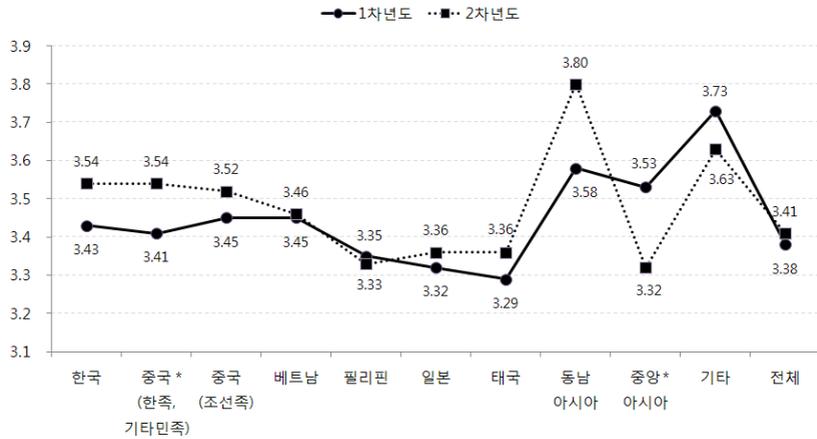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취가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해본 결과, 중국(한족, 기타민족)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어머니가 중앙아시아 출신인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성적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또한 중국(조선족) 출신 어머니 가정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어머니가 필리핀과 일본 출신인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97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업성취 및 성취동기 비교

구 분		학업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동기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한국 (N=57)	평균(표준편차)	3.43(.70)	3.54(.75)	2.36(.77)	2.14(.72)	2.98(.50)	2.92(.53)
	<i>t</i>	-1.17		1.85		1.07	
중국(한족 등) (N=112)	평균(표준편차)	3.41(.74)	3.54(.70)	2.13(.70)	2.18(.74)	2.89(.56)	2.98(.48)
	<i>t</i>	-2.10*		-.58		-1.80	
중국(조선족) (N=286)	평균(표준편차)	3.45(.70)	3.52(.68)	2.13(.72)	2.22(.79)	2.95(.53)	2.94(.47)
	<i>t</i>	-1.62		-2.12*		.25	
베트남 (N=36)	평균(표준편차)	3.45(.70)	3.46(.69)	2.14(.80)	2.31(.82)	2.81(.61)	2.86(.61)
	<i>t</i>	-.06		-1.23		-.37	
필리핀 (N=377)	평균(표준편차)	3.35(.69)	3.33(.68)	2.15(.68)	2.25(.76)	2.86(.56)	2.95(.50)
	<i>t</i>	.59		-2.30*		-2.88**	
일본 (N=501)	평균(표준편차)	3.32(.68)	3.36(.69)	2.16(.73)	2.23(.78)	2.86(.49)	2.91(.48)
	<i>t</i>	-1.27		-1.75		-2.00*	
태국 (N=54)	평균(표준편차)	3.29(.74)	3.36(.65)	2.17(.75)	2.11(.79)	2.86(.50)	2.88(.51)
	<i>t</i>	-.58		.49		-.30	
동남아시아 (N=10)	평균(표준편차)	3.58(.53)	3.80(.72)	1.80(.63)	1.70(.82)	3.04(.60)	3.03(.47)
	<i>t</i>	-.95		.29		.09	
중앙아시아 (N=40)	평균(표준편차)	3.53(.64)	3.32(.68)	2.23(.66)	2.48(.82)	3.01(.44)	2.90(.51)
	<i>t</i>	2.75**		-1.61		1.57	
기타 (N=28)	평균(표준편차)	3.73(.61)	3.63(.67)	1.93(.54)	2.14(.80)	3.05(.41)	3.01(.40)
	<i>t</i>	.99		-1.30		.33	
전체	평균(표준편차)	3.38(.69)	3.41(.69)	2.15(.72)	2.22(.77)	2.89(.53)	2.93(.49)
	<i>t</i>	-1.66		-3.4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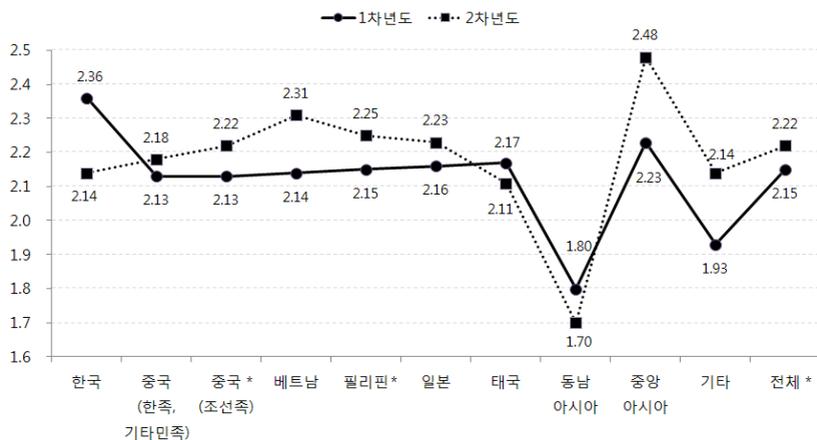
* $p < .05$, ** $p < .01$

학생의 학업성적은 1차년도에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이 가장 높고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았으나, 올해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 학생의 성적이 가장 높고,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학생 성적이 가장 낮았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리핀과 중앙아시아,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에서 대체로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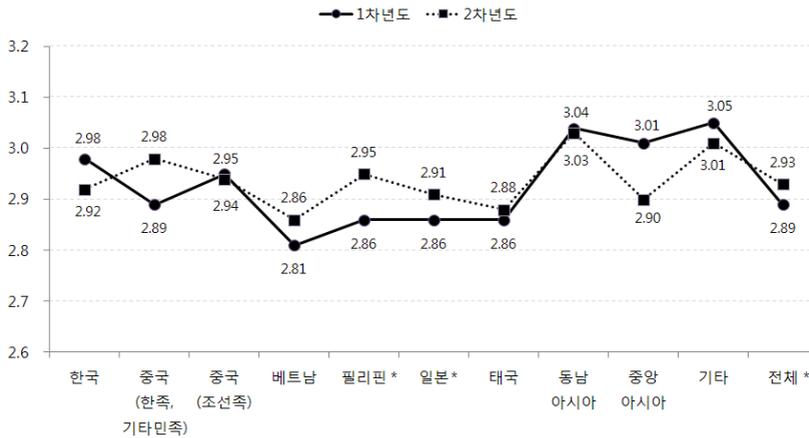
[그림 III-154]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에 한국출신 어머니 가정 학생들이 가장 높고,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고,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 학생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성적이 가장 높은 반면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고,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학생들은 성적이 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낮은 반면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별 점수 차이의 범위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55]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동기는 1차년도에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높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낮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2차년도에도 성취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성취동기도 높고 성적도 높은 반면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와 열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156]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3)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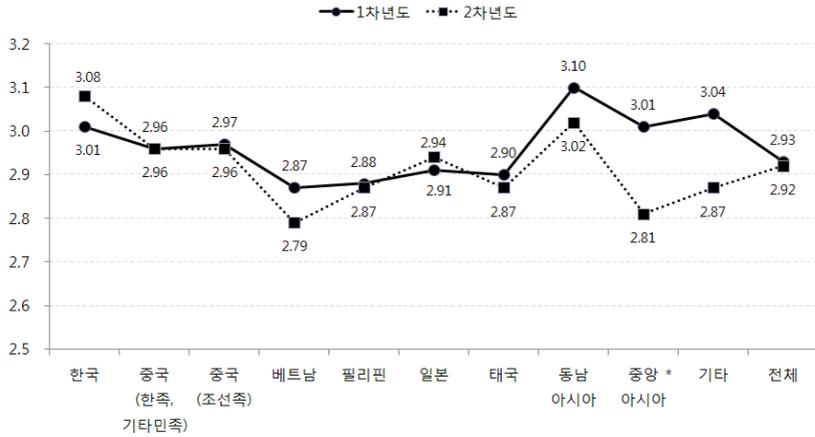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중국(조선족), 필리핀, 일본 출신인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친구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일본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도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어머니가 필리핀, 일본, 기타 국가 출신인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떨어졌고,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표 III-98 어머니 출신국가별 학교적응 비교

구 분		학교적응 : 학습활동		학교적응 : 교우관계		학교적응 : 교사관계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한국 (N=57)	평균 (표준편차)	3.01 (.48)	3.08 (.46)	3.20 (.41)	3.21 (.51)	3.12 (.68)	3.22 (.54)	3.23 (.64)	3.22 (.80)	3.00 (.79)	3.07 (.78)	1.23 (.46)	1.18 (.47)
	<i>t</i>	-.97		-.20		-1.01		.17		-.51		.82	
중국(한족, 기타민족) (N=112)	평균 (표준편차)	2.96 (.55)	2.96 (.49)	3.08 (.49)	3.08 (.44)	3.11 (.62)	3.11 (.62)	2.98 (.75)	3.10 (.66)	2.97 (.71)	3.05 (.72)	1.19 (.36)	1.15 (.38)
	<i>t</i>	-.07		-.04		-.05		-1.72		-1.08		.94	
중국 (조선족) (N=286)	평균 (표준편차)	2.97 (.49)	2.96 (.49)	3.12 (.48)	3.12 (.44)	3.12 (.62)	3.06 (.61)	3.03 (.71)	3.14 (.63)	2.93 (.72)	2.95 (.74)	1.17 (.40)	1.12 (.32)
	<i>t</i>	.18		-.11		1.40		-2.42*		-.40		1.74	
베트남 (N=36)	평균 (표준편차)	2.87 (.62)	2.79 (.57)	3.14 (.51)	3.09 (.40)	3.18 (.62)	2.96 (.63)	3.06 (.66)	3.07 (.57)	2.98 (.78)	2.88 (.75)	1.10 (.20)	1.06 (.18)
	<i>t</i>	.72		.63		2.35*		-.12		.82		1.00	
필리핀 (N=377)	평균 (표준편차)	2.88 (.49)	2.87 (.48)	3.06 (.48)	3.07 (.45)	3.09 (.61)	3.05 (.59)	3.00 (.74)	3.08 (.66)	2.93 (.67)	2.89 (.65)	1.23 (.47)	1.14 (.39)
	<i>t</i>	.60		-.46		1.17		-2.19*		1.22		3.2**	
일본 (N=501)	평균 (표준편차)	2.91 (.51)	2.94 (.50)	3.10 (.49)	3.15 (.46)	3.08 (.60)	3.04 (.61)	3.05 (.71)	3.14 (.68)	2.92 (.71)	2.90 (.71)	1.15 (.38)	1.11 (.37)
	<i>t</i>	-1.28		-2.46*		1.29		-2.86**		.49		2.23*	
태국 (N=54)	평균 (표준편차)	2.90 (.56)	2.87 (.49)	2.98 (.55)	3.10 (.55)	3.01 (.67)	3.07 (.69)	2.93 (.76)	2.94 (.92)	2.93 (.79)	2.87 (.90)	1.27 (.59)	1.12 (.30)
	<i>t</i>	.46		-1.28		-.52		-.07		.42		1.71	
동남 아시아 (N=10)	평균 (표준편차)	3.10 (.63)	3.02 (.39)	3.26 (.63)	3.38 (.42)	3.22 (.65)	3.00 (.74)	3.12 (.91)	3.42 (.59)	3.20 (1.00)	2.96 (.92)	1.07 (.09)	1.10 (.21)
	<i>t</i>	.41		-.97		1.72		-1.04		1.06		-.48	
중앙 아시아 (N=40)	평균 (표준편차)	3.01 (.40)	2.81 (.42)	3.16 (.48)	3.10 (.42)	3.10 (.74)	3.14 (.59)	3.19 (.68)	3.06 (.59)	3.01 (.73)	2.97 (.62)	1.19 (.32)	1.14 (.32)
	<i>t</i>	3.29**		.66		-.36		.97		.27		.85	
기타 (N=28)	평균 (표준편차)	3.04 (.51)	2.87 (.38)	3.16 (.39)	3.16 (.39)	3.14 (.58)	2.96 (.48)	3.23 (.59)	3.30 (.59)	3.04 (.65)	3.03 (.55)	1.20 (.39)	1.03 (.09)
	<i>t</i>	1.87		.00		1.70		-.59		.04		2.26*	
전체	평균 (표준편차)	2.93 (.50)	2.92 (.49)	3.10 (.48)	3.12 (.45)	3.10 (.62)	3.06 (.61)	3.04 (.72)	3.12 (.67)	2.94 (.71)	2.93 (.71)	1.18 (.41)	1.12 (.36)
	<i>t</i>	.34		-1.94		2.08*		-4.22***		.57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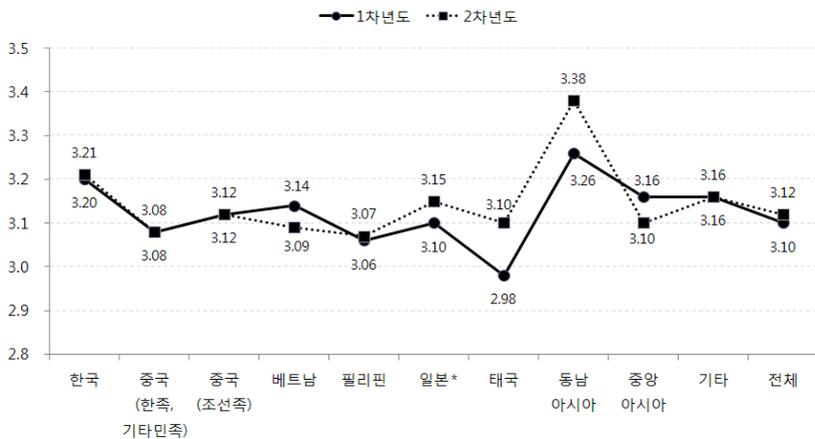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 영역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학습활동 적응이 가장 높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서는 한국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들의 학습활동 적응이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2차년도에도 학습활동 적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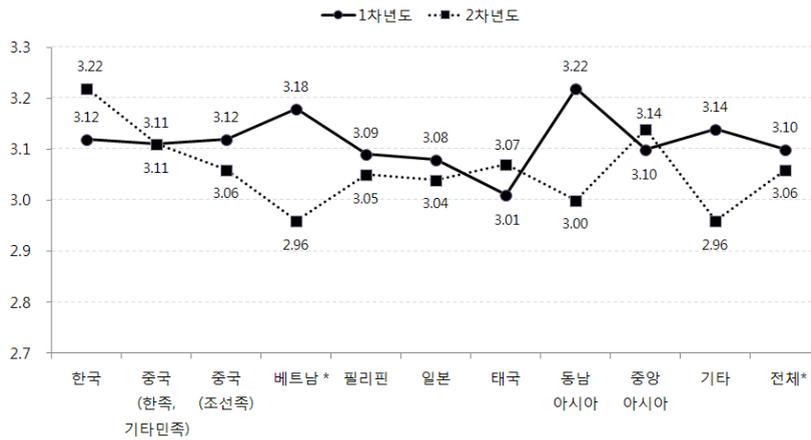
[그림 III-157]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교우관계 적응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교우관계 적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1차년도에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이 가장 낮았고 2차년도에는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들에게서 교우관계적응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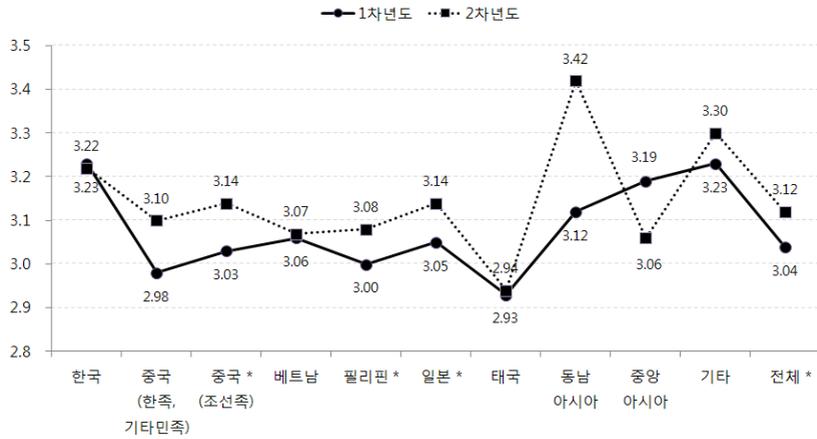
[그림 III-158]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적응은 1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높고,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았으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사관계 적응수준이 낮아졌으며, 한국어머니 가정 자녀들이 가장 높고 베트남과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의 교사관계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교사관계 적응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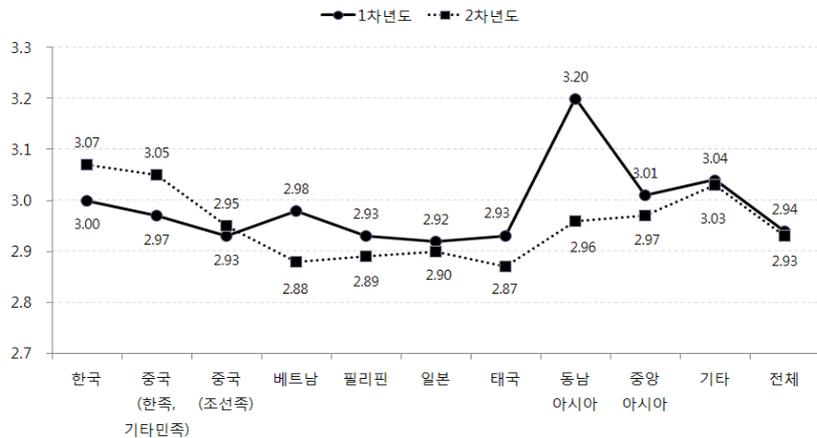
[그림 III-159]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지각한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여전히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친구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친구의 지지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는데, 특히 중국, 필리핀, 일본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친구의 지지를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친구 지지의 점수 차이의 폭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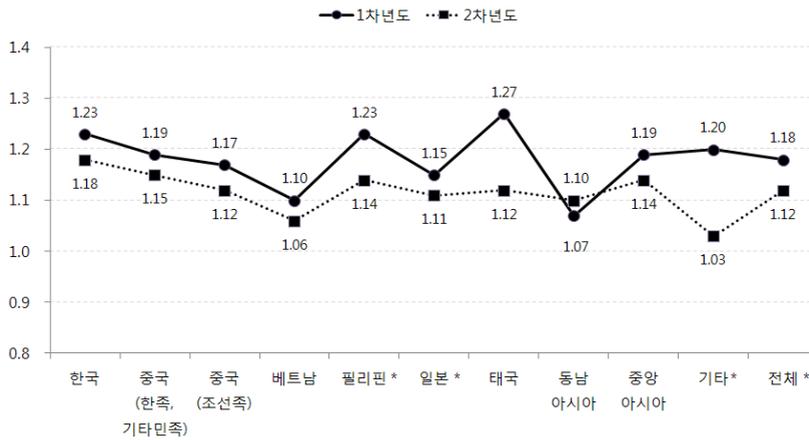
[그림 III-160]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1차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일본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2차년도에는 한국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점수 편차가 줄어들고,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교사의 지지가 매우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61]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른 점수의 폭도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하였고, 특히 일본, 필리핀, 기타 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62]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4) 심리사회적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서의 변화는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어머니가 일본 출신인 가정의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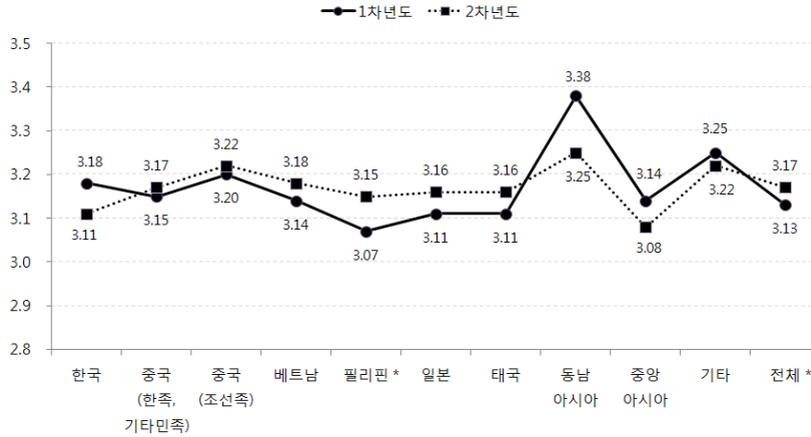
표 III-99 어머니 출신국가별 심리사회적응 비교

구 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한국 (N=57)	평균 (표준편차)	3.18 (.59)	3.11 (.68)	2.96 (.49)	3.07 (.55)	3.26 (.60)	3.26 (.65)	3.02 (.55)	3.06 (.53)
	<i>t</i>	.85		-1.28		.00		-.59	
중국(한족, 기타민족) (N=112)	평균 (표준편차)	3.15 (.50)	3.17 (.53)	2.88 (.49)	2.97 (.43)	3.25 (.58)	3.25 (.55)	2.95 (.46)	2.95 (.51)
	<i>t</i>	-.40		-1.95		.05		.10	
중국 (조선족) (N=286)	평균 (표준편차)	3.20 (.56)	3.22 (.57)	2.95 (.48)	2.97 (.47)	3.24 (.61)	3.17 (.66)	2.91 (.51)	2.92 (.50)
	<i>t</i>	-.53		-.37		1.68		-.29	
베트남 (N=36)	평균 (표준편차)	3.14 (.52)	3.18 (.55)	2.97 (.47)	2.88 (.40)	3.27 (.62)	3.28 (.58)	2.93 (.50)	2.85 (.57)
	<i>t</i>	-.39		1.28		-.10		.79	
필리핀 (N=377)	평균 (표준편차)	3.07 (.54)	3.15 (.55)	2.87 (.47)	2.95 (.44)	3.24 (.60)	3.23 (.63)	2.89 (.51)	2.92 (.51)
	<i>t</i>	-2.52*		-2.90**		.36		-1.39	
일본 (N=501)	평균 (표준편차)	3.11 (.57)	3.16 (.53)	2.87 (.48)	2.94 (.49)	3.21 (.60)	3.26 (.60)	2.93 (.48)	2.97 (.49)
	<i>t</i>	-1.72		-3.08**		-1.74		-1.86	
태국 (N=54)	평균 (표준편차)	3.11 (.54)	3.16 (.50)	2.92 (.55)	2.94 (.49)	3.19 (.65)	3.33 (.62)	2.90 (.57)	2.99 (.52)
	<i>t</i>	-.63		-.19		-1.37		-1.16	
동남 아시아 (N=10)	평균 (표준편차)	3.38 (.54)	3.25 (.51)	3.04 (.50)	3.14 (.43)	3.33 (.47)	3.47 (.45)	3.02 (.41)	3.17 (.49)
	<i>t</i>	.70		-.91		-.67		-.92	
중앙 아시아 (N=40)	평균 (표준편차)	3.14 (.50)	3.08 (.57)	2.96 (.44)	2.91 (.51)	3.26 (.42)	3.17 (.53)	2.99 (.53)	2.93 (.53)
	<i>t</i>	.66		.77		.95		.78	
기타 (N=28)	평균 (표준편차)	3.25 (.52)	3.22 (.47)	3.07 (.48)	3.03 (.43)	3.45 (.48)	3.29 (.48)	3.13 (.42)	3.10 (.49)
	<i>t</i>	.25		.44		1.96		.28	
전체	평균 (표준편차)	3.13 (.55)	3.17 (.55)	2.90 (.48)	2.95 (.47)	3.24 (.60)	3.24 (.61)	2.92 (.50)	2.95 (.50)
	<i>t</i>	-2.38*		-3.85***		-.09		-2.00*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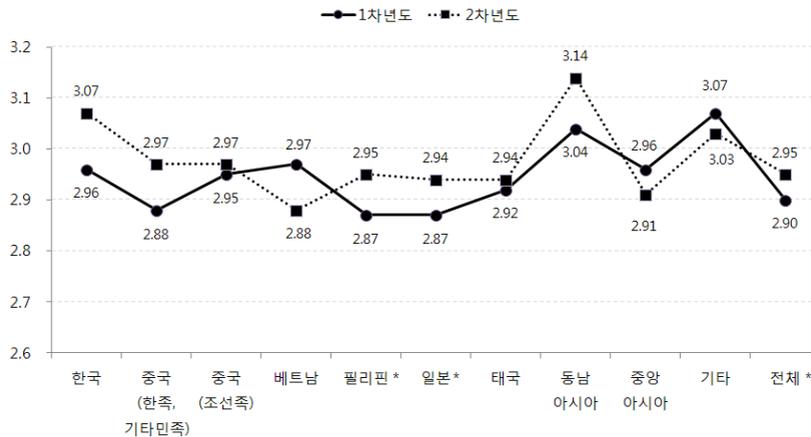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자아존중감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상승한 반면, 한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자아존중감 점수의 편차는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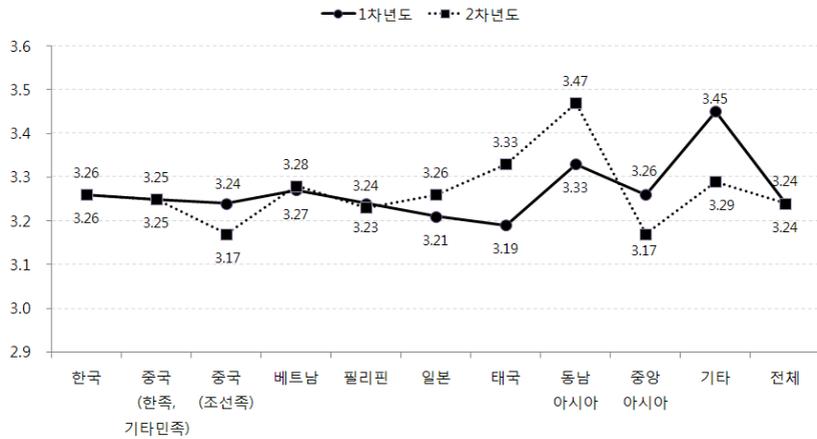
[그림 Ⅲ-163]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리핀, 일본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차년도에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 자녀들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자아탄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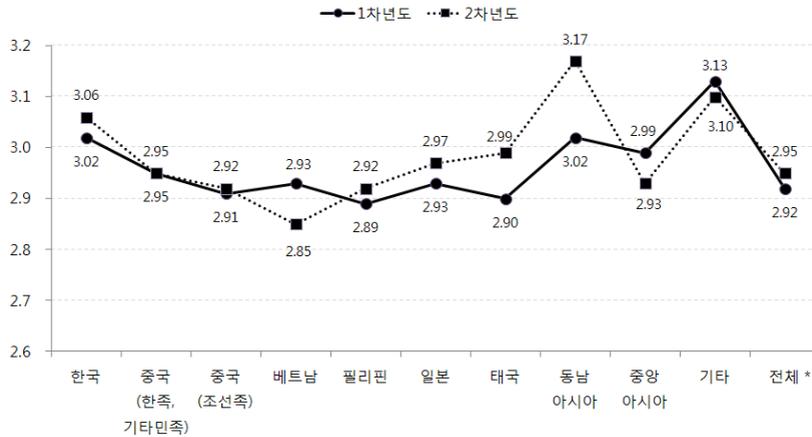
[그림 Ⅲ-164]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에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가장 높고 태국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높고, 중앙아시아와 중국 조선족 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과 중앙아시아,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일본, 태국,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III-165]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졌다. 1차년도에는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에게서 가장 높고 필리핀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에게서 가장 낮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에게서 가장 높고, 베트남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66]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민족도

(5) 문화적응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문화적응영역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가정과 일본 출신인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00 어머니 출신국가별 문화적응 비교

구 분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한국 (N=57)	평균(표준편차)	1.44(.49)	1.38(.51)	2.97(.45)	2.98(.45)	2.68(.59)	2.78(.63)
	<i>t</i>	.97		-.18		-1.36	
중국(한족 등) (N=112)	평균(표준편차)	1.35(.42)	1.34(.42)	2.85(.37)	2.86(.40)	2.71(.64)	2.77(.65)
	<i>t</i>	.14		-.37		-.81	
중국 (조선족) (N=286)	평균(표준편차)	1.30(.37)	1.30(.39)	2.87(.40)	2.86(.41)	2.74(.68)	2.71(.69)
	<i>t</i>	-.04		.08		.69	
베트남 (N=36)	평균(표준편차)	1.39(.48)	1.35(.32)	2.84(.47)	2.78(.33)	2.65(.71)	2.71(.61)
	<i>t</i>	.44		.9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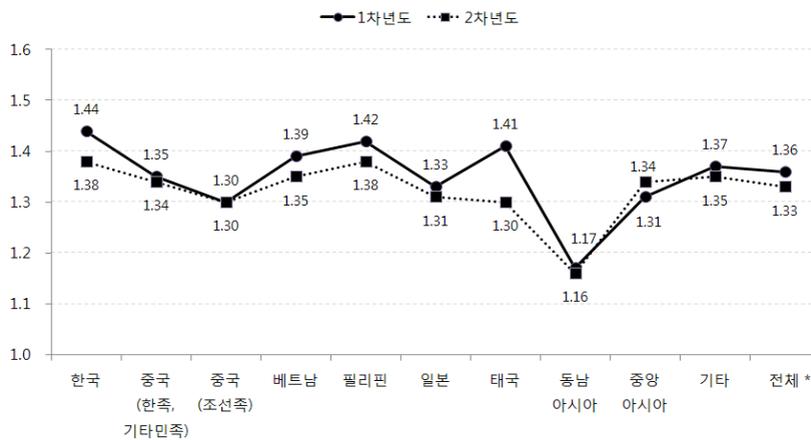
* $p < .05$, ** $p < .01$

표 III-100 어머니 출신국가별 문화적응 비교(계속)

구 분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필리핀 (N=377)	평균(표준편차) 1.42(.44)	1.38(.44)	2.91(.43)	2.89(.40)	2.65(.69)	2.76(.63)
	<i>t</i>	1.48	.65		-2.69**	
일본 (N=501)	평균(표준편차) 1.33(.38)	1.31(.36)	2.90(.41)	2.93(.38)	2.56(.66)	2.66(.64)
	<i>t</i>	1.11	-1.26		-2.82**	
태국 (N=54)	평균(표준편차) 1.41(.48)	1.30(.35)	2.89(.34)	2.96(.43)	2.53(.61)	2.64(.72)
	<i>t</i>	1.72	-1.12		-1.15	
동남 아시아 (N=10)	평균(표준편차) 1.17(.21)	1.16(.16)	3.02(.42)	2.93(.37)	2.78(.81)	2.60(.57)
	<i>t</i>	.17	.83		.76	
중앙 아시아 (N=40)	평균(표준편차) 1.31(.43)	1.34(.42)	2.97(.40)	2.89(.52)	2.85(.65)	2.80(.74)
	<i>t</i>	-.31	1.00		.44	
기타 (N=28)	평균(표준편차) 1.37(.34)	1.35(.40)	2.95(.33)	2.93(.41)	2.67(.56)	2.76(.49)
	<i>t</i>	.34	.38		-.77	
전체	평균(표준편차) 1.36(.41)	1.33(.40)	2.90(.41)	2.90(.40)	2.65(.67)	2.71(.65)
	<i>t</i>	2.04*	-.33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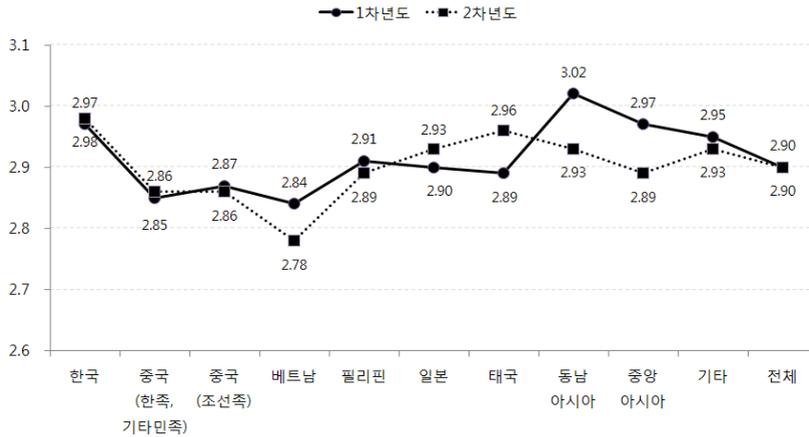
* $p < .05$, ** $p < .01$

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차년도에는 한국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1, 2차년도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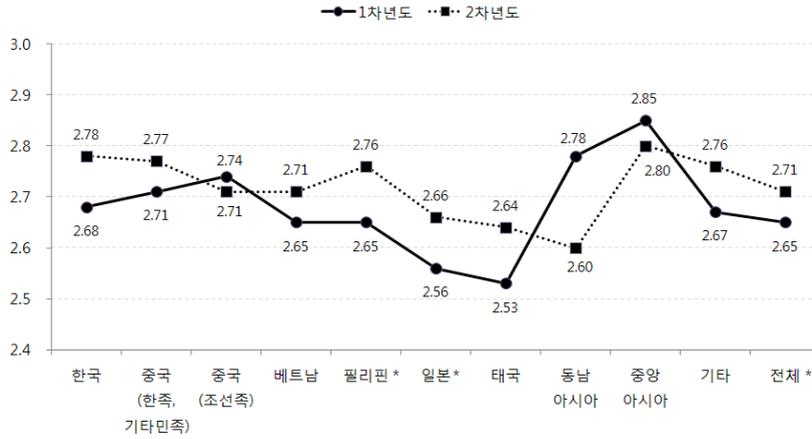
[그림 III-167]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1차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높고, 중국(한족, 기타민족)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한국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가장 높고, 베트남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68]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필리핀, 일본 출신 어머니 가정 자녀에게서 2차년도에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국가정체성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에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국가정체성이 가장 높았으며,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국가정체성이 타 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69] 어머니 출신국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어머니 출신국가별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 비교

-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의 영역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 출신 어머니의 자녀는 1차년도에 비해 학교성적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
- 중국 조선족 어머니의 자녀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가족지지가 감소한 반면, 성적만족도와 친구지지는 유의미하게 높아짐.
- 베트남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2차년도에 교사적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 필리핀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1차년도에 비해 변화를 나타냈는데,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함.
- 일본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성취동기, 교우관계적응, 친구지지, 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이 1차년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함.
- 중앙아시아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적과 학습활동적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
- 기타국가 출신 어머니 자녀들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함.

3)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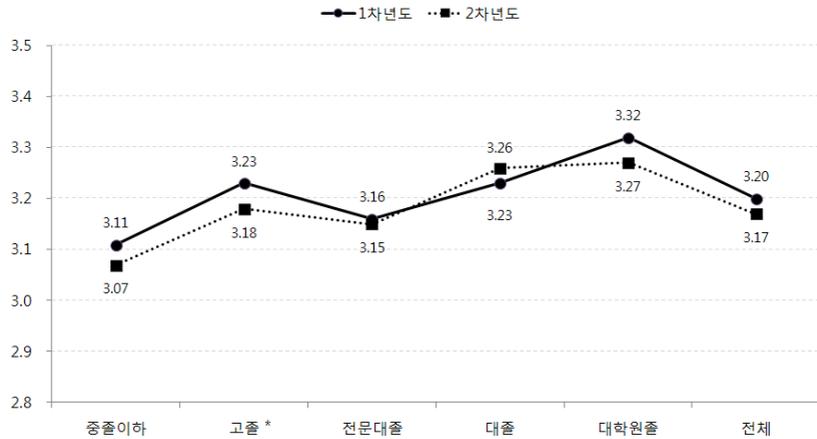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영역에서의 발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가족의 지지를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하였고,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을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였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게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관리 감독해준다고 지각하였다.

표 III-101 어머니 교육수준별 가정환경

구 분		중졸이하 (N=148)		고졸 (N=645)		전문대졸 (N=430)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가족지지	평균 (표준편차)	3.11 (.58)	3.07 (.61)	3.23 (.56)	3.18 (.60)	3.16 (.56)	3.15 (.57)	3.23 (.60)	3.26 (.63)	3.32 (.66)	3.27 (.60)	3.20 (.57)	3.17 (.60)
	<i>t</i>	.73		2.04*		.23		-.91		.35		1.35	
부모양육 태도: 감독	평균 (표준편차)	3.16 (.65)	3.10 (.66)	3.20 (.67)	3.24 (.58)	3.13 (.64)	3.17 (.62)	3.23 (.65)	3.35 (.58)	3.47 (.46)	3.35 (.70)	3.19 (.65)	3.23 (.60)
	<i>t</i>	1.00		-1.57		-1.13		-2.63**		.71		-2.29*	
부모양육 태도: 방임	평균 (표준편차)	1.93 (.68)	1.92 (.69)	1.74 (.61)	1.80 (.67)	1.76 (.58)	1.85 (.67)	1.74 (.61)	1.75 (.67)	1.51 (.60)	1.56 (.70)	1.76 (.61)	1.82 (.67)
	<i>t</i>	.12		-1.92		-2.66**		-.12		-.35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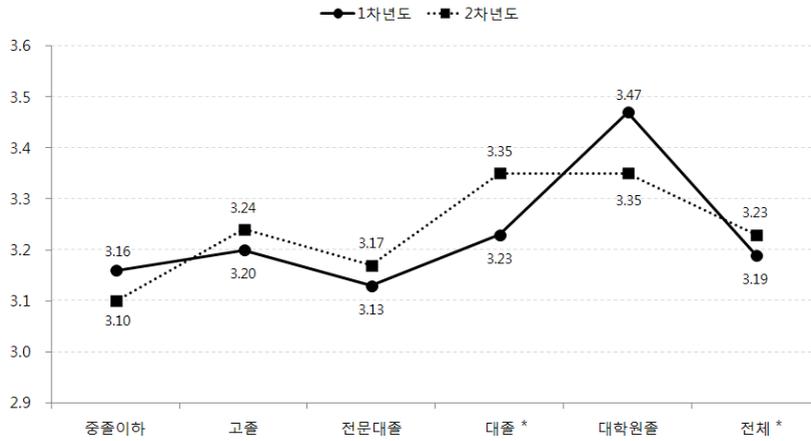
* α .05, ** α .0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가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약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가족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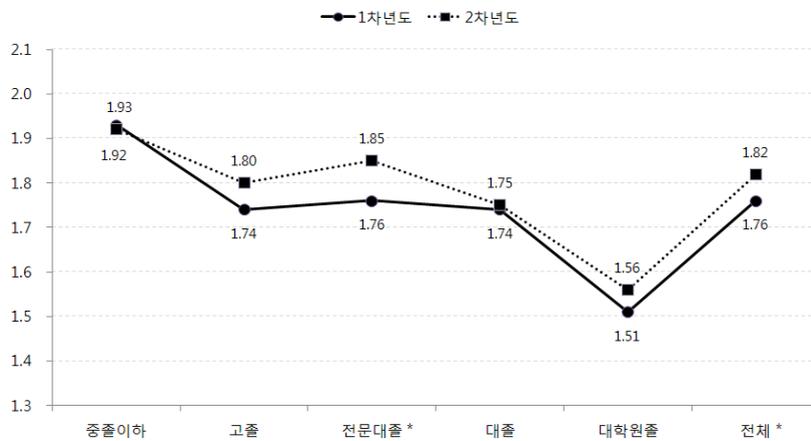
[그림 III-170]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차원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편차가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년도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의 감독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의 감독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이에 비해, 2차년도에는 대학원 졸업 및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부모의 감독수준이 1차년도에 비해 낮아지면서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이 부모의 감독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차원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부모의 감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III-171]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차원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방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방임의 경향은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에게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72]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2)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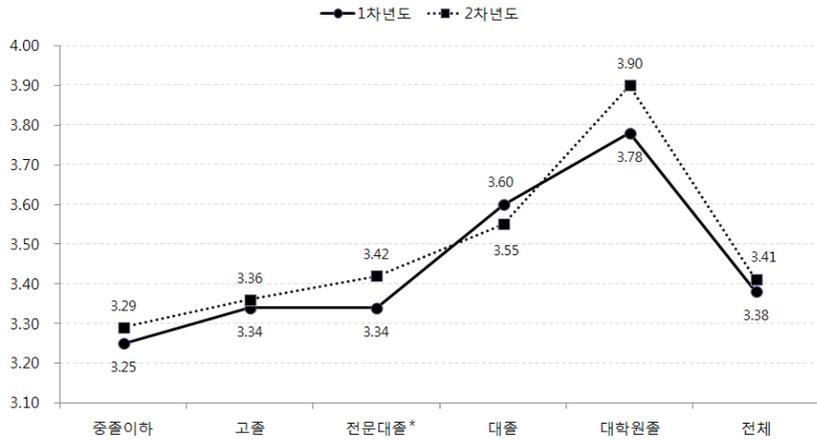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성취동기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동기가 1차년도에 비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2 어머니 교육수준별 학업성취 비교

구 분		중졸이하 (N=148)		고졸 (N=645)		전문대졸 (N=430)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학교성적 (표준편차)	평균	3.25 (.66)	3.29 (.61)	3.34 (.70)	3.36 (.69)	3.34 (.68)	3.42 (.69)	3.60 (.67)	3.55 (.71)	3.78 (.58)	3.90 (.74)	3.38 (.69)	3.41 (.69)
	<i>t</i>	-.65		-.77		-2.45*		1.11		-.82		-1.66	
성적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20 (.66)	2.39 (.75)	2.19 (.74)	2.24 (.77)	2.15 (.71)	2.24 (.77)	2.03 (.67)	2.09 (.76)	2.00 (.79)	2.15 (1.04)	2.15 (.72)	2.22 (.77)
	<i>t</i>	-2.64**		-1.34		-2.13*		-1.09		-.72		-3.40**	
성취동기 (표준편차)	평균	2.81 (.55)	2.84 (.49)	2.86 (.54)	2.88 (.50)	2.90 (.50)	2.98 (.46)	2.99 (.50)	3.04 (.49)	3.13 (.44)	3.00 (.57)	2.89 (.53)	2.93 (.49)
	<i>t</i>	-.57		-.83		-3.01**		-1.49		.94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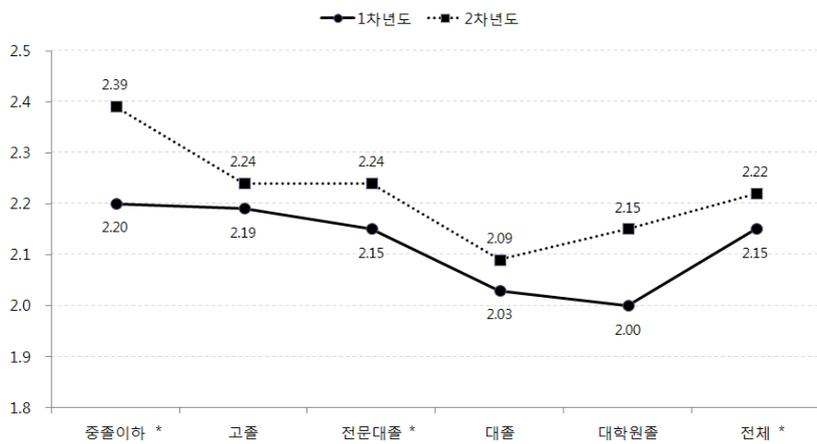
* α .05, ** α .0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성적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학교성적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에서 학교성적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학교성적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의 자녀가 가장 높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에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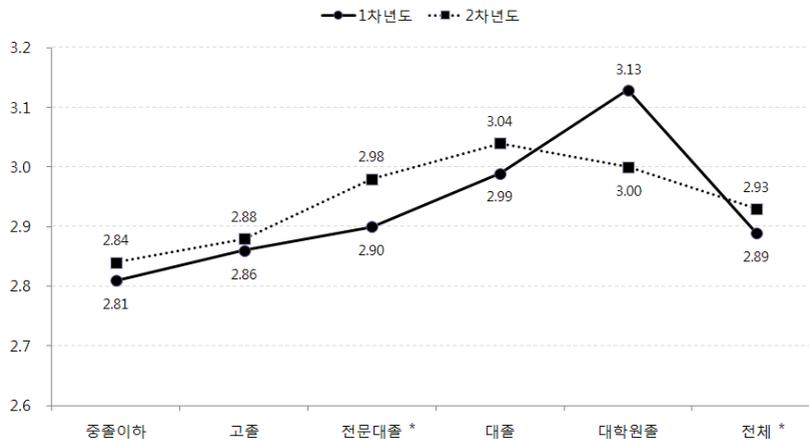
[그림 III-173]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중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에게서 가장 높고,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2차년도에는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 자녀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74]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동기 역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취동기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반적으로 성취동기가 상승하였고, 특히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 2차년도에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자녀들의 성취동기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나, 1차년도와는 달리 2차년도에는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인 경우에 성취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동기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그 점수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75]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3)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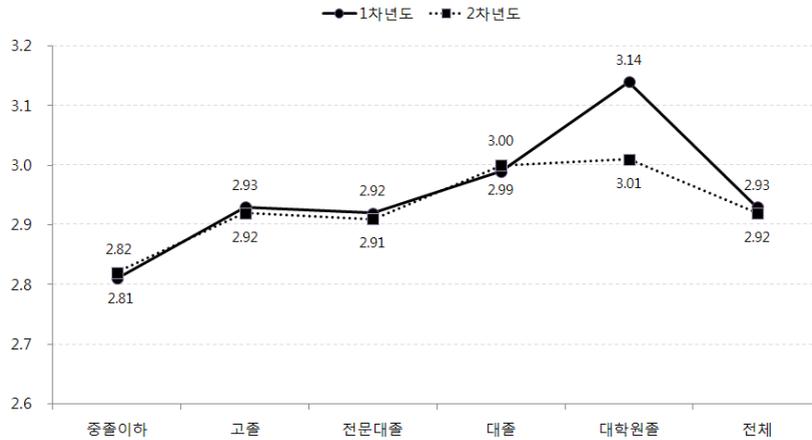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영역에서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와 전문대학 졸업인 가정의 자녀들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는 학력에 따른 변화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103 어머니 교육수준별 학교적응 비교

구 분		중졸이하 (N=148)		고졸 (N=645)		전문대졸 (N=430)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학교적응 : 학습활동	평균 (표준편차)	2.81 (.52)	2.82 (.47)	2.93 (.51)	2.92 (.50)	2.92 (.50)	2.91 (.49)	2.99 (.49)	3.00 (.45)	3.14 (.45)	3.01 (.67)	2.93 (.50)	2.92 (.49)
	<i>t</i>	-.21		.58		.18		-.56		.90		.34	
학교적응 : 교우관계	평균 (표준편차)	3.01 (.46)	3.02 (.41)	3.09 (.50)	3.13 (.45)	3.12 (.49)	3.12 (.46)	3.13 (.45)	3.16 (.46)	3.18 (.43)	3.22 (.54)	3.10 (.48)	3.12 (.45)
	<i>t</i>	-.33		-1.76		-.35		-1.03		-.38		-1.94	
학교적응 : 교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3.02 (.65)	3.02 (.57)	3.11 (.62)	3.07 (.62)	3.07 (.60)	3.02 (.59)	3.12 (.62)	3.11 (.60)	3.33 (.59)	3.31 (.79)	3.10 (.62)	3.06 (.61)
	<i>t</i>	-.07		1.76		1.47		.38		.11		2.08*	
친구지지	평균 (표준편차)	2.93 (.75)	3.01 (.61)	3.03 (.71)	3.12 (.67)	3.03 (.72)	3.11 (.69)	3.12 (.69)	3.20 (.66)	3.31 (.79)	3.13 (1.05)	3.04 (.72)	3.12 (.67)
	<i>t</i>	-1.42		-2.98**		-2.43*		-1.59		1.20		-4.22***	
교사지지	평균 (표준편차)	2.83 (.72)	2.85 (.71)	2.94 (.73)	2.93 (.72)	2.93 (.70)	2.93 (.68)	3.01 (.67)	2.96 (.73)	3.17 (.66)	3.10 (.96)	2.94 (.71)	2.93 (.71)
	<i>t</i>	-.23		.37		-.09		.99		.34		.57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평균 (표준편차)	1.16 (.32)	1.14 (.34)	1.18 (.43)	1.13 (.38)	1.17 (.39)	1.13 (.36)	1.19 (.42)	1.09 (.30)	1.29 (.58)	1.18 (.42)	1.18 (.41)	1.12 (.36)
	<i>t</i>	.53		3.03**		2.46*		3.34**		1.24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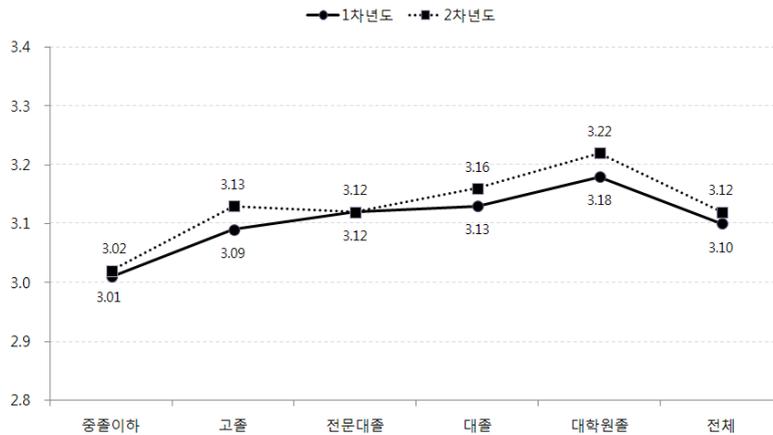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은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2차년도에 점수가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습활동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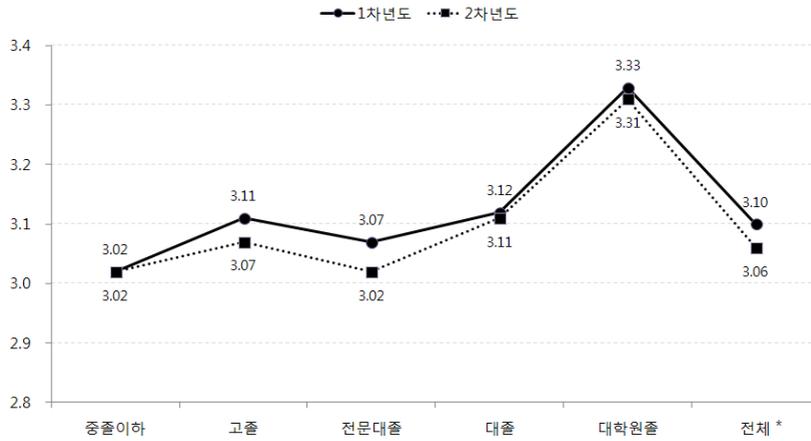
[그림 III-176]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교우관계 적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점수가 약간 상승하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1, 2차년도 모두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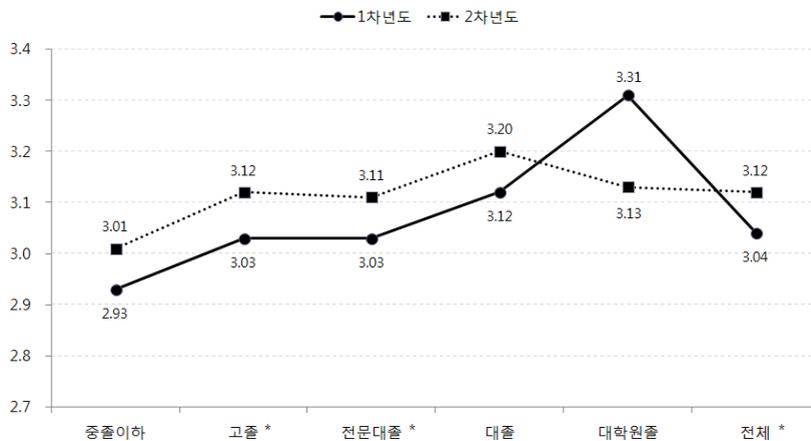
[그림 III-177]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자녀의 교사관계 적응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교사관계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전문대 졸업 학력의 어머니 자녀들이 교사관계 적응에서 약간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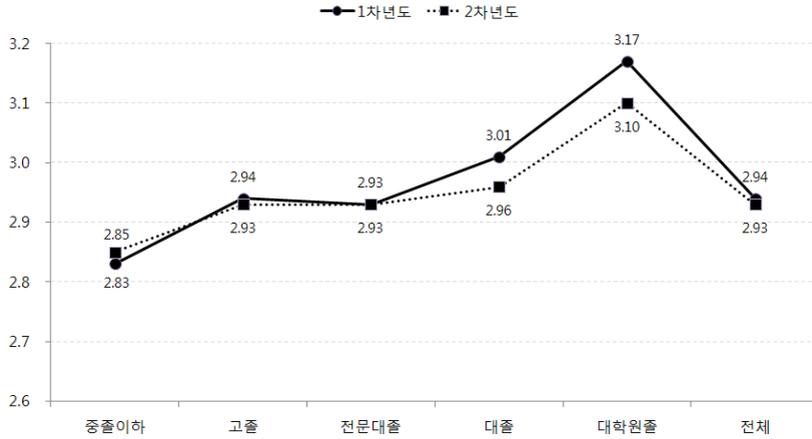
[그림 III-178]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친구의 지지는 1차년도에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친구의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어머니 교육수준 별 친구지지 점수의 폭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에게서 친구의 지지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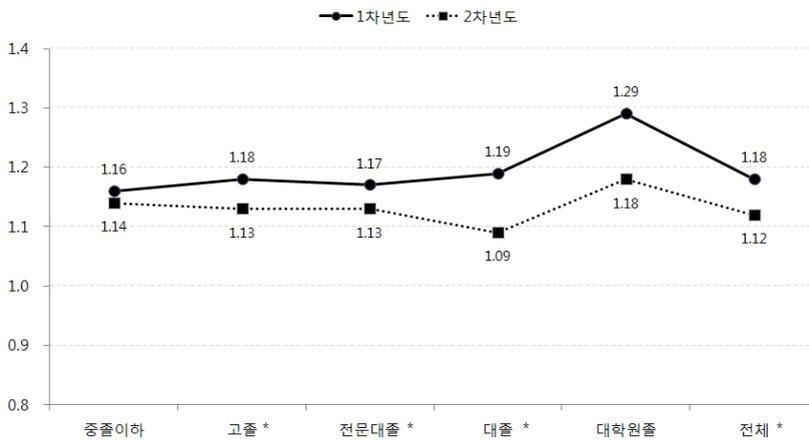
[그림 III-179]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80]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낮아졌으며, 특히 고등학교와 전문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에게서 유의하게 낮아졌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에게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년도에는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에게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가장 낮았다.



[그림 III-181]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4) 심리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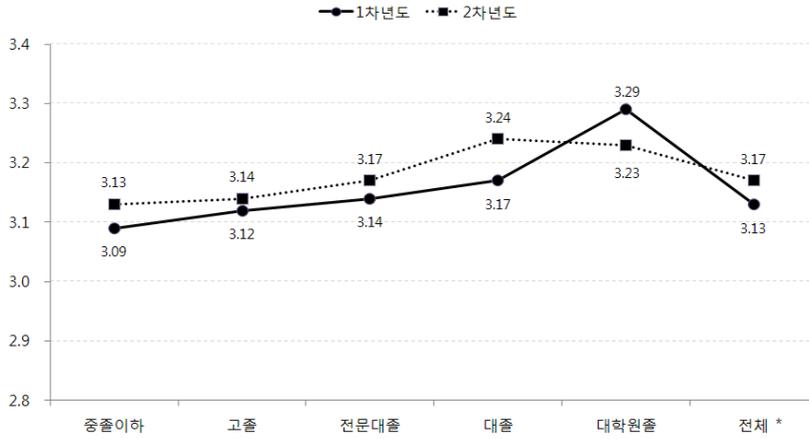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서의 변화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의 변화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머니가 전문대학 졸업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4 어머니 교육수준별 심리사회적응

구 분		중졸이하 (N=148)		고졸 (N=645)		전문대졸 (N=430)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자아 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3.09 (.54)	3.13 (.51)	3.12 (.57)	3.14 (.56)	3.14 (.54)	3.17 (.54)	3.17 (.55)	3.24 (.55)	3.29 (.53)	3.23 (.61)	3.13 (.55)	3.17 (.55)
	<i>t</i>	-.90		-1.22		-1.14		-1.73		.64		-2.38*	
자아 탄력성	평균 (표준편차)	2.82 (.52)	2.90 (.45)	2.89 (.47)	2.93 (.46)	2.90 (.47)	2.97 (.49)	2.97 (.47)	3.02 (.45)	3.01 (.44)	3.06 (.69)	2.90 (.48)	2.95 (.47)
	<i>t</i>	-1.48		-1.80		-3.13**		-1.23		-.30		-3.85***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18 (.66)	3.19 (.63)	3.25 (.60)	3.23 (.61)	3.24 (.59)	3.24 (.64)	3.24 (.57)	3.28 (.57)	3.18 (.74)	3.33 (.88)	3.24 (.60)	3.24 (.61)
	<i>t</i>	-.33		.71		.00		-.87		-.81		-.09	
신체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83 (.47)	2.86 (.52)	2.92 (.52)	2.94 (.49)	2.92 (.48)	2.96 (.51)	2.97 (.51)	3.01 (.52)	3.10 (.46)	3.09 (.45)	2.92 (.50)	2.95 (.50)
	<i>t</i>	-.61		-.76		-1.61		-1.08		.08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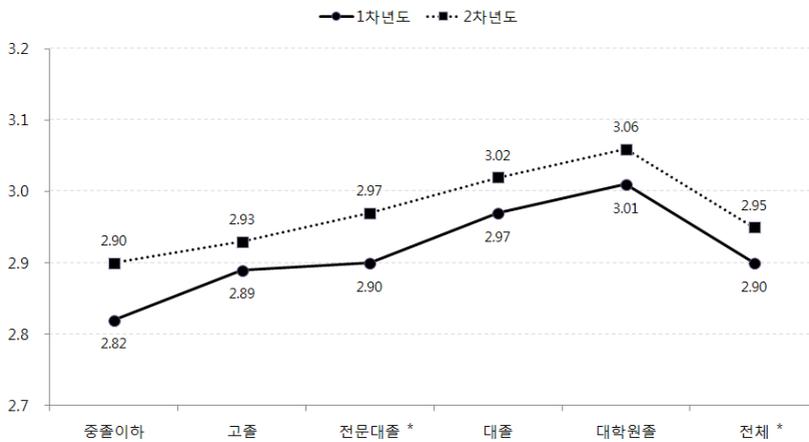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였으며, 어머니 교육수준별 자아존중감의 점수 편차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는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의 자녀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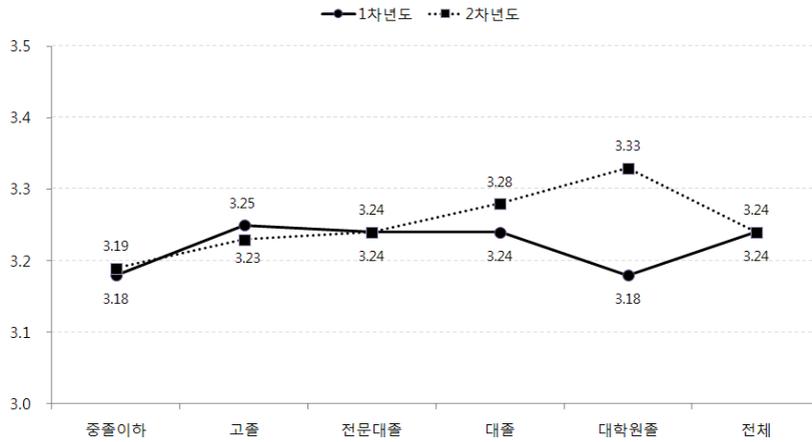
[그림 III-182]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모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의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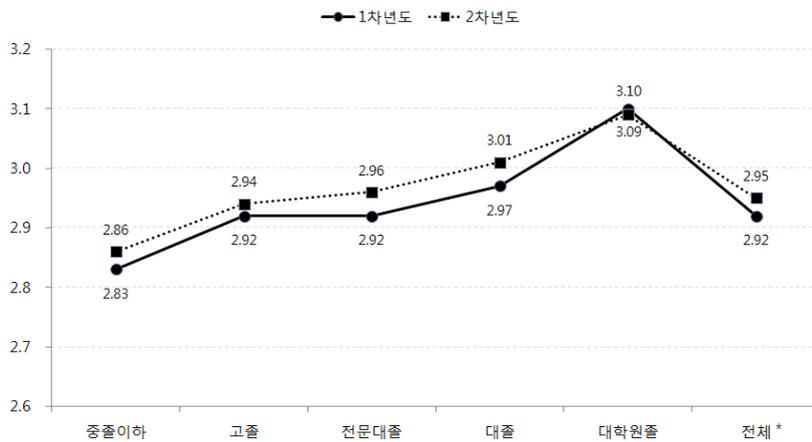
[그림 III-183]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어머니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차년도에 비해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2차년도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84]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별로 살펴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1, 2차년도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신체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85]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5)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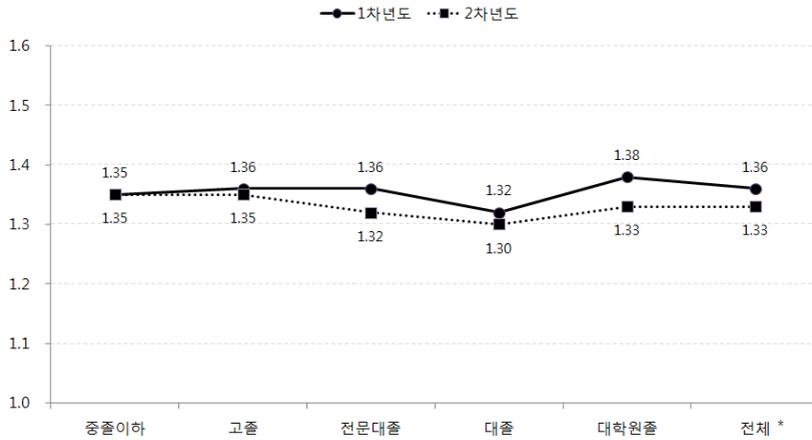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문화적응 영역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정과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이중문화수용태도에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5 어머니 교육수준별 문화적응

구 분		중졸이하 (N=148)		고졸 (N=645)		전문대졸 (N=430)		대졸 (N=258)		대학원졸 (N=20)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1.35 (.40)	1.35 (.38)	1.36 (.44)	1.35 (.40)	1.36 (.39)	1.32 (.38)	1.32 (.38)	1.30 (.40)	1.38 (.46)	1.33 (.53)	1.36 (.41)	1.33 (.40)
	<i>t</i>	.02		1.01		1.84		.85		1.04		2.04*	
이중문화 수용태도	평균 (표준편차)	2.83 (.39)	2.82 (.40)	2.88 (.42)	2.88 (.40)	2.91 (.41)	2.92 (.40)	2.95 (.39)	2.96 (.40)	3.03 (.43)	3.00 (.55)	2.90 (.41)	2.90 (.40)
	<i>t</i>	.43		-.13		-.54		-.30		.26		-.33	
국가 정체성	평균 (표준편차)	2.57 (.68)	2.73 (.62)	2.67 (.66)	2.67 (.65)	2.61 (.67)	2.73 (.64)	2.70 (.67)	2.77 (.65)	2.55 (.62)	2.66 (.73)	2.65 (.67)	2.71 (.65)
	<i>t</i>	-2.26*		-.03		-3.42**		-1.56		-.8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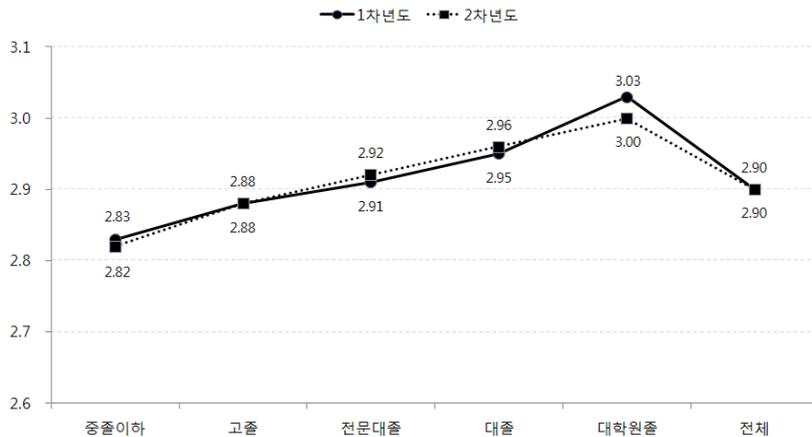
* $p < .05$, ** $p < .0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하였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별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어머니 교육수준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점수 경향은 대체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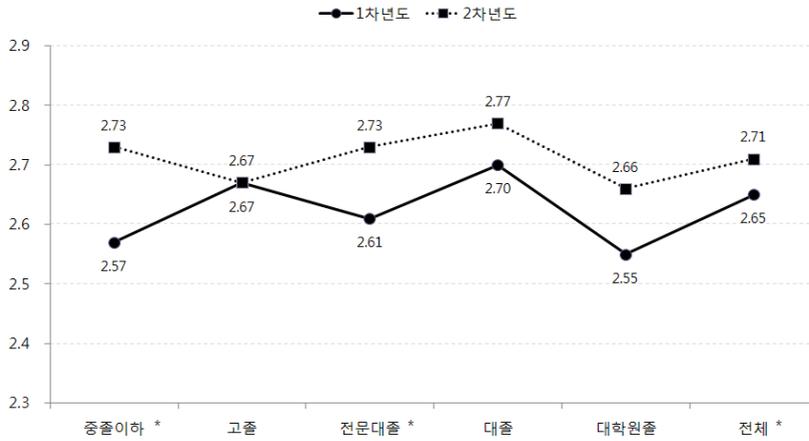
[그림 III-186]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1, 2차년도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87]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차년도에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국가정체성이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자녀들에게서 국가정체성이 가장 낮았다.



[그림 III-188] 어머니 교육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어머니 교육수준별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 비교

-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의 영역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성적만족도와 국가정체성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함.
-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1차년도에 비해 가족지지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친구지지는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성적,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친구지지, 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함.
- 대학교 졸업이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함.
-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4) 가정의 소득수준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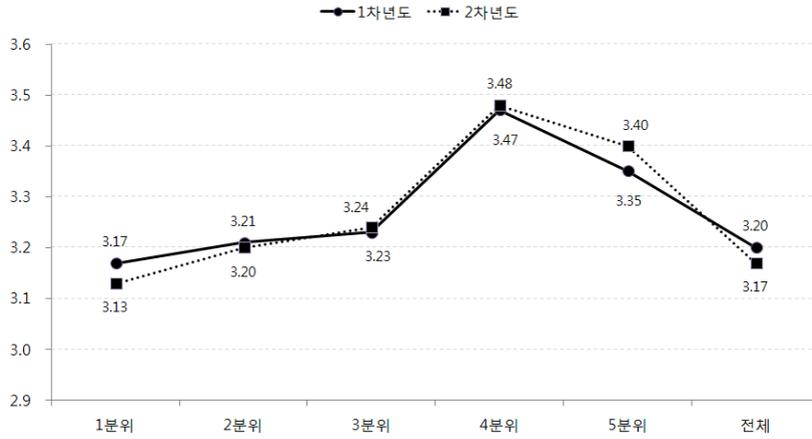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영역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득2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 올해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106 소득분위별 가정환경

구 분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가족지지	평균 (표준편차)	3.17 (.58)	3.13 (.60)	3.21 (.54)	3.20 (.58)	3.23 (.56)	3.24 (.66)	3.47 (.46)	3.48 (.59)	3.35 (.77)	3.40 (.47)	3.20 (.57)	3.17 (.60)
	<i>t</i>	1.64		.24		-.07		-.03		-.32		1.35	
부모양육 태도: 감독	평균 (표준편차)	3.18 (.66)	3.22 (.62)	3.18 (.64)	3.23 (.56)	3.25 (.63)	3.20 (.60)	3.27 (.59)	3.41 (.67)	3.25 (.64)	3.42 (.65)	3.19 (.65)	3.23 (.60)
	<i>t</i>	-1.72		-1.33		.66		-1.32		-1.70		-2.29*	
부모양육 태도: 방임	평균 (표준편차)	1.81 (.63)	1.84 (.67)	1.72 (.56)	1.79 (.65)	1.73 (.64)	1.76 (.74)	1.44 (.50)	1.63 (.69)	1.58 (.55)	1.88 (.79)	1.76 (.61)	1.82 (.67)
	<i>t</i>	-1.24		-2.14*		-.31		-1.82		-1.77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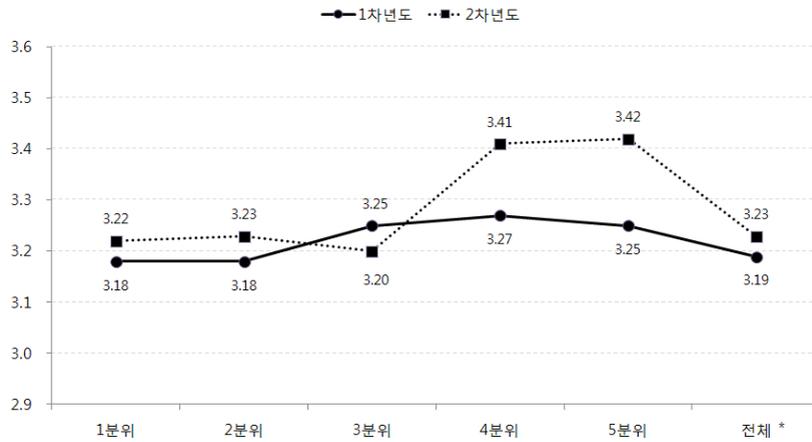
* $p < .05$, ** $p < .01$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가족의 지지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1, 2차년도 모두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5분위에 속한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4분위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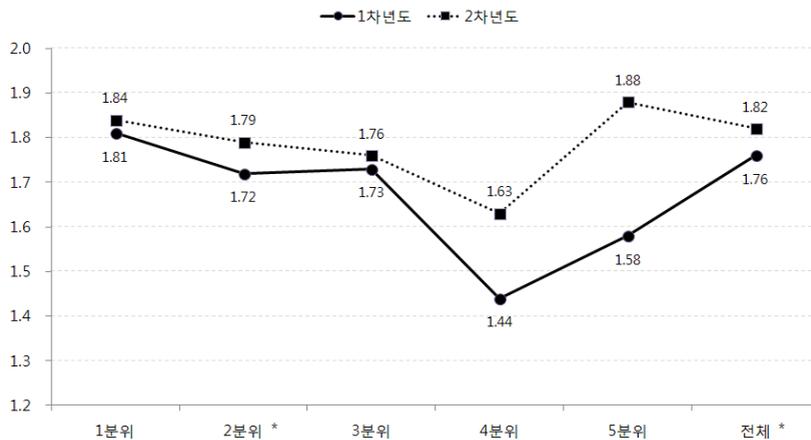
[그림 III-189]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차원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3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차년도에 비해 감독차원은 2차년도에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의 소득수준별 감독차원에서의 점수 차이는 1차년도에 비해 커졌으며, 대체로 소득이 높은 4, 5분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90]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차원이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방임차원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2분위 가정에서는 방임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어머니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정에서 방임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에서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2차년도 모두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정에서 방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9]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2)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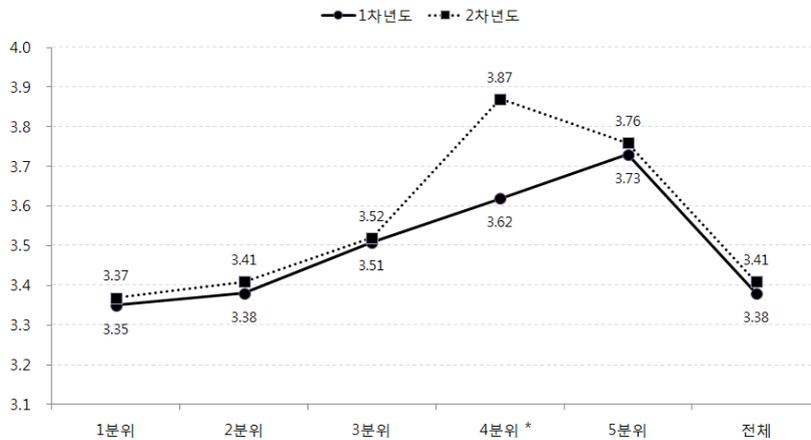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학업성취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1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소득2분위 가정의 학생들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반면 소득3분위 가정의 학생들에게서는 학업성취 영역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이 높은 4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2차년도의 학교성적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5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2차년도의 성취동기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7 소득분위별 학업성취

구분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N=1501)	
		1차년도	2차년도										
학교성적	평균 (표준편차)	3.35 (.69)	3.37 (.71)	3.38 (.70)	3.41 (.62)	3.51 (.65)	3.52 (.74)	3.62 (.80)	3.87 (.76)	3.73 (.70)	3.76 (.72)	3.38 (.69)	3.41 (.69)
	<i>t</i>	-.63		-.95		-.13		-2.27*		-.41		-1.66	
성적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18 (.72)	2.23 (.79)	2.16 (.73)	2.27 (.73)	2.00 (.69)	2.14 (.77)	2.07 (.71)	1.86 (.90)	2.00 (.58)	1.95 (.71)	2.15 (.72)	2.22 (.77)
	<i>t</i>	-2.00*		-3.08**		-1.83		1.60		.33		-3.40**	
성취동기	평균 (표준편차)	2.86 (.54)	2.91 (.51)	2.89 (.50)	2.94 (.45)	2.96 (.55)	2.97 (.49)	3.14 (.42)	3.11 (.48)	3.19 (.49)	3.01 (.42)	2.89 (.53)	2.93 (.49)
	<i>t</i>	-2.21*		-1.88		-.35		.35		2.47*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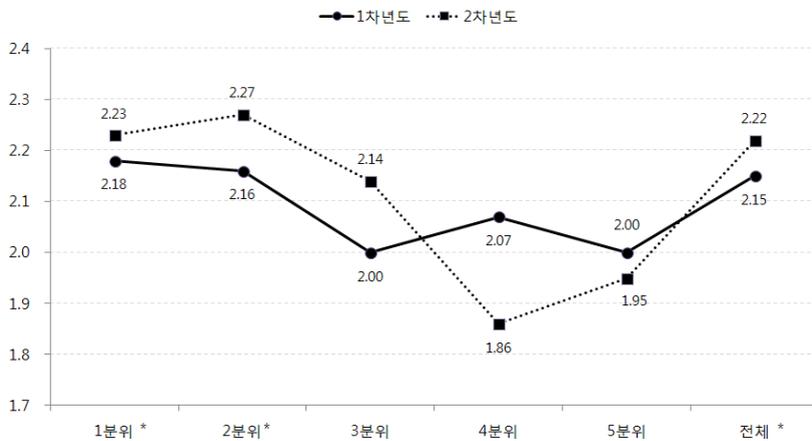
* $p < .05$, ** $p < .01$

학교성적은 대체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4분위 가정의 학생들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학교성적이 상승하여 2차년도에는 5분위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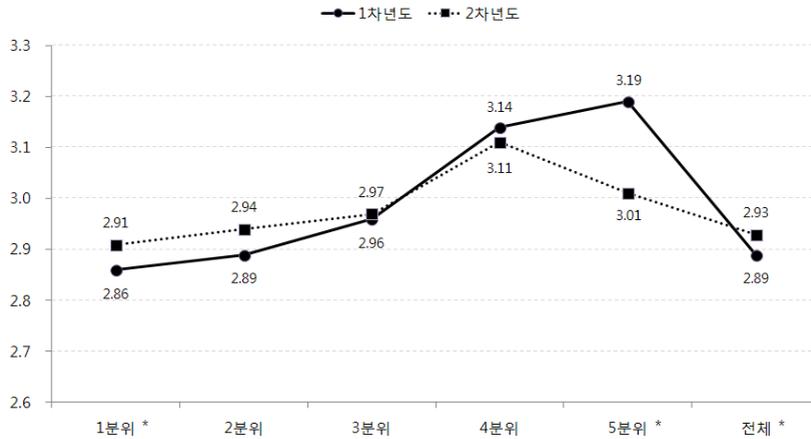
[그림 III-192]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특히 1분위와 2분위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4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성적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가장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 2, 3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약간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4, 5 분위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III-193]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동기 역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소득수준이 낮은 1, 2, 3분위에서는 성취동기가 다소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은 4, 5분위에서는 성취동기가 다소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1차년도에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던 5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2차년도에 비해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2차년도에는 4분위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성취동기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94]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3) 학교적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의 발달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1분위와 소득5분위 가정에 속한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친구로부터 유의미하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2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친구의 지지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1차년도에 비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소득3분위와 4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영역의 발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08 소득분위별 학교적응

구분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학교적응 : 학습활동	평균 (표준편차)	2.92 (.52)	2.91 (.50)	2.91 (.48)	2.92 (.47)	2.99 (.48)	3.00 (.47)	3.03 (.51)	3.15 (.54)	3.09 (.47)	2.99 (.51)	2.93 (.50)	2.92 (.49)
	t	.72		-.08		-.18		-1.55		1.14		.34	
학교적응 : 교우관계	평균 (표준편차)	3.10 (.50)	3.10 (.45)	3.08 (.46)	3.13 (.44)	3.16 (.46)	3.12 (.49)	3.21 (.48)	3.30 (.49)	3.22 (.36)	3.27 (.41)	3.10 (.48)	3.12 (.45)
	t	-.63		-2.53*		.77		-1.05		-.57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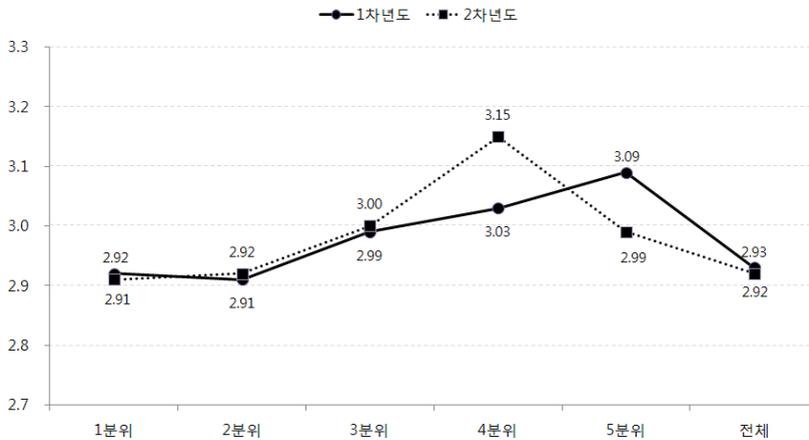
* $\alpha < .05$, ** $\alpha < .01$, *** $\alpha < .001$

표 III-108 소득분위별 학교적응(계속)

구 분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학교적응 : 교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3.10 (.63)	3.06 (.60)	3.07 (.59)	3.03 (.61)	3.11 (.65)	3.10 (.62)	3.23 (.69)	3.15 (.69)	3.38 (.42)	3.21 (.63)	3.10 (.62)	3.06 (.61)
	t	1.58		1.16		.08		.69		1.14		2.08*	
친구지지	평균 (표준편차)	3.03 (.73)	3.10 (.68)	3.00 (.70)	3.13 (.64)	3.16 (.69)	3.09 (.71)	3.29 (.64)	3.34 (.76)	3.16 (.73)	3.60 (.49)	3.04 (.72)	3.12 (.67)
	t	-2.65**		-4.05***		1.02		-.49		-3.95**		-4.22***	
교사지지	평균 (표준편차)	2.94 (.73)	2.94 (.70)	2.90 (.68)	2.88 (.73)	2.94 (.73)	2.93 (.69)	3.19 (.72)	3.15 (.76)	3.22 (.41)	3.21 (.64)	2.94 (.71)	2.93 (.71)
	t	.19		.56		.12		.28		.10		.57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평균 (표준편차)	1.19 (.42)	1.14 (.37)	1.19 (.45)	1.12 (.36)	1.12 (.27)	1.11 (.30)	1.10 (.34)	1.07 (.23)	1.06 (.13)	1.04 (.09)	1.18 (.41)	1.12 (.36)
	t	3.82***		3.44**		.10		.89		1.14		5.05***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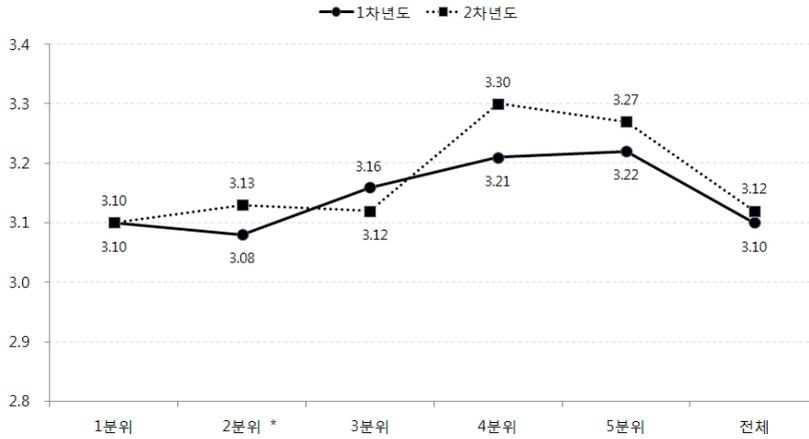
학교생활 적응은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차년도에 비해 4분위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높아지고, 5분위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195]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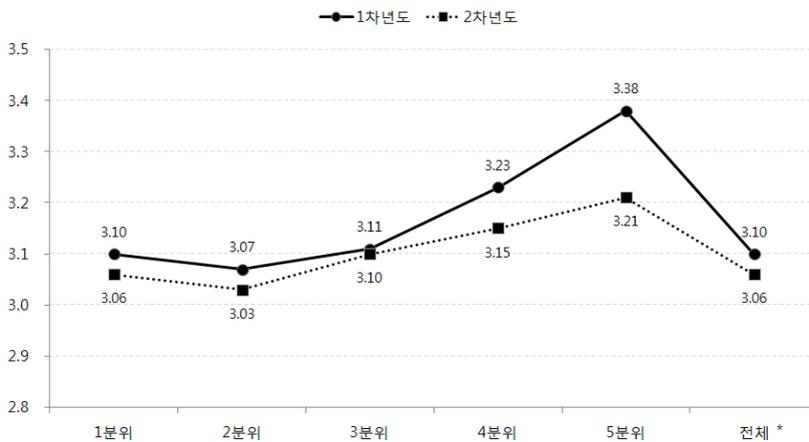
2, 4, 5분위 가정 학생들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교우관계 적응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2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교우관계 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1, 2, 3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 적응 점수에 비해 4, 5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 적응의 평균 점수간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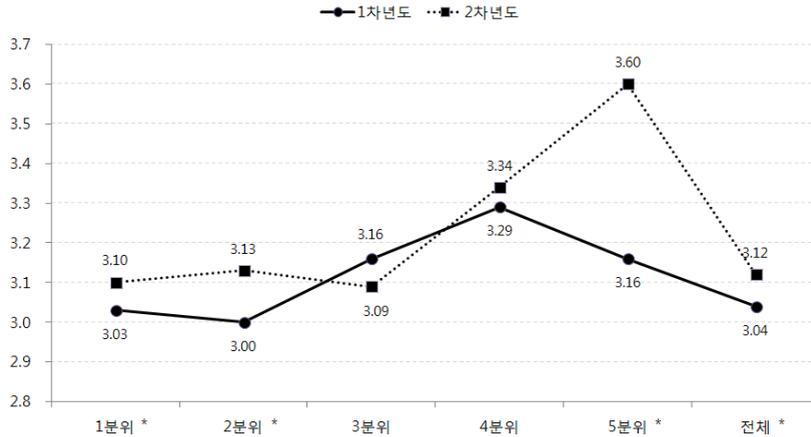
[그림 III-196] 가정의 소득수준별 이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적응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소득분위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교사관계 적응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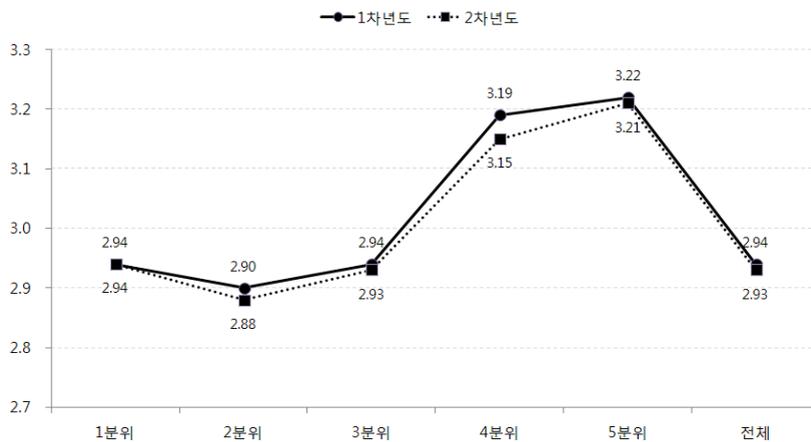
[그림 III-197] 가정의 소득수준별 이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가족의 소득수준별로 아동의 친구지지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분위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2차년도에 친구의 지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 5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소득수준별 친구지지 점수의 격차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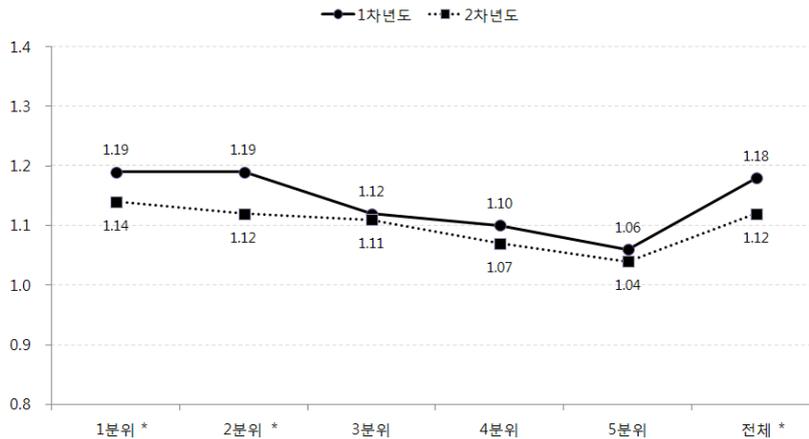
[그림 III-198]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소득수준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4, 5분위와 소득이 낮은 1, 2분위 간의 격차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99]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가정의 소득수준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집단따돌림 피해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1, 2분위에 속한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I-200]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4) 심리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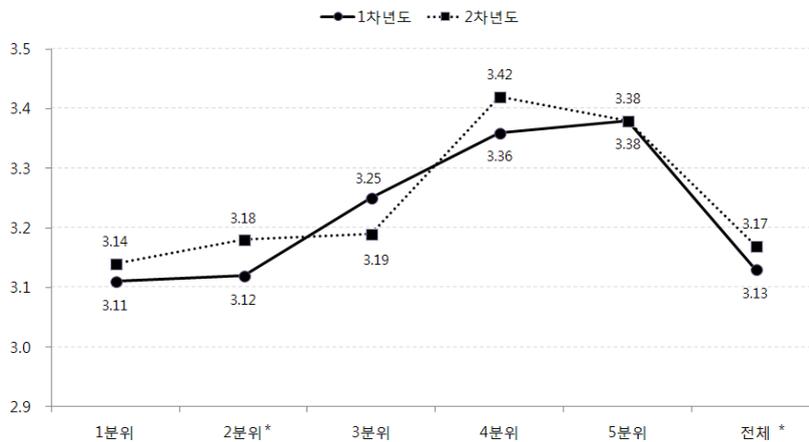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응 영역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3분위, 4분위, 5분위 가정에 속한 학생들은 심리사회적응의 발달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2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9 소득분위별 심리사회적응

구 분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N=1501)	
		1차 년도	2차 년도										
자아 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3.11 (.56)	3.14 (.55)	3.12 (.53)	3.18 (.54)	3.25 (.58)	3.19 (.52)	3.36 (.54)	3.42 (.54)	3.38 (.47)	3.38 (.54)	3.13 (.55)	3.17 (.55)
	t	-1.69		-2.03*		1.00		-.77		.00		-2.38*	
자아 탄력성	평균 (표준편차)	2.89 (.49)	2.94 (.48)	2.90 (.45)	2.95 (.43)	2.93 (.53)	2.98 (.51)	3.03 (.43)	3.07 (.57)	3.06 (.41)	3.08 (.45)	2.90 (.48)	2.95 (.47)
	t	-2.98**		-2.32*		-.80		-.58		-.15		-3.85***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22 (.61)	3.21 (.62)	3.22 (.58)	3.25 (.60)	3.26 (.63)	3.31 (.62)	3.45 (.47)	3.32 (.70)	3.53 (.46)	3.44 (.48)	3.24 (.60)	3.24 (.61)
	t	.54		-1.01		-.75		1.40		.82		-.09	
신체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90 (.52)	2.93 (.51)	2.91 (.46)	2.96 (.48)	3.03 (.51)	3.02 (.53)	3.16 (.44)	3.15 (.47)	3.14 (.37)	3.10 (.51)	2.92 (.50)	2.95 (.50)
	t	-1.16		-2.29*		.09		.06		.36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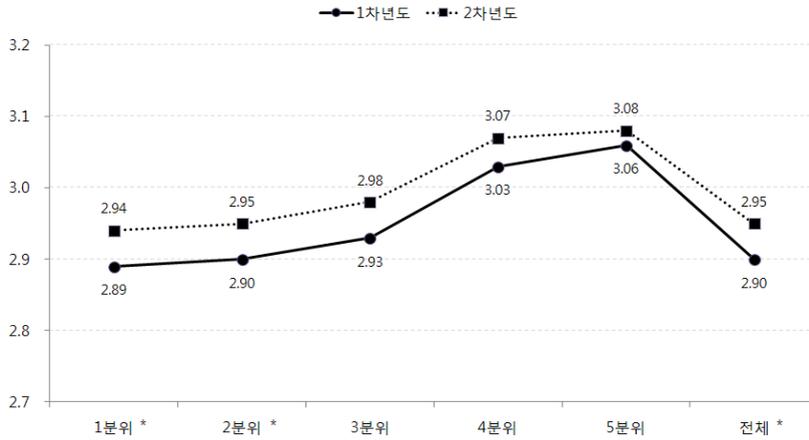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자아존중감은 3분위에 속한 가정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대체로 같거나 상승하였으며, 특히 2분위에 속하는 가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1, 2차년도 모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5분위 보다는 4분위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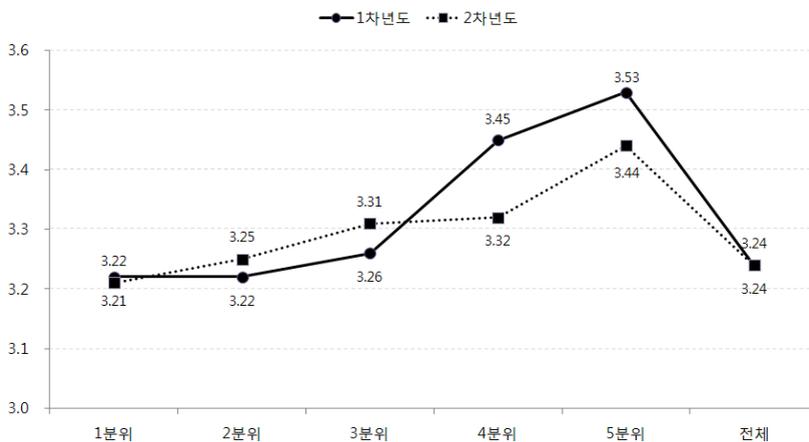
[그림 III-201]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1, 2차년도 모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자아탄력성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1, 2분위 학생들에게서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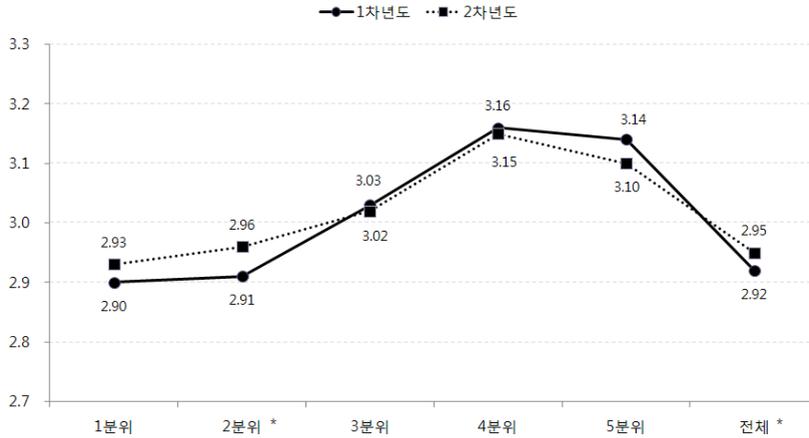
[그림 III-202]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역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소득수준이 높은 4, 5분위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2차년도에 감소하여 1차년도에 비해 소득분위 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격차는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203]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1, 2분위에서는 신체만족도 점수가 2차년도에 상승하고, 소득이 높은 4, 5분위에서는 점수가 감소하여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소득수준별 점수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204]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5)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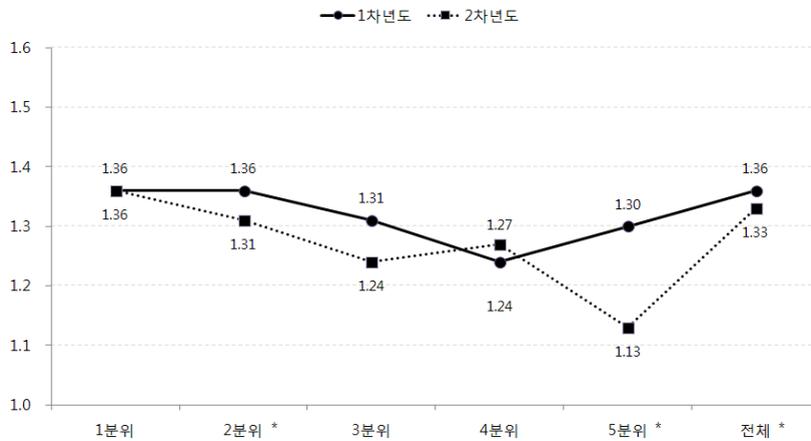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영역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2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2차년도에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에 더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5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반면, 소득3분위와 4분위 가정의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0 소득분위별 문화적응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분위 (N=879)		2분위 (N=457)		3분위 (N=98)		4분위 (N=42)		5분위 (N=19)		전체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1.36 (.42)	1.36 (.42)	1.36 (.42)	1.31 (.42)	1.31 (.36)	1.24 (.35)	1.24 (.32)	1.27 (.34)	1.30 (.30)	1.13 (.13)	1.36 (.41)	1.33 (.40)
	<i>t</i>	.48		2.08*		1.66		-.52		2.38*		2.04*	
이중문화 수용태도	평균 (표준편차)	2.89 (.42)	2.89 (.42)	2.89 (.40)	2.90 (.37)	2.93 (.37)	2.95 (.39)	3.03 (.38)	3.01 (.47)	3.08 (.33)	2.93 (.31)	2.90 (.41)	2.90 (.40)
	<i>t</i>	-.20		-.33		-.60		.18		2.62*		-.33	
국가 정체성	평균 (표준편차)	2.62 (.67)	2.68 (.67)	2.66 (.67)	2.73 (.62)	2.70 (.63)	2.78 (.57)	2.83 (.62)	2.81 (.76)	2.82 (.58)	2.70 (.61)	2.65 (.67)	2.71 (.65)
	<i>t</i>	-2.43*		-2.24*		-1.08		.14		.8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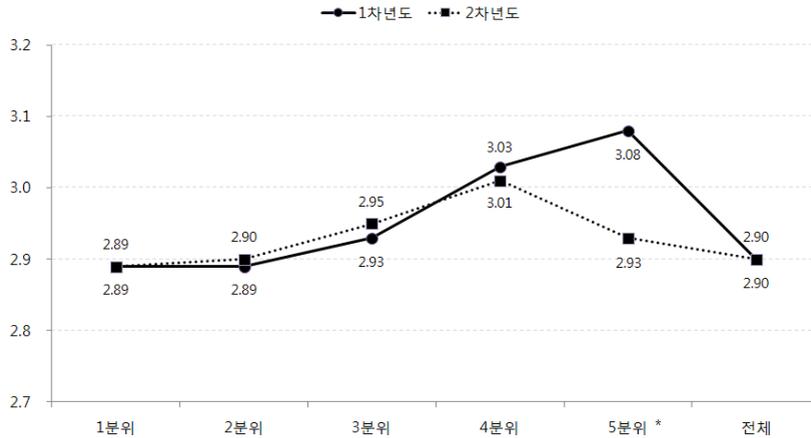
* $p < .05$, ** $p < .0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차년도에는 1분위에서 가장 높고, 4분위에서 가장 낮았으나, 2차년도에는 1분위가 가장 낮은 반면 5분위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4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차년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1차년도와 같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고, 2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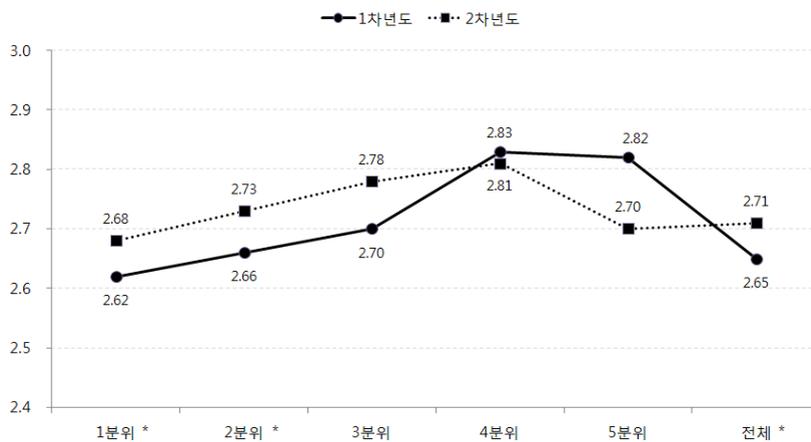
[그림 III-205]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소득수준별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살펴보면, 5분위 가정 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면서 1차년도에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던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경향성은 2차년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그림 III-206]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1, 2, 3분위 학생들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높아지고, 4, 5분위 학생들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이로 인해 소득분위별 국가정체성의 격차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다소 감소한 특성을 볼 수 있다.



[그림 III-207] 가정의 소득수준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가정의 소득수준별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 비교

-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의 영역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1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성적만족도, 성취동기, 친구지지, 탄력성, 국가정체성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 2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성적만족도, 교우관계적응,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 국가정체성 등 다양한 변인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함.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함.
- 4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성적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함.
- 5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양육태도 중 감독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함.

5)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 1, 2차년도 비교

(1)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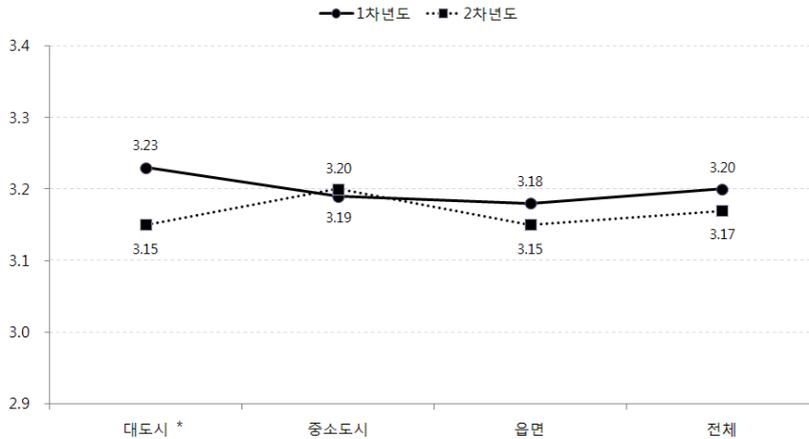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영역에서의 발달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도시 학생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부모가 자신을 양육할 때 감독을 해준다는 지각과 방임한다는 지각 모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정영역에서의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III 지역규모별 가정환경

구 분		대도시(N=408)		중소도시(N=683)		읍면(N=410)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가족지지	평균 (표준편차)	3.23 (.60)	3.15 (.63)	3.19 (.56)	3.20 (.58)	3.18 (.55)	3.15 (.60)	3.20 (.57)	3.17 (.60)
	<i>t</i>	2.17*		-.42		.90		1.35	
부모양육 태도: 감독	평균 (표준편차)	3.24 (.66)	3.28 (.62)	3.14 (.66)	3.20 (.61)	3.21 (.63)	3.23 (.58)	3.19 (.65)	3.23 (.60)
	<i>t</i>	-1.18		-2.06*		-.56		-2.29*	
부모양육 태도: 방임	평균 (표준편차)	1.71 (.59)	1.73 (.65)	1.75 (.61)	1.83 (.69)	1.83 (.63)	1.88 (.66)	1.76 (.61)	1.82 (.67)
	<i>t</i>	-.74		-2.52*		-1.11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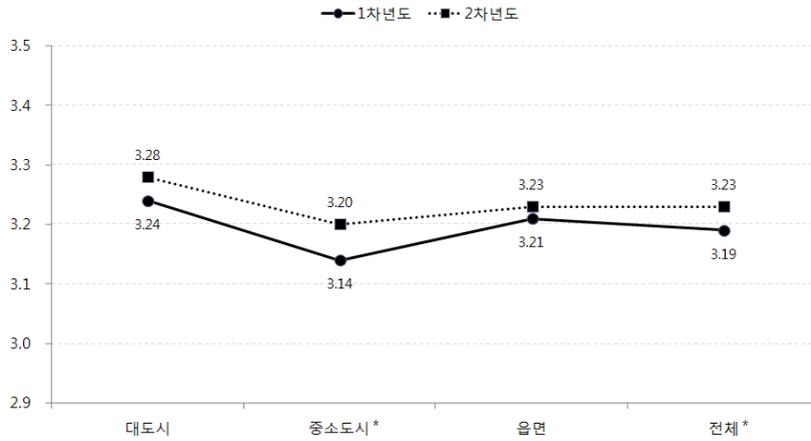
* $p < .05$, ** $p < .01$

지역규모별로 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가족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반면,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족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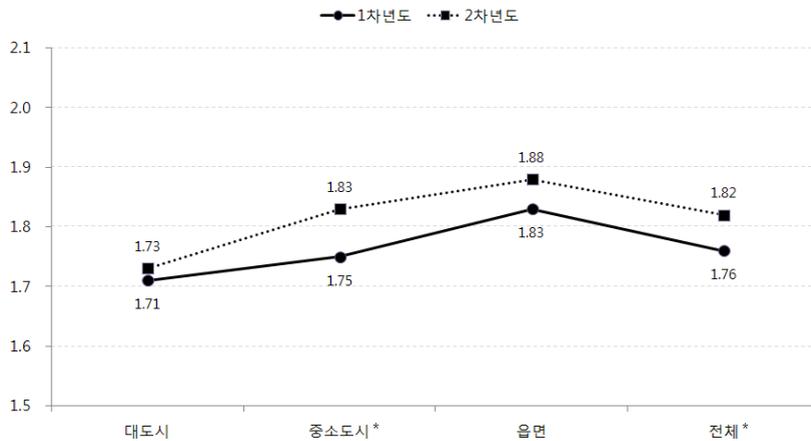
[그림 III-208]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가족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차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높아졌으나, 특히 중소도시는 감독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감독은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9]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감독)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중소도시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방임은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방임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III-210] 지역규모별 아동의 가정환경 변화: 부모양육태도(방임)

(2) 학업성취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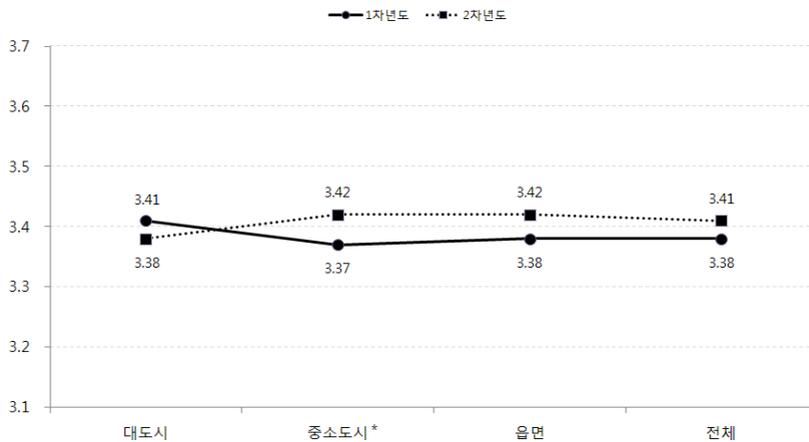
같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성적과 성취동기가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2 지역규모별 학업성취

구 분		대도시(N=408)		중소도시(N=683)		읍면(N=410)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학교성적	평균 (표준편차)	3.41 (.71)	3.38 (.72)	3.37 (.69)	3.42 (.68)	3.38 (.68)	3.42 (.69)	3.38 (.69)	3.41 (.69)
	<i>t</i>	.76		-2.24*		-1.13		-1.66	
성적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25 (.74)	2.34 (.78)	2.15 (.72)	2.20 (.78)	2.06 (.68)	2.16 (.74)	2.15 (.72)	2.22 (.77)
	<i>t</i>	-2.17*		-1.48		-2.41*		-3.40**	
성취동기	평균 (표준편차)	2.91 (.55)	2.89 (.50)	2.89 (.51)	2.97 (.47)	2.87 (.53)	2.91 (.50)	2.89 (.53)	2.93 (.49)
	<i>t</i>	.70		-3.78***		-1.3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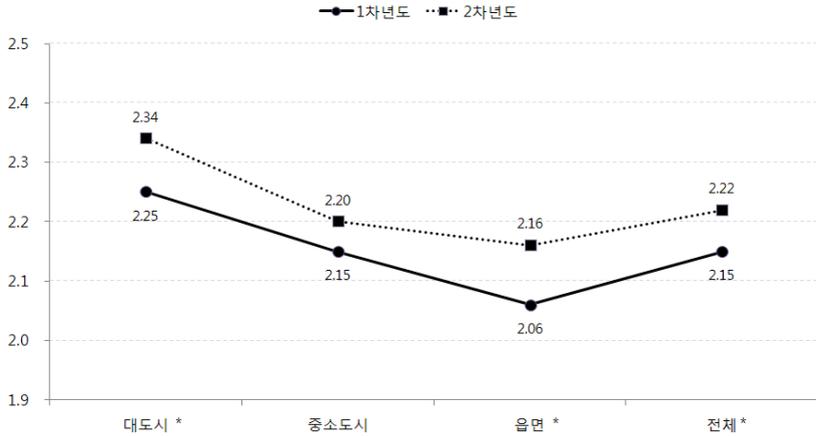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성적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다소 상승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차년도에는 대도시 학생의 성적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와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교성적이 대도시 거주 학생의 학교성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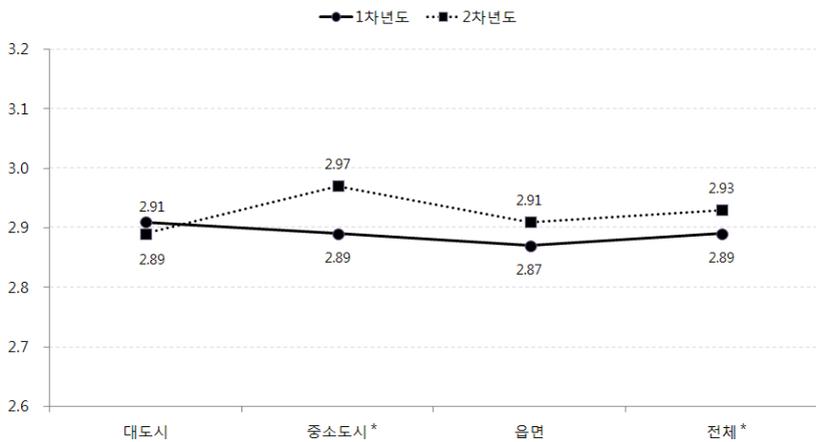
[그림 III-211]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212]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의 변화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취동기가 증가한 반면, 대도시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2차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13]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 성취동기

(3)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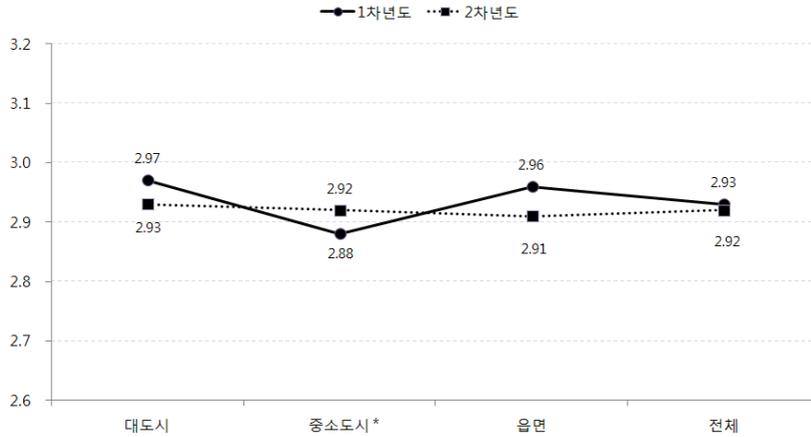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영역에서의 발달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의 적응, 교우관계에서의 적응,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적응과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113 지역규모별 학교적응

구 분		대도시(N=408)		중소도시(N=683)		읍면(N=410)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학교적응 : 학습활동	평균 (표준편차)	2.97 (.54)	2.93 (.50)	2.88 (.49)	2.92 (.49)	2.96 (.48)	2.91 (.49)	2.93 (.50)	2.92 (.49)
	<i>t</i>	1.38		-2.15*		1.89		.34	
학교적응 : 교우관계	평균 (표준편차)	3.10 (.51)	3.14 (.45)	3.08 (.48)	3.13 (.46)	3.12 (.47)	3.10 (.45)	3.10 (.48)	3.12 (.45)
	<i>t</i>	-1.31		-2.49*		.80		-1.94	
학교적응 : 교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3.07 (.65)	3.03 (.57)	3.07 (.60)	3.09 (.61)	3.16 (.61)	3.05 (.63)	3.10 (.62)	3.06 (.61)
	<i>t</i>	1.35		-.42		3.14**		2.08*	
친구지지	평균 (표준편차)	3.06 (.73)	3.09 (.67)	3.00 (.73)	3.14 (.67)	3.08 (.69)	3.10 (.68)	3.04 (.72)	3.12 (.67)
	<i>t</i>	-.87		-5.24***		-.47		-4.22***	
교사지지	평균 (표준편차)	2.93 (.74)	2.90 (.70)	2.89 (.69)	2.95 (.71)	3.03 (.71)	2.91 (.72)	2.94 (.71)	2.93 (.71)
	<i>t</i>	.68		-1.98*		2.77**		.57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평균 (표준편차)	1.18 (.41)	1.14 (.38)	1.20 (.41)	1.11 (.33)	1.16 (.42)	1.13 (.39)	1.18 (.41)	1.12 (.36)
	<i>t</i>	1.94		5.08***		1.37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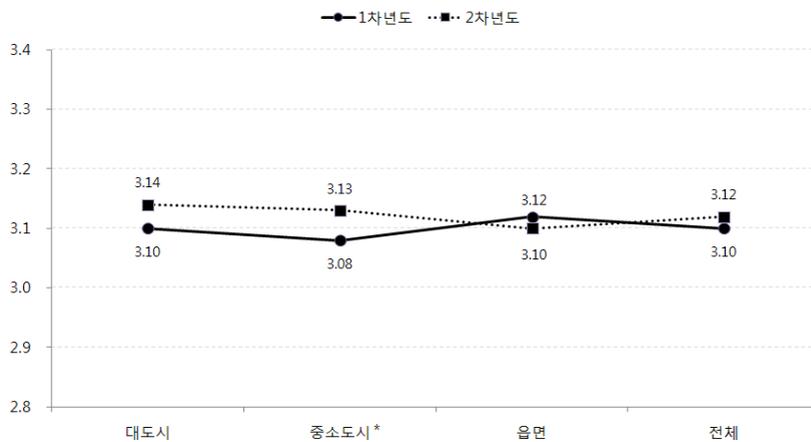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학습활동 적응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향상된 반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다소 감소된 특성을 보인다. 1차년도에 중소도시의 학생들에게서 학습활동 적응이 가장 낮고 대도시 학생들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학습활동 적응 점수가 높았으나, 작년에 비해 지역규모별 격차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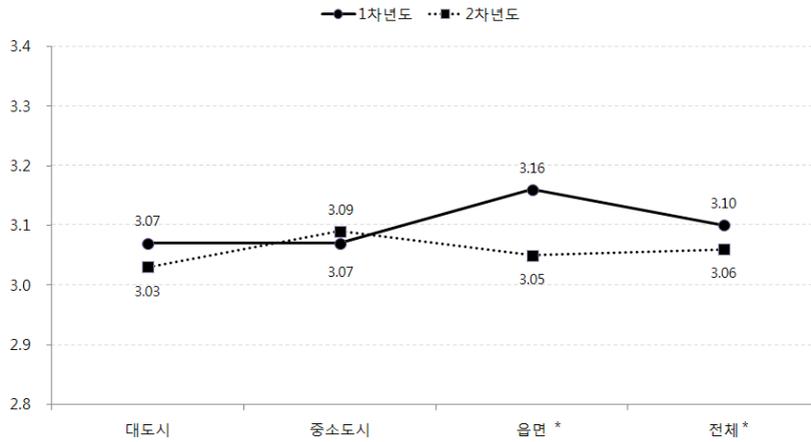
[그림 III-214]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학습활동)

교우관계 적응은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규모별 점수의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1차년도에는 읍면지역 거주 학생들의 교우관계 적응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았으나, 2차년도에는 대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의 교우관계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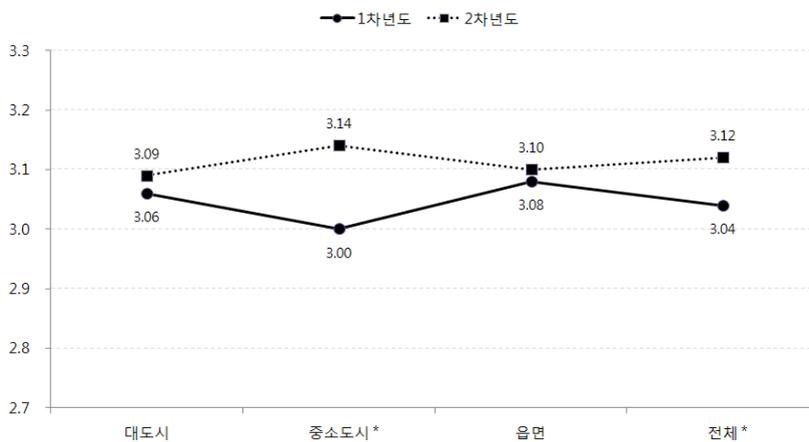
[그림 III-215]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 적응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점수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반면,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사관계적응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1차년도에는 읍면지역 학생의 교사관계 적응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 학생의 교사관계 적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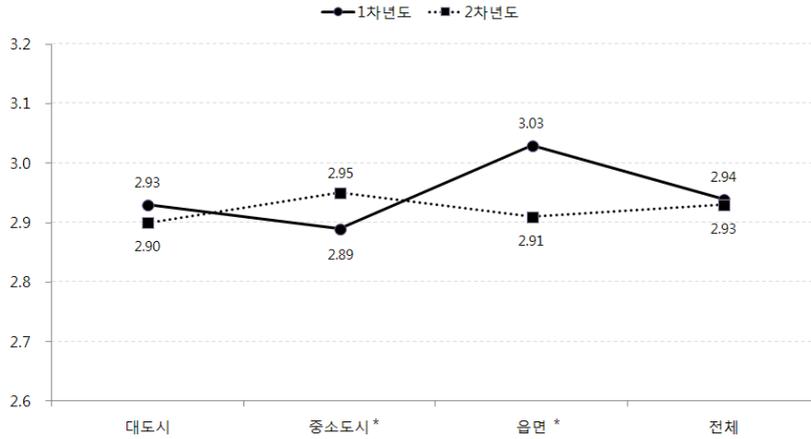
[그림 III-216]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학교적응(교사관계)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지역규모별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모두 상승하였으나, 특히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중소도시 거주 학생의 친구 지지는 1차년도에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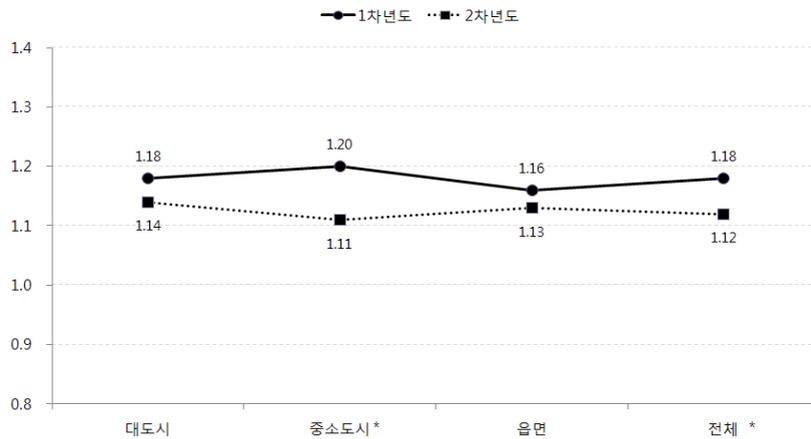
[그림 III-217]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친구지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지역규모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 거주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읍면지역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차년도에는 교사의 지지가 읍면지역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 가장 낮았으나,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이었으며, 지역규모별 교사 지지의 점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III-218]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교사지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집단따돌림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1차년도에는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그림 III-219] 지역규모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4) 심리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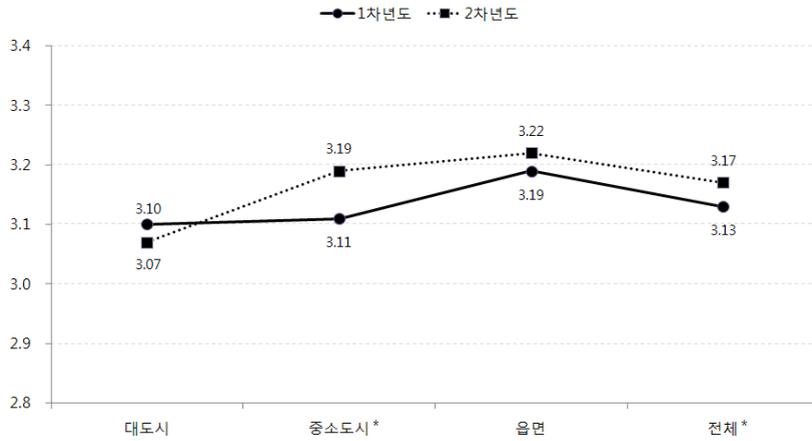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영역에 변화가 있었는지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의 학생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심리사회적응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14 지역규모별 심리사회적응

구 분		대도시(N=408)		중소도시(N=683)		읍면(N=410)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자아 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3.10 (.57)	3.07 (.59)	3.11 (.55)	3.19 (.52)	3.19 (.54)	3.22 (.55)	3.13 (.55)	3.17 (.55)
	<i>t</i>	1.09		-3.66***		-1.08		-2.38*	
자아 탄력성	평균 (표준편차)	2.89 (.49)	2.90 (.49)	2.90 (.46)	3.00 (.46)	2.91 (.49)	2.94 (.47)	2.90 (.48)	2.95 (.47)
	<i>t</i>	-.16		-5.20***		-.98		-3.85***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18 (.63)	3.14 (.65)	3.23 (.59)	3.29 (.59)	3.30 (.57)	3.26 (.61)	3.24 (.60)	3.24 (.61)
	<i>t</i>	1.36		-2.14*		1.07		-.09	
신체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2.88 (.54)	2.87 (.54)	2.94 (.49)	3.00 (.49)	2.93 (.48)	2.95 (.48)	2.92 (.50)	2.95 (.50)
	<i>t</i>	.48		-2.73**		-.81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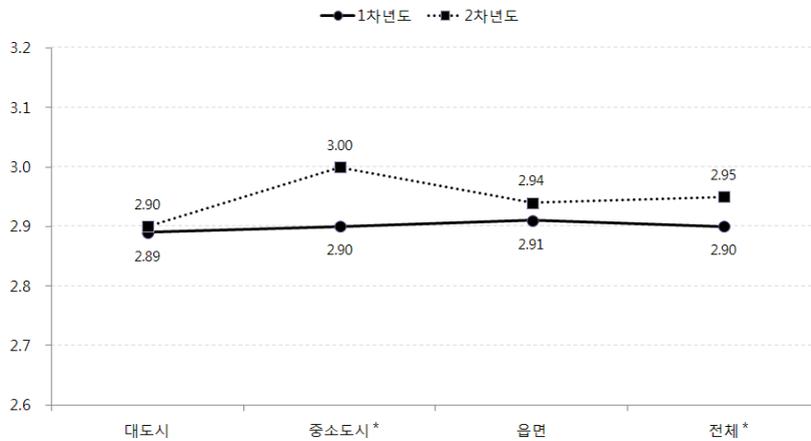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1차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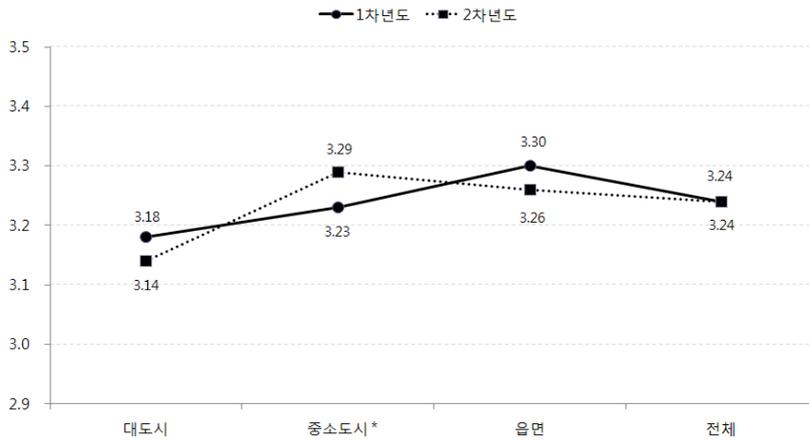
[그림 III-220]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존중감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에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에 비해 지역규모별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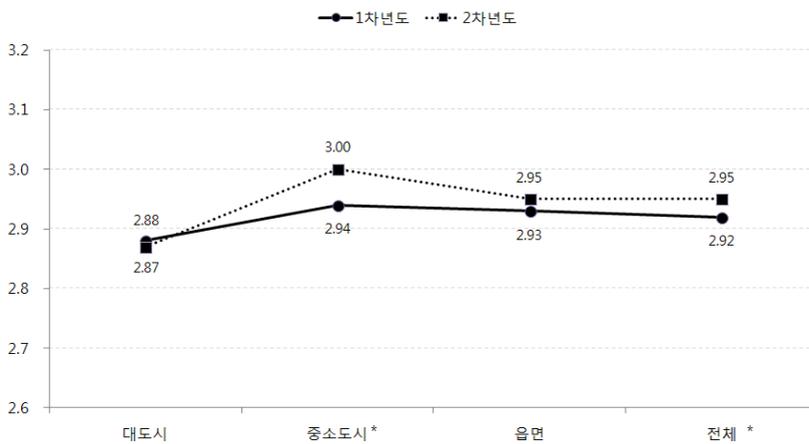
[그림 III-221]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는 1차년도에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감소하고, 중소도시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중소도시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도시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222]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대도시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중소도시 학생의 신체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하면서, 지역규모별 신체만족도의 격차가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223] 지역규모별 아동의 심리사회적응 변화: 신체만족도

(5)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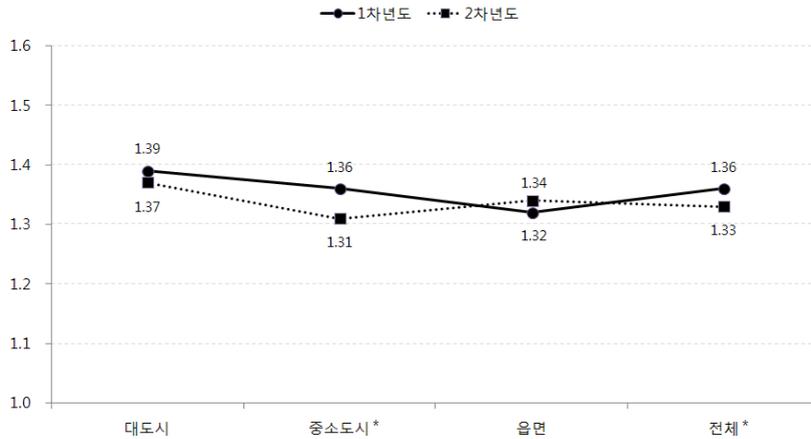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역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5 지역규모별 문화적응

구 분	대도시(N=408)		중소도시(N=683)		읍면(N=410)		전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1.39 (.43)	1.37 (.45)	1.36 (.41)	1.31 (.38)	1.32 (.38)	1.34 (.38)	1.36 (.41)	1.33 (.40)
	<i>t</i>	.97		2.90**		-.85		2.04*	
이중문화 수용태도	평균 (표준편차)	2.90 (.44)	2.85 (.44)	2.88 (.40)	2.93 (.38)	2.92 (.40)	2.90 (.39)	2.90 (.41)	2.90 (.40)
	<i>t</i>	2.34*		-3.07**		.72		-.33	
국가 정체성	평균 (표준편차)	2.66 (.67)	2.66 (.65)	2.65 (.65)	2.76 (.64)	2.62 (.69)	2.69 (.65)	2.65 (.67)	2.71 (.65)
	<i>t</i>	.02		-3.49**		-1.84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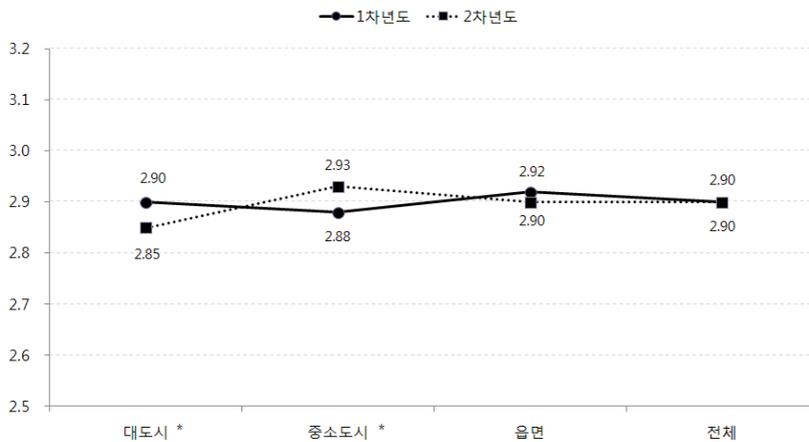
* $p < .05$, ** $p < .01$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에게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다. 1차년도에는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중소도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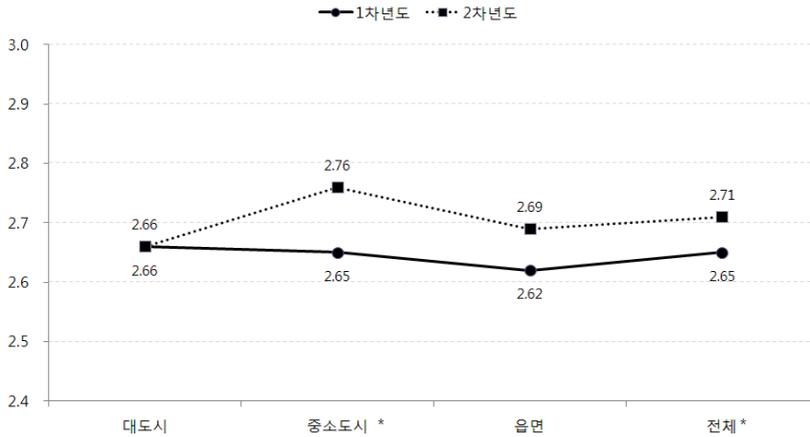
[그림 III-224]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차년도에 중소도시가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대도시, 읍면의 순이었으나, 2차년도에 중소도시 거주 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대도시 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면서 중소도시 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5]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1차년도에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국가정체성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년도에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중소도시 학생의 국가정체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6] 지역규모별 아동의 문화적응 변화: 국가정체성

지역규모별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 비교

-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의 영역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가족지지, 성적만족도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함.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과 방임, 성적, 성취동기, 학습생활적응, 교우적응, 친구지지,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에 대한 만족도, 신체만족도,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등 대부분의 영역이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함.
- 읍면지역 학생들은 성적만족도가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교사관계적응과 교사지지는 1차년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함.

제 IV 장

패널종단연구결과 II: 질적조사

1. 질적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질적조사의 방법
3. 질적조사의 내용
4. 질적조사의 결과
5. 소결

제 IV 장¹⁰⁾

패널종단연구결과 II: 질적조사

1. 질적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본 종단연구는 양적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질적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11년도 구축한 패널자료를 분석했을 때 나타난 여러 결과들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행위하는 것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2011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다문화집단에 대한 한국 주류사회의 타자화된 시각과는 달리 당사자들은 70% 이상이 자신에 대해 ‘한국인’ 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및 사회통합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시각들을 눈여겨보고 심도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제 중 올 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집단으로써 구분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점차 성장해나감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등에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에 지금 현재는 아직 연령적으로 정체감 위기 등의 심각한 고민의 시기는 아니나 점점 발달해나감에 따라 정체성의 문제는 언젠가 스스로 다루고 극복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수요자로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원정책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시각과 방향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자세히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10) 4장은 김윤영(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과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 해의 연구는 그 첫 단계로 예비적인 성격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목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양적조사 자료의 결과분석을 보완한다. 2011년도에 구축한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개인별 심층면접 내용을 구성한다. 양적조사 및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

둘째, 2012년도 질적조사는 2011년도 양적자료 분석결과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본 연구팀에서 작년 조사결과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올해 종단연구에서는 정체성 형성 및 그 형성 배경 그리고 정체성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 분석할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시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본 질적조사는 앞으로 시행될 종단연구의 질적조사에 대한 설계를 목적으로 둔다. 올해는 질적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바, 앞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비조사로 진행할 것이다.

2. 질적조사의 방법

1) 질적조사의 대상자

2012년도 질적조사의 연구대상은 2011년도 양적조사 시행에 참여한 패널집단(현재 초등학교 5학년) 중 청소년과 어머니의 쌍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질적조사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이고, 소요예산과 그에 따른 면접원의 유동성 등 조사수행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해볼 때 2012년도에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3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종단질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둘째, 2012년도 설문조사 결과 발달상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50%씩 선정하였다. 발달상 적응수준이 높다는 기준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점수 모두에서 상위 50%인 집단과 하위 50%인 집단을 각각 발달상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25명이 산출되었다. 본 질적조사의 목적은 적응실태에 대한 학생의 비교연구가 아니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수준의 상하위 학생 선정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불과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1년도 설문조사 설문내용 중 자신의 ‘국적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한국사람, 외국인 부모나라 사람, 이중국적정체성, 그리고 잘 모르겠다’의 4가지로 답변한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여 적응수준과 매치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선정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은 분포가 추출되었고, 질적조사를 위한 섭외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하여 섭외자들에게 제공하고, 아래의 분포에 속한 대상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접촉하였을 때 동의한 20명의 어머니와 청소년쌍을 각 집단별로 괄호 안에 표시된 수만큼 선정하였다.

표 IV-1 **질적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분포 및 표집 수**

정체성	적응수준_저		적응수준_고		전체
	대상자 수	표집	대상자 수	표집	
한국 사람	40	5	110	4	150
외국인부모 나라사람	1	1	5	2	6
이중국적정체성	8	3	57	3	65
잘 모르겠다	1	1	3	1	4
전체	50		175		225

2012년 질적조사 시행의 연구대상은 2011년 양적조사 시행에 참여한 패널집단(현재 초등학교 5학년) 중 남녀 학생 19명, 학부모 19명으로 구성하였다. 당초 계획에서는 학생 20명, 학부모 20명 총 40명을 질적조사대상으로 구성했으나, 면접을 허락했던 한 가구가 강력 거부 의사를 밝혀서 최종 19가구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총 38명(학생 19명, 학부모 19명)이었다.

위의 세 가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질적연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본 질적조사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를 함께 조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아직 심층면접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가까운 관찰자를 함께 면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배경 및 발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함께 면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의 부모가 모두 어머니인 것이 본 조사의 한계일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였고, 또 낮 시간대 인터뷰 시간을 정하다보니 부친보다는 모친의 인터뷰가 용이하였으며, 어머니 자신도 패널의 일부로 매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V-2 질적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분포 및 표집 수

청소년	청소년적응수준	청소년의 정체성	어머니	모친 연령	모친 출신국가	비고
S-1	낮음	한국	M-1	41	중국(한족)	
S-2	낮음	한국	M-2	45	한국	
S-3	낮음	한국	M-3	36	중국(한족)	
S-4	낮음	한국	M-4	41	중국(조선족)	
S-5	낮음	한국	M-5	49	중국(조선족)	
S-6	낮음	외국	M-6	48	일본	
S-7	낮음	이중	M-7	39	중국(조선족)	
S-8	낮음	이중	M-8	40	일본	
S-9	낮음	잘 모르겠다	M-9	47	일본	
S-10	높음	한국	M-10	36	중국(한족)	
S-11	높음	한국	M-11	50	중국(조선족)	
S-12	높음	한국	M-12	41	필리핀	
S-13	높음	한국	M-13	39	한국	부친: 파키스탄
S-14	높음	일본	M-14	49	일본	
S-15	높음	대만	M-15	44	대만	아버지:F-15
S-16	높음	이중	M-16	49	한국	부친: 일본인
S-17	높음	이중	M-17	40	일본	
S-18	높음	이중	M-18	48	일본	
S-19	높음	잘 모르겠다	M-19	49	일본	

2) 질적조사 수행절차

질적조사 방법으로 구조적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를 시행했다. 구조적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와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형식을 갖추어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령이 초등학교 5학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구조적 인터뷰 보다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해 연구자가 현장에서 학생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며 반구조적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예비조사로서의 본 연구는 한정된 연구기간과 연구참여인력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하나의 쌍으로 구성된 후 구조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심층면접 시행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면접원 섭외 및 사전교육 실시

면접원은 심층면접 수행을 위한 질적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인류학 혹은 인류학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심층면접에 대한 유경험자로서 총 3인을 섭외하였고, 연구팀 전체와 심층면접원이 모여서 사전교육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전교육워크숍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질적조사의 목적 향후 연구의 방향,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특성, 2011년도 연구의 결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질적조사를 위한 면접원의 주요역할에 대해 안내하였다. 질적조사를 위한 면접원의 주요역할은 ①면접대상자와 연락, 면담일정확정 ②심층면접 수행(녹음) ③면접기록지 작성 ④녹취록 작성이었다. 우선 면접원들에게 면접기록지를 제공하여 심층면접 외의 면접일정확정과정, 피면접자 혹은 면접수행시의 특이사항, 그리고 추가 면접을 위해 고려할 내용이나 유의할 점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면접을 실시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녹취록을 작성하여 면접기록지와 면접녹음화일, 녹취록을 모두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때 면접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 외 면접의 기본적인 사항인 면접대상자와의 전화 연락시 주의점, 라포형성방식, 면접원의 태도, 행동, 말씨 등에 대해서도 기초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림 IV-1] 면접원의 주요 역할과 절차

먼저 면접원은 양적조사 데이터를 통해 1차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화연락을 통해 구두로 동의한 자를 바탕으로 2차로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였다. 인터뷰 시행시 분석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인터뷰 내용 뿐 아니라 인터뷰 실시 당시 벌어지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면접원은 인터뷰 외의 인터뷰 일정확정과정, 인터뷰 전 혹은 수행시의 특이사항, 그리고 추가 인터뷰를 위해 고려할 내용이나 유의할 점 등으로 구성된 면접기록지를 인터뷰 후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면접기록지와 면접녹음화일, 녹취록으로 정리되었다. 면접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통해 면접원에게 전달하였다.

(2) 심층면접 동의서 구성

질적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중단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동의서를 구성하여 면접원들에게 배부하고 받아오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동의서 내용은 ①연구목적과 취지 ②면접내용 ③연구대상자의 역할 ④녹음 및 녹취승인 ⑤자료 수집 및 활용 방식 ⑥자료 보완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의서는 면접시 면접원이 각 2부를 준비하여, 피면접자의 친필사인을 받고 1부는 피면접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1부는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인터뷰 시행

심층면접은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이다. 심층면접 일시와 장소는 가급적 면접대상자를 존중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면접대상자가 편하게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녹음의 질을 고려하여 조용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의 거주지에서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약속을 정하여 면접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면접원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연구 취지와 목적,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녹음승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녹음기를 꺼내어 면접을

시작하고 면접이 끝난 후에는 면접수당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연구가 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다시 면접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장시간의 면접이 피면접자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면접원 스스로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의 상황에 따라 시간은 면접원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동일 대상에 한하여 2-3차례의 추가면접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세 명의 면접원이 면접을 하는 것으로 하되, 가능한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 면접에 동석하여 면접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여 분석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3. 질적조사의 내용

본 연구의 질적조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그 배경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V-3 **질적조사 내용**

대상	요인	조사내용
학부모	배경요인	부모 국적, 출신지, 부모의 출신배경, 학력, 교육수준, 결혼생활, 이주결정 계기, 이주국으로 한국선택 배경, 정착시기 및 기간, 정착 후 어려운 점, 출신국가 방문 횟수, 출신국가에 대한 태도, 출신국가의 가족과의 관계, 왕래현황
	가족요인	가족구성원, 가족관계, 가족간의 혹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communication), 자녀와의 의사소통시 문제점
	자녀교육 및 자녀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자녀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혼란스러워 한 적은 있는가? 그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조언 혹은 자녀교육 전반에 관해서 남편과의 의견차이는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어떻게 조율을 하는가? ■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떤가? ■ 자녀는 정체성 문제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면이 가장 염려되는지? ■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예를 들면 자녀가 경험하게 될 정체성 혼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가,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공부에 신경을 쓴다든가, 책을 많이 읽힌다든가 등등)

표 IV-3 질적조사 내용(계속)

대상	요인	조사내용
자녀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나쁜 점은? ■ 부모가 외국인이라 불만인 적은 있는가? 다른 친구들의 부모와 비교 ■ 부모와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없는가? ■ 부모의 출신국에 방문한 적은? 느낌은? 외국에 친척들과의 왕래는? ■ 부모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혹은 나중에 부모의 출신 국적을 받고 싶은가? ■ 부모가 국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창피한가? 아님 자랑스러운가? 아님 그냥 그런가?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자신의 정체성 혼란경험여부 ■ 있다면, 자신이 다른 학생과 다르다고 느끼게 된 계기, 사건은 무엇인가? (교우관계에서 스스로 이질감을 느낀 배경 및 구체적인 사건) ■ 교우관계나 교사관계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경험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지원수혜현황 및 만족도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으로서 받는 특별교육지원혜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 ■ 학업수행의 어려움 ■ 의사소통의 어려움 ■ 교우관계형성의 어려움

4. 질적조사의 결과

개인은 시공간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자아가 형성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의 생산물이며(Linger 2005, p. 187; Kim 2009, 이향규 외 2011, p. 156 재인용), 개인이 자아를 인식하는 것과 자아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이렇게 두 가지 행위에서 충돌되는 의미의 ‘협상’ 을 통해 생성되거나 변화한다(Foucault 1980, p. 98, 이향규 외 2011, p. 156).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역시 장기적으로 시공간적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그 다양성과 유동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심층면접 결과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 부모님들은 일단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한국의 방식대로 자라서 한국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사는 것이 맞고, 만일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 나라 문화를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면접원: 어머니께서는 (정체성과 관련된)지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M-19: 일단, 여기 사니깐 한국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장 여기서 좀 살다가 일본 가서 산다 하면 일본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살아야 되니깐 애들이.

면접원: 어머니 나중에 아이들이 국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거 막연하게나마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국적 선택할 때.

M-8: 뭐 거의 아이들 보면, 계속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에서 생활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면접원: 그렇구나.

M-8: 태어나서 계속 생활해서... 습관 그런 것도 다르고... 본인이 일본으로 하고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

면접원: 아이들은 자기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M-4: 우리 애들은 엄마는 중국인, 나는 한국인.

면접원: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어머니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M-4: 어차피 난 중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중국인, 애들이 중국인이라 그래도 별로 신경 안쓰거든요?

면접원: 어머니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체성에 대해서?

M-4: 내가 한국인이라고는 생각 안해요.

면접원: 아, 여기서 꽤 오래 사셨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 들도 키우시고 직장도 있으신대도 아직 그런...

M-4: 내가 무시당한 게 있잖아.

면접원: 그런 일들 때문에. 음... 아이들이 명확하게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게 오히려 어머니 입장에서 다행이다 싶으실 수도 있겠네요.

M-4: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여기서 태어난 거니까.

다른 나라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결국은 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인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기에 아예 아이에게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의 삶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앞으로 아이의 삶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2: 제가 일본에 가서 뿌리내리고 살 생각은 없어요. 여행은 괜찮은데, 애들한테 일본 사람들 피가 흐른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딱 결정을 했죠. 나는, 엄마는, 여기서 살 것이고 너희들도 그냥 한국 사람들로 살아라. 일본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런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은 뭐 일본 가서 살아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면접원: 애들도 아예 안 하는...

M-2: 네. 이중국적으로 고민해 봐야, 선택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한국말을 잘 하니까 일본은 더 어렵다, 일본에 가서 사는 거는 더 어렵다. 애들이 일본 나라를 우습게보면 안 된다. 그만큼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포용력이 없어요. 더 어떻게 보면 힘든 곳이에요. 편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힘든 나라예요. 그만큼 따라가야 되니까, 그 문화의 수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지만 외국인을 상대하는 같이 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기업 쪽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상업적으로... 사장님들이 종업원들한테 대하는 게 약간 무시해서 그렇지, 그거 빼 놓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잘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그래서 그렇지. 애들 아빠가 한국에 와가지고 불편한 거를 많이 못 느끼고 지내고 있어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일반 한국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학교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국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면접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지도하실 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한국에서 커갔으면 좋겠어요?

F-15: 한국 학교 보낸 이유가 그거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나눈다는 자체가 그런데 한국 친구들과 잘 융화되고, 외국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거고...그래서 한국 학원도 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는 친구가 됐으면 하는 거죠.

M-13: 차별화를 안 두고 제가... 우리는 다문화 이리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인이야'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인이 갖춰야 할 것들은 다 갖춰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해서, 아마도 그냥 느끼지 못 하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저절로. 적응을 하고 말고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크게 자신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뭔가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다문화가정' 이라는 이유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면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다수자 집단일 뿐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써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중정체성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통의 한국아이들과 구별없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장점을 승화시켜서 이중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가정도 있었다. 이런 경우 부모가 각각 자기 나라의 문화와 관습, 종교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고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일이라는 것이다.

M-13: 아.. 저는 애 아빠랑 저랑 입장이 다를 꺼예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다.. 또 한국에서 태어났다..하지만, 아빠의 피도 있으니깐.. 아빠나라를 존중하고.. 또 너네가 아빠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돼도 괜찮다.. 이 정도이고... 일단 한국에 대해서.. (중략) 아빠는 아빠의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고.. 아빠나라는 이슬람이 전부니깐... 종교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면접원: 그러면 아버지 나라의 정체성이랑 한국 정체성이랑 다 강조하시면서.

M-13: 같이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아이들이 커서.. 이제 정말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만.. 저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

이런 경우 부모가 이중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나는 자녀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이 두 나라 말을 잘 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커 나가길 바라는 것이다.

면접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중략)
그니깐, 너는 한국 사람처럼 컸으면 좋겠다, 일본사람처럼 컸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둘 다 중요한 거다...

M-9: 우리는 국제 가정이니깐 벽을 넘었죠. 애들이 한국 사람이다 뭐 그런 거도 없고...

면접원: 아... 그러니까 두 개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거군요. 그래서 언어도 잘 할 수 있게 하신 거고.

M-9: 네.

면접원: 어머니는... 그 S-6이 아까 일본어도 좀 잘하고... 일본에서도 대학 좀 다니고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S-6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기를 바라세요?

M-6: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이제 어차피 한국도 외국인도 많고... 한국에만 있으면 한국 밖에 모르는데 나는 일본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근데, 한국 와보니까 일본의 나쁜 점도 보이고 좋은 점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나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도 나가도 되고 넓은 생각하고 살았으면...

면접원: 아.. 그러니깐 꼭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넓게..

M-6: 네네, 글로벌 시대니깐...

다른 하나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됨으로써 각 나라에서의 생활이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아래 사례의 경우 일본출신의 어머니는 일본에 부모님을 뵈러 자주 갈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일본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한국에서 살게 될 테니까 한국의 국적을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면접원: 아... 애들은 전부 한국 국적인가요?

M-6: 두 개 있어요.

면접원: 아 이중 국적..?

M-6: 음.. 열여덟 살까지 인가...? 이중 국적이 된데요.. 아직까지는 두 개 있어요.

면접원: 어머니는 애들 크면 어떤 국적을 선택했으면..?

M-6: 음.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깐...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깐... 아직 일본 국적도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사는 거니깐... 한국 사람이.. 애들도..

면접원: 아.. 이중국적이 되는구나...

M-6: 네네.. 편하잖아요, 일본가면 일본사람이고

면접원: 따로 여권도..?

M-6: 네, 여권도 두 개씩.. 하하

면접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있다가 어머니는.. 한국 사람처럼.. 다른 한국 애들이랑 키우고 싶은 거예요..?

M-6: 키우고 싶은데.. 아마 제가 모자라니깐.. 그렇게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 이중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중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중간적 지점에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시킨다. 즉, 완전한 한국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나라 사람도 아닌 그 가운데 지점 어딘가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다.

면접원: 그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가, 왜냐면 한국 사람의 피도 흐르고 필리핀사람의 피도 흐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올 거 같은데. 어머니 어떤 이야기를?

M-12: 이야기해요. 애들은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필리핀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필리핀 사람도 될 수 있다. 가르쳐요.

면접원: 아.

M-12: 애들도 가르쳐요.

면접원: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S-12: 필리핀(과) 한국 가운데.

면접원: 누가 가운데야?

S-12: 다문화.

면접원: 다문화는 가운데?

S-12: 우리. 언제나 한국 사람은 아니고, 언제나 필리핀 사람은 아니에요.

면접원: 똑똑하다. 아... 똑뿌리지는데요? S-12도 그렇게 생각해? 정체성에 대해서.

S-12: 중간이요.

면접원: 반반? 진짜? 중간이라고 생각해?

S-12: 네. 엄마는 필리핀이고 아빠는 한국사람 이잖아요.

이러한 정체성은 지금 현재의 연령대로써는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보다 성장하여 사춘기 정도가 되어 자아에 대해 눈뜨게 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래에 나타난 사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민감하게 변해가는 청소년의 사례로, 어린 시절에는 다문화가족의 좋은 점만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문화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엄마가 중국사람인 것이 싫다고 하여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사례이다.

M-11: 작년까지는 특히 삼학년 때까지 엄마가 중국 사람이고 한 것이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들 다 부러워한다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문화... 엄마가 중국사람인 것도 싫고 그렇더라고요. 한 삼학년까지는 학교에서 특기... 장기자랑 할 때는 하는 게 없거든요. 진짜 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전날에 엄마 나 장기자랑 하는데 나는 뭐 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중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주면 한 이삼십분이면 외우니까 이튿날이면 그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안 해요 하하.

면접원: 조금 민감해졌네요.

M-11: 네 장기자랑은 금년에는 뭐 했는데 하니까. 다 못하는 애들이 같이 뭐 했다고 아홉명인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있어서 아홉명이 같이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원: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아이가 이제 나이가... 주변 아이들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좀 민감한 나이가 되어서 그럴까요?

M-11: 본인이 민감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애가 뭐 막 엄마가 중국사람이라 좋고 이렇게 말할 때부터 제가 어느 땐가 한번은 애를 실망시켜줄 날이 꼭 있을 거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대처할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사회든 소수집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상들로, 청소년들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감에 따라 많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의 영향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도 있다.

3) 이중언어의 부담감

한국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이중언어 용이성은 사실상 다문화가족 자신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고, 그것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언어습득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한쪽 부모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해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한국아이들이 다른 나라 말을 추가로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를 억지로 강요하여 오히려 언어치료를 요하는 상태까지 가기도 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어머니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면서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익숙하지 않은 일본말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다시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가 혼동스러워 하면서 언어발달에 문제를 일으켜서 언어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는 한국에 와서 아예 한국어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면접원: 애들이 일본어는 잘 하나요?

M-2: 내가 일부로 안 가리켰어요.

면접원: 어? 왜요...

M-2: 처음에, 큰 애가... 굉장히... 줌...문제가 됐어요. 엄마가 한국말도 하기도 그렇고,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한국말도 사용하고, 일본말도 사용하니까,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본말로 하라고. 나도 배우는 단계고, 일본말을 사용하다가 한국말 사용다가 한니까 (입을 가리키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한국말이 앞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계 막 영향이 컸나봐요. 그래서 애가 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었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일본말을 사용하든지 한국말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한국말 사용하는 거를... 저도 완벽하게 사용하는 거는 아니니까.... 줌 힘들 수도 있는데, 일본말을 하라

그리고 저는... 일본말을 하면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다시 한국을 와야겠다.

면접원: 어느 정도 사셨어요 일본에?

M-2: 얼마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애가 또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 때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면접원: 그 때 첫째는 몇 살이었어요?

M-2: 세 살이었나.... 세 살, 네 살? 한참 말 배우는 시기에... 그래서, 말을 애가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언어를 치료를 좀 받았지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많이
받았지요. 둘째부터는 일본말을 거의 안 썼어요. 왜냐면은, 이중국어를 사용을 하면 애들이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괜찮대요. 근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이 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을 뭐 박사로 키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둘째는 절~대 일본말 사용을 안 했죠. 한국말만.
한국에서 사니까.(중략) 애들은 그게.. 금방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도 외국인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우리말을 좀 잘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죠.

위의 사례는 언어치료까지 간 심각한 사례이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두 나라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집에서 두 나라말을 다 사용하도록 해도 어머니나라
말을 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성이 있게 된다.

면접원: 집에서 어머니랑 가족들 다 어떻게 의사소통 어떤 언어로 하세요?

F-15: 반반 씩 쓰죠. 네.

면접원: 그럼 어릴 때부터 두 개 언어를 같이 사용하도록 키우신 거예요?

F-15: 네네..

면접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아이들은 두 가지 언어 다 모국어처럼 다 할 수 있나요?

F-15: 네, 근데 S-15는 한국 학교 다니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더 잘 하고, 중국어는 듣는
위주로 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정작 청소년 자신은 어머니 나라 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작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성으로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는 것 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뿐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다문화의 시각에서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머니 나라 말을 배웠을 때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이 크지 않고, 그럴 바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면접원: S-3야 어머니가 중국어 잘 하시는데, 중국어 나중에 공부할 생각은 없어?(중략) 제2외국어 공부할 때 중국어 하고 싶은 거야?

S-3: 아니요.

면접원: 그건 아니야? 그럼 뭐하고 싶은데?

S-3: 외국어.

면접원: 외국어 어떤 거 ?

S-3: 미국.

면접원: 아 영어?

S-3: 네.

면접원: 중국어는 아직 별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어?

S-3: 네.

그러다보니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어머니 역시 자신의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면접원: 혹시 뭐 중국어를 따로 가르치신 다던가 그런 건 없으세요?

M-3: 없어요.

면접원: 전혀 없으세요?

M-3: 네.

면접원: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M-3: 본인이 한다고 하면 하죠, 근데 안하고 절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도 빠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한국말로 대화하게 되고, 중국말은 아예 안하고 그렇죠.

면접원: 어머니 거의 중국어 하실 기회가 없으시겠어요?

M-3: 그렇죠. 집에서는.

주변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2개 국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왜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말을 못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여 아이가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엄마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엄마나라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생각없이 던지는 말에 당사자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M-8: 음...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말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 엄마는 왜 일본사람인데 일본어 못하냐고 하는 친구도 가끔씩 있다고 들었거든요.

면접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애들한테?

M-8: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이가.

면접원: 일본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요?

M-8: 당연히 엄마가 일본사람이니까, 너는 일본말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일본어로 얘기 안해주니까 모르잖아요. 간단한 거는 좀 알지만. 그런 것도 좀... 모르겠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다문화가족의 서로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중언어를 하라고 강요할 문제는 아니며 각 가정에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서서 이중언어를 하도록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다문화 기준의 불분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은 스스로 형성 및 유지하기보다 사회적 구분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사례의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중국출신 어머니와 재혼을 하는 바람에 다문화가족으로 분류가 되어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경우로 자신이 과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혼동스러워 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한 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니까 한국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깐 무조건 그냥 안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국어교실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앉아있을 노릇도 아니니 뭐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해야 할지 곤란스러워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1: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제가 중국에서 결혼했는데(중략) 사실은 우리 막내딸이 그 사 애예요. 제가 애 만난 지가 일곱 살 조금 넘었는데... 그런거 애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해야 되는 데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덧 엄마 나 다문화가정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오학년 다 되어 가지고... 선생님이 아니라 중국어머니라 다문화가정 가능하니까...(중략) 실질적으로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면접원: 어머니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M-1: 네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다 얘기 하는데... 우리 딸도 엄마 우리가 도대체 다문화가정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다문화가정 맞다고 얘기하면 그냥 맞다고 생각 해가지고 해주면 된다고... 애도 이제 크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중략) 요번에 학교에서 또 전화 왔어요. 한국어 국어 같은 거 배워야 하는데, 이제 다문화가정 상태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애 자체가 한국 말 잘 하잖아요? 그런 것 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아이의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문화가족이라고 구분을 하고 한국어 배우라고 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이 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초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될 수 있으나 학령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가정의 자녀들과 같은 수준으로 언어능력이 발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일상적인 언어는 가능하나 고급 한국어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급 한국어는 본인이 책을 많이 읽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의 수준이고 이는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현재 일선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한국어 교육으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5)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고마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머니들에게 질문한 결과 어머니들은 지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정형편상 부모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지원이 어떤 것이든 한 가지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한국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어머니들에 비해 자신들이 아이들 공부할 잘 봐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거나 학습지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일반 저소득층 가정과의 차별없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

M-19: 네... 그러니깐... 엄마... 부모입장에서는 고마운 것도 있어요. 관심을 가져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본사람이고... 오래 났으니깐... 그런데, 필리핀이나 그런데는 좀 그렇지... 한국말 습득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고... 옆에서 보니깐 발음도 이상하고... 생김새도 티가 나잖아요... 좀... 그러다보니깐... 또 이제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도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을 데려다가 학습을 시켜주면... 학원 보낼 여유가 없는 그 가정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하긴... 가정마다 다르니깐... 돈 어려운 가정은 확실히 도와줘야 되겠고... 엄마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깐... 음...

면접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참 좋아요.

M-15 네, 좋아요 진짜.

아버지: 내 생각에는 맨 처음에는 아, 이게 될까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도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 나왔어요. 그런 것보다 선생님이 찾아주시고 얘기 나누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 짜서 현장학습...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6) 다문화가족 지원의 당연함

그러나 국가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은 일반 가정과는 다른 특수한 가정이고 한국아이들과 달리 여러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함을 커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M-13: 아마도 예네도 다문화라고 불리면... 다문화 속에서 아, 다문화구나 인정을 할 것 같고.

저도 그냥 우린 다문화가정이야, 다문화 가정이고, 다문화가정이 누려야 되는 건 누려야 돼. 왜냐하면 너무 특수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것들만 보이잖아요. 언어를 세 개를 해. 몇 개를 해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되게... 두 문화 맞춰 가면서 사는... 저는 좀 덜 힘들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되게... 그리고 시간 시간...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있는 것들만 습득하면 되잖아요. 시간 싸움이 덜... 아니, 뭐라고 그러지?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덜 힘들잖아요. 성공 여지도 더 큰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파키스탄어도 잘 해야 하고 아빠랑 문화도 익혀야 하고 아빠랑 이런 시간도..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 하니까 같이 따라잡아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명절이 있으면 가서 시간을 보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네는... 그런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받아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게 배려해주 시니까. 받고, 받는 다음에는 기여를 해라. 나중에 너희가 크면. 저도 흑여 나라에서... 애들 대학생 됐을 때는 도움을 주겠다 하면 저는 덤석 받으려구요. 진짜.

물론 일반적인 한국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주어지는 것들이 특혜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특별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별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한국아이들과 경쟁을 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다문화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특혜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특혜에 대한 일반 가정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한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M-13: 그러니까 흑여... 다문화... 특혜를 주는 건 맞다고 봐요. 저는, 고등학교 가는데, 입시제에. 우리 예은이가 고양외고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다문화... 사회적 배려자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국가가 어떤... 국립대학에서 그렇게 약간의 기준, 다른 애 하고 같이 가고는 싶지만 여건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 시간 쓰기를 해가지고는, 그...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접원: 한국 애들이랑...

M-13: 그렇죠! 일반 애들이랑.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개네랑 해서 이겨야겠다는 마음이라면 이미 내 삶은 피폐되고, 과정을 보지 않고 경쟁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깔고, 그런 의지를 깔고 그런 노력을 하는 가정에... 다문화라든지, 사회적 배려자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응? 다문화한테 무슨 특혜를

주냐. 다문화... 별 그거... 저기 우리랑 별 다른 차이도 없던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문화에서 장점을 찾아보면 많을... 외교적인 면으로... 비즈니스 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재능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문화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다문화만을 위해서 쓰거나 개인을 위해서 쓴다면... 좀 그렇지만, 정책을 펼 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만큼 혜택을 주면, 이 정도 환원할 수 있는 연계적인 시스템을 통한다면 분명히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애네들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언어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랑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말이 좀 다르지만. 그런 무역에 있어서라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혜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7) 구별짓기에 대한 불편함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써 다문화가족임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다문화가족임이 드러나고 구분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는데, 아이들은 한국아이들과 특별한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너는 '다문화가족 이니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라고 규정짓고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이란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느끼기 보다는 불쾌감을 넘은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면접원: 어머니는 그런 거(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따로 애들 부르고 이런 거?

M-6: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한국 사람인줄 알고.. 커 가는데.. 너희들은 다문화가정이다... 따로 공부시키고, 무슨 학습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들만 그렇게 해줬으면...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녀야 하지만은...

면접원: 재들은 한국 사람으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는 다르다고 하니깐 싫으셨구나..

M-6: 아파, 필리핀이나 저쪽 애들은 피부색이 다르니깐, 티 나니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은 같잖아요. 피부색도 같고.

면접원: 네

M-6: 한국 사람들 애국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존경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우리우리 하는 게.. 하하

(중략)

면접원: 그러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S-6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르다고 느꼈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을까요?

M-6: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고 가잖아요? 선생님이? S-6는 그것도. 다른 친구랑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엄마가 일본사람인거 뿐인데.. 다문화가정 그런 거...

면접원: 아.... 별로 안 좋아했나요..?

M-6: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경우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가 다문화가족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니게 된 배경에 한국인의 배타성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만일 자녀들이 일본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한국의 배타적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라고 구분하고 규정하여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에 대해 자녀도 어머니도 모두 반기지 않고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청소년 자신은 자신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다문화가족 담당 교사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면접원: 그... 다문화가정이라고 따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너는 다문화가정 아이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류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애들이 좀 상처 받는 경우나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M-19 : 그런 거 싫다고 그래요 S-19도... 다문화가정이라서 따로 머...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근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요즘에 나온거잖아요. 우리 큰애 둘째는 없었어요. 둘째도 처음에 여기 경기도에서 이사왔을 때 6학년 때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문화가정 담당선생님이 같이 공부할래? 하고 물어봤대요. 저한테는 말을 안하고 애한테... 그래서 그게 뭔대요? 이래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랬는데... 우리 애가 필요

없어요, 하고 끝났대요. 또 중학교 올라갔더니 담임선생님 통해서 후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라고 해서... 애가 다문화가 뭐데... 형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생소한... 이제 와서 다문화 다문화 그러니까 저도... 다문화가 뭘까... 하긴... 문화가 이런 문화 그죠?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하하 다문화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따로 남기거나 불러서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든다. 그러한 지원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내용 역시 진심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예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게 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더 기분이 불쾌해진다.

면접원: 그럼 학교에서 그런 특별반이나 그런 게 있나요, S-6 학교에도?

M-6: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따로 선생님이 불렀어,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따로... S-6 누나... 불러서 선생님이랑 어디 가거나... 사주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면접원: S-6는 선생님이 따로 부르면 어때?

S-6: 싫어요.

면접원: 싫어? 그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불러? 애들 부를 때?

S-6: 남으라고 해요. 그냥.

면접원: 그러면 친구들 다 있는데, 대검이 불러서 나오라고 그래?

S-6: 아니요, 남으라고 해요.

M-6: 그것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야 돼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건 아니니깐... 돈이 나오니깐... 어쩔 수 없이 시간 내서... 머 사주고... 이거 먹고 있어, 선생님 간다하고... 불러놓고 먹기만 하고 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니깐... 조금... 그러면 차라리... 돈이 아까우니깐... 안하시고 다른 쪽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 같애...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면 될 것을 특별히 대하고 본인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는데 옆에서 '너는 오리지날 한국인이 아닌 다문화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집단이야' 라는 인식을 시키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그런 모습에서 한국사회가 가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M-18: (중략) S-18이 여기 있고 엄마가 일본사람인데도 한국에 사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특별하게 해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벽이 생겼던 거 같아요.(중략) 좋아서 갔는데 ‘너는 다문화 아이들이니깐’ 식의 교육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따로 (중략) 처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자랐으니깐...아이들에게는 스스로 그런 인식이 없으니깐 근데 왜 따로 불리는지는 모르지만 가식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 제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도 오히려 더 꺼리게 되고, 다문화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지니도록 한다. 특히 어렸을 때는 무조건 공짜로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고 주변 또래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됨에 따라 뭔가 부족한 소외계층으로 구분되어 지원받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일 수 없다.

M-10: 글썸. 큰애는 점점 클수록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그것도 혜택 안 받으려고 그래요. 큰애는. 둘째는 좀 받으라고 하니까 받더라고요.

면접원: 아, 그래요?

M-10: 애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면접원: 큰 아이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어요?

M-10: 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바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대화법 교육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모아놓고 한국말을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내용을 준비해놓고 ‘너희 들은 한국말 못하니까 이런 대화법을 배워야 해’ 라고 판단하고 한국어의 수준을 평가하는 등 어머니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때 아래의 사례에 나온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를 학교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개입한다고 느낀 것이고, 실제 한 개인의 언어적응의 문제는 국가나 단체가 나설 문제는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이러한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면접원: 어머니들 교육은 어떤 거 하나요?

M-6: 저기 어디 가서 애들이나 대화법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시간이 없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내해주니깐... 중학교에서도 따로따로 몇 번씩이나 전화 주셨으니까 갔는데 머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비가 갑자기 와서... 어떻게 할지 저쪽에서도 모르고... 머... 그냥... 머 때문에 시간 내서 갔는데... 대화법도 그렇게 안하고... 사람이 모자라다고... 일반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15년이나 있었는데 한국말 잘 못하시네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됐었고... 다른 몇 명 있었어요. 다문화가정 엄마도 있었고, 다문화가정 아닌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그러면 하질 말든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깐... 그렇게 안내까지 할 필요가...

면접원: 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겠네요...

M-6: 그러니깐... 다문화가정이라고... 사람들이 구경꺼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뿐 아니라 지원의 배경이 되는 철학과 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이유가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인지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어떤 근거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문화가족의 입장과 보다 인권중심적 시각에서 지원의 철학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8) 지원프로그램의 부적합성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 구성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다 보니 한국어가 전혀 문제없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일도 생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례에서는 한국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사례이나 사실상 한쪽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 5학년까지 성장하면 한국어 교실을 다닐 수준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한국어교실로 구성하고 멀쩡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아이에게 한국어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이가 한국어를 잘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해달라는 전화와 문자를 하는 것은 수요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사업의 실적을 위해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면접원: 학교에서 혹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요?

M-1: 작년까지 없었어요. 올해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어 교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두 번 왔었어요. S-1이 다문화가족 되어가지고 요즘 행사들도 많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애들 몇 명 없는가 봐요. 한국어 교실 그렇게 막 해가지고...

면접원: 한국어 교실? 그거 S-1 한테 전혀 해당이 안 될 텐데...

M-1: 예. 그리고 우리 S-1이 그 선생님 한번 만나봐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S-1이 하는 얘기가 “저 한국말 잘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며칠 센터에서 전화 오니까... 이제 다문화가족 그거 할라 그러니까 몇 명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좀 해 달라고 계속 전화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 한번 해 가지고 S-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애가 한국말 자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잘 하죠. 한국어도 잘 하고 글도 잘 쓰고... 그거 해 가지고 제가 일단 저희 아저씨하고 상의 해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얘기 했는데... 또 전화 와 가지고 일단 해보래.

면접원: 한국어 교실은?

M-1: 그래서 어제도 엄마들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쉬는 날 돼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S-1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이모들 다 있으니까 한번 애가 얘기해 보래. 왜 그러냐면 “엄마 나 여기 한국어 교실 안 다녀도 되지 않아?” 라고...

면접원: 아 당연하지. 이거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교사가?

M-1: 아뇨 다문화가족에서 하는데 어떻게 한국어 교실에서 어떻게 선택해 가지고 하는 가봐요.

면접원: 아 이거 학교인 거 같애. 학교에서... 학교에서 사실은 예산이 오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런데 무조건 다문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어 교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 S-1 같은 경우엔 할 필요가 없지 이게.

M-18: 다문화가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한국어를)유창하게 해요... 사실 처음에 다문화가정을 선택했었을 때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서 자란 아이다... 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외국 국적으로 가진 아이다... 그렇게 인식해 있기 때문에 한국말 공부라든가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런 문화는 우리아이들은 한국 사람이예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자각하고 있고... 그런데 한글교육 그런 거를 시키다 보니깐...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부적절성은 한국어교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사들이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무조건 사용하도록 하는데, 청소년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이 나왔다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여주고 저녁식사를 하는 등의 형식적인 ‘돈쓰기’ 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교육청에서 중점사업으로 자랑하던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직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멘토링을 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담임교사가 멘토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같이 뭔가를 하라고 하니 아이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편리한 일회적 활동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도 미안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교사도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하고 학부모도 기분 좋지 않은, 그러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의 프로그램이 과연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M-6: 지난 달인가? ○○한테도 8만원인가 나왔네요, 그걸 써야 대데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영화관 데려가서... 영화 한편 보고 저녁식사 같이 먹고 책 하나 사주고... 그래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쪽의 의견도... 들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8만원 나온다고 해준다면... 급하게 이용하고 가야되는구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일단은...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돈 나왔다고 그렇게 나라에 나오는 돈을...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같고...

면접원: 아, 그럼 ○○도 S-6랑 같이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건가요? 학교가 같으니깐..?

M-6: 네, 아마 S-6도 그런 거 올 꺼 같아요, 8만원 나오는 거,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요? 선생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면접원: 그럼 그런 돈은 어떻게 쓰면 ○○를 위해 쓴다면 더 좋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M-6: 계속 뭔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에 써줬으면... 밥 먹고 영화보고 그런 식으로 쓰지 말았으면...

면접원: 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또 하나는 저소득층 대상 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멘토링의

문제로 대학생이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멘토링이 가장 흔한 프로그램인데, 대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멘토링의 효과도 없고 학습지도로 인한 학업능력 향상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급자 쪽에서 먼저 참여해달라고 해놓고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은 아무런 연락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학생이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했다가 내키지 않으면 쉽게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대학생의 멘토링은 크게 반기지 않는다. 차라리 성인 전문 교사가 해주거나 학원비를 직접 지원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M-6: 아니면 저번에도... 다문화가정에서... 멘토링 그거 있다고... 대학생 와서 공부 가르쳐 주고... 일주일 한 번 가르쳐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오다가... 학생이 바쁘다고... 다른 선생님이 온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연지도 2명 신청했다가 둘 다 그래서 연지도 중간에 그냥 끝나 버렸어요.

면접원: 좀 더 제대로 되면 좋겠네요, 이왕 해줄 거면?

M-6: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좀 마무리가... 하하. 아니면 다문화가정 말고도 다문화가정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공부도 많이 시키고... 엄마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기 돈 내도 엄마도 없이 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깐 그쪽에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다문화가정이라고 뭐 안 해줘도 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상의 문제들은 수요자의 욕구나 현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한번 정해진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모 역시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요자의 욕구를 조사해서 기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 는 데 의의를 두고 실행하기 쉬운 방식으로 별 고민없이 사업하다 보니 실제 다문화가족의 현황이나 요구 등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면접원: 그런데 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은 배려가 없다거나, 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쪽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M-13: 사실 그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딱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관심을 두면서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혜택이 오면 좋지만, 혜택이 안 오면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도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좀 많은 바람이 있다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진짜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가정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뭐 그렇게 맞춤 도움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9)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받는 것은 좋지만 주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역차별 논란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다문화를 타겟으로 하는 지원들이 있다 보니 한국의 저소득층은 오히려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여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상대적 박탈감 또는 차별의식을 지니고 다문화가족을 보다 보니 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학교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한 것에 대해서도 왜 다문화 애들만 신경쓰냐고 선생님께 항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본인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과 관심을 한국 어머니들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M-14: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 아닌 애들이 많이 섭섭해 해요. 또 다문화만 다문화만... 엄마들도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보가 느리고 그 가르치는 것 자기나라 애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그 예법도 잘 안되고... 그래서 선생님 상담하러 가면 또 엄마들이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생님을 공격하셔요. 그 왜 다문화 엄마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가르쳐 주냐고. 그 왜 다문화 애들만 그렇게 보살펴주고 야단을 안치냐고... 그 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학교에서 항의가 오니까... 어머님 좀 죄송하지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나 한국 가정 중 저소득층이 똑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들 역시 불편하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아이에게 특별한 시선이 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 한국가정 출신 아이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M-18: 정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 엄마들은 부러워하는 엄마들도 있죠... 그 간식비 주고... 교육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깐... 근데... (한국가정의 경우)자격이 안 돼서 못 배우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애는 다문화 가정이니깐... 개네는 다문화 가정 아니깐... 여기서...(갈등이) 생기는 거예요.(중략) 아이들도 아이들한테도 그런 시선이 가고, 엄마 그렇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시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조금 따로 교육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5.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를 심층면접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써 자라나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좀 더 성장하여 자아정체성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자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스스로에 대해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둘째,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부모나라의 중간쯤에 속하는 중간적 존재 또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평소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이중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자신들이 뭔가 한국가정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들은 한국어가 아닌 부모나라 말을 이중언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나라 말이고 아이이므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제 2외국어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한국아이들에 비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뭔가 다른 종류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다른 한국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문화’로 분류하고 원하지 않는 또는 청소년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매우 황당한 지원을 억지로 받으라고 하기도 하는 등의 이상한 취급에서 주류집단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다섯째,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방향성과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대상자의 요구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질적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특성으로 1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경기지역에 한정했으며, 국가별 할당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본인과 중국인 어머니들이 많이 표집되었기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올 해는 질적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연구였고,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여 심도 깊은 질적연구를 계획하고자 한다.

제 V 장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분석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3. 요구분석의 결과
4. 소결

제 V 장¹¹⁾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분석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지원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 및 의견수렴에 근거한 사례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지원대상에 대한 객관적 조사나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및 일반적 인식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지원되어 왔다. 그 결과 현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방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비(非)다문화가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증가한 다문화가족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서구 유럽 등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를 경험한 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빠른 대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결과 실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신속한 대처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사업들을 타당한 근거에 의해 정리하고 발전된 방안을 모색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올바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지원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가족 이외에도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에 대한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요구 및 관련자들의 시각 등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5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단, 3) 설문조사 중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분은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본 장의 요구분석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FGI, 개방형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어머니,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요구도 및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분석하였다. 요구분석의 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V-1 요구조사의 조사대상, 방법 및 내용의 요약

방법	대상	내용
FGI	청소년(14명) 어머니(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 수혜 경험 및 정도 ■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경험 ■ 지원에 대한 태도 ■ 지원의 적정성 ■ 지원 내용의 요구 부합성 ■ 기타 바라는 점
	교사(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도경험, 다문화반 운영경험, 다문화연수 경험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 효과성에 대한 지각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수혜자의 반응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
개방형 설문조사	현장전문가(14명) 공무원(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 사업 수립 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요구조사여부, 요구반영 절차 ■ 해당 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 다문화 관련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생각 ■ 다문화 관련 예산의 적합성
구조화된 설문조사	청소년(1,503명) 어머니(1,486명) 교사(30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되는 지원내용 및 중복성 ■ 제공되는 지원의 적합성 ■ 제공되는 지원의 도움 정도 ■ 지원에 대한 태도 ■ 원하는 또는 필요한 지원내용 ■ 향후 바람직한 지원의 방향

요구조사의 각 방법과 대상 및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FGI(Focus Group Interview)

(1) 조사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의 경우 2011년도 다문화패널에 참여한 가구 중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7가구를 선정하였는데, 2012년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한국갤럽 회의실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가한 대상자들을 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출신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등이었고, 어머니의 직업도 강사, 전업주부, 공장노동자, 식당종사자 등 다양하였다.

표 V-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FGI 대상자

자녀	어머니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직업	학교명
백○○	마○○	러시아	전업주부	○○초
김○○	모○○	일본	일본어 강사	○○초
김○○	이○○	일본	일본어 강사	○○초
안○○	김○○	중국(조선족)	식당	○○초
함○○	왕○○	중국(한족)	핸드폰 제조회사	○○초
이○○	하○○	필리핀	공장	○○초
양○○	정○○	한국	전업주부	○○초

교사집단의 경우 역시 2011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교사들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교사 6명으로 구성하였고, 작년에 다문화업무를 담당하였거나 올해 다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 구성을 하였다. 2012년 4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국갤럽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성별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교사는 한 명이었고 나머지 다섯 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표 V-3 교사 FGI 대상자

교사	성별	연령	지역	비고
박○○	남	38세	서울 ○○초등학교	작년 다문화 담당 교사
가○○	여	61세	서울 ○○초등학교	작년, 올해 다문화 담당 교사
윤○○	여	51세	서울 ○○초등학교	작년, 올해 다문화 담당 교사
김○○	여	40세	부천 ○○초등학교	다문화 담당 업무 5년째, 현재 담임도 함
최○○	여	40세	광명 ○○초등학교	작년 다문화 담당 교사, 반에 다문화 학생 있었음
김○○	여	33세	하남 ○○초등학교	작년 다문화 담당 교사, 반에 다문화 학생 있었음

(2) 조사 내용

FGI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에 대한 태도, 바라는 내용,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에게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받은 지원,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기분, 지원의 도움 정도, 학교를 통해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공 받았는지와 그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학교를 통한 지원과 학교 이외의 기관을 통한 지원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바라는 지원의 내용,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및 혜택의 도움 정도, 다문화가족 대상지원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반응, 다문화가족 지원 및 혜택의 전달 방식,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방식에 대한 생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표 V-4 FGI 주요 내용

대상	FGI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받은 지원 ■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기분 ■ 지원의 도움 정도 ■ 학교를 통해 지원을 받았을 때, 제공 방식과 친구들의 반응 ■ 학교를 통한 지원과 학교 이외의 기관을 통한 지원에 대한 선호도 ■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향후 희망하는 지원 ■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및 혜택의 도움 정도 ■ 지원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반응 ■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전달 방식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방식에 대한 생각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방향 ■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

2) 개방형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조사는 전국 시도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다문화가족 센터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각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였다.

(1) 조사대상자

개방형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시도청의 담당자 총 13명, 교육청 담당자 13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현장전문가 14명 등 총 40명이었다.

표 V-5 개방형 설문조사 대상자

기관	참여지역
시, 도청(13인)	강원도청, 경기도청, 경북도청, 경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교육청(13인)	강원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울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센터(14인)	강원춘천, 경기가평, 경남,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목포시, 서울시, 서울영등포, 안산1, 안산2, 울산남구, 인천남동구, 청주시, 충남서산

(2) 조사내용

개방형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현재 각 담당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 수립 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요구조사를 하는지 여부, 해당 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다문화 관련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생각, 다문화 관련 예산의 적합성, 다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등에 대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V-6 개방형 설문조사 내용

개방형 설문조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담당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 사업 수립 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요구조사여부, 요구반영 절차 ■ 해당 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 다문화 관련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생각 ■ 다문화 관련 예산의 적합성 ■ 다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3) 구조화된 설문조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의견수렴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기 앞서 사전적으로 다문화가족 패널 중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받은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의 도움 정도, 희망하는 지원이나 혜택 등에 대하여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 산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문지 항목을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자

요구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패널설문 참여자 청소년 1,503명과 그들의 어머니 1,486명, 교사 306명으로 앞의 5장에서 분석한 대상과 동일하며, 패널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관련 요구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구조화된 설문내용으로는 제공되는 지원내용 및 중복성, 제공되는 지원의 적합성, 제공되는 지원의 도움 정도, 지원에 대한 태도, 원하는 또는 필요한 지원내용, 향후 바람직한 지원의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에 전화조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이었다.

3. 요구분석 결과

1) FGI 결과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어머니

① 지원받은 내용

우선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내용이 학습지원이었고, 그 외 스케이트장이나 놀이공원과 같은 외부 체험활동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공연관람이 있었으며, 책이나 문구세트를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물적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히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대상 지원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들의 심리적응이나 자아성장 정체감형성 등의 교육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V-7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내용

영역	프로그램 내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지원(피아노, 컴퓨터 등) ■ 1주일에 1권씩 방과 후에 책 만드는 프로그램 ■ 구청에서 씩크빅 학습지 지원 ■ 다문화 영어 강의 ■ 어떤 재단의 후원으로 1년간 눈높이 교육 지원 받는 것 본 적 있음 ■ 1:1 대학생 멘토링 : 영어, 수학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이트장 ■ 롯데월드 ■ 키자니아 직업체험(1달에 1~2회) ■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영 가르쳐줌 ■ 2박 3일 경주 다녀옴(구청 지원)
공연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타공연
물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책 지원 ■ 문구세트

② 지원받았을 때의 느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기분에 대해 물었을 때 FGI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무조건 좋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본인들이 가정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각종 체험활동이나 학습지 지원, 놀이공원이나 캠프 참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경우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노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은 좋지만 학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있었고, 밖에서 노는 활동도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들의 경우 특히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고, 학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단순한 학습지 지원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고, 대학생 멘토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지원을 받는 경우 다문화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지만 가정으로 와서 1:1로 지도를 할 경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을 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지원을 원하나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때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종이에 써서 다른 아이들이 모르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되어 원하지 않게 다문화가족임이 드러나고 이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여 학교에서의 지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희망하는 지원 내용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지원을 받고 싶는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는 주로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등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 반면,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체험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원하였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경우는 단순히 아이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는 가정방문을 하여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것은 싫고 가정방문한 선생님과 같이 놀 수 있는 경우에만 멘토링 등 방문지도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여 부모와 아이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때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일반가정에서는 당연히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다양한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경우 한국 어머니들의 사교육 관련 정보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V-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지원 내용

대상	내용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도와 관련된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사회, 국어, 영어 학습지 같은 것 많이 가르쳐 주었으면 함 · 어려운 과목에 대한 보충이 있었으면 함 · 사교육비 해소가 필요 · 6개월 정도씩 해서 학습지도 과목을 로테이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아이가 집에서 혼자 풀 수 있는 참고서 ■ 아이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미술, 춤 등 · 방과 후 수업이라면 비용 지원 필요 ·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원, 놀이동산 등 · 동물을 만지고 키워보는 활동 ■ 다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 · 각 나라 문화공유 ■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으면 함

④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 결과,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인맥이 넓은 경우에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참가할 기회가 많아지며, 참가하고 싶어도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다 보니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안내 및 홍보가 보다 광범위하고 접근가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이나 혜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고 학교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지원 받는 내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보다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교사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과거 진행되었던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지원, 체험학습, 공연관람, 물적지원 등은 청소년과 어머니가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였고, 그 외 직접적인 예산지원과 이중언어프로그램의 지원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사업도 있었다.

표 V-9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지원 영역	내용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선생님이 시간당 2만원에 총 10시간의 학습지도 ■ 봉천 YMCA에서 수업을 3시간 해 줌 ■ 17만원씩 바우처로 방과 후 수업 진행 ■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받음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 2명인데 학교 재단에서 120만원 보조 나왔으며, 교육청에서 40만원 지원 ■ ○○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17만원씩 바우처 지원 ■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300만원 지원
이중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강사가 파견되었으나, 다문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음. 1~6학년까지 연간 8시간씩 학급별로 다문화교육 진행, 담임과 같이 팀 티칭으로 꾸려나감. 6학년은 아침활동시간에 중국어 회화 배움 ■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이 일정 시간(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900시간)교육 받은 후 파견
인식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수업이 각 교육과정에 들어있어 다문화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를 함(전체학생 대상) ■ 음악 교과에도 세계 여러 나라 음악 소개 있고 미술이나 국어도 마찬가지임. 담임이 자율적으로 다문화학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성격의 수업할 수 있음 ■ 큰 틀은 내려오되 세부적인 계획은 학교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진행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쯤 되면 다문화가족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었음. 예)떡국 만들기
공연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연극 관람
물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지원

② 지원의 문제점

이러한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교사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첫째로 교사들은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중언어교육의 본래 목적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 말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해당 학교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강사가 파견되어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아이들이 배우거나 신청자가 없어서 교사가 대신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는 등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 내용도 체계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데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놓고 반마다 강사가 들어와서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친다기 보다는 이중언어강사의 양성이라는 인력창출이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이중언어 강사의 학교 파견 목적이 국제이해교육인지 실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어머니나라 또는 아버지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한 학교에서는 이중언어학교를 주말학교로 구성하여 5년 동안 운영을 하였는데, 한 학교를 거점으로 일본어반, 베트남어를 지도하도록 하고, 국제 말하기 대회도 열고 어머니를 위한 한글교실, 학생을 위한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중언어학교 운영 결과 어머니, 학생 모두 같은 국적끼리만 어울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같은 반에서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둘째, 다문화프로그램 결과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볼거리 위주의 다문화교육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이 ‘부탄은 늘 저런 바구니 매는가?’ 라고 말하며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내어 역효과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다문화교육의 경우 사실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교육의 내용도 부적절하여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부의 행사나 캠프, 체험활동 등의 행사 중 많은 프로그램이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막상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참석하지 못하고 운택한 가정의 참석률이 높아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음을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들이 수요자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기획되었음을 나타내었다.

③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반응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에 대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공짜를 바라고, 지원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러한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청소년들이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청소년도 있는 반면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특히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들이 다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도 절대 비공개로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직접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 반에 다문화가족 출신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라고 하였다.

표 V-10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반응

대상	내용
청소년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투덜투덜 거리는 아이들 있으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공짜를 바라는 경향 ■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다문화인 것 드러내기 싫어함 ■ 본인이 다문화인 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감추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음
어머니들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반기는 부모도 있는 반면, 극도로 싫어하는 부모도 있음(예, 부모가 바빠서 해 줄 수 없는 체험학습 등을 해 주니 좋아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다문화로 분류가 되어 지원 받는 것을 싫어하며 절대 받지 않겠다는 부모도 있음) ■ 일부 다문화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형식적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함. ■ 본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 강제 동원되는 경우도 많음 ■ 사회적으로 비하의식은 만연해 있는데 다문화라고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이게 노력으로 보여야 하나 관청의 담당 업무가 됨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음 ■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소수의 운택한 가정의 이야기

부모들의 경우는 지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기는 부모도 있는 반면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본인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다문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 다문화가족 당사자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지원의 내용도 형식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지원의 방식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④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로 다문화가족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분류한 후, 요구수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며 결혼의 방식,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교육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아니라 각 가정별로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단위의 교육이 필요한데, 교사들은 어머니들 대상의 교육 뿐 아니라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버지가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다양한 아버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물론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하면 좋지만 사실상 한국어가 부족할 경우 학교에서의 교과목을 따라갈 수 없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성장할 아이들인 만큼 한국어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적응 및 발달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학교교육에서 보조교사 지원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 교사는 재량활동 시간에 보조교사를 붙여주었는데 하나도 못하던 아이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지만 효과를 보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습이 부족한 경우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FGI 결과 요약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학습지원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아이는 흥미위주의 체험활동을 원함 ■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지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음 ■ 지역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매우 다름. ■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람 ■ 원하지 않는 지원에 대해 강제동원 되는 문제 ■ 지원은 몹시 원하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원받는 것은 거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언어교육의 실효성 및 목적부합성에 의문 ■ 한국어 능력 강화가 더 시급함 ■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 ■ 골고루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 ■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이라고 모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부족한 가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함.

2)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1)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방형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시,도청 및 교육청, 다문화가족 관련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세 종류의 기관에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학습지원, 캠프, 이중언어, 한국어교육, 멘토링, 글로벌브릿지 사업, 방문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기관별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게 요구조사를 했는지 질문하였는데, 하나의 사업이 일단 결정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하거나 일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다문화가족 당사자들 대상의 요구조사를 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시도청, 교육청, 다문화가족관련 센터에서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시, 도청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캠프	가족캠프, 가족한마음캠프	가족사랑 캠프, 다문화가족 한마당 캠프 운영, 문화체험 캠프, 방학중 집중캠프,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음 캠프, 글로벌 리더쉽 캠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여름캠프, 여름방학 맞이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여름집단캠프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교육지원, 교대생과의 멘토, 멘티사업으로 방문교육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사업, 다문화가족 멘토링제, 또래친구 및 1:1교사 결연 프로그램 운영, 사제동행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가족 멘토링, SNU 온라인 멘토링 사업(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언어영재교실, 엄마 나라말 경연대회, 이중언어교실 운영, 이중언어대회	이중언어강사 배치, 이중 언어 교수요원 지원, 이중 언어 교재 개발 보급, 이중 언어 프로그램, 이중 언어 캠프,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	언어영재교실
학습지원	원어민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방문교육사업, 학습 및 정서지도 지원, 검정고시, 학습지방문지도, 자녀생활서비스	기초학력 프로그램운영, 기초학력신장 드림교실,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학습지도, 방문교육 사업
심리적응	부모자녀교육 및 상담, 심리·상담프로그램, 학교생활 부적응지원, 인성지도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인식개선 사업, 인지정서능력증진 프로그램	상담 및 진로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지원네트워크, 정체성 프로그램	전문상담지원, 부모독서치료 교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진로	직업교육, 진로상담	다문화가정 학생 직업교육	-
한국어	한국어교육, 한글학습지원 언어발달지원	한글 교육 지원, 어휘력 신장 프로그램, 언어치료, 한국어 교실, 한국어교재 발간, 한글해독 프로그램	언어발달지도사업
문화체험	한국문화체험	우리문화 체험학교, 우리문화탐방, 전통문화이해 체험학습, 부모나라 문화탐방, 토요일 문화체험프로그램, 부모고향 방문 프로젝트, 국토순례, 연합체험학습	다문화 초등학생 자녀체험 프로그램, 경찰체험, 소방체험, 난타교실, 아동경제교실, 한국문화체험
특기적성	특기적성	스포츠 역량 계발, 뮤지컬연극 지도, 합창 지도	바이올린교실, 음악교실, 악기강습, 어린이합창단

그 외 기타 사업으로 시도청의 다문화가족 기금조성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거점학교 또는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학부모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의 문제점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공무원과 현장전문가가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화된 업무추진체계의 필요성이다.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고,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지원에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시도청의 의견으로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어도 이를 홍보하는 방법과 추진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지원대상의 제한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더불어 모든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초등학생 자녀 또는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중고생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지원사업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지원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수준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해줌에 따라 저소득 비(非)다문화가족이나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적 지원의 폐해는 일부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지원에 익숙해져서 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보다는 부정적인 태도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지원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도 많고, 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만 따로 분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토로하는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섯째는 예산의 문제로 어떤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체예산을 통해 다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기관은 중앙 정부부처에서 내려오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불안정하여 시도차원의 예산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 각 사회복지단체나 정치적 지원확대에 따라 무차별적 지원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다문화가족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지원실태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여섯째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다문화사업이 주로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나 사실상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교사들의 경우 전문적인 다문화교육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교사대상 다문화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시행에 있어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집합교육이 어렵다는 의견,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지만 학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 학교와 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기관에서 케어하기 어렵다는 것, 집합교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각 가정으로 활동가를 파견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여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과 학교순회 다문화이해교육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서비스는 주로 멘토링이나 심리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산만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으나 학부모들의 관심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주제	내용
일원화된 업무추진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한 곳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여러 곳으로 산재해 있고 연계체계가 미흡함 ▪ 다문화관련 예산 중 자녀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간의 조정이 필요 ▪ 지자체와 다문화센터의 소통부족으로 사업이 중복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 실태파악이 어렵다
대상의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이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 ▪ 중고등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편견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원 사업을 많이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등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
일률적 지원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저소득 일반가정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의 역차별 제기 ▪ 다문화가족에서 공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음 ▪ 수혜적인 것에 익숙해져버림(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보다는 부정적이고 불만족해 함)
예산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으로 차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 ▪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속적이지 않아 불안정함(인건비의 경우는 지원이 안되기도 해서 시도의 예산부담이 큼) ▪ 기관, 각 사회복지 단체, 정치적 지원확대 등에 따른 무차별적 지원이 난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주를 이룸 ▪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부족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시행에 있어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교육도 어려운 실정임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지만 학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 ▪ 학교와 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기관에서 케어하기 어려움 ▪ 집합교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성이 부재, 각 가정으로 활동가를 파견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서비스는 주로 멘토링이나 심리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복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무원과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들이 중복의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선에서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중복되는 업무영역도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무청리 산하의 다문화위원회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복의 문제는 있지만 점차 사업의 정비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는 정리가 되고 일원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는데, 많은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에 속하기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특정기간(방학) 사업 추진시 다문화학생을 서로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쇼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기 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하는데,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도탈락의 비율이 높고,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화로 진행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은 역차별 논란이 있으므로 다문화, 탈북, 저소득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면 역차별의 논란없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 의견은 위의 의견과 약간 상반된 시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중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서비스 수혜자의 수는 적으며 중복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는 너무나 열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원의 중복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지원의 편중성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적극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도 있어서 특정한 대상만 지속적이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다문화가족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지원을 줄일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 중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으며, 각 기관, 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의 유사한 사업들이기에 겹에서 보기에 중복되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일뿐이라는 것이다.

표 V-1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각 부처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국가의 외국인 정책위원회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부처간 의견 교류를 계속하면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 사업 초기 대상자가 중복적으로 진행되었던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중복서비스 이용 제한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간 조정은 가능하나, 민간단체 지원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됨 ■ 중앙부처의 업무가 크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져 있어 일선에서 행정하는데 애로가 많고 중복되는 업무영역도 많은 실정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필요. ■ 중앙 8개 부처, 재단, 사회공헌기관 등으로 부터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 중복사업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총괄부처를 지정하여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자녀사업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이중 언어사업(언어영재사업) 중복사업이 있어, 예산낭비 등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조정이 필요함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 신청 접수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대상자의 중복을 걸러낼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거점이나 허브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면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부 기관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음 ■ 교육청 부서별, 유관기관과의 중복적 행사와 지원이 많음, 다문화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너무 산재해 있음.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기관이 필요하고 또는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함. ■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는 중앙부처 간에서 사전 조정이 필요함. 각 부처의 주관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다보면 다문화가족 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 없음. 가족생활 자체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제	내용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8개 부처 및 각 광역, 기초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국무총리 산하의 다문화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 여러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다 보니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점차 사업정비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중복지원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에 속하기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음 ■ 역차별 논란이 있으므로 다문화, 탈북, 저소득 구분하지 말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면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좋은 듯 함 ■ 필요대상자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 10년이 넘은 결혼이민자들은 이미 기정착한 결혼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프로그램 및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무료로 역량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참여하여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함.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도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비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음.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유료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 요즘 다문화인에게 “쇼핑”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사업이 이슈화 되면서 보여주식 행사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중복된 사업은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현장의 실무자들도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마치 복지쇼핑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지원되는 것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함 ■ 특정기간(방학) 사업 추진시 다문화학생을 서로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함
지원의 지속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서비스 수혜자는 적음 ■ 중복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는 매우 열악하여 지원정책 필요 ■ 지원의 중복성도 문제지만 지원의 편중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까지 다문화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별로 느끼지 못하였음 ■ 학생·학부모들의 경우 학생에게 맞는 사업을 선택하므로 초기에 중복성이 있어도 선택은 학생·학부모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각 기관, 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로 다문화가족에게 불편함과 집중성 저하시킴 ■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상과 참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으로 극명하게 갈림. 수혜대상은 계속적이고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함.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예산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입장으로 분류되었다. 첫째로는 다문화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원스톱 창구로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둘째는 현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셋째는 현재의 예산을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는 예산이 단순히 많거나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필요하게 남기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정하게 분배되어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V-1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예산에 대한 의견

주제	내용
예산통합 및 창구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집행 되고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함 ■ 예산편성 시 원스톱창구로 지원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늘리되 장기적인관점의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센터별 운영 예산 등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변화하는 여건 및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착지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 다양성을 공존, 상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예산증가가 필요 ■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족에 많은 관심으로 예산이 집중되었으므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문화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학력격차, 문화이해도 등)에 대한 투자는 늘여야 한다고 보나, 선심성, 전시용, 홍보용 행사는 지양되어야 함 ■ 일부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초등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에서 중고등학교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배경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예비학교의 확대, 다문화가족의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교육 기반 교육지원체제 구축, 교사 연수의 확대, 일반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등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제	내용
예산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성패 여부는 정책적 제도적 측면도 중요 하지만 일선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역량강화 및 인성과 애정에 달려 있으므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성 및 직무교육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다문화 인구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사회적 배려 등 차원에서 당분간 예산을 늘려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봄. ■ 다문화 관련 예산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으리라 생각됨 ■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움
예산축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다문화 관련 예산이 201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음. '여성가족부의 2012년의 예산은 70억 정도로 적정하다고 생각됨 ■ 예산의 축소 운영이 필요. 다문화가족에 일방적 무의미한 지원은 필요치 않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써야" 하는데 힘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적절한 예산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관련 예산의 주된 항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임. ■ 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으로 공공건물이 있어야 하며, 사업 담당자 인건비도 현실화해야 함, 프로그램 지원비가 많다보니 상근직원들의 업무량만 과다해져 이직율도 높음 ■ 다문화가족관련 예산은 우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교육, 자녀의 정체성 발달 및 자긍심 향상교육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봄 ■ 기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 폐지 등 사업 재편이 필요함. ■ 인프라 확충 등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은 필요. 단 일회성 행사성 사업 등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 다문화센터같은 경우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 예산의 80%이상이 인건비이며, 나머지 금액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 모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지자체에서 일회성 다문화행사에 투입하는 예산이나 정부 부처별 중복사업에 들이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잘 분배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문화사업에 투자하면 좋겠음. 앞으로의 다문화사업은 자녀가 주요 초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함. 예산을 현상유지 한다고 해도 지혜롭게 예산 분배를 했으면 함. ■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을 관행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제적인 도움과 일반학생, 가정의 이해교육을 도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시도별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많은 반면 강원도의 경우 농산촌의 국제결혼가정이 많으므로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각자 다를 것으로 보임

주제	내용
적절한 예산운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분배 부분에 있어서 조절 필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아 그 예산을 소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이 너무 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다문화가족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 (예)한국어능력 부족, 학습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 개인별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함) ■ 다문화관련 예산은 다문화가족현황에 대비하여 늘거나 줄여야 함. 다문화가족이 급증했던 지난 몇 년간 지원대상이 계속 바뀌어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중심에서 다문화가족, 현재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비다문화가족까지 정책대상이 됨

(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위한 향후 개선 및 발전방안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자체나 다문화교육 유관기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을 하되 방학 중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주관을 한다든지 등등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예산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현재 유아에서 아동으로 넘어가는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문화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예산과 담당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위에서 예산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정책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일반청소년과의 통합적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현재의 청소년정책으로 접근하면 될 문제를 굳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대책이라는 별도의 정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분리하여 선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이들의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정책에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그러한 면에서 정부, 기업,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넷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지나치게 도시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현재의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도 맞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기도 한다.

다섯째로는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이나 현장전문가들의 경험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확실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지의 문제일 뿐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족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이탈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제공되고 있는 각종 재단, 민간단체 등의 백화점식 행사, 지원책은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여섯째는 일반 다수자들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현재에는 다문화정책이 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일반적인 수용성 제고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교사, 일반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대상의 전문적 연수의 필요성과 일반인들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선행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제	내용
사업추진 체계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학교로서,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정책이 한 부처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책 수립이나 계획시행 시 좀 더 효율적일 것임 ■ 중복되는 사업의 일원화 (지자체, 다문화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학기간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시행)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일관된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 필요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아들이 아동으로 넘어가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이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치료프로그램조차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과부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지원 필요 ■ 예산을 확대하여 인원을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자체예산 추가 확보 곤란 ■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이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의 정책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책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음 ■ 청소년 대책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을 따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초래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지원도 확대해야 하고 병행해야 한다고 봄.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 분리하기 보다는 일반청소년과 병행하여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만 보고 지원책을 실시한다면, 그들이 한국사회로 통합되기 어렵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사업개발이 아닌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함 ■ 일반학생과 통합적 교육, 합리적 시책, 균형적 지원 필요 ■ 통합지원 : 부모·학생의 가정·학교 환경의 분석을 통한 학부모교육, 학생 지원 등 ■ 지원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시민단체나 외부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진행을 반대하기도 함)
맞춤형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 인성, 문화, 학교적응, 진로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필요 ■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언어치료, 상담치료, 한글지도 등) ■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함. 학부모의 배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반드시 필요함

주제	내용
<p>맞춤형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정책이 도시형태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편이므로, 농산어촌에 산발적으로 소수가 널리 분포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집중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 ■ 지역별 사업 진행을 독려
<p>지속적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양성 교육과 학교 내 다문화교육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점층이 예상되는 중, 고, 대학생 등 청소년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동반 캠프 프로그램 개발, 동년배끼리의 1:1 멘토링 시스템의 개발 및 시행. ■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 필요 ■ 다문화가족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보조교재를 각 나라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예) 각 나라 언어로 된 학교생활 길라잡이 ■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학비 지원보다는 멘토 대학생 연결, 좋은 학습강사 연결이 더 필요함.
<p>지속적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가정살림 및 기타이유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하여 온라인 기반 교육지원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책을 연구하여 일관되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그들의 이중 언어 활용능력이나 글로벌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다문화가족이어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이 필요 ■ 그러나 각종 재단, 민간단체 등의 백화점식 행사, 지원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봄
<p>다문화 이해교육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향후 문제 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일반적인 수용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 필요) ■ 교사들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 교육, 일반 학생 및 학부모의 다문화 감수성교육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족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 ■ 일반학생, 일반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식개선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함 ■ 일반학생, 일반학부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대폭확대(집합연수 및 사이버 연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지역주민 및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대상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시, 도청 및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사함.
-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 탈학교 청소년이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음.
- 모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되, 일반 저소득층과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집단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일원화된 체계 내에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의 증감이 아니라 예산의 적정한 집행임.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욕구와 필요에 맞게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함.

3) 구조화된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 대상 요구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중복적으로 제시받거나 참여한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의 방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¹²⁾.

우선 첫째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4학년 이후로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의 68.8%에 해당하는 1,034명이었고,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469명(31.2%)이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626명, 71.1%), 2분위(312명, 68.3%)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4분위(24명, 57.1%), 5분위(11명, 57.9%)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2) 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들은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V-16

다문화가족대상 지원 경험: 청소년

빈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예	626(71.1)	312(68.3)	58(58.6)	24(57.1)	11(57.9)	1031(68.9)	10.83*
아니오	254(28.9)	145(31.7)	41(41.4)	18(42.9)	8(42.1)	466(31.1)	
전체	880(100)	457(100)	99(100)	42(100)	19(100)	1497(100)	

* $p < .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은 지원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의 문화체험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1명(1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 수업료 396명(16.4%), 대학생 멘토링 318명(13.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 관람 299명(12.4%), 놀이공원 방문 238명(9.9%), 급식비 160명(6.6%), 책이나 학용품 등의 물적 지원 129명(5.4%),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23명(5.1%)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각종 캠프 참가 지원 5명(0.3%) 외에도 엑스포 방문, 중고등학생 멘토링, 우유비 지원, 인터넷 이용료 지원, 학원비 지원, 현금 지원, 외국인 부모나라 방문, 크리스마스 파티, 전국체전 성화보송, 공부방 지원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표 V-17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중복응답)

구분	빈도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441(18.3)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396(16.4)
대학생 멘토링	318(13.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99(12.4)
놀이공원 방문	238(9.9)
급식비 지원	160(6.6)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29(5.4)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23(5.1)
학습지 지원	104(4.3)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52(2.2)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2(2.2)
이중언어교실	34(1.4)
한국어 교육 지원	23(1.0)
기타	41(1.7)
합계	2,410(100)

4학년 이후에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 해에 여러 번 중복되어 지원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러 번 중복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38명(71.4%)이었으며, 한 해 동안 같은 종류의 지원을 여러 번 중복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96명(28.6%)에 달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 해에 여러 번 중복되어 지원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해에 여러 번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예	177(28.3)	93(29.8)	17(29.3)	5(20.8)	3(27.3)	295(28.6)	.99
아니오	449(71.7)	219(70.2)	41(70.7)	19(79.2)	8(72.7)	736(71.4)	
전체	626(100)	312(100)	58(100)	24(100)	11(100)	1031(100)	

한 해동안 같은 종류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시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 132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이 85명(15.7%), 대학생 멘토링 78명(14.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 관람 51명(9.4%), 놀이공원 방문 44명(8.1%), 급식비 지원 41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부방 지원, 독서 및 역사논술 등의 프로그램 지원, 학원비 지원, 현금지원 등이 각각 1명씩 있었다.

표 V-19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시된 지원 내용(중복응답)

지원 내용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32(24.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85(15.7)
대학생 멘토링	78(14.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51(9.4)
놀이공원 방문	44(8.1)
급식비 지원	41(7.6)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2(5.9)

표 V-19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시된 지원 내용(중복응답) (계속)

지원 내용	빈도(%)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4(4.4)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4(2.6)
학습지 지원	13(2.4)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1(2.0)
이중언어교실	8(1.5)
한국어 교육 지원	3(.6)
기타	5(.9)
합계	541(10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지원의 종류는 방과후 수업료가 126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74명(14.9%), 대학생 멘토링 71명(14.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45명(9.0%), 급식비 지원 38명(7.6%), 놀이공원 방문 35명(7.0%), 책, 학용품 등 물적지원 29명(5.8%)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부방 지원, 독서 및 역사논술 등의 프로그램 지원, 학원비 지원, 현금지원 등을 지원받았다고 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표 V-20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받은 지원 내용(중복응답)

지원 내용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25.3)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74(14.9)
대학생 멘토링	71(14.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45(9.0)
급식비 지원	38(7.6)
놀이공원 방문	35(7.0)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9(5.8)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2(4.4)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2(2.4)
학습지 지원	10(2.0)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0(2.0)
이중언어교실	6(1.2)
한국어 교육 지원	3(.6)
기타	5(1.0)
없음	12(2.4)
합계	498(100)

4학년 이후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해 특별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조사한 결과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699명(67.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312명(30.2%), 기분이 나쁘다 23명(2.2%) 등의 응답도 상당 수 있었다. 소득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1분위(417명, 66.6%), 2분위(220명, 70.5%), 3분위(41명, 70.7%)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서 기분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21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의 느낌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기분이 좋다	417(66.6)	220(70.5)	41(70.7)	12(50.0)	6(54.5)	696(67.5)	12.41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199(31.8)	83(26.6)	15(25.9)	10(41.7)	5(45.5)	312(30.3)	
기분이 나쁘다	10(1.6)	9(2.9)	2(3.4)	2(8.3)	-	23(2.2)	
전체	626(100)	312(100)	58(100)	24(100)	11(100)	1,031(100)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이러한 특별지원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고마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0명(57.1%), 매우 고맙다 405명(39.2%) 등 지원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맙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명(2.7%), 전혀 고맙지 않다 11명(1.1%)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고맙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8%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매우 고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혀 고맙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소득분위별로 특별지원에 대해 갖는 생각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전혀 고맙지 않다	5(0.8)	3(1.0)	1(1.7)	1(4.2)	1(9.1)	11(1.1)	20.83
고맙지 않은 편이다	16(2.6)	8(2.6)	1(1.7)	3(12.5)	-	28(2.7)	
고마운 편이다	352(56.2)	179(57.4)	37(63.8)	12(50.0)	7(63.6)	587(56.9)	
매우 고맙다	253(40.4)	122(39.1)	19(32.8)	8(33.3)	3(27.3)	405(39.3)	
전체	626(100)	312(100)	58(100)	24(100)	11(100)	1,031(10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59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1명(26.2%)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는 학생이 82명(8.0%), 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22(2.1%) 등 10.1%의 학생들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지원이 매우 필요했다는 응답은 4분위(2명, 8.3%)에서 가장 적고, 1분위(171명, 27.3%)와 5분위(3명, 27.3%)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낮은 1분위(402명, 64.2%)와 2분위(199명, 63.8%)에 비해 소득이 높은 4분위(14명, 58.3%)와 5분위(6명, 54.5%)에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3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11(1.8)	7(2.2)	-	4(16.7)	-	22(2.1)	39.10***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42(6.7)	24(7.7)	9(15.5)	4(16.7)	2(18.2)	81(7.9)	
나에게 필요한 편이다	402(64.2)	199(63.8)	37(63.8)	14(58.3)	6(54.5)	658(63.8)	
나에게 매우 필요했다	171(27.3)	82(26.3)	12(20.7)	2(8.3)	3(27.3)	270(26.2)	
전체	626(100)	312(100)	58(100)	24(100)	11(100)	1031(100)	

*** $p < .00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에 대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1,151명(76.6%)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하는 3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필요한 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때 그때 받으면 된다, 맘대로 해도 된다, 안받고 싶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많이 지원하고 다른 가정은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잘 모르겠다 등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소득이 높은 5분위(3명, 15.8%) 학생들에

비해 소득이 낮은 1분위(199명, 22.6%)와 2분위(103명, 22.5%)에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희망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672(76.4)	353(77.2)	77(77.8)	28(66.7)	16(84.2)	1,146(76.6)	8.31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199(22.6)	103(22.5)	20(20.2)	14(33.3)	3(15.8)	339(22.6)	
기타	9(1.0)	1(0.2)	2(2.0)	-	-	12(0.8)	
전체	880(100)	457(100)	99(100)	42(100)	19(100)	1497(100)	

앞으로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은 놀이공원 방문(903명, 16.2%)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 관람 685명(12.3%),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664명(11.9%),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45명(11.5%),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91명(8.8%), 학원비 지원 468명(8.4%), 대학생 멘토링 349명(6.2%), 책, 학용품 등의 물적지원 304명(5.4%) 등의 순으로 원하였다. 대부분 학생들은 놀이공원 방문이나 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단순체험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4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수영장이나 캠프, 공공기관 시설 이용, 동물원 방문, 외국인 부모나라 방문 등 체험 및 방문 지원 활동 외에도 미술, 만들기, 오케스트라, 요리, 컴퓨터게임,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 지원, 학교교육비와 같은 물적지원 등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소수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봉사료 도와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V-25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중복응답)

내용	빈도(%)
놀이공원 방문	903(16.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5(12.3)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664(11.9)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45(11.5)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91(8.8)
학원비 지원	468(8.4)
대학생 멘토링	349(6.2)

표 V-25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계속)(중복응답)

내용	빈도(%)
급식비 지원	307(5.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4(5.4)
학습지 지원	269(4.8)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39(2.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8(2.5)
이중언어교실	120(2.1)
한국어 교육 지원	68(1.2)
기타	38(.7)
합계	5,588(100)

(2) 다문화가족 어머니 대상 요구조사 결과

학부모 대상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부턴 현 조사시점까지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원들이 중복된 적이 있는지, 지원받았을 때의 느낌, 도움정도,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방식, 향후 원하는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66.6%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소득수준 4분위인 집단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5분위의 경우도 1, 2, 3분위인 집단에 비해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V-26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예	608(69.6)	288(63.4)	63(64.9)	19(44.2)	11(57.9)	989(66.6)	16.15**
아니오	265(30.4)	166(36.6)	34(35.1)	24(55.8)	8(42.1)	497(33.4)	
전체	873(100)	454(100)	97(100)	43(100)	19(100)	1,486(100)	

** $p < .01$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어떤 지원들을 받았는지 받은 경험이 있는 종류를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방과후수업료 지원으로 바우처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다음이 박물관이나 역사탐방 등 문화체험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대학생 멘토링,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놀이공원 방문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급식비 지원이나 책이나 학용품등의 물적지원, 학습지지원 등 현금이나 현물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었다. 이중언어교실이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소수이나 지원되고 있었으며, 상담이나 심리치료,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도 소수 지원되고 있었다.

표 V-27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중복응답)

구 분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75(18.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440(17.1)
대학생 멘토링	265(10.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60(10.1)
놀이공원 방문	249(9.7)
급식비 지원	186(7.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45(5.6)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44(5.6)
학습지 지원	130(5.0)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86(3.3)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2(2.8)
기타	50(1.9)
이중언어교실	48(1.9)
한국어 교육 지원	28(1.1)
전체	2,578(100)

다음으로 한 해에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이 중복되어 제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 때는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자신은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종류의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1%였고, 74.9%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응답을 하여, 실제로 그렇게 많은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한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예	152(25.0)	75(26.0)	12(19.0)	6(31.6)	3(27.3)	248(25.1)	1.82
아니오	456(75.0)	213(74.0)	51(81.0)	13(68.4)	8(72.7)	741(74.9)	
전체	608(100)	288(100)	63(100)	19(100)	11(100)	989(100)	

중복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내용을 질문한 결과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 가장 많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박물관이나 역사탐방 등의 문화체험, 그리고 대학생멘토링 등의 순이었고, 그 외에 급식비, 놀이공원 방문, 특기적성 프로그램, 문화공연관람, 물적지원, 학습지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V-29 중복지원 제시 내용: 어머니(중복응답)

구 분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7(27.5)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68(14.8)
대학생 멘토링	41(8.9)
급식비 지원	36(7.8)
놀이공원 방문	33(7.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32(6.9)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1(6.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6.5)
학습지 지원	17(3.7)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4(3.0)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2.8)
이중언어교실	8(1.7)
기타	6(1.3)
한국어 교육 지원	5(1.1)
전체	461(100)

이 중 자녀가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한 결과 중복제시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방과후 수업료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문화체험, 다음이 대학생멘토링, 급식비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V-30 중복지원 받은 내용: 어머니(중복응답)

구 분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0(28.7)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58(13.9)
대학생 멘토링	35(8.4)
급식비 지원	31(7.4)
놀이공원 방문	30(7.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8(6.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6.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6(6.2)
학습지 지원	16(3.8)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3(3.1)
없음	12(2.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2.4)
이중언어교실	5(1.2)
기타	4(1.0)
한국어 교육 지원	4(1.0)
전체	418(100)

다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해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 어머니들의 전체 중 85.4%는 기분이 좋다고 응답을 하여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한 사례는 전체의 2.4%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서는 지원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31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의 느낌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기분이 좋다	523(86.0)	249(86.5)	52(82.5)	13(68.4)	8(72.7)	845(85.4)	20.77**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69(11.3)	35(12.2)	9(14.3)	6(31.6)	1(9.1)	120(12.1)	
기분이 나쁘다	16(2.6)	4(1.4)	2(3.2)	-	2(18.2)	24(2.4)	
전체	608(100)	288(100)	63(100)	19(100)	11(100)	989(100)	

** $p < .01$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고맙다’ 또는 ‘고마운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98.1%로 나타났다.

표 V-32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전혀 고맙지 않다	2(.3)	2(.7)	-	1(5.3)	-	5(.5)	22.15*
고맙지 않은 편이다	6(1.0)	4(1.4)	3(4.8)	-	1(9.1)	14(1.4)	
고마운 편이다	331(54.4)	163(56.6)	29(46.0)	10(52.6)	6(54.5)	539(54.5)	
매우 고맙다	269(44.2)	119(41.3)	31(49.2)	8(42.1)	4(36.4)	431(43.6)	
전체	608(100)	288(100)	63(100)	19(100)	11(100)	989(100)	

* $p < .05$

그렇다면 지원받는 내용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의 96.9%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표 V-33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자녀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3(.5)	4(1.4)	-	-	1(9.1)	8(.8)	29.52**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8(1.3)	10(3.5)	2(3.2)	2(10.5)	1(9.1)	23(2.3)	
자녀에게 필요한 편이다	328(53.9)	160(55.6)	38(60.3)	7(36.8)	3(27.3)	536(54.2)	
자녀에게 매우 필요했다	269(44.2)	114(39.6)	23(36.5)	10(52.6)	6(54.5)	422(42.7)	
전체	608(100)	288(100)	63(100)	19(100)	11(100)	989(100)	

** $p < .01$

또한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바람직한 방식의 형태에 대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였고, 반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35.9%에 불과하여 다문화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4분위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으나 반대로 소득수준 1분위인 경우도 37.8%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을 하였다. 5분위인 경우는 가장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

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이러한 생각의 기제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34 바람직한 지원방식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χ^2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534(61.2)	297(65.4)	62(63.9)	24(55.8)	15(78.9)	932(62.7)	13.55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330(37.8)	147(32.4)	35(36.1)	18(41.9)	3(15.8)	533(35.9)	
기타	9(1.0)	10(2.2)	-	1(2.3)	1(5.3)	21(1.4)	
전체	873(100)	454(100)	97(100)	43(100)	19(100)	1,486(100)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지원해주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중 특히 높은 항목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과 문화체험, 그리고 학원비 지원, 문화공연관람 등 이었고, 이중언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요구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방과후 수업료에 대한 지원은 역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집단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고 다음이 2분위, 3분위 등이었고, 학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중언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오히려 5분위 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에 대한 요구도가 그 보다 낮으며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이중언어 등과 같은 자녀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면서 기타 학원 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요구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35 소득수준에 따른 희망하는지원(중복응답)

빈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552(63.2)	266(58.6)	47(48.5)	16(37.2)	9(47.4)	890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448(51.3)	276(60.8)	62(63.9)	23(53.5)	10(52.6)	819
학원비 지원	487(55.8)	211(46.5)	41(42.3)	16(37.2)	9(47.4)	76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93(45.0)	211(46.5)	53(54.6)	20(46.5)	9(47.4)	686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344(39.4)	198(43.6)	38(39.2)	15(34.9)	5(26.3)	600
대학생 멘토링	322(36.9)	156(34.4)	25(25.8)	14(32.6)	6(31.6)	523
놀이공원 방문	306(35.1)	149(32.8)	22(22.7)	13(30.2)	3(15.8)	493
학습지 지원	324(37.1)	133(29.3)	15(15.5)	9(20.9)	4(21.1)	485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251(28.8)	134(29.5)	37(38.1)	9(20.9)	9(47.4)	440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252(28.9)	123(27.1)	16(16.5)	10(23.3)	6(31.6)	407
급식비 지원	243(27.8)	91(20.0)	15(15.5)	7(16.3)	1(5.3)	35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44(27.9)	89(19.6)	7(7.2)	7(16.3)	5(26.3)	352
이중언어교실	173(19.8)	75(16.5)	14(14.4)	7(16.3)	9(47.4)	278
한국어 교육 지원	102(11.7)	44(9.7)	7(7.2)	2(4.7)	4(21.1)	159
기타	10(1.1)	4(.9)	5(5.2)	-	1(5.3)	20
전체	873	454	97	43	19	1,486

(3) 교사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

다음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0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의 63.1%의 교사는 적합한 편, 또는 매우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30.7%는 적합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편이라거나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하였다.

표 V-36 지원 프로그램의 적합성

구 분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하다	전체
빈도(%)	2(.7)	17(5.6)	94(30.7)	167(54.6)	26(8.5)	306(100)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발달 및 역량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68%는 도움이 되는 편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V-37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구 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빈도(%)	1(.3)	16(5.2)	81(26.5)	168(54.9)	40(13.1)	306(100)

이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이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건강한 심리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 기타의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외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문화적 소외 현상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표 V-38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구 분	빈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156(5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	66(21.6)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54(17.6)
건강한 심리발달에 도움이 된다	28(9.2)
기타	2(.7)
전체	306(100)

반대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16%나 되었고, 그 외 본인의 필요와 상관없는 지원이나 참여가 강제성을 띄게 되면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또는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혜택은 다문화가족이 아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이 미미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학교 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은 소수인데 반하여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의견도 있어 다문화예산집행의 적성성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3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구 분	빈도(%)
자신이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인 사실이 드러나서 상처가 될 수 있다	118(38.6)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점점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80(26.1)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실제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49(16.0)
본인의 필요와 상관없는 지원 및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는 경우 반감이 생길 수 있다	28(9.2)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다	25(8.2)
기타	6(2.0)
전체	306(100)

다음으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것이 방과후 수업료 지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 문화공연관람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의 응답과 거의 일관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V-40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교사(중복응답)

구 분	빈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15.1)
대학생 멘토링	107(12.8)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106(12.7)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8.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4(6.5)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53(6.4)
급식비 지원	50(6.0)
한국어 교육 지원	47(5.6)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5(5.4)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3(5.2)
이중언어교실	39(4.7)
기타	35(4.2)
놀이공원 방문	32(3.8)
학습지 지원	28(3.4)
전체	833(100)

이에 비해 교사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으로는 상담, 심리치료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박물관이나 역사탐방, 답사여행 등 문화체험과 방과후 수업료 지원,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학부모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원했던 현금성 지원, 즉, 급식비나 학원비, 학습지 지원 등에 대해서 교사들은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표 V-41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중복응답) (계속)

구 분	빈도(%)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80(17.5)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119(11.5)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8(11.4)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14(11.1)
한국어 교육 지원	104(10.1)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91(8.8)
이중언어교실	74(7.2)
대학생 멘토링	62(6.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7(5.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2.5)

표 V-41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중복응답) (계속)

구 분	빈도(%)
놀이공원 방문	22(2.1)
학습지 지원	19(1.8)
급식비 지원	18(1.7)
학원비 지원	15(1.5)
전체	1,031(100)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교사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3%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도 약 5% 정도 있었다. 그 외에는 국내 적응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원하는 학생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한 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수요자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V-4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희망 지원의 방향

구 분	빈도(%)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26(73.9)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3(17.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5(4.9)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7)
기타	10(3.3)
전체	306(100)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정책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 집단은 현재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사례가 많았고, 현물성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청소년들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학원비나 방과후 학교 지원 등 현물성 지원보다는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간략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 지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들은 소득수준과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의 시각에서는 자녀와 어머니에 비해 적합성이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모든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학생과 함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문화정책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대상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약간의 시각차이를 보여주었다. 필요한 지원의 내용 역시 세 집단의 입장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아이들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놀거나 체험하는 활동을 선호하여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한 반면, 어머니들은 방과후 수업지원이나 학원비 등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현물성 지원을 선호하였고, 이에 비해 교사집단은 상담 등의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여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중복 수혜율은 3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자녀, 어머니,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지원에 대한 만족도, 효과성	필요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분 좋음 67.5% 고마움 96.2% 필요한 지원임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공원 문화공연 관람 문화체험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지원률 28.6%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지원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마움 98.1% 필요한 지원임 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수업지원 문화체험 학원비 지원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지원률 25.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지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한 편 63.1% 도움 되는 편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응 프로그램 문화체험 방과후 수업 지원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중심 지원 원하는 대상만 지원 일반학생과 함께

4.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당사자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어머니, 시도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적을 위하여 FGI, 개방형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는 대부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현장전문가, 교사 등 관계자들은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을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요구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일괄지원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중복지원에 대하여 실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공급되고 있고,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자체가 과다하여 발생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실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존의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민간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을 중심으로 중복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광고 및 홍보의 결과 마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일부 이런 종류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수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설문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중복지원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경우 보다 요구부합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이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정책집행부의 일원화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여러 부처에서 각자 사업을 벌이다보니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공급되고, 중복성의 문제도 나타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중복성이나 사업 자체의 실효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 선별적으로 할지 일반 청소년정책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문제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VI 장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법 및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3. 소결

제 VI 장¹³⁾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법 및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임을 주장해오던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국가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온 것도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노동정책은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 이후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이민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국내체류와 국적 취득 문제 등과 같은 신분보장과 관련한 제도 및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형성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외국인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규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¹⁴⁾에 따라 이루어

13) 6장은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1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지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지난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더불어 이들을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문제를 정책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각 부처별로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외국인 관련 정책 간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를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마련하게 되었다(법무부 출입국기획과, 200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 사회적응교육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교육·홍보 및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며. 넷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 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 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와 함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법무부 출입국기획과, 200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10. 7. 23. 일부개정)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재한외국인’ 으로, 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이 법령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1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부터 제17조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전문외국인력,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 각 대상별 처우보장에 관한 내용과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등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 보장과 관련된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보고 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2010.7.23 개정).

이 외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8조),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 1항)고 정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둘째,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다문화가족 현황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이주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치와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2항, 2012. 2.1 개정)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 2011.4.4 신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2011.4.4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2항, 2011. 4. 4. 신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셋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1항, 2011. 4. 4 개정),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2~4항, 2011. 4. 4. 개정)고 되어 있다.

넷째,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제1항, 2011. 4. 4. 개정),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제2항, 2011. 4. 4.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나타나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안되고(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2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고 정의하고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12). 특히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이주로 인해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5년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개정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기본법, 국무총리 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정책의 관련 근거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법적체계를 정비하였다.

위 법령 제1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2012년 전부개정).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30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 제1항, 2012년 전부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조항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조항에 나타난 한계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가 대상이 되는데 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재한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구성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국제결혼가정이나 이주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 가정 등의 재한외국인 자녀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기보다,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지원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제공해왔으며, 이로 인한 예산편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위한 법 조항이 강제규정화 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줄어들게 되거나, 예산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근거가 미약해질 수 있다. 이에 일반인들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개선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규정에 대해서는 의무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 포함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항들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이러한 법조항이 보완되고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 간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아동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인해 비(非)다문화가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가질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족이라는 동일한 특성에 의해 지원을 제공할 경우,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영역과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의해 지원 여부나 지원 수준을 조절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판단 및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에게서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바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조항의 내용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 전반적인 지원의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어떠한 내용과 방향, 방법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방향 모색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원 내용에 있어서의 구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0조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지원의 내용이 매우 협소하고 교육 및 학습지원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미취학 연령 또는 초등학생 연령대임을 생각하면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원 등을 위한 지원이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내에 이들이 성장하여 곧 사춘기를 맞이하고 청소년기에 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과 발달영역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가족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발달주기별, 생애주기별, 발달영역별로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의 방향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1 다문화가족 관련 법 비교

구 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2012 전면개정)
적용범위	· 재한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9~24세 청소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표 VI-1 다문화가족 관련 법 비교(계속)

구 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옹호 ·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 지원 ·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아동 보육·교육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요약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음.
- 각 법령 간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달라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이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관련법은 대체로 지원의 가능성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회상황에 따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할 근거가 미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의무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긴 하나,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 간 형평성의 문제 및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영역과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의해 지원여부나 지원 수준을 조절해야 하는 지원영역에 대한 판단 및 고려가 필요함.
- 법령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지원내용이 일부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발달주기별, 생애주기별, 발달영역별로 균형있는 지원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내용과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등 구체성이 확립되어야 함.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크게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에서 각각 주관하여 매해 각 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 외국인정책

외국인정책은 그간 외국인에 대한 통제관리 중심의 정책기조 하에서 새로운 정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종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녀왔다. 이러한 문제 하에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해외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개방을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 간 역할정립을 통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재한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7월 제정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법무부, 2008, p.6).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5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기본방향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3대 중점과제, 29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a, p.3).

표 VI-2 2012년 외국인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정책목표	중점과제	단위과제	소관부처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법무부	
		1-1-2. 국가차원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지경부, 법무부 중기청, 교과부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2-1. 지역별·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법무부	
		1-2-2. 기업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고용부, 법무부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1-3-1. 외국인 체류지원 강화	법무부, 문화부	
		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2. 질높은 사회통합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1-1.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교과부, 문화부, 여가부, 행안부, 법무부
			2-1-2. 참여 및 소통 강화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여가부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복지부, 문화부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가부, 고용부, 농식품부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법무부, 여가부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2-3-2. 사회적응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여가부, 교과부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법무부, 고용부	
		2-4-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법무부, 고용부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법무부
	3-1-2. 외국인 집단 거주지 관리 강화		행안부, 법무부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법무부, 교과부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 외국인 관리	법무부	
		3-2-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법무부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3-3-1. 국적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법무부	
		3-3-2.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법무부	

표 VI-2 2012년 외국인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계속)

정책목표	중점과제	단위과제	소관부처
4. 외국인 인권옹호	4-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법무부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4-2-1. 보호 관련 적법절차 구축	법무부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법무부
		4-2-3.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법무부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체계 구축	법무부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법무부

이 중 질높은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 하에는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중점과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가 증가하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하면서 이들의 교육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다문화교육 전담교사이중언어교사 등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고, 취학전 아동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민자 자녀가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과 직장·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상담사·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방식은 아니지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방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 2008, pp.13~14).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다문화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업으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2008년 이래로 5년간 추진해온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 등 총 964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등 총 3,706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이 다수(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중고등학교 거점학교 80개→12개), 다문화언어지도사(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명),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가족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2개→5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법무부, 2012, pp.2~3).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부처 간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 및 수요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며,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p. 4~7).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총 5개 추진과제,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의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표 VI-3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1-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1-1-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총리실, 여가부
		1-1-2. 유사중복업무 방지 및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 강화	총리실, 여가부
	1-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2-1. 다문화가족지원 지역거점기관 지정 및 지역협의체 운영	여가부
		1-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여가부
		1-2-3.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달	행안부
	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1-3-1. 장기적 다문화가족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여가부, 행안부
		1-3-2. 지역특성별 사업추진 모델 개발	여가부
		1-3-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매뉴얼 등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제공	행안부
		1-3-4. 다문화 관련 연구용역 및 포럼·세미나 개최	여가부, 문화부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2-1.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1-1.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2-1-2. 외국현지법령 준수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			여가부
2-1.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1-3. 현지업체와의 업무 제휴 시 일정의 무 준수를 위한 규정 마련	여가부
		2-1-4.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여가부
		2-1-5.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혼중개업체 관리	법무부
2-2.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2-2-1. 사증발급 심사체계 정비	법무부
		2-2-2. 불법체류자 등의 결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제한	법무부
		2-2-3.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검증방안 도입 검토	법무부
2-3.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2-3-1. 결혼이민 예정자 현지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여가부
		2-3-2. 생활정책 정보매거진(Rainbow+) 및 한국생활가이드북 발간·배포	여가부
3.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3-1.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 구축	3-1-1.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 구축	법무부, 여가부
		3-1-2. 교육자료, 공통교육과정 등의 개발·보급	문화부
		3-1-3. 방문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	여가부
		3-1-4. 통번역서비스 제공 확대	여가부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3.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3-2.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3-2-1. 적합 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용부	
		3-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부, 여가부	
		3-2-3.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추진	고용부	
		3-2-4.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3-2-5. 취업지원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연계강화	고용부	
		3-2-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농식품부	
	3-3.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3-3-1. 선량한 이민자의 귀화허가 심사기간 단축	법무부	
		3-3-2. 단계별 실태조사를 통한 위장결혼 방지 활동 강화	법무부	
	3-4.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3-4-1.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정보 제공 확대	법무부, 여가부	
		3-4-2.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등 사회보장 강화	복지부	
	3.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3-4.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3-4-3. 생활민원의 지속적 발굴 및 제도 개선	행안부, 경찰청, 복지부, 공정위
			3-4-4.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등 의료지원 사업	복지부
3-5.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3-5-1. 국내체류요건 강화 등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관리	법무부	
		3-5-2.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 확대	여가부	
		3-5-3.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거주·자활 지원기관 운영 확대	여가부	
3-6.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3-6-1.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강화	여가부	
		3-6-2.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 구축 확대	법무부, 여가부	
		3-6-3. 농어촌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도 증진	농식품부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1.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4-1-1.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관리 및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 지원	교과부
			4-1-2. 대학생-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교과부
	4-1-3.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표 VI-3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계속)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1.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4-1-4.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	여가부
		4-1-5.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복지부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4-2-1.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용 매뉴얼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과부
		4-2-2.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여가부, 문화부
		4-2-3. 전래동화 구연 콘텐츠 개발 등 '행복한 책임기 사업' 확대 및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부, 복지부
	4-3.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4-3-1. 자녀 학습지도 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4-3-2. 다문화 학부모교육 및 일반 학부모와의 1:1 결연 지원	교과부
	4-4.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4-4-1.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운영	여가부
		4-4-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교과부, 여가부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1.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5-1-1. 문화교류·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1-2.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여가부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1.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5-1-3.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용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문화부, 여가부
		5-1-4.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발굴·확산	여가부
	5-2.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5-2-1.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및 교재·지도자료 발간	교과부
		5-2-2. 유·초·중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교과부
	5-3.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5-3-1. 지자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행안부, 여가부
		5-3-2. 다문화가족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무 매뉴얼 개발	여가부
	5-4.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5-4-1. 미디어 홍보 강화	문화부, 여가부
		5-4-2.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지원 및 각종 공모전 개최	여가부, 문화부, 법무부, 행안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취학연령에 이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취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및 맞춤형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저조해지고,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p.20).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하여 발달과정 상에서 인지나 언어 발달 지체와 같은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외모와 말씨로 인해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나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취약성,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원활한 자녀교육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p.20).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추진과제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기초학습·상담·문화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연결한 멘토링 사업과 방학중 집중캠프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부모출신국 배우기, 리더십 등 역량강화, 해당국가 학생교류, 유학생 멘토링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방안으로 자율형 사립고·외고의 모집정원 중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등의 사업이 계획되었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p.21~22).

다문화가족 등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유아의 언어·기초학습능력, 정서·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유아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연수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를 대상으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를 확대하며,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보육시설에 확대하여 파견하고, 아시아 문화이해 및 언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행복한

책임기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한국교육문화 이해, 학급단계별 자녀교육 방법 등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학부모와의 1:1결연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p.22~2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거나 학교생활이 곤란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상담, 학습지원 멘토링, 상담콜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취학전 초기적응 프로그램 및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였다(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23).

특히 2012년에는 2010년 이래로 시행되어온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약 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a, p.1~2).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에는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해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문화학교를 충북제천, 서울에 설치하고, 2013년에 추가로 인천에 1개소를 더 개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선도학교¹⁵⁾ 지정을 확대(거점형¹⁶⁾ 120개교, 집중지원형¹⁷⁾ 30개교)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 지도를 집중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 간 1:1 연계를 통해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학생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생애주기별 양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12a, p.1~2).

15) 글로벌 선도학교는 기존의 '다문화 거점학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거점형과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교육과학기술부(2012). 글로벌 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안)).

16) 거점형은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개교를 선정하여, 인근학교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함(교육과학기술부(2012). 글로벌 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안)).

17) 집중지원형은 교과부에서 다문화 학생수,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성과확산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함. 초(도시형, 농촌형)·중·고로 유형을 구분하고, 운영프로그램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함.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고, 지원액은 초등학교의 경우 100백만원, 중·고등학교는 50백만원이며,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기타경비로 예산을 편성·운영함(교육과학기술부(2012). 글로벌 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안)).

(3)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은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는 달리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환경 영역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일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 하에 통합적, 보편적,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성과를 위해 수립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이 추진되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영역에 따라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영역의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내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2d, pp.3~5).

표 VI-4 2012년 청소년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

정책목표	정책과제	단위과제	주관기관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1-1.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1-1-1.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 시스템 강화	여가부, 교과부, 문화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1-1-2.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확대	전부처, 여가부, 문화부
	1-2.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1-2-1. 사회참여 활동 강화	여가부, 교과부, 행안부, 복지부, 외통부
		1-2-2.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여가부, 교과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
		1-2-3.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	여가부, 외통부
	1-3.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1-3-1.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지도 강화	여가부, 고용부, 교과부, 법무부
		1-3-2.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고용부, 여가부, 교과부
		1-3-3. 청년층 취업 및 창업 지원	고용부, 여가부, 중기청

표 VI-4 2012년 청소년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계속)

정책목표	정책과제	단위과제	주관기관
2.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2-1.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2-1-1. 부모교육 및 세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강화	여가부, 교과부, 법무부
		2-1-2. 가정상담 지원강화	여가부, 법무부
		2-1-3. 가족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여가부(전부처), 문화부
	2-2. 청소년 사회안전망 조성	2-2-1.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확대·강화	여가부, 교과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2-2-2.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간 연계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법무부
		2-2-3. 지역사회 청소년 후견인 확대	여가부, 교과부, 행안부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강화	2-3-1. 가출청소년·소년원 출원생 등 고위험 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과부, 국토부,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2-3-2. 학업중단 청소년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교과부, 여가부, 고용부
		2-3-3. 저소득층 및 장애, 북한 이탈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 문화부, 농식품부, 통일부
		2-3-4.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과부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1-1.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및 유해매체로부터 보호	여가부, 복지부, 행안부, 교과부, 문화부, 방통위, 경찰청
		3-1-2. 술, 담배,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강화	복지부, 여가부, 교과부, 국토부
		3-1-3. 성보호 대책 강화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법무부, 문화부, 행안부, 경찰청
		3-1-4. 학교폭력·가정학대로부터 보호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3-2. 유익한 환경조성	3-2-1. 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교과부, 여가부, 경찰청, 소방청
		3-2-2. 신체적·정신적 건강 환경 조성	여가부,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문화부, 농식품부, 식약청
	3-3.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3-3-1. 청소년 친화지수 개발 및 친화마을 확산 추진	여가부

표 VI-4 2012년 청소년정책의 영역 및 소관부처(계속)

정책목표	정책과제	단위과제	주관기관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3.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3-3-2. 청소년 권리 증진	여가부,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인권위, 방통위, 공정위
4.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정비	4-1. 청소년 시설·단체·전문 인력의 역량강화	4-1-1. 청소년 시설·단체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여가부
		4-1-2.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역량 강화	여가부
	4-2.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4-2-1. 지역자원 통합 연계 서비스전달 체계 구축	여가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4-2-2. 지자체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여가부
	4-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4-3-1. 청소년 정책관계기관 협의회 활성화	여가부
		4-3-2. 성과평가체계 등 과학적 정책 기반 마련	여가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내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일반청소년이나 취약계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영역 내의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점과제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5개의 맞춤형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소년복지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것이고,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 스쿨 운영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습 및 언어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과제에 속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 학생이 많은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셋째,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왕따 및 소외감에 대한 정서지원을 목적으로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d, pp.411~420).

2) 중앙행정기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1) 사업 수와 내용

2012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 청소년정책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13개, 여성가족부 13개, 보건복지부 3개, 문화체육관광부가 2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처간 공동추진사업 포함).

표 VI-5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영역	중점과제	사업명	주관부처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1.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4-1-1.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관리 및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 지원	교과부
		4-1-2. 대학생-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교과부
		4-1-3.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4-1-4.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	여가부
		4-1-5.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복지부
	4-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4-2-1.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용 매뉴얼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과부
		4-2-2.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여가부, 문화부
		4-2-3. 전래동화 구연 콘텐츠 개발 등 '행복한 책임기 사업' 확대 및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부, 복지부
	4-3.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4-3-1. 자녀 학습지도 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4-3-2. 다문화 학부모교육 및 일반 학부모와의 1:1 결연 지원	교과부
	4-4.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4-4-1.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운영	여가부('11년 완료)
		4-4-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교과부, 여가부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1.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5-1-2.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영역 등 총 2개 영역에서 12개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강환경조성 영역에서는 총 1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과제의 사업이 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과제 3개,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역량강화 2개,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제가 1개(2011년 완료사업 제외)의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2b, p.128).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영역에서는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사회교육활성화 과제에 1개 과제가 있다.

표 VI-6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외국인정책**

영역	중점과제	사업명	주관부처	
2. 질높은 사회통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여가부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교과부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복지부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교과부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 지원)	여가부	
		다문화교육지원체제 강화	교과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교과부	
		학교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교과부	
		2-3-2. 사회적응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여가부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	교과부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		여가부	

외국인정책은 질높은 사회통합 영역 중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11개의 사업이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6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가족부 4개, 보건복지부 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질높은 사회통합 영역 중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과제에 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응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과제에 3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외국인정책 위원회, 2012a).

표 VI-7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책: 청소년정책

영역	중점과제	사업명	주관부처
2.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2-3. 청소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2-3-4-1. 다문화청소년지원(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2-3-4-2.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다문화 거점학교, 멘토링)	교과부
		2-3-4-2.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여가부
		2-3-4-2. 다문화청소년 지원(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여가부
		2-3-4-3.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청소년정책은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영역 내의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과제에 5개의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 4개, 교육과학기술부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c). 이 외에도 청소년정책 내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대상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일반청소년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에 일부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외국인정책, 청소년정책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영역별 사업 수는 다음과 같다.

표 VI-8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영역별 사업 수

정책명	영역	중점과제	여가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합계
외국인 정책	질높은 사회통합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2	5	0	1	8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2	1	0	0	3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1	3	0	1	5
		다문화 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1	1	2	1	3 (부처간 공동사업 2개)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1	1	0	0	2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1	0	0	2 (부처간 공동사업 1개)
청소년 정책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4	1	0	0	5
합계			13	13	2	3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는 제목은 상이하지만 내용이 동일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책에 포함된 사업의 수를 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과제는 다문화정책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과제와 그 내용과 대상, 추진체계 등이 일치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과제의 중복을 제외하면,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총 20개로 볼 수 있다.

표 VI-9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사업

정책명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외국인 정책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 이중언어 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필요 - 이중언어교육과정 운영	여가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정책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이중언어 구사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영재 교실(이중언어교육과정) 운영	여가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정책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관리 및 한국어교육·교과학습 지도 지원	-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는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도모 -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및 교과학습지도 집중 지원	교과부	초, 중, 고등학교	교과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족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는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도모	교과부	초, 중, 고등학교	교과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족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교과학습을 지원하고 기초학습·상담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연결한 멘토링 사업 지원	교과부	초, 중, 고등학교	교과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
외국인 정책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확대	교과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과부→시·도교육청→대학교
다문화 정책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240명)	교과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과부→시·도교육청→양성기관(대학교)

표 VI-9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사업(계속)

정책명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외국인 정책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 수준이 낮고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가족 생활 부적응 발생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실시 	여가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이하 자녀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정책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문화적 경험 및 상호작용을 적기에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취학 후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언어지도사 200명 배치) 	여성부 문화부	다문화가정 취학전 아동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정책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지도 필요 -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간 1:1 멘토링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함양 지원(4000명) 	교과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과부→한국장학재단 및 시도교육청 →대학 및 학교
다문화 정책	대학생-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상담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연결한 멘토링 사업 지원 -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지원 (8,000명) - 농촌 다문화학생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 	교과부	다문화가정 초, 중, 고교생	교과부→한국장학재단 및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외국인 정책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조사, 초기적응 전문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확대 등 	여가부	중도입국 청소년	여가부→무지개청소년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정책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통합 제고 - 한국어교육, 문화적응 등 사회입문 프로그램 지원 (Rainbow School) -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다솜학교 등) 설치운영 -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교과부 여가부	중도입국 청소년 중 일부 포함	여가부→무지개청소년센터 →대안학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과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

표 VI-9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사업(계속)

정책명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청소년 정책	다문화청소년지원(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 미숙, 문화·생활 등의 차이로 인한 학교 진입 및 사회정착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초기적응 지원 - 중도입국초기적응 전문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확대 등 	여가부	중도입국 청소년	여가부→무지개 청소년센터 →대안학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 사업예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포함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2012년 예산은 총 49,528백만원이며, 이는 2011년 44,796백만원에 비해 4,732백만원(10.6%) 증가한 수치이다¹⁸⁾.

표 VI-10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예산 증감을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A)	2012년 (B)	(B)-(A)	증감률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강화	20,301	21,935	1,634	8.0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5,118	5,123	5	0.1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18,196	20,800	2,604	14.3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1,180	1,670	490	41.5
합계		44,796	49,528	4,732	10.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해당하는 중점과제 별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비중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과제의 예산이 21,93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18)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영역의 경우 예산이 불분명하여 제외함.

확충 과제는 예산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예산이 작년 대비 4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은 질높은 사회통합 영역 중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11개의 사업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해당하는 두 개의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표 VI-11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외국인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A)	2012년 (B)	(B)-(A)	증감률(%)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학습 및 학교생활지원	17,564	17,943	379	2.1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배양	349	409	60	17.1
	합계	17,913	18,352	43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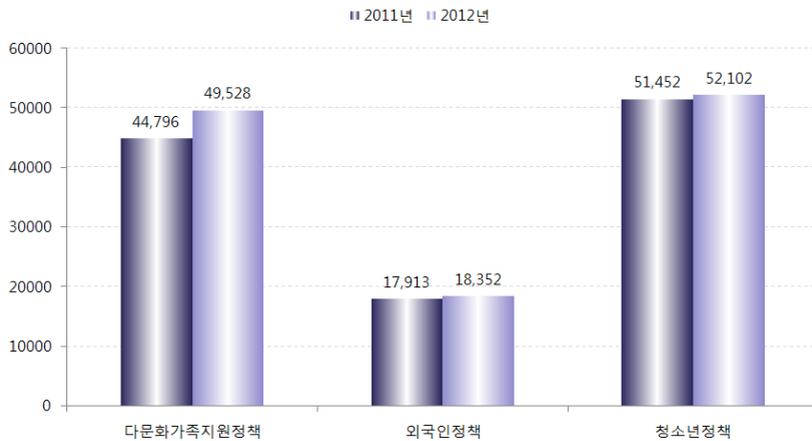
이 두 영역의 예산은 2011년 17,913백만원에서 2012년에는 18,352백만원으로 총 439백만원(2.5%)이 증가하였다.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과제는 학습 및 학교생활지원 과제에 비해 예산 비중은 낮으나, 예산이 작년 대비 17.1% 증가하였다.

청소년정책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정책사업 대상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과제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과제는 총 5개이며, 이 정책과제들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청소년정책 중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 중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내에 포함되어 있다.

표 VI-12 중앙행정기관 다문화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2012년 예산 증감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A)	2012년 (B)	(B)-(A)	증감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51,452	52,102	650	1.27
	합계	51,452	52,102	650	1.27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은 2011년 51,452백만원에서 2012년에는 52,102백만원으로 총 650백만원(1.27%)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 중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문교육지도사 배치)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이 30,237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이 예산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으로 예산 내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인 52,102백만원이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VI-1] 중앙행정기관 다문화청소년 대상 관련 정책의 예산 증감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 청소년정책 모두 작년대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앞서 정책사업 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정책 간에 제목은 상이하지만 내용이 동일한 과제를 감안하고 예산 분리가 어려운 과제를 제외하고 나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업 예산은 약 53,172백만원을 초과하는 정도로 추산된다.

(3)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내용 분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크게 언어지원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사업, 생활 및 적응지원사업, 인프라구축 사업 등으로 크게 분류해볼 수 있다. 언어지원사업에는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글로벌선도학교 지정·관리 및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 지원사업, 전래동화 구연 콘텐츠

개발 등 ‘행복한 책임기 사업’ 확대 및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 확대 등 5개 사업을 분류하였고, 학습지원사업에는 전래동화 구연 콘텐츠 개발 등 ‘행복한 책임기 사업’ 확대 및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 확대,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교육지원(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지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사업,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등 4개 사업을 분류하여 총 20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지원 사업 중 대부분은 유아기 및 학령기 초기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중언어교육 사업이 3개,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교육지원 사업 등 유아 대상 사업 3개 등을 제외하면, 기초학습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관리 및 한국어교육교과학습 지도 지원 등의 사업만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생활 및 적응지원 사업에는 학교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학부모교육 및 일반 학부모와의 1:1 결연 지원,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 5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생활 및 적응지원 사업에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일부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포함된 두 개의 사업(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이 있고, 체험활동의 성격을 가진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학부모를 위한 자녀 행복교실 운영 사업 및 일반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결연사업 등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는 다문화교육지원체제 강화,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용 매뉴얼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청소년지원(다문화청소년지원체제 강화) 등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다문화특별학급 지정 및 다문화 전문교원 배치, 다문화가족 지원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원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청소년의 욕구 및 특성, 상황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VI-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1) 자체사업 수와 내용¹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해당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과제 26개,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과제 3개,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과제 5개,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제 9개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영역에 해당하는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가회교육 활성화 과제 3개 등 총 46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체사업의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영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 이중언어지원, 멘토링사업, 다문화거점학교 운영 등의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운영(서울), Total-Care 서비스(대구), 언어치료 멘토링(광주), 학용품비 지원(충북), 캠프 운영지원(전북), 학생사랑방 운영(전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외에도 희망유아교육사 확대배치(충남), 기초학력검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전남)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학습지도 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외에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대구),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실 운영(전북),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 학부모 교육(전북), 임신육아교실(충북), 다문화보육 전문과정 운영(경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동반, 중도입국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경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꿈나무 키움서비스’를 통한 학습지원 바우처사업(충북),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경기), 중도입국자녀 이중언어동아리 운영(전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c).

19)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별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은 일부 지자체의 자료누락 및 타 정책과의 중복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함.

표 VI-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별 사업 수

지자체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질 높은 사회통합 학습 및 학교생활지원/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다문화 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확충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서울	5	1	0	0	0	2
부산	0	0	0	0	0	0
대구	3	4	0	1	0	0
인천	1	0	0	0	0	0
광주	1	1	0	0	0	0
대전	0	0	0	0	0	0
울산	1	0	0	0	0	0
경기	9	6	0	1	3	1
강원	4	0	0	0	0	0
충북	2	2	0	1	2	0
충남	1	0	1	0	1	0
전북	7	5	0	2	1	0
전남	3	0	1	0	1	0
경북	7	5	0	0	0	0
경남	4	0	1	0	0	0
제주	1	2	0	0	1	0
합계	49	26	3	5	9	3

총 46개(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3개, 사회적 이해제고 3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중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의 자체사업은 총 49개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사업이나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사업 외에도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서울), 독서지도사업(책보내기 운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서울, 대구 등), 통합보육시설 운영(서울), 어린이합창단 운영(경기), ‘내모습 알아가기’ 캠프(경기), 학습지원(공부방운영, 학습지도사 지원, 한글교육, 방문학습비 지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도우미 지원 등; 충북, 충남, 경기, 인천, 대구, 서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상담지원(경북) 등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b)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유사하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

에 동일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제목과 내용이 동일한 19개의 사업의 중복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체사업의 수는 총 76개이다.

표 VI-14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자체사업

지자체 사업명	세부내용	지역	예산(국비제외)		대상
			2011	2012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의 우리 사회적응을 돕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지정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	서울	50	70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모
다문화가정 책보내기 운동	-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하여 4개 국어로 이루어진 동화책을 제공하고, 부모와 함께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발달 및 언어발달지원을 위해 다국어 동화책 1,000권 발행 및 배부	대구	30	30	다문화가족 및 관련기관
다문화가족 2세 교육학습 협력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모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아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및 학습지도	대구	30	30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운영	- 자국에 대한 정서적 소외감 해소 및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국문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육성을 위해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 운영	대구	비예산	비예산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일반 아동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 지역사회 관·학간의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상호협력(MOU), 대학생자원봉사자 활용기초학습및교과지도,특기및적성지도, 인성지도 및 상담 활동, 체험·문화 활동(답사, 문화체험, 캠프 등)	인천	70	70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열린체험학교	- 자녀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 자녀의 발달을 돕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 체험 활동위주의 교육으로 자녀들의 창의력개발 및 사회성향상, 다문화가족자녀의 한국어활용능력향상 및 학령기학교수업 이해력 증진 등 학교생활 적응지원	경기	12	10	다문화가족 자녀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운영	- 5~7세로 구성된 아동반과 초등반으로 나눠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교육을 수준 높은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어린이의 자신감 향상과 시민 다문화 의식고양에 이바지	경기	10	8	다문화가정, 내국인가정

표 VI-14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자체사업(계속)

지자체 사업명	세부내용	지역	예산(국비제외)		대상
			2011	2012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 이주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의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건강·보육(교육)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 아동 및 가족에게 복지·건강·보육(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	110	110	0~12세 미만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및 가족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어교실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 및 이해력 증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및 소외감 해소,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경기	11	11	다문화가정 자녀 60명
다문화가정 자녀 '내모습 알아가기' 캠프	-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자아정체성강화 및 긍정적인 또래관계형성 기반마련을 위해 다문화자녀인식증진 및 자아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기	11	12	다문화가족 160명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수행 능력격차 줄임, 심리적 멘토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통합유도,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습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안정교육을 실시함	충북	43	43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40명
취학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 기초학력증진으로 학교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학습지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전북	120	515	만4세 ~ 초3학년 1,700명
다문화가족 장난감 대여사업	-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및 놀이용 장난감 대여로 정서함양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전북	5	5	다문화가정 영·유아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전북	48	45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초등자녀 학습멘토 파견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회성 향상, 상담 및 멘토 역할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적 안정 효과 제고	전남	30	25	20가정(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통한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경북	95	60	다문화·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자녀 200명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의 한글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 방문학습지 업체의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의 한글학습 지도	경북	108	108	300명(군지역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표 VI-14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포함된 동일내용의 자체사업(계속)

지자체 사업명	세부내용	지역	예산(국비제외)		대상
			2011	2012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을 방문, 자녀의 한글학습을 도와주고 아동양육에 대한 상담	경남	190	130	다문화가정 및 자녀
중도입국 등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의 재혼으로 중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지원	제주	40	40	중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를 둔 가정(36가정)

(2) 자체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43개 자체사업에 투입된 지방비는 총 3,472.7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3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의 2012년 예산은 3,004.7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631.8백만원(26.6%)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영역은 2012년에 경기도에서 다문화보육 전문과정운영 사업에 130백만원을 투입하여 예산이 2011년 대비 170백만원(4,250%)이 증가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영역의 2012년 예산은 468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266백만원(131.7%)이 증가하였다.

표 VI-15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예산 증감을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A)	2012년 (B)	(B)-(A)	증감률(%)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강화	1,153	1,427	274	23.7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851	937	86	10.1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4	174	170	4,250
	학교부적응 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365	467	102	28.0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202	468	266	131.7	
합계		2,574	3,473	899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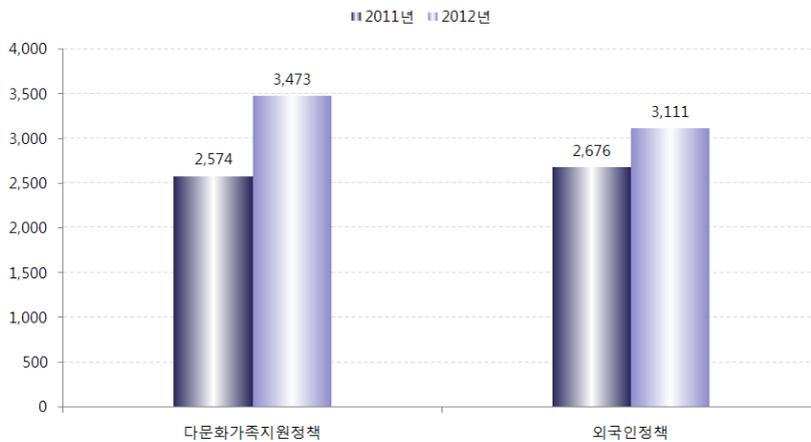
각 중점추진과제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과제의 예산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등의 순으로 예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중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 48개 자체사업의 예산은 2011년 2,676백만원에서 2012년에는 16.3% 증가한 3,111백만원이었다.

표 VI-16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자체 외국인정책 2012년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A)	2012년(B)	(B)-(A)	증감률(%)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676	3,111	435	16.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유사하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외국인정책에 동일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5,261.7백만원의 지방비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청소년 대상 관련 정책의 예산 증감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1) 사업내용의 중복성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분석해보면,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부처에 따라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간 사업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 모두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사업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이중언어교수요원으로 양성하여 각급 학교에 파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사업 역시 이중언어에 능통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세 개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그 추진체계만 상이할 뿐, 모두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VI-17 이중언어교육 관련 유사·중복 사업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예산(백만원)	
					2011	2012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 이중언어 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필요 - 이중언어교육과정 운영	여가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여가부→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00	1,839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확대	교과부	다문화가정 아동	교과부→시도교육청→대학교	650	1,000

표 VI-17 이중언어교육 관련 유사중복 사업(계속)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예산(백만원)	
					2011	2012
이중언어교육 환경 조성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이중언어에 능통한 다문화가 정 학부모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빈곤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폭넓은 언어교육 기회 제공	복지부	일반 저소득층 아동	복지부→시 도→시군구		별도 산출 불가

(2) 사업 내용의 편향성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어 및 학습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한국어기초학력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가족생활 부적응 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취학전 보육시설 또는 부모를 통한 언어습득의 기회 및 또래문화 경험 부족으로 언어발달지체’ 라고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시행계획에 제시된 이러한 현황자료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지능이 국내 저소득층 자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습의 측면에서도 이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낮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가정과 더불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역량’ 인 ‘이중언어’ 를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적절하게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그들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한국어교육 지원, 학업지원, 이중언어지원 등에 편향되어 추진되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발달의 초기단계동안 아동과 어머니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고, 이 시기동안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일시적으로 한국어 발달이 지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박주희, 남지숙, 2010;

권미지, 석동일, 2010 외 다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이 일반가정 아동들과 다르지 않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기 발달에서의 지연을 ‘언어장애’ 또는 ‘발달지체’ 라는 용어로 확대하여 진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발달초기에 언어적 발달지연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가정이 옳은 것이라면, 언어적 발달지연의 문제를 가지는 아동에게 이중언어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이중언어교육 방식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 고려 부족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수혜대상자들을 ‘다문화’ 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 고려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물론, 다문화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의 특성은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구성원의 출신국가,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개별 가정 배경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취약계층’ 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또는 편향된 관점은 앞서 기술한 이중언어교육, 언어지원, 학습지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 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자체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추진을 목표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 9,565백만원의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막대한 예산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이 지닌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 전체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 다문화가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평등하다고 보고 이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정부의 정책을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비다문화가정과 분리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대상이 생각하는 지원의 필요성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회통합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나,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각기 다른 수준에 처한 정책대상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계층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분류 대신 그들이 가진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형태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8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의 예

과제명	세부내용	부처명	대상	추진체계	예산(백만원)	
					2011	2012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추진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연령 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5만명) 	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취약전 아동	복지부→시도→시군구	11,551	9,565

(4) 청소년 대상 사업의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구축 및 유아 대상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직접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은 매우 부족하다. 중앙행정기관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중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나 교재개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대안학교 및 센터 운영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직접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총 10개이고, 그 중 유아 대상 사업을 제외하면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교사 운영지

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 자녀학습지도 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등 6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 역시 연령의 범위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아우르고 있거나, 중도입국 청소년 사업 중 일부, 또는 일반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모습 알아가기’ 캠프(경기),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강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전북), 다문화자녀 상담(경북),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전북), 서울 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서울) 등 청소년 대상의 보다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 역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기보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고,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사업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책사업은 시기의 적정성과 정책정도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정책의 시기를 놓치거나, 처방의 강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권기현, 2010).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대상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같은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유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한 시점에는 이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과정을 예측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은 미취학 및 아동기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책대상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초기 단계에 학습이나 언어지원이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동 후기부터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주 배경의 가정으로 인한 민족이나 국가, 외모 등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각 단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사업의 효과성 검증 미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효과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에 포함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원인원, 지원횟수, 기관의 개소 수, 프로그램의 개수 등의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는 거의 100%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업이 정책수혜대상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수행에 따라 대상자들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보면, 정책사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대비 성취한 달성도가 좋은지에 따라 좋은 정책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의 다문화가족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이중언어교수요원의 양성을 확대하고, 그 예산도 국비만 2011년 6억5천만원에서 10억으로 증액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하여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및 자긍심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는 이중언어강사를 16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영역이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영역으로 분류되고, 다문화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는 이중언어교수요원을 통해 이중언어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목표에 따르면 이중언어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고 변화해가는가와 같이 정책사업을 통해 수혜대상이 얻게 될 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양성 확대, 운영센터수의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성과를 산출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둔다면 사업의 효과가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선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파견된 이중언어교수요원이 사용하는 언어가 학생의 언어와 맞지 않아 다문화학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수요원

이 학생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언어교수요원이 다문화학생 대상이 아닌 전체 학생 대상의 특기적성교육 선생님의 역할을 하거나 문화소개 수업정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중언어강사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이중언어강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효과에 대한 고려와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없이 강사양성 확대에만 초점을 둔다면, 예산투입에 비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보호, 학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빈곤취약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빈곤취약계층 아동에게 폭넓은 언어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중 이중언어에 능통하고 우수한 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한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혜자인 아동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배우는 언어가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 외에 이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오히려 언어발달적 측면보다는 언어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 관련 정책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면서 이중언어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정책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같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판단 및 신규사업의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법의 조항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신속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및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법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각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규정보다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이라도 의무규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비(非)다문화가정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의해 지원여부나 지원수준을 조절해야 하는 지원의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지원 조항들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방향 및 지원 내용 모색 및 전달체계 확립 등 법령의 구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족의 발달주기별, 구성원의 발달영역별,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발달주기별, 발달영역별, 생애주기별 지원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작업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청소년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간에는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부처에서 동일한 추진체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각 부처별로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등 사업의 중복이 나타나고, 예산이 매 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

검증은 미비하므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별, 추진체계별 조율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여부 판단 및 지원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내용은 대체로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등에, 지원 대상의 연령은 초기 아동기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대상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모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집단 내 다양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요약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동일한 사업이 부처에 따라 중복적으로 다양한 형태 또는 추진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 부처 간 사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판단이 요구됨.
- 지원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등 학습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달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이 효과성 검토를 통해 지원방향을 재고해야 함.
- 다문화가족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족이라는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집단 내 다양성에 따라 다른 지원을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책대상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요구됨.

제 VII 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VII 장²⁰⁾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패널설문조사, 질적조사, 요구도조사, 다문화관련 법 및 정책분석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첫째로 패널설문조사는 2010년 예비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1차 본조사 2012년 2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03명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둘째로 구축된 패널 중 19개 가정을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로 FGI, 개방형 설문조사, 구조화된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되는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널 설문조사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패널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의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

20) 7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어머니의 노력, 자녀의 학교활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 등 가정의 사회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계되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일 때 자녀의 발달에서 긍정적이고, 주변화 유형일 때 가장 부정적이며,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 중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 등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성취동기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부모감독과 방임 모두 상승하였으며, 성취동기, 교사관계 적응,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 국가정체성 등의 변인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적조사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써 자라나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좀 더 성장하여 자아정체성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자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스스로에 대해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둘째,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부모나라의 중간쯤에 속하는 중간적 존재 또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평소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이중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자신들이 뭔가 다른 한국가정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들은 한국어가 아닌 부모나라 말을 이중언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나라 말이고 아동이므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제 2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한국아동들에 비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뭔가 다른 종류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다른 한국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문화’로 분류되고 원하지 않는 또는 청소년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매우 황당한 지원을 억지로 받으라고 하기도 하는 등의 이상한 취급에서 주류집단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다섯째,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3) 요구조사 연구결과

첫째, 시, 도청, 교육청 및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둘째,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 탈학교 청소년이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되, 일반 저소득층과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집단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일원화된 체계 내에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의 증감이 아니라 예산의 적정한 집행임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욕구와 필요에 맞게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함.

여섯째,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응답률이 높으나, 교사,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일곱째, 프로그램의 중복적 공급의 문제는 있으나 정작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복률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의미하며 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법, 정책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동일한 사업이 부처에 따라 중복적으로 다양한 형태 또는 추진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 부처 간 사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판단이 요구된다.

둘째, 지원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등 학습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달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이 효과성 검토를 통해 지원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족이라는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는 수평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집단 내 다양성에 따라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책대상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5)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언급하자면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이론적 측면의 의의

우선 첫째로 이론적 측면의 의의를 살펴보면, 기존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모두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부족하고 결핍된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서 일반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산 및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횡단적 일회적으로 일부 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전체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과잉일반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다양한 영역에서 종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지니는 문제적 측면들은 모든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다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임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화되고 일반적인 수준의 분석에서 한층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변인의 수준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 입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선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표준화된 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중립적 시각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실적 측면의 의의

둘째로 현실적인 측면의 의의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 및 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은 단순히 이들에 대한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가지게 될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지원정책의 방향 및 원칙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런 면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예산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제언

1) 다문화가족 청소년 정책의 기본 전제와 방향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전제와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전제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본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일반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 하여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iciency), 형평성(equity), 대응성(responsiveness), 적합성(appropriateness), 적정성(adequacy) 등의 정책평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정리 재편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전제와 방향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전제 1	분리가 아닌 통합
--------	-----------

우선 첫째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원정책 방향은 지금과 같이 분리가 아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질적조사, 요구조사 등의 결과에 근거해 보면 수요자들의 요구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 청소년들과의 통합 속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일반적인 청소년집단이 아닌 구분되는 존재로 정의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은 단지 지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첫 번째는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은 집단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합당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게 현재와 같은 구분짓기에 근거한 지원은 자신이 한국사회의 주류집단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소외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정체성 혼란을 사회가 부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한국의 일반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는 다문화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계층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집단에 대한 정책에 함께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학교, 민간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지다보니 고소득층의 경우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불만이 없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자신들의 자녀가 포함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똑같이 어려운데, 왜 한국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다문화만 지원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기본전제 2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	--------------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 내의 동일한 단위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중복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예산이 중복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3~2017)(여성가족부, 2012)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다섯 가지 계획의 방향과 청소년 대상 사업의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각 부처 사업들을 조율하고 일원화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사업의 내용이 다수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이재분(2012)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전체 부처의 사업을 일원화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협력을 유도하며 중복성을 방지하는 등 추진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012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중복과 예산낭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정책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을 관장,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전제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	--------------------------

세 번째 전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청소년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재구조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등 내용적 측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보면 현재 다문화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실의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에게는 불필요한 사업이며, 이중언어교실의 경우도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의 사업 내용도 실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이중언어 강사를 다문화가족 청소년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라 숫자만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흔한 중국어와 일본어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라고 분류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나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러시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몽골어를 배우는 등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교실과 같은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및 일자리 확충의 차원에서 기획된 측면도 있어서 실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도 억제로 진행되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이중언어강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중언어강사가 단순히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교육도 하고, 학교에 취업한 경우 학교 교사들이 시키는 잡무를 수행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 사업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각 사업의 목적 자체가 올바른지 등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을 재정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수요자의 욕구분석에 기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할 때 수요자의 욕구를 미리 조사하여 기획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만족도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정책을 정책수립방식, 전달체계, 지원정책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다문화가족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의 기본전제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본전제와 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전제 1	분리가 아닌 통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 1-1: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족법의 제 10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고, 2012년 2월 초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 18조²¹⁾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현 다문화가족지원법보다 확장된 대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나 이제는 단순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반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의 차이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졌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었다. 이는 더 이상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청소년역량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지원할 때 일반청소년과의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더 이상 한국사회의 주류집단이 아닌 소수집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21) 청소년복지법의 경우는 제 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원을 해도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중 높은 비율이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경우도 전체의 89.4%는 통계청 기준 한국의 평균소득 이하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적용해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적을 것이며 이 경우 역시 역차별의 문제나 ‘다문화’ 라는 것 자체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반적인 이유 외에 다문화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발달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와 관련 내용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통계청 기준 한국사회의 평균 이하인 1,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약 89.4%고 나타남.
질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아이들과 다른 범주로 분류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타인의 시선으로 인하여 차별적 정체감을 의식하게 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해 학부모 역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주변에서 듣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이유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때 일반 저소득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본전제 2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	--------------

다음으로 지금까지 빈번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전제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제언 2-1: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통계를 구축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학생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다르고, 학교에 다니다 중간에 중퇴한 청소년들의 통계수치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 역시 전국적인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정책안 구상과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유형별 통계를 정확하게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등으로 특성별로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부 작성시 확인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을 마련하여 통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에 따라 역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며 이를 일원화된 중심추진체계가 관리 및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책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탈학교 청소년 및 중도탈락청소년의 통계가 없어서 지원이 제한되고 있음

■ 정책제언 2-2: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시청, 도청,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지원프로그램들은 대다수가 유사하고 중복적이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제 중복지원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복지원율은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정책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많은 지원들이 일부 정보가 접근가능한 대상에게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부의 각 부처뿐 아니라 지방의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 간의 의견교류나 업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중복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본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원에 대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일원화된 체계로 전국에 내려 보내고 이를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지원의 실적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최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지원율은 30% 이하로 크게 높지 않음.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관련 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가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지원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 중복의 의미는 지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수 한정된 대상에게 몰리는 현상 때문이므로 지원의 양을 줄일 문제는 아님 ■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 한곳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연계체계가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각 부처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부처간 의견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람.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함. ■ 지자체와 다문화센터의 소통부족으로 사업이 중복됨.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 신청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대상자의 중복성을 걸러낼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 산하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산편성시 원스톱 창구로 지원되기 바람.
--	---

기본전제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	--------------------------

기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점차 분리보다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본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 3-1: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돈스럽게 추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교실과 같은 경우는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취학전 언어발달수준이 떨어지는 연령대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등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른 대상에게는 매우 부적합하다.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교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서 스스로 이중언어교육을

시키고 방학마다 어머니나라에 가서 연수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는 이중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특성이나 욕구를 무시한 채 다문화집단은 한국어를 못하고 이중언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무시한 채 제공되는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욕구조사를 통하여 실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지역 거주자에게 요구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발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출신국 등에 따라 발달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질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 다문화멘토링 등임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이중언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 현재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습지원, 학습지지원, 체험활동이나 공연관람, 물적지원 등 학교교육과 일회적인 체험학습에 머무르고 있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강화나 심리적응 등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도시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수립되고 추진 되는 일이 중요함.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집중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함. ■ 자아정체성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다문화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다문화교육관련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 ■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정책제언 3-2: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수립

위에서 제시한 대상자의 특성별 욕구별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수요자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한 경우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역량에 따라 수립되거나 좀 더 나은 경우는 자문회의나 관계자 모임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각종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진정한 발달을 위해 고민 했다기 보다는 다문화관련 예산을 쓰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의 용이성에 근거하여 추진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대상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 수렴절차를 필수적인 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목표달성도에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기관이나 인원의 증가를 목표로 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만족도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질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인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요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을 구상하는 경우는 극소수임

■ 정책제언 3-3: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원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각종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다문화가족에게 오히려 상처나 불편감을 주는 사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과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대책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과정이 목표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성과물이 목표에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사업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다문화전문가들이 사업평가를 하여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은 지속시키고 그 외의 사업들은 모두 중단하며, 다문화가족청소년의 발달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중단된 사업의 예산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업들 및 다문화가족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영역	2012년도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수업료 지원, 문화체험, 대학생멘토링 등에 대한 중복참여가 높음.
질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때문에 오히려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당하기도 함. ■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처음에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로 원래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모아놓고

	<p>구경거리를 만드는 등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 다문화멘토링, 학교교사 멘토링등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학부모들은 실효성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이중언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p>요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각 사회복지단체, 정치적 지원 등에 따른 무차별적 지원이 난무 ■ 이중언어교육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어 예산낭비로 느껴짐 ■ 다문화프로그램의 결과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기도 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함. ■ 공짜를 바라는 경향성이 점차 증가함. ■ 무료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중도탈락률이 높음. 따라서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음. ■ 본인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 다문화가정에 일방적 무의미한 지원은 필요치 않음.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써야 하는데 힘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관련법 정책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업들의 효과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사업의 평가 기준이 주로 연도별로 지원인원, 지원횟수, 기관의 개소수, 프로그램의 개수 등을 성과지표로 구성하고 있고,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되어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차원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중언어교수요원의 경우 숫자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중언어교육환경이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2006). **심리척도 핸드북Ⅲ**. 서울 : 학지사.
- 교육과학기술부(2011).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11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글로벌 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권기현(2010).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권미지, 석동일(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운처리에 관한 메타언어능력의 비교 분석. **언어치료연구**, 19(1), 1-23.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이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어판 표준화연구Ⅲ. **정신건강연구**, 2, 278-311.
- 김대일, 남재량, 류근관(2000). 한국노동패널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이탈자의 특성 연구. **노동경제논집**, 23, 1-33.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충래(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 보도자료.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지원법(2012.02.01 일부개정). <http://www.law.go.kr/>.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연구보고 2010-9.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난숙, 오경자(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 박상곤(2011). 가구종합패널관리방안.
- 박주희, 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200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법무부.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보도자료. 법무부.
- 법무부(2012).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보도자료.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9월 22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성한기(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99-148.
- 송인섭(1982). **자아개념 진단 검사 실시 요강**.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양계민, 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12). ‘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a). ‘**다문화가족정책 2012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b).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c)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a).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b).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pp.189-206.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3), 363-377.
- 이상호(2005).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1.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중(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분 (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제 4회 다문화가족포럼, 제 2차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전문가공청회 자료집, 29-39.
- 이춘재, 광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2011). **탈북 청소년 교육중단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재련(1987). **청소년 자아 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2010.07.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
- 정화실(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질병관리본부(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복지지원법(2012.02.01 전부개정). <http://www.law.go.kr/>.
- 최효미, 이상호, 성재민, 김기민, 배기준(2012). **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방법**.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정규(1977).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건강: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Abidin, R. P.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DD Health(2009).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erogatis, L. R., Ricklels, K., & Rock, A. F.(1976). The SCL-90-R and the MMPI :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280–289.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Fitzgerald, J., Gottschalk, P., and Moffitt, T. (1998). An analysis of Sample Attrition in Panel Dat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2), 251–299.
- Foucault, Michel.(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Hausman, J. & Wise, D. (1979). Attrition Bias in Experimental and Panel Data. *Econometrica*, 47, 455–492.
- Hill, D., H., & J. Willis, R. (2001). Reducing Panel Attri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6(3), 416–438.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 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y, 35(9)*, 1183–1192.
- Kim, Yoon Young(2009). Making National Subjects: Education and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Immigrants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America Psychologist, 40*, 770–779.
- Lynn, P. B., & Laurie, H. (2005). A Review of Methodological Research Pertinent to Longitudinal Survey Design and Data Collection, *ISER Working Paper Series*.
- Rosenberg, M. (1968).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dhu, D. S., & Asrabalah,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¹.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2009).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riandis, H. C., & M. J. Gelfand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 118–128.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cibasi, S. C. Choi S.,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239–250.
- Zabel, J. E. (1998). An Analysis of Attrition in the PSID and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2)*, 479–506.



부 록

부 록

부록의 내용은 설문조사에 활용된 문항 중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2010년도 보고서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과 2011년도 보고서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에 다시 제시하였고, 새로 추가된 척도도 각 부분의 마지막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1. 청소년용 설문 중 척도

■ 건강상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9) 문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질문하는 1개 문항을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04년부터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조사로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9)의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건강한 편이다’ 부터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까지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포래들과 비교해볼 때, 학생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건강하다’ 부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까지 4점으로 평정하도록 수정되었다.

■ 성취동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Yu & Yang(1994)의 성취동기 척도를 번역한 김의철·박영신(1999)의

성취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Yu & Yang(1994)의 성취동기 척도는 개인지향 성취동기 28문항과 사회지향 성취동기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의철·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는 각각 8문항을 발췌, 총 16개 문항을 한국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개인지향 성취동기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7이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의 자아개념척도를 변안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박난숙·오경자(1992)의 척도(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 2006 재인용)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자아수용, 자아존중, 자아신뢰 등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는데, 점수가 클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예비조사에서 '자아존중' 영역에 해당하는 15문항만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그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4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5이다.

■ 신체만족도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송인섭(1982)이 개발한 자아개념측정 질문지를 임재련(1987)이 요인분석하여 구성한 후,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를 수정한 한상분(1992)의 척도 중 신체자아개념 영역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본 척도는 신체에 대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 등과 같이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주류집단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지각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거한 후 총 6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를 '나는 내 얼굴이 호감을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 & King의 청소년용 The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척도를 재수정한 홍진주(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 총 4개 요인 중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으나,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 국가정체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한기(200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척도(SIS: Social Identity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체화척도는 소속집단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집단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문항인 집단자기존중감, 전반적으로 사회정체화에 따르는 인지 또는 신념을 나타내는 자기범주화, 소속집단에 정서적 또는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과 관련 있는 집단개입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집단개입과 관련된 4문항만을 추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개입 현상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원척도는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난이도를 수정하였고,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본 설문 의 ‘우리나라’ 를 ‘한국’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문화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충래,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로,

문화적 동화 혹은 문화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연구들에서 미주거주 한인교포나 소수민족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어온 방식이다. 이 척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과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 영화, 의복, 문화활동 참여 등과 미래 거주 및 진학국가, 취학희망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이해경·김혜원(2001)이 개발한 척도 중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괴롭힘의 정의(이춘재, 곽금주, 1999)에 따라 욕을 하거나 심하게 놀리기, 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기,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손상하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하기, 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기 등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 6개 항목들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를 질문하도록 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으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피해경험이 ‘한번도 없었다’ 부터 ‘거의 매일 있었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심하게 집적거리거나’ 를 ‘심한 괴롭힘이나’ 등으로 수정하였고, ‘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당했다’ 와 같이 주체가 불분명한 문항은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등으로 수정하여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7였다.

■ 가족의 지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 세 개 하위 요인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의 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난이도를 수정하였고, 예비조사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을 추출, 부하량이 낮은 1문항을 제거하여 문항수를 7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2였다.

■ 학교성적

학교성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설문문항 중 지난학기 성적에 관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으로, 원칙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각 과목에 대해 지난 학기 자신의 성적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 성적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삭제하였다.

■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사용한 '성적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이며,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 교사의 지지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 세 개 하위 요인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의 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난이도를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교사의 지지와 의미가 상이한 1개 요인 2문항을 제거하여 총 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지시문에서는 '담임선생님에 관한 질문' 이라고 했으나

문항에는 담임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누락되어 예비조사 시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 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본 조사에서는 각 문항의 '선생님' 을 '담임선생님' 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4였다.

■ 친구의 지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 세 개 하위 요인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의 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난이도를 수정하고, 예비조사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낮은 1문항을 제거하여 총 7문항으로 문항을 축소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5였다.

■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학교생활적응척도 중 학습활동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사용한 학습활동 문항은 기존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 재인용)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습활동은 학습에 대한 흥미 정도, 과제의 이행정도,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 자습, 학습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정화실, 2009). 본 척도는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이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학교생활적응척도 중 교우관계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사용한 본 척도는 기존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교우관계는 친화, 잘못에 대한 인식, 친구에 대한 배려, 가해, 신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정화실, 2009) 본 척도는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이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해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 중 교사관계 관련 5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예절관계, 자유로운 대화, 학교밖에서의 관계, 긍정적 감정표현, 교사에 대한 선호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정화실, 2009). 본 척도는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 자아탄력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권지은(2003)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ER: Ego-Resiliency Scale) 척도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권지은, 2003).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9였다.

■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일반가정 아동들과 비교하기 위해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감’ 문항을 ‘삶의 만족도’로 명명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결과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방임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문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43문항)로 원칙도에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 중 감독에 해당하는 3문항 사용하였다. 방임문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문항 중 방임에 해당하는 5문항과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위해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 연구진이 작성한 4문항 등 총 9문항 중 중복되는 두 개 문항을 제외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ADD Health의 문항을 변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72였다.

■ 우울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고 일반아동과 비교를 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 등(1976)의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일 등(1984)이 번안하여 대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이다. 그 중 우울척도는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의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원 검사에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 에서 '아주 심하다' 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위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 김경연(1999)이 개발한 척도의 수줍음행동 7문항 중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이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에서는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의 다문화수용성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는 총 5개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그런 편이다(2)' , '그렇지 않은 편이다(4)' ,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4)' 의 4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문항은 원래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팀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2. 어머니용 설문 중 척도

■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8)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는 등의 문항들이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정도를 보기에서 골라서 ‘거의 그렇지 않다(1)’ 에서 ‘항상 그렇다(5)’ 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일상적 스트레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 Lazarus와 Delongis 등(1988)의 척도를 김정희(1991)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이들’ ,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 ‘남편’ , ‘가족과 보내는 시간’ , ‘가족의 건강’ , ‘성문제’ , ‘친밀감 나누기’ , ‘가족에 대한 의무’ , ‘친구’ 등이 지난 1주일 동안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 까지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 정신적 신체적 건강

어머니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Cawte(1972)가 코넬의학지표검사에서 선별한 20개의 문항을 황정규(1977)가 다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두 가지 하위요인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건강’ 요인에는 ‘당신의 가슴 혹은 심장에 통증을 느끼십니까’ , ‘당신은 지속적인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 ‘당신은 자주 두통으로 고생하십니까’ 등 신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문항 6개가 포함되었고, ‘정신적 건강’ 에는 ‘당신은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사람들은 당신을 자주 괴롭히고 귀찮게 합니까’ , ‘당신은 종종 죽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등을 포함하는 문항 6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척도 상에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떤지 ‘매우 나쁘다(1)’ 부터 ‘매우 좋다’ 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 & Asrabalah(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의 36문항을 이승중(1995)이 한국특성에 맞게 번안하여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소래(1997)가 다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3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원래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두려움, 죄책감, 기타 등 7개 하위 요인의 총 33개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모든 문항을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문항수가 많아, 연구진 2명과 학계전문가 2명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지각된 차별감에서 3문항, 향수병에서 3문항, 기타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외국에서 이주한 집단에 적합하도록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에 포함된 내용은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한국사회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등이었고, 향수병요인에 포함된 내용은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리워다’ 등의 3 문항이었으며, 기타 ‘나는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자’, ‘나는 한국사회에 소속감을 느낀다’ 등의 총 4개 문항이었다.

■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신숙재(1997)의 부모효능감 척도의 9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는 등의 총 9개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총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이 타당화한 총 36개 문항 중 연구자 2명과 학계전문가 2명이 회의를 통하여 총 9문항을 선정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부모의 고통' 12문항,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아동의 어려운 특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어려운 특성보다는 부모의 고통과 부모-아동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더 많이 관련된다는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두 개의 요인 중에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각 요인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합의한 문항을 안면타당도에 의해 각각 선정하였다. 우선 '부모의 고통' 요인 중에서는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 '나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의해 얽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었다' ,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 '아이가 생김으로써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등의 총 5문항을 선정하였고, '부모-아동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에서는 '나는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거의 항상 받는다' ,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아이가 나의 수고에 대해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 '나는 나 자신이 비교적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등의 총 4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 개인주의 집단주의(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Singelis 등(2009)의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로 각 요인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는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

로보다는 자율적(self-reliant)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나 자신을 남보다 탁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경우를 말한다.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는 자신의 독특성과 개인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다.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는 사람들을 서로 비슷하다고 여기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 간의 지위격차나 위계성, 사회적 권위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에 비해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는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며, 서로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성이 강하다(Triandis & Gelfand, 1998).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나 문화권에 따라서 보다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척도의 문항은 4가지 유형마다 8개 문항씩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 문화적응 유형(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문화적응 유형은 Barry(2001)의 동아시아인의 문화적응척도(EAAM)를 사용하였는데,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적응하는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총 29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척도는 네 가지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화를 측정하는 문항이 8개, 분리를 측정하는 문항이 7개, 통합 문항이 5개, 주변화 측정문항이 9개였다.

■ 다문화수용성(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은 안상수 외(2012)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정의한 다문화수용성이란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민무숙 외(2011)의 척도를 보완 수정한 것으로 원래 다양성 척도와 관계성 척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편성차원을 추가시켰다. 다양성 축이란 나와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그들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나아가 차별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의 가치 등을 우리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관계성의 축은 다른 인종문화집단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려는 데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가의 의물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에 연관된 축으로서, 이민자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이들 집단과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보편성은 외국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 혹은 문화적 가치의 인정에 있어서 출신지역이나 인종적 배경에 차이를 두지 않고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추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적 경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구성개념이다. 각 차원은 다시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는데, 다양성 차원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로 나누어지고, 관계성차원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로 나누어지며, 보편성차원은 이중적평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 척도로 나누어진다. 척도의 문항은 총 35개 문항으로 각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 까지 6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investigat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versus non-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versus non-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raw appropriate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four different parts of a study were executed. First, we administered longitudinal and quantitative panel survey, and traced down the developmental path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this, we investigate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 itself. Second, a qualitative study was also carried out and analysed deep psychosocial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the quantitative survey was not able to grasp. Third, the study examined needs of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adolescents, by the administration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open-ended survey,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to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eir parents, public service personnel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ism, education officers, and field specialists. Fourth, we analyzed current law and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erived improvements of that laws and polic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blems supposedly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not appeared invariably in all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problems implied the matters of 'class'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groups. In the path by which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growing up with their identification with Koreans, classified supports based on group stereotypes 'multicultural families' may produce negative results such as discomfort and unpleasantness in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Finally, we found that the supports unfulfilling the need could waste the related funds and used administrative forces inefficiently. Therefore, the current study proposed that the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pursue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rather than segreg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be administered efficiently with a unified implementation system, and be restructured as support policies that meet the need and create effect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longitudinal panel research, stereotype, social integrat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시과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0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인 쇄 2012년 12월 26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347-7 93330